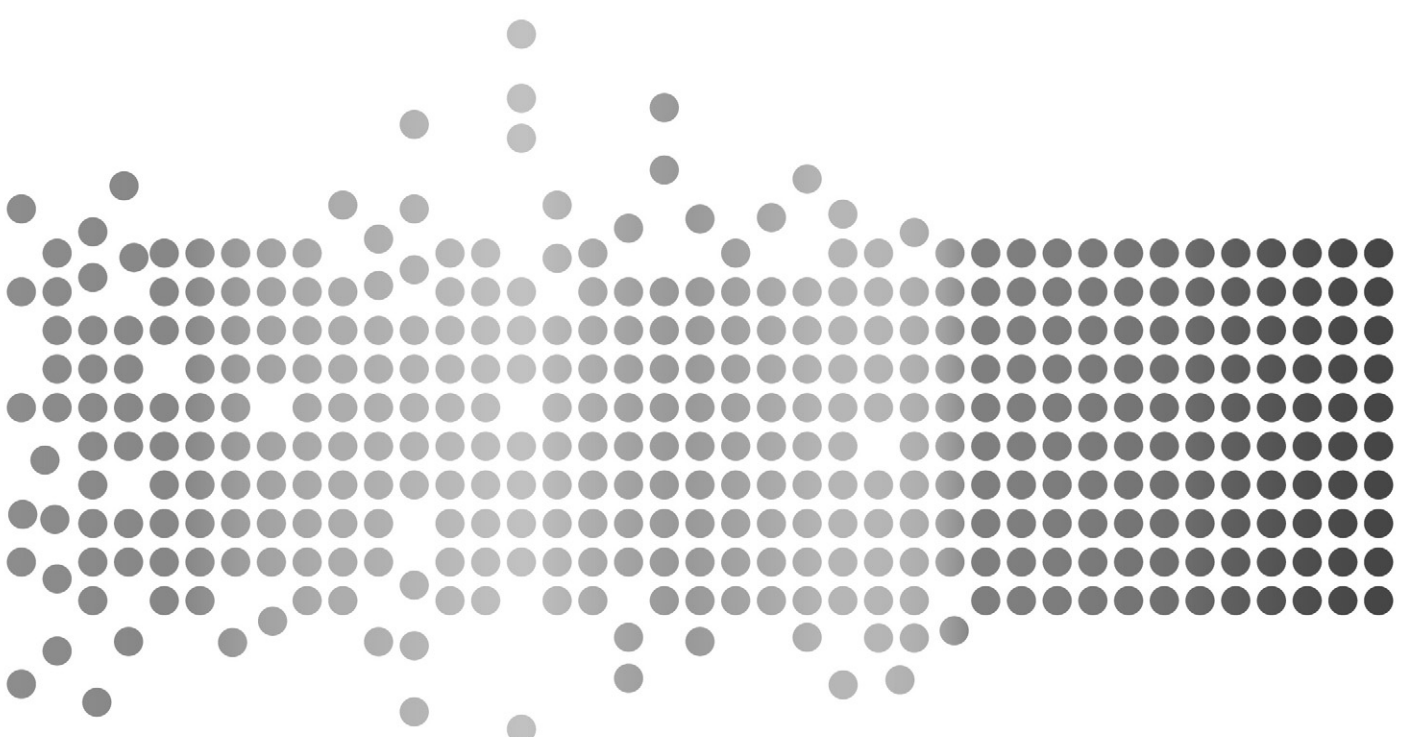


여성 결혼이민자 취업지원을 위한 조사연구

김승권 · 조애저 · 민현주



보건복지가족부 · 여성부 · 법무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머리말

최근 한국사회는 다문화, 다인종 사회로 이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가속화 될 것이라는 점에 이견이 없다. 특히, 1990년대 중반부터 증가하기 시작한 국제결혼은 2000년대 이후 급증하기 시작하였고, 이는 주로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 간에 이루어져 결혼 후 한국 내에 정착하여 살고 있는 경향을 보인다.

이와 같은 다문화가족의 증가는 정책적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정부차원의 소규모 실태조사가 두 차례 이루어졌으며, 최근에는 대부분의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정책방안을 마련하기 시작하였다. 그렇지만 이러한 노력은 다문화가족의 전체를 아우르는 접근이 아니라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하는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주로 이루어져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제정하여 전국 규모의 「다문화가족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수행토록 하였으며, 이에 근거한 첫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금번 조사는 다문화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접근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지며, 작성의 용이함을 위하여 10개 국어로 조사표를 개발하였다. 조사원이 직접 다문화가족의 가구를 방문하여 조사표를 배부하고, 자기기재식으로 작성된 조사표를 회수하였다.

보건복지가족부, 법무부, 여성부가 공동으로 추진한 본 조사는 복권기금의 지원을 받아 전수조사로 실시될 수 있었다. 법적 근거에 의하여 처음 시도된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는 보건복지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과, 여성부 인력개발기획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사회통합과,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의 적극적인 협조로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다. 본 조사연구는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의 제3과제로서, 특히 여성 결혼이민자에 대한 바람직한 취업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례조사가 추가되어 심층 분석이 이루어졌다.

본 조사연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승권 박사의 주도 하에 원내·외 연구진에 의

하여 완성되었다. 조사표 개발과정에서부터 조사원 교육, 조사관리, 조사자료 분석, 보고서 집필 등 전체 과정에서 노력을 아끼지 않은 연구진에게 감사드린다. 연구진의 구체적인 연구 및 조사수행과 보고서 집필을 위한 분담내역은 다음과 같다.

연구총괄 (김승권)

조사기획 및 조사관리 (김승권·김유경·조애저)

자료 오류수정 및 가중치 산출 (이연희·손창균·최준영 등)

제1장 서론 (김승권)

제2장 한국의 다문화가족 규모 추정과 조사완료가구 및 가중치 산출·적용 (김승권)

제3장 여성 결혼이민자의 취업에 관한 선행연구 및 국내·외 정책동향 (김승권·민현주)

제4장 여성 결혼이민자의 일반현황 및 한국어 능력(김승권)

제5장 여성 결혼이민자 가족의 주거 및 경제상태와 삶의 만족도(김승권)

제6장 여성 결혼이민자의 취업실태 (조애저)

제7장 여성 결혼이민자의 직업훈련 및 취업욕구 (조애저)

제8장 여성 결혼이민자의 취업욕구 및 지원을 위한 사례조사 (민현주)

제9장 여성 결혼이민자의 취업지원을 위한 정책제언 (전체 연구진)

본 연구의 수행과정에서 현지조사를 위해 행정적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신 보건복지가족부, 각 시·도 및 시·군·구 관계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특히, 어려운 여건 하에서 조사수행에 만전을 기한 전국다문화가족협회 정만길 회장을 비롯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과 조사를 지도하고 직접 조사에 참여한 센터 직원 및 방문지도사분들께도 지면을 빌어 심심한 사의를 표하고,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조사를 수행해 주신 통·반장, 상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린다. 또한 사례조사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준 여성인력개발센터 관계자와 사례조사에 직접 참여해 주신 결혼이민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를 검독하여 준 당원의 이삼식 연구위원과 박세경 부연구위원에게도 감사드리며, 자료 오류수정 및 가중치 산출을 위해 애써 준 이연희 팀장, 손창균 박사, 최준영 연구보조원 등 많은 분들에게도 감사드린다.

2010년 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김 용 하

요약	1
제1장 서론	15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5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6
제2장 한국의 다문화가족 규모 추정과 조사완료가구 및 가중치 산출·적용 ...	23
제1절 한국의 다문화가족 규모 추정	23
제2절 본 연구에서의 조사완료 가구수 및 주요 특성	28
제3절 가중치 산출 및 적용결과와 통계 해석시 유의사항	31
제3장 여성 결혼이민자의 취업에 관한 선행연구 및 국내·외 정책동향	41
제1절 취업에 관한 한국의 선행연구	41
제2절 취업에 관한 국내·외 정책동향	43
제4장 여성 결혼이민자의 일반현황 및 한국어 능력	53
제1절 여성 결혼이민자의 입국시기·목적과 출신국가	53
제2절 여성 결혼이민자 가족 부부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58
제3절 여성 결혼이민자의 거주지역 및 한국 거주기간	63
제4절 여성 결혼이민자의 국적취득 및 체류자격	66
제5절 여성 결혼이민자의 한국어 능력	70
제5장 여성 결혼이민자 가족의 주거 및 경제상태와 삶의 만족도	79
제1절 여성 결혼이민자 가족의 주거실태	79
제2절 가구소득 및 주관적 경제생활 수준	86
제3절 여성 결혼이민자의 삶의 만족도	94

제6장 여성 결혼이민자의 취업실태	99
제1절 분석대상의 일반적 특성	99
제2절 여성 결혼이민자의 취업실태	102
제3절 근무환경 실태	128
제4절 비취업 이유	142
제5절 직업훈련 참여경험	145
제7장 여성 결혼이민자의 직업훈련 및 취업욕구	151
제1절 직업훈련 욕구	151
제2절 취업욕구	156
제8장 여성 결혼이민자의 취업욕구 및 지원을 위한 사례조사	165
제1절 사례조사의 개요	165
제2절 취업경험 및 취업욕구	168
제9장 여성 결혼이민자의 취업지원을 위한 정책제언	187
제1절 취업 가능 직종 개발 및 다양화	187
제2절 취업교육 개선방안	194
참고문헌	199

표 목차

〈표 1- 1〉 조사내용	17
〈표 1- 2〉 다문화가족실태조사 대상가구 분포	18
〈표 2- 1〉 행정안전부의 다문화가족 현황 통계	24
〈표 2- 2〉 다문화가족실태조사 대상가구의 모수추정 결과	24
〈표 2- 3〉 다문화가족정책상 다문화가족수와 본 실태조사에서 확인된 다문화가족수	25
〈표 2- 4〉 본 실태조사에서 확인된 다문화가족의 지역별 분포	26
〈표 2- 5〉 본 실태조사에서 확인된 결혼이민자의 시·도별 남녀수 및 성비	27
〈표 2- 6〉 본 실태조사에서 확인된 결혼이민자의 성별 지역분포	27
〈표 2- 7〉 본 실태조사에서 확인된 다문화가족의 시·도별, 출신국별 분포	28
〈표 2- 8〉 지역별 조사완료가구 및 완료율	29
〈표 2- 9〉 조사완료 결혼이민자의 지역별 남녀수	30
〈표 2-10〉 국적별 조사완료가구 및 완료율	30
〈표 2-11〉 조사완료 결혼이민자의 시·도별, 출신국별 인원	31
〈표 2-12〉 무응답 사후조정을 위한 분류기준	32
〈표 2-13〉 모집단 현황	33
〈표 2-14〉 실태조사 결과	34
〈표 2-15〉 가중치 적용 결과	36
〈표 3- 1〉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취업교육 및 취업연계 현황	46
〈표 3- 2〉 취업교육 프로그램	48
〈표 3- 3〉 대통령지시사항 추진계획	48
〈표 4- 1〉 여성 결혼이민자의 특성별 입국년도	54
〈표 4- 2〉 여성 결혼이민자의 출신국별 입국년도	54
〈표 4- 3〉 여성 결혼이민자의 특성별 입국목적	56
〈표 4- 4〉 여성 결혼이민자의 출신국별 입국목적	57
〈표 4- 5〉 여성 결혼이민자의 출신국	57
〈표 4- 6〉 여성 결혼이민자의 입국연도별 출신국	58
〈표 4- 7〉 출신국별 여성 결혼이민자의 연령	59

〈표 4- 8〉 여성 결혼이민자 연령별 배우자의 연령분포	59
〈표 4- 9〉 여성 결혼이민자 및 배우자의 평균 연령	60
〈표 4-10〉 여성 결혼이민자의 교육수준	60
〈표 4-11〉 여성 결혼이민자의 출신국별 교육수준	61
〈표 4-12〉 여성 결혼이민자 교육수준별 배우자의 교육수준 분포	61
〈표 4-13〉 여성 결혼이민자의 혼인상태	62
〈표 4-14〉 여성 결혼이민자의 체류기간별 혼인상태 분포	62
〈표 4-15〉 여성 결혼이민자의 출신국별 혼인상태	63
〈표 4-16〉 여성 결혼이민자의 거주지역	63
〈표 4-17〉 여성 결혼이민자의 출신국별 거주지역	63
〈표 4-18〉 여성 결혼이민자의 특성별 한국 거주기간	65
〈표 4-19〉 여성 결혼이민자의 출신국별 한국 거주기간	65
〈표 4-20〉 여성 결혼이민자 특성별 한국 국적 취득여부 및 향후 취득계획	67
〈표 4-21〉 여성 결혼이민자의 출신국별 한국 국적 취득여부 및 향후 취득계획	68
〈표 4-22〉 여성 결혼이민자의 특성별 한국 국적 미취득자의 현 체류자격	69
〈표 4-23〉 여성 결혼이민자 출신국별 한국국적 미취득자의 현 체류자격	70
〈표 4-24〉 여성 결혼이민자 특성별 한국어 말하기 능력	71
〈표 4-25〉 여성 결혼이민자 출신국별 한국어 말하기 능력	72
〈표 4-26〉 여성 결혼이민자 특성별 한국어 읽기 능력	73
〈표 4-27〉 여성 결혼이민자 출신국별 한국어 읽기 능력	74
〈표 4-28〉 여성 결혼이민자 특성별 한국어 쓰기 능력	75
〈표 4-29〉 여성 결혼이민자 출신국별 한국어 쓰기 능력	76
〈표 5- 1〉 여성 결혼이민자의 특성별 집 소유형태	80
〈표 5- 2〉 여성 결혼이민자의 출신국별 집 소유형태	81
〈표 5- 3〉 여성 결혼이민자의 특성별 주거형태	82
〈표 5- 4〉 여성 결혼이민자의 출신국별 주거형태	83
〈표 5- 5〉 여성 결혼이민자의 특성별 거주환경	84
〈표 5- 6〉 여성 결혼이민자의 출신국별 거주환경	85
〈표 5- 7〉 여성 결혼이민자의 특성별 월평균 가구소득	88
〈표 5- 8〉 여성 결혼이민자의 출신국별 월평균 가구소득	88

〈표 5- 9〉 여성 결혼이민자의 특성별 모국가족과 다른 모국가족과의 주관적 경제생활 수준 비교	90
〈표 5-10〉 여성 결혼이민자의 출신국별 모국가족과 다른 모국가족과의 주관적 경제생활 수준 비교	91
〈표 5-11〉 여성 결혼이민자의 특성별 다른 한국가족과 비교한 주관적 경제생활 수준	92
〈표 5-12〉 여성 결혼이민자의 출신국별 다른 한국가족과 비교한 주관적 경제생활 수준	93
〈표 5-13〉 여성 결혼이민자의 출신국별 모국가족 및 현재 본인가족의 다른 모국가족 및 한국가족과의 주관적 경제생활 수준 변화	93
〈표 5-14〉 여성 결혼이민자의 특성별 현재의 삶에 대한 만족도	95
〈표 5-15〉 여성 결혼이민자의 출신국별 현재의 삶에 대한 만족도	95
〈표 6- 1〉 20~44세 여성 결혼이민자의 거주지역별 인구·사회학적 특성	100
〈표 6- 2〉 20~44세 여성 결혼이민자의 거주지역별 출신국	101
〈표 6- 3〉 20~44세 여성 결혼이민자 거주지역별 시·도별 분포	102
〈표 6- 4〉 20~44세 여성 결혼이민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본국과 한국에서의 취업률	103
〈표 6- 5〉 20~44세 여성 결혼이민자의 출신국별 본국과 한국에서의 취업률	104
〈표 6- 6〉 20~44세 여성 결혼이민자의 시·도별 본국에서의 취업률 및 현 취업률	105
〈표 6- 7〉 20~44세 여성 결혼이민자의 현 직종별 본국에서의 직종별 분포	107
〈표 6- 8〉 20~44세 여성 결혼이민자의 특성별 현 취업유형	109
〈표 6- 9〉 20~44세 여성 결혼이민자의 출신국별 현 취업유형	110
〈표 6-10〉 20~44세 여성 결혼이민자의 시·도별 현 취업유형	110
〈표 6-11〉 20~44세 여성 결혼이민자의 특성별 취업 직종	112
〈표 6-12〉 20~44세 여성 결혼이민자의 출신국별 취업직종	113
〈표 6-13〉 20~44세 여성 결혼이민자의 시·도별 취업직종	114
〈표 6-14〉 20~44세 여성 결혼이민자의 특성별 종사상 지위	115
〈표 6-15〉 20~44세 여성 결혼이민자의 출신국별 종사상 지위	117
〈표 6-16〉 20~44세 여성 결혼이민자의 시·도별 종사상 지위	118
〈표 6-17〉 20~44세 여성 결혼이민자의 지역별 취업여부별 배우자 취업여부	119
〈표 6-18〉 20~44세 여성 결혼이민자의 연령별 취업여부별 배우자 취업여부	119
〈표 6-19〉 20~44세 여성 결혼이민자의 특성별 맞벌이 여부	121
〈표 6-20〉 20~44세 여성 결혼이민자의 출신국별 맞벌이 여부	122
〈표 6-21〉 20~44세 여성 결혼이민자의 시·도별 맞벌이 여부	122
〈표 6-22〉 20~44세 여성 결혼이민자의 직종별 배우자 직종	123

〈표 6-23〉	20~44세 여성 결혼이민자의 종사상 지위 및 배우자 종사상 지위	124
〈표 6-24〉	20~44세 여성 결혼이민자의 특성별 취업자의 구직경로	126
〈표 6-25〉	20~44세 여성 결혼이민자의 출신국별 취업자의 구직경로	127
〈표 6-26〉	20~44세 여성 결혼이민자의 시·도별 취업자의 구직경로	128
〈표 6-27〉	20~44세 여성 결혼이민자의 특성 및 취업유형별 주당 평균 근무시간	129
〈표 6-28〉	20~44세 여성 결혼이민자의 출신국 및 취업유형별 주당 평균 근무시간	130
〈표 6-29〉	20~44세 여성 결혼이민자의 시·도 및 취업유형별 주당 평균 근무시간	130
〈표 6-30〉	20~44세 여성 결혼이민자의 취업유형별 직종별 주당 평균 근무시간	131
〈표 6-31〉	20~44세 여성 결혼이민자의 특성별 월평균 근로소득	132
〈표 6-32〉	20~44세 여성 결혼이민자의 출신국별 월평균 근로소득	133
〈표 6-33〉	20~44세 여성 결혼이민자의 시·도별 월평균 근로소득	133
〈표 6-34〉	20~44세 여성 결혼이민자의 직종별 월 평균 근로소득	134
〈표 6-35〉	20~44세 여성 결혼이민자의 특성별 취업에서의 가장 어려운 점	136
〈표 6-36〉	20~44세 여성 결혼이민자의 출신국별 취업에서의 가장 어려운 점	137
〈표 6-37〉	20~44세 여성 결혼이민자의 시·도별 취업에서의 가장 어려운 점	138
〈표 6-38〉	20~44세 여성 결혼이민자의 직종별 취업에서의 가장 어려운 점	139
〈표 6-39〉	20~44세 여성 결혼이민자의 특성별 노동조합 가입률	140
〈표 6-40〉	20~44세 여성 결혼이민자의 출신국별 노동조합 가입률	141
〈표 6-41〉	20~44세 여성 결혼이민자의 시·도별 노동조합 가입률	141
〈표 6-42〉	20~44세 여성 결혼이민자의 특성별 비취업 이유	143
〈표 6-43〉	20~44세 여성 결혼이민자의 출신국별 비취업 이유	144
〈표 6-44〉	20~44세 여성 결혼이민자의 시·도별 비취업 이유	145
〈표 6-45〉	20~44세 여성 결혼이민자의 특성별 직업훈련 참여 경험률	146
〈표 6-46〉	20~44세 여성 결혼이민자의 출신국별 직업훈련 참여 경험률	147
〈표 6-47〉	20~44세 여성 결혼이민자의 시·도별 직업훈련 참여 경험률	147
〈표 7- 1〉	20~44세 여성 결혼이민자의 특성별 직업훈련 받을 의향	152
〈표 7- 2〉	20~44세 여성 결혼이민자의 출신국별 직업훈련 받을 의향	153
〈표 7- 3〉	20~44세 여성 결혼이민자의 시·도별 직업훈련 받을 의향	153
〈표 7- 4〉	20~44세 여성 결혼이민자의 특성별 향후 취업을 위한 희망 직업교육	154
〈표 7- 5〉	20~44세 여성 결혼이민자의 출신국별 향후 취업을 위한 희망 직업교육	155

〈표 7- 6〉 20~44세 여성 결혼이민자의 시·도별 향후 취업을 위한 희망 직업교육	156
〈표 7- 7〉 20~44세 여성 결혼이민자의 특성별 향후 취업의향	157
〈표 7- 8〉 20~44세 여성 결혼이민자의 출신국별 향후 취업의향	158
〈표 7- 9〉 20~44세 여성 결혼이민자의 시·도별 향후 취업의향	158
〈표 7-10〉 20~44세 여성 결혼이민자의 특성별 향후 필요한 지원	160
〈표 7-11〉 20~44세 여성 결혼이민자의 출신국별 향후 필요한 지원	161
〈표 7-12〉 20~44세 여성 결혼이민자의 시·도별 향후 필요한 지원	161
〈표 8- 1〉 심층면접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166
〈표 8- 2〉 심층면접 조사내용	168
〈표 8- 3〉 여성 결혼이민자 취업 및 창업희망직종: 심층면접 결과	182
〈표 9- 1〉 산업체들이 보는 여성 결혼이민자의 취업 적합분야	189
〈표 9- 2〉 여성 결혼이민자의 취업적합분야와 직종	191
〈표 9- 3〉 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 적합한 창업 업종과 권고사항	193
〈표 9- 4〉 취업연계가 높은 프로그램	195

그림 목차

[그림 1-1] 조사수행체계	19
[그림 3-1] 보건복지가족부의 생애주기별 정책과제	44
[그림 6-1] 본국에서의 취업여부 및 현 취업여부	105

요약

1. 조사개요

- 본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인 실태조사는 보건복지가족부, 여성부, 법무부 등 3개 부처 합동으로 추진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태조사를 주관

- 실태조사는 결혼이민자 전수인 154,333명을 대상으로 실시
 - 1차 조사는 2009년 7월 20일~9월 20일까지 2개월간 실시
 - 2차 조사는 1차 조사결과 부진한 8개 지역을 대상으로 2009년 10월 21일~10월 31일까지 11일간 실시

- 조사방법은 조사원의 가구방문에 의한 응답자 자기기재식으로 조사
 - 조사원을 관리하는 슈퍼바이저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방문지도사와 공무원으로 구성되었으며 160명을 활용
 - 조사원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방문교육지도사, 통번장, 희망근로자 등 약 3,000명이 투입

- 본 실태조사에서는 결혼이민자 전수인 154,333명 중 85.3%인 131,702가구에 대하여 확인이 이루어졌음.
 - 확인된 다문화가족은 경기도(24.3%)에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었고, 다음은 서울특별시(21.3%)이었으며,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에 51.9%가 거주하였음.

- 결혼이민자의 남녀 성비는 9.6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현저히 많았으며, 지역별로 큰 격차를 보였음.
 - 여성 결혼이민자 100명에 남성 결혼이민자는 9.6명으로 약 10:1의 비율을 나타내는 것임.

- 본 실태조사에서 확인된 결혼이민자의 출신국은 중국 조선족이 30.4%로 가장 많았음.
 - 다음은 중국 한족 등 기타 민족이 27.3%, 베트남 19.5% 등의 순이었음.

- 본 실태조사에서 확인된 결혼이민자의 55.9%인 73,669가구에 대하여 개인조사가 완료되어 비교적 높은 응답률을 보였음.
 - 응답률은 경북이 76.3%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전북의 74.4%이었음.
 - 응답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대전 41.2%이었고, 다음은 서울 41.4%이었음.

II. 여성 결혼이민자의 일반현황 및 한국어 능력

- 여성 결혼이민자의 입국년도는 2005년 이후가 55.7%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2000~2004년 26.3%로 2000년대 입국자가 82.0%를 차지하였음.
 - 2005년 이후 입국한 여성 결혼이민자는 캄보디아 출신 95.6%, 베트남 출신 87.6%, 한족 등(조선족 제외) 출신 67.9%, 몽골 출신 55.7%, 필리핀 출신 44.7% 등이었음.
 - 중국 조선족과 일본 출신의 여성 결혼이민자는 1995년부터 증가하였음.

- 여성 결혼이민자의 거주지역은 동 지역이 70.3%, 읍·면 지역 29.7%로 주로 도시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음.

- 여성 결혼이민자의 거주기간은 2~5년 미만이 36.2%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5~10년 미만 24.6%이었음.

- 여성 결혼이민자의 연령분포는 성별에 따라 현저한 차이를 보였으며, 특히 여성 결혼이민자는 젊은 연령층이 많았음.
 - 여성 결혼이민자 중 24세 이하는 21.1%이었고, 25~29세는 20.2%이었음.

- 여성 결혼이민자의 평균연령은 성별에 따라 현저히 상이하였으며, 배우자와의 연령 차이도 매우 다른 양상을 보였음.
 - 여성 결혼이민자의 평균연령은 33.3세, 한국인 남편의 평균연령은 43.2세로 약 10세의 격차가 있었음.
 - 여성 결혼이민자 중 부인과 남편의 연령차이는 캄보디아가 17.5세로 가장 컸으며, 다음은 베트남 17.0세이었음.

- 여성 결혼이민자의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42.3%, 대학 이상 20.6%이었음.
 - 초등학교 이하 여성 결혼이민자의 배우자 중 51.0%가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나 격차가 매우 심하였음.

- 여성 결혼이민자의 한국 국적 취득률은 31.8%임.
 - 한국 국적 미취득자의 체류자격은 한국인 배우자 92.5%, 영주권 취득 6.2% 등이었음.

- 한국어 능력은 전반적으로 보통 이상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말하기’와 ‘읽기’ 보다는 ‘쓰기’가 다소 서툴렀음.
 - 한국어 말하기와 읽기는 ‘(매우) 잘한다’가 각각 36.2%, 37.4%, ‘(매우) 서툴다’는 각각 24.0%, 23.8%이었음.
 - 한국어 쓰기를 ‘(매우) 잘한다’ 32.6%, ‘(매우) 서툴다’ 31.1%로 말하기 및 읽기보다는 상대적으로 능력이 낮았음.

III. 여성 결혼이민자 가족의 주거 및 경제상태와 삶의 만족도

- 여성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이 살고 있는 집의 소유율은 낮았고, 아파트와 연립주택에 많이 살고 있었으며, 거주환경은 보통 또는 양호가 대부분이었음.
 - 여성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의 집 소유형태는 전세·월세 40.4%, 본인·배우자 소유 33.7%, 배우자 부모 소유 20.8%로 소유율이 낮았음.
 - 여성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의 주거형태는 아파트가 31.9%로 가장 많았으며, 거주환경은 ‘보통’ 42.8%, ‘(매우) 양호함’ 39.5%, ‘(매우) 열악함’ 17.6%이 있었음.
- 여성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의 가구소득은 전반적으로 낮았으며, 빈곤층이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월평균 가구소득은 100~200만원 미만이 38.6%로 가장 많았고, 저소득층인 100만원 미만이 21.5%나 되었으며, 고소득층인 500만원 이상은 1.8%에 불과하였음.
- 여성 결혼이민자의 현재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매우)만족’이 57.0%임.
 - 반대로 한국생활에 대한 불만은 여성 결혼이민자의 6.7%에 불과하였음.

IV. 여성 결혼이민자의 취업실태

- 20~44세 여성 결혼이민자는 101,562명으로 이 중 약 69%인 70,035명은 동 지역에 거주하고 있음.¹⁾
 - 출신국별로는 중국 한족 및 기타 소수민족 출신이 28.6%로 가장 많았고, 다음

1) 본 연구에서는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서 파악된 전체 다문화가족 중 여성 결혼이민자에 국한하여 분석하였으며, 특히 취업 및 직업훈련 집중 연령으로 판단되는 20~44세 연령층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음.

은 중국 조선족 출신이 25.3%로 중국출신이 53.9%로 많았음.

- 현재 취업중인 경우는 33.6%로 본국에서 취업한 비율인 74.3%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함
 - 자녀를 가진 경우는 68.0%, 미취학자녀를 가진 경우는 51.2%이었음.

- 결혼이민 이전 본국에서의 취업률은 일본 출신여성 92.9%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태국 출신여성 80.7%, 필리핀 출신여성 80.4%, 중국 조선족 79.0% 등의 순이었음.
 - 현 취업률은 북미·호주·서유럽 출신여성 56.9%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중국 조선족 출신여성 44.7%, 필리핀 출신여성 40.5% 등의 순이었음.
 - 결과적으로 본국에서의 취업률과 비교하여 현재 취업률이 가장 큰 폭으로 낮아진 출신국은 일본(-63.7%), 몽골(-47.7%), 캄보디아(-47.3%), 태국(46.0%), 중국 한족 및 기타 소수민족(43.3%) 등의 출신여성이었음.

- 20~44세 여성 결혼이민자 중 본국에서 취업하였고, 현재도 취업하고 있는 비율은 26.8%이었고, 본국에서 취업하였으나 현재 비취업상태에 있는 여성은 47.6%이었음.
 - 반면에 본국에서 비취업 상태에 있었으나 현재 취업하고 있는 여성은 6.9%로 매우 낮았고, 결혼이민 전후 모두 비취업인 상태에 있는 여성은 18.7%이었음.

- 현 직종별 본국에서의 직종은 대부분이 본국에서의 직종과 동일한 직종에 종사하고 있어 취업직종 간의 연계성은 높은 편임.
 - 현 직종과 본국에서의 직종이 동일한 경우는 서비스직 36.1%, 판매직 30.2%, 사무직 47.1%, 전문가 및 관련직 44.8% 등이었음.
 - 심층면접 결과에서도 설문조사 결과에서와 마찬가지로 본국에서의 경험을 한국에서 발전시키고 싶은 욕구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음.
 - 다만, 학력수준이 낮을수록 본국에서의 직종경험과는 상관없이 현재 임금수준이 높은 직종을 우선적으로 선호하는 경향이 두드러졌음.

- 20~44세 여성 결혼이민자의 한국에서의 취업여부별로 본 취업유형은 현 취업자 33.6%, 과거 취업경험자 22.2%, 현재, 과거 모두 비취업자 44.2%이었음.
 - 출신국별로는 중국 조선족과 북미·호주·서유럽을 제외한 출신국 모두에서 현재, 과거 모두 비취업인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특히 캄보디아(74.9%), 베트남(64.5%)이 높았음.

- 20~44세 여성 결혼이민자의 현 취업률은 33.6%로 이들의 직종은 서비스직이 가장 많았고(27.7%), 기타 단순노무직(17.4%), 전문가 및 관련직 (15.4%) 등의 순이었음.
 - 출신국별로는 중국 조선족, 한족 등, 캄보디아는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음.
 - 베트남, 몽골, 태국은 기타 단순노무직을, 필리핀과 일본, 북미·호주·서유럽 등은 전문가 및 관련직에 종사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음.
 - 종사상 지위는 임시직(35.6%), 상용직(29.2%), 일용직(12.4%), 단독 자영업자(8.2%) 등의 순이었음.

- 20~44세 여성 결혼이민자 중 부부 모두 취업 중인 맞벌이는 29.3%이었음.
 - 부부 모두 취업중인 맞벌이는 읍·면 지역보다 동 지역에서, 고연령층과 고학력층일수록 그리고 체류기간이 길수록 높은 비율이었음.
 - 출신국별 맞벌이 비율은 북미·호주·서유럽 등 선진국인 경우 가장 높았고(48.9%), 그 다음은 중국 조선족이었음(38.5%).

- 현재 취업 중인 20~44세 여성 결혼이민자의 구직경로는 모국인 친구나 아는 사람의 소개(18.8%), 대중매체, 전단지 등을 통해(17.8%), 한국인 친구나 이웃의 소개(15.3%) 등의 순이었음.
 - 결혼이민자의 출신국별로는 중국 조선족, 몽골, 북미·호주·서유럽은 대중매체나 전단지를 통해서 구직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음.
 - 이 외 중국 한족 등, 베트남, 필리핀, 태국 출신은 모국인 친구나 아는 사람의 소개로 구직하는 경우가 많았음.

- 취업유형별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현 취업자는 42.80시간, 과거취업 경험자는 42.65시간으로 현 취업자가 과거 취업경험자 보다 약간 더 길었음.
 - 출신국별로는 현 취업자는 중국 한족 등, 조선족, 베트남 등의 순으로, 과거 경험자는 캄보디아, 중국 한족 등, 태국, 중국 조선족 등의 순으로 가장 길게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북미·호주·서유럽과 일본 등의 선진국 출신자들은 현 취업자와 과거취업 경험자 모두 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다른 출신국 결혼이민자에 비해 짧았음.
 - 취업직종별로는 서비스 종사자(50.82시간)가 가장 길게 나타났으며, 취업유형 별로도 현 취업자, 과거취업 경험자 모두 서비스직 종사자의 경우 가장 근무 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음.

- 월평균 근로소득은 50~100만원 미만인 49.5%로 가장 많았으며, 100~200만원 28.9%, 200만원 이상이 5.5%이었으며, 50만원 미만인 경우가 12.8%이었음.
 - 출신국별로는 대부분의 출신국에서 50~100만원 미만이 가장 비율이 높으나 북미·호주·서유럽은 200만원 이상이 70.3%로 다른 출신국에 비해 가장 근로 소득이 많았음.
 - 취업직종별로는 서비스 종사자는 50~100만원 미만이 46.0%, 100~200만원 미만이 38.7%이었으며, 판매종사자는 각각 39.1%와 31.4%이었음.
 - 농림·어업 종사자는 50만원 미만이 22.9%로 타 직종에 비해 높은 비율이었음.

- 현재 취업하고 있는 20~44세 여성 결혼이민자는 취업에서의 어려운 점을 느끼고 있는 비율이 82.4%로 높았음.
 - 가장 큰 어려운 점은 ‘언어소통의 어려움’으로 23.7%이었으며, 다음은 ‘자녀 양육’ 10.6%, ‘낮은 임금’과 ‘외국출신에 대한 편견 및 차별’이 모두 10.1%로 높았음.

- 언어소통의 어려움이 심한 출신국가는 베트남 38.7%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캄보디아 36.6%, 중국 한족 등 기타 소수민족 출신 35.3%, 태국 34.5%, 필리핀 31.2% 등이었음.
- 현재 취업을 하고 있는 20~44세 여성 결혼이민자의 노동조합 가입률은 4.2%에 불과하였음.
 - 여성 결혼이민자의 출신국별 노동조합 가입률은 필리핀 출신여성이 11.9%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태국 출신여성 7.0%, 캄보디아 출신여성 5.2% 등의 순이었음.
- 20~44세 비취업 여성 결혼이민자의 비취업 이유로는 ‘자녀양육 때문에’가 54.8%로 가장 많았음.
 - 다음은 ‘한국말이 서툴러서’ 12.6%,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8.7%, ‘임금수준·근로조건 안 맞아서’ 2.9% 등이었음.
 - 현재 미취업사유에 관한 심층면접 결과, ‘어린자녀 때문에’와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서’가 가장 많이 지적되었음.
 - 심층면접 대상자 26명 전원 중 어린자녀가 있는 여성들은 모두 ‘자녀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가 현재 미취업 또는 단시간 취업의 가장 큰 이유로 지적되었음.
 - 출신국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자녀양육 때문에’를 제시한 경우는 몽골(62.9%), 태국(60.4%), 캄보디아(60.2%) 출신여성이 높았음.
- 결혼이민자 중 한국에서 정부가 지원하는 직업훈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12.1%이었음.
 - 거주지역별로는 동 지역 11.2%, 읍·면 지역 14.0%로 읍·면 지역이 더 높았고, 연령별로는 30~34세가 14.0%로 직업훈련 참여경험이 가장 많았으며, 40~44세는 9.4%에 불과하였음.
 - 교육수준별로는 학력이 높아질수록 참여경험이 많아지는 경향으로 초등학교

이하와 중학교 학력자는 9.8%와 9.5%이었으나 고등학교와 대학 이상은 각각 12.2%와 15.9%로 중학교 이하의 저학력자 보다 높았음.

- 혼인상태별로는 사별인 경우가 가장 참여경험이 많아 14.6%이었고, 체류기간 별로는 5~10년 미만이 13.6%로 가장 높았음.
- 출신국별 직업훈련 참여경험률은 필리핀이 가장 높아 26.1%이었으며, 그 다음은 캄보디아(18.0%), 몽골(16.6%), 태국(14.4%), 중국 한족 등(13.1%)의 순이었음.

V. 여성 결혼이민자의 직업훈련 및 취업욕구

- 결혼이민자 중 직업훈련을 받을 의향은 78.7%로 동지역 보다 읍·면지역이 직업훈련을 받고자 하는 의향이 더 높았음.
 - 출신국별 향후 직업훈련 받을 의향은 몽골(87.7%), 필리핀(86.9%), 캄보디아(82.5%) 등의 순이었음.
 - 일본과 북미·호주·서유럽 등의 선진국 결혼이민자는 향후 직업훈련에 참여 의향이 낮았으며, 특히 북미·호주·서유럽 등은 26.8%에 그쳤음.
- 향후 직업훈련을 받을 의향이 있는 결혼이민자 중 향후 취업을 위해 가장 희망하는 교육은 어학(한국어·영어 36.8%), 컴퓨터/정보통신(14.7%), 음식/조리(12.4%), 미용·피부(10.1%) 등의 순이었음.
 - 출신국별로는 중국 조선족은 컴퓨터/정보통신을, 그 외 출신국은 어학에 대해 희망하는 비율이 높았고 특히 북미·호주·서유럽이 가장 높았음(63.9%).
- 20~44세 비취업 여성 결혼이민자 중 87.9%가 취업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20~44세 비취업 여성 결혼이민자 중 가장 높은 취업의향률은 보이는 출신국은 몽골 94.4%이었고, 다음은 필리핀 90.0%, 한족 등 기타 소수민족출신의 중국 89.6% 등의 순이었음.

- 20~44세 비취업 여성 결혼이민자들은 취업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97.3%로 높았고, ‘도움이 필요없다’는 경우는 불과 2.7%이었음.
- 필요한 지원유형으로는 일자리 알선(28.5%)과 자녀보육·양육지원(24.4%), 한국어 교육(18.6%), 직업교육(14.5%) 등의 순으로 많았음.
- 출신국별 필요한 지원으로는 중국 조선족과 한족 등은 자녀보육·양육지원을,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와 일본, 북미·호주·서유럽 등의 선진국은 일자리 알선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비율이 높았음.
- 심층면접 결과, 여성 결혼이민자들의 취업에 가장 큰 장애요인은 어린자녀를 돌봐줄 사람이 없다는 것과 취학연령 자녀들의 방과후 보육부재로 지적되었음.
 - 미취학 아동의 경우는 가정으로 찾아오는 보육서비스의 지원을, 취학아동의 경우는 방과후 교육의 연장 및 내용강화를 통한 학습지원을 강력하게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VI. 여성 결혼이민자의 취업욕구 및 지원을 위한 사례조사

- 사례조사는 서울 및 경기지역 여성인력개발센터, 다문화지원센터, 여성인력발전센터 등에 등록하고 있는 여성 결혼이민자 26명을 대상으로 실시됨.
 - 심층면접에 참여한 여성 결혼이민자는 필리핀, 베트남, 중국 조선족, 캄보디아, 멕시코, 그리고 몽골 출신이었음.
 - 심층면접은 여성 결혼이민자의 인구학적 특성파악, 취업경험 및 훈련프로그램 경험관련, 향후 취업희망 일자리 특성, 희망일자리 관련 훈련프로그램 욕구, 그리고 정책적 지원에 대한 욕구 총 5가지의 조사 내용으로 구성됨.
- 여성 결혼이민자의 한국에서의 취업경험은 일자리의 유형에 관계없이 근로시간에 비해 임금수준이 매우 낮았으며, 향후 희망 일자리 욕구는 교육수준별로 뚜렷하게 구분되는 특징을 보임.
 - 같은 일에 종사하는 한국인에 비해 평균 50%정도 낮은 임금을 받고 있었는데 식당보조와 같은 단순서비스직에서는 임금차별이 미미한 반면, 영어 유치

원교사나 생산직 근로자는 임금차별이 비교적 큰 것으로 나타났음.

- 고졸학력의 여성 결혼이민자들 중 사무직이나 생산직을, 고졸이상 학력의 여성 결혼이민자들은 준전문직 이상의 일자리를 희망하고 있어 이에 맞는 훈련 프로그램 지원에 대한 욕구가 높음.

□ 대부분의 여성 결혼이민자들은 직업훈련의 경험이 매우 적었음.

- 직업훈련의 경험이 적은 주된 이유는 현재 제공되고 있는 훈련프로그램에 대한 정보가 매우 부족하기 때문임.

VII. 정책제언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제공되는 직업훈련에 관한 지속적인 홍보 실시로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도록 함.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뿐 아니라 출입국관리소, 시청(구청), 주민자치센터 등 결혼이민자들이 자주 방문하는 공공기관에 여러 언어로 번역된 직업훈련 프로그램 안내서를 비치하여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 또한 통번역 회의 등을 통해 이웃의 결혼이민자에게 직업훈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함.

□ 한국사회의 제도와 문화에 대한 적응교육이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될 필요성이 있으며, 한국 노동시장의 특성에 대한 정보제공이 필요함.

- 취업에 성공한 여성들도 직장 내 한국문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문제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한국 노동시장의 현황 및 문화에 대한 지식부재로 인해 취업에 대해 지나치게 비현실적인 기대감을 갖는 경우도 나타났음.

□ 현행 한국어 강좌는 대부분 초급, 중급, 고급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과정을 보다 더 세분화 및 전문화할 필요가 있음.

○ 강사의 전문성 및 연속성이 보완될 필요가 있음.

□ 여성 결혼이민자를 위한 취업지원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심층면접 결과, 한국사회적응을 위한 지원서비스, 직업훈련, 취업알선서비스 등이 통합된 기관을 통해서 전달될 필요성이 매우 높게 나타났음.

□ 여성 결혼이민자에 대한 직업훈련을 강화하여야 하며, 훈련영역에 대한 요구도를 파악하여 정확한 수요에 근거한 직업훈련이 실시되어야 할 것임.

○ 가장 선호한 직업훈련 영역인 어학, 컴퓨터 및 정보통신, 요리 등을 우선 훈련직종으로 추진함.

□ 여성 결혼이민자에 대한 취업지원 교육프로그램의 개선이 필요함.

○ 여성 결혼이민자에게 적합한 직종 및 교육프로그램이 보다 적극적이고 현실적으로 개발될 필요가 있음.

○ 보다 효과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수요에 맞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여성 결혼이민자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요구됨.

○ 여성 결혼이민자를 위해 특화시킨 구인처 개발 및 구직등록처의 네트워크화를 상시화 할 필요가 있음.

— 중앙과 지역간, 지역과 지역간의 구인 및 구직네트워크를 상시화 하여 보다 체계적인 구인-구직과정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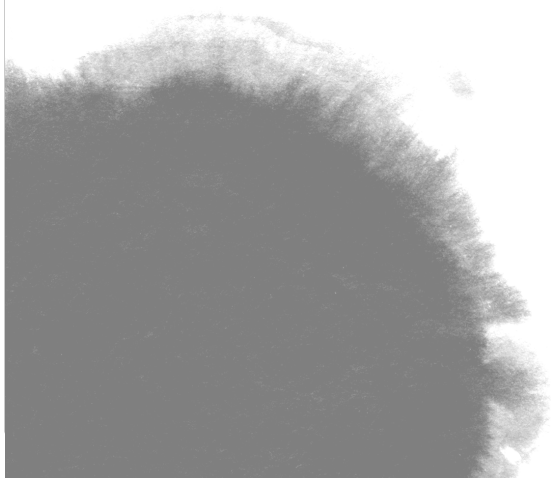
○ 여성 결혼이민자의 사회통합 및 취업능력 제고에 여성 결혼이민자 스스로가 참여할 수 있도록 사회적 기업화를 통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토록 함.

□ 여성 결혼이민자들의 일-가정양립 문제를 지원하기 위해 보육서비스 확대 및 가정방문 보육서비스 제공, 방과후 교육 확대 등이 요구됨.

○ 취학 전 자녀들을 위한 보육서비스 확대와 가정방문 보육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취학자녀들을 위한 방과후 교육 확대 등으로 여성 결혼이민자들의 경제활동을 지원함.

01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한국사회는 전체 혼인 중 국제결혼이 차지하는 비율이 10%를 넘었으며, 이들 국제결혼의 큰 비중은 ‘한국남성과 외국여성’의 결혼으로 많은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입국하여 한국에서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많은 한국가족의 경우와 같이 다문화가족의 여성들도 맞벌이를 원하고 있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여성 결혼이민자들의 가족은 한국인 남편이 경제적으로 충분히 여유 있는 상태에 있지 않기 때문에 가족생활과 자녀양육을 위해서는 맞벌이를 해야 하는 필요성이 강하다.

그렇지만 여성 결혼이민자들은 한국사회에서의 적응이 미흡하고, 취업을 위해 필요한 기술적 조건이 맞지 않아 구직난을 겪고 있음이 사실이다. 또한 취업을 하였을 경우에도 결혼이민여성은 대부분 3D 업종에 제한되어 있거나, 단기적 고용에 제한되어 있는 것이 취업현실이다.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보다 사회 통합적이고 경제적 자립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경제권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여성 결혼이민자들 간에도 출신지역, 학력, 경제적 상황에 따라 경제적 욕구가 다양하다. 따라서 이들의 취업욕구를 범주화하고 이들 여성의 인적자원수준을 고려한 직종개발 및 교육훈련이 필요하다. 일시적 체류 외국인 근로자와 여성 결혼이민자는 그 욕구가 분명 다를 것이며 국가별 특성 또한 고려될 필요성이 있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다인종,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을 인식하고 그러한 상황의 능동적 주체인 여성 결혼이민자를 한국사회의 일원으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들의 취업실태와 욕구를 파악하고, 보다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취업지원 방안 마련을 강구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여성 결혼이민자에게 알맞는 취업지원 방식을 제안하고 개별적 상황에 따라 대상을 분류하여 취업내용을 구성함으로써 그들 가족의 궁극적 자립과 생활안정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그들이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기본요소인 취업의지, 직업능력 확보, 직업적응 및 사후관리 확보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상황에 맞는 취업적응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가. 여성 결혼이민자의 취업 관련 국내·외 선행연구 및 정책동향

여성 결혼이민자의 직업훈련 및 취업 등에 대한 국내·외 선행연구를 검토한다. 그리고 다문화가족 관련 국내·외 정책들을 검토한다.

나. 일반적 사항

결혼이민자의 출신국, 성, 출생년도, 배우자의 출생년도, 교육수준, 배우자의 교육수준, 한국어실력, 입국년도, 거주기간, 국적취득년도, 체류자격, 국적 및 영주권 취득 계획 등을 결혼이민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출신국, 체류자격, 한국어 수준 등을 지역, 연령 및 시·도별로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다. 취업 관련 사항

결혼이민자의 경제활동 참여 실태를 본인의 직종, 과거 본국에서의 직종, 배우자의 직종, 본국과 한국 직종의 연관성, 배우자와 본인 직종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그리고 결혼이민자의 취업경로, 노동시간, 임금 등 취업실태를 파악하고, 비취업 결혼이민자의 취업 관련 태도를 취업하지 않은 이유, 앞으로의 취업 희망, 지원 정책 등을 중심으로 파악한다.

〈표 1-1〉 조사내용

부문	내용		
일반적 사항	•출신국	•성	•출생년도
	•배우자의 교육수준	•한국어 실력 정도	•배우자의 출생년도
취업	•한국의 입국 목적	•한국 거주기간	•한국의 입국 년도
	•국적 또는 영주권 취득 계획		•한국 국적 취득 시기
	•배우자의 취업	•배우자의 직종	•배우자의 고용형태
	•한국으로 오기 전 취업여부 및 직종		•현 취업 여부 및 직종
	•고용형태	•구직경로	•평균 근무시간
	•평균 임금	•취업상의 가장 큰 어려움	
	•노동조합 가입여부	•일을 하지 않는 이유	•향후 취업의향
•취업하는 데 가장 필요한 도움	•직업훈련의 참여 경험	•직업훈련 참여의향	
	•취업을 위해 희망하는 교육		

2. 연구방법

가. 문헌연구

여성 결혼이민자의 특성 및 실태, 욕구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각종 문헌을 고찰하였다. 문헌연구의 주요 내용은 여성 결혼이민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일반특성, 취업 등이다. 문헌연구의 대상에는 각종 양적 연구를 모두 포함하였다.

나. 실태조사

실태조사는 결혼이민자 전수인 154,333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자의 표집방식은 16개 시·도를 통해 행정안전부에서 외국인주민현황조사시 작성한 다문화

가족기초현황자료를 활용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2회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1차 조사는 2009년 7월 20일~9월 20일까지 2개월간 실시되었다. 2차 조사는 1차 조사결과 부진한 8개 지역을 대상으로 2009년 10월 21일~10월 31일까지 11일간 실시되었다.

〈표 1-2〉 다문화가족실태조사 대상가구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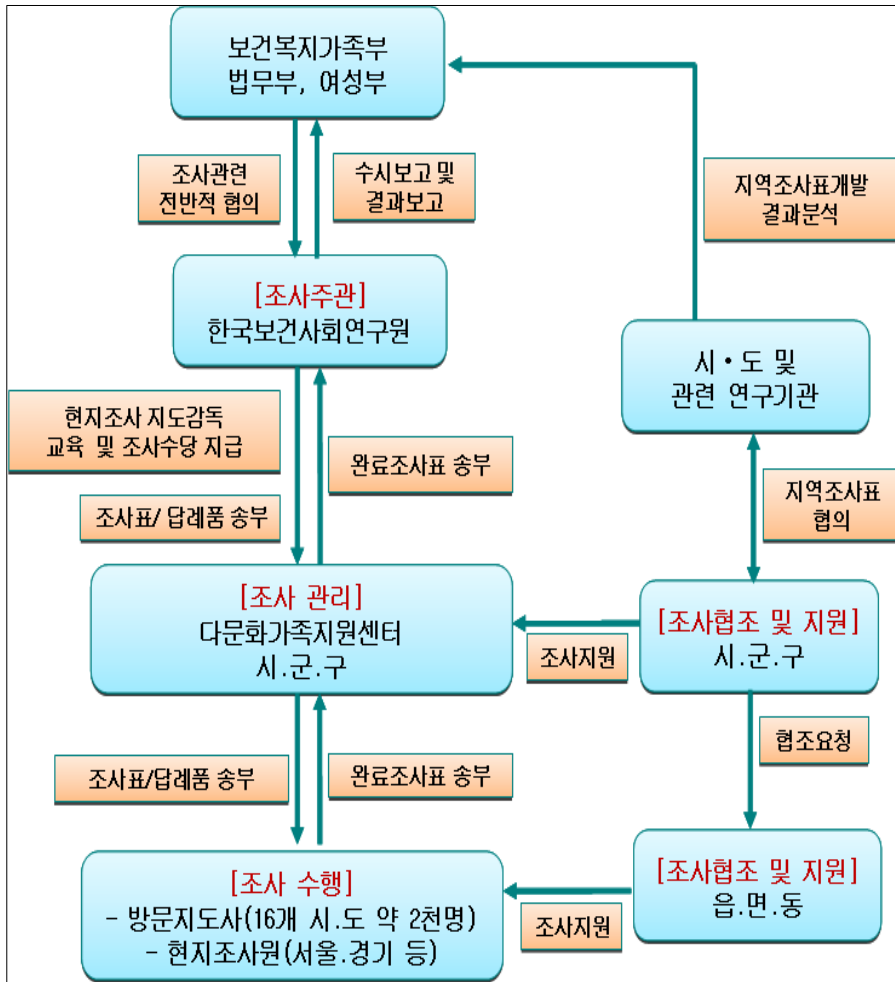
(단위: 가구)

지역	다문화가족정책대상 다문화가족수 ¹⁾
전국	154,333
서울	34,652
부산	7,372
대구	4,929
인천	9,804
광주	3,182
대전	3,208
울산	2,888
경기	40,199
강원	4,144
충북	4,525
충남	7,644
전북	6,532
전남	6,938
경북	7,338
경남	9,527
제주	1,451

주: 1) 행정안전부 자료를 기초로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한 다문화가족정책대상 다문화가족수

조사방법은 조사원의 가구방문에 의한 응답자의 자기기재식으로 조사하였다. 조사원을 관리하는 슈퍼바이저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방문지도사와 공무원으로 구성되었으며 160명을 활용하였다. 조사원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방문교육지도사, 통번역 등 현지조사원 약 3,000명을 활용하였다. 실태조사와 관련한 조사수행체계는 [그림 1-1] 과 같다.

[그림 1-1] 조사수행체계



다. 사례조사

서울 및 경기지역 여성인력개발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여성발전센터 등에 등록하고 있는 여성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사례조사 대상의 출신국은 필리핀 6명, 베트남 8명, 중국(조선족 포함) 8명, 캄보디아 2명, 멕시코 1명, 몽골 1명 등 모두 26명의 여성 결혼이민자이다. 연령, 체류기간, 거주지역, 교육 수준, 소득 등 구체적인 내용은 제6장에서 제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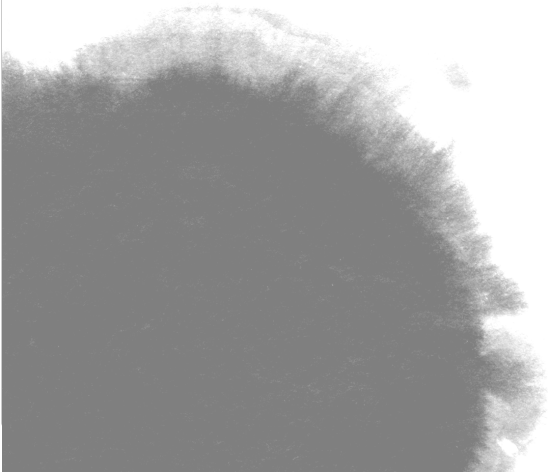
사례조사는 연구진이 대상자를 직접 방문하여 면접방식으로 하였다. 사례조사의 주요 내용은 여성 결혼이민자들의 본국에서의 취업경험, 한국에 입국 후 취업경험, 취업육구(직종, 업종, 근로시간, 임금 등), 취업을 위한 훈련프로그램 참여정도 및 욕구 등이다.

라. 자문회의

연구의 원활한 수행과 질적 향상을 위하여 연구시작, 조사표 개발, 조사실시, 조사 결과 분석, 정책개발 단계에서 자문회의를 실시하였다.

02

한국의 다문화가족 규모추정과
조사원표가구 및 가중치 산출·적용



제2장 한국의 다문화가족 규모추정과 조사원료가구 및 가중치 산출·적용

제1절 한국의 다문화가족 규모 추정

1. 한국의 다문화가족의 규모 추정

행정안전부의 외국인주민현황조사에 의하면, 2009년 5월 현재 한국 국적을 갖지 않은 결혼이민자가 125,673명이고 혼인귀화자가 41,417명이다. 따라서 혼인귀화자와 결혼이민자를 합한 다문화가족 가구수는 167,090명이 된다.

행정안전부의 외국인주민현황조사에 따른 다문화가족통계를 시·도별로 살펴보면, 다문화가족은 경기도에 가장 많이 살고 있으며(26.8%), 다음은 서울(23.5%), 인천(6.3%) 등의 순이다. 따라서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 살고 있는 다문화가족은 전체의 56.6%에 해당한다(표 2-1 참조).

『재한 외국인 처우기본법』 상 결혼이민자는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이다. 그런데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르면, 다문화가족은 『재한 외국인 처우기본법』 상의 결혼이민자 또는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와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이다. 이 정의에 따르면 귀화한 외국인과 외국인이 결혼한 경우 다문화가족에 포함되지 않는다. 행정안전부의 외국인주민현황자료를 기반으로, 『다문화가족지원법』 상의 정의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다문화가족기초현황자료를 작성하였으며, 이에 따른 다문화가족은 154,333가구이다.

보건복지가족부의 다문화가족 기초현황자료를 시·도별로 살펴보면, 다문화가족은 행정안전부의 통계와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즉, 다문화가족은 경기도에 가장 많으며

(26.0%), 다음은 서울(22.4%), 인천(6.3%) 등의 순이다. 따라서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 살고 있는 다문화가족은 전체의 54.7%이다(표 2-2 참조).

〈표 2-1〉 행정안전부의 다문화가족 현황 통계

(단위: 명, %)

지역	한국국적을 갖지 않은 결혼이민자	혼인귀화자	계	비율
전국	125,673	41,417	167,090	100.0
서울	30,019	9,256	39,275	23.5
부산	5,597	1,929	7,526	4.5
대구	3,792	1,173	4,965	3.0
인천	7,360	3,126	10,486	6.3
광주	2,479	788	3,267	1.9
대전	2,824	799	3,623	2.2
울산	2,356	594	2,950	1.8
경기	32,444	12,316	44,760	26.8
강원	3,024	1,164	4,188	2.5
충북	3,897	1,030	4,927	2.9
충남	5,953	2,050	8,003	4.8
전북	5,147	1,596	6,743	4.0
전남	5,661	1,629	7,290	4.4
경북	6,452	1,605	8,057	4.8
경남	7,568	2,018	9,586	5.7
제주	1,100	344	1,444	0.9

자료: 행정안전부, 외국인주민 현황 통계, 2009.

〈표 2-2〉 다문화가족실태조사 대상가구의 모수추정 결과

(단위: 가구, %)

지역	다문화가족정책대상	다문화가족수 ¹⁾	비율
전국		154,333	100.0
서울		34,652	22.4
부산		7,372	4.8
대구		4,929	3.2
인천		9,804	6.3
광주		3,182	2.1
대전		3,208	2.1
울산		2,888	1.9
경기		40,199	26.0
강원		4,144	2.7
충북		4,525	2.9
충남		7,644	5.0
전북		6,532	4.2
전남		6,938	4.5
경북		7,338	4.8
경남		9,527	6.2
제주		1,451	0.9

주: 1) 행정안전부 자료를 기초로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한 다문화가족정책대상 다문화가족수

2. 본 실태조사에서 확인된 다문화가족수

당초 조사대상인 전국의 다문화가족수는 다문화가족 기초현황자료에 근거한 154,333가구이었으나 본 실태조사를 통하여 131,702가구(85.3%)에 대하여 확인이 완료되었다(표 2-3 참조). 이는 현지조사원의 확인 등에 의한 조사원 기재사항과 기초 현황자료를 근거로 가구 방문 후 ‘조사원 기재사항’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다.

〈표 2-3〉 다문화가족정책대상 다문화가족수와 본 실태조사에서 확인된 다문화가족수

(단위: 가구, %)

지역	다문화가족정책대상 다문화가족수 ¹⁾	본 실태조사에서 확인된 다문화가족수
전국	154,333	131,702
서울	34,652	28,093
부산	7,372	6,190
대구	4,929	4,420
인천	9,804	8,219
광주	3,182	2,801
대전	3,208	2,810
울산	2,888	2,648
경기	40,199	32,086
강원	4,144	3,761
충북	4,525	4,265
충남	7,644	7,219
전북	6,532	5,436
전남	6,938	6,503
경북	7,338	7,103
경남	9,527	8,706
제주	1,451	1,442

주: 1) 행정안전부 자료를 기초로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한 다문화가족정책대상 다문화가족수

본 실태조사에서 확인된 다문화가족은 경기도(24.3%)에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었고, 다음은 서울(21.3%)이었으며,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에 51.9%가 거주하고 있었다. 영남지역(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에 22.1%, 호남지역(광주, 전북, 전남, 제주)에 12.2%, 충청지역(대전, 충북, 충남)에 10.9%가 거주하고 있었다(표 2-4 참조).

〈표 2-4〉 본 실태조사에서 확인된 다문화가족의 지역별 분포

(단위: 가구, %)

지역	본 실태조사에서 확인된 다문화가족수	비율
전국	131,702	100.0
서울	28,093	21.3
부산	6,190	4.7
대구	4,420	3.4
인천	8,219	6.3
광주	2,801	2.1
대전	2,810	2.1
울산	2,648	2.0
경기	32,086	24.3
강원	3,761	2.9
충북	4,265	3.3
충남	7,219	5.5
전북	5,436	4.1
전남	6,503	4.9
경북	7,103	5.4
경남	8,706	6.6
제주	1,442	1.1

본 실태조사에서 확인된 결혼이민자의 남녀 성비는 9.6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현저히 많았으며, 지역별로 큰 격차를 보였다. 서울의 성비가 20.6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경기 12.0, 인천 11.1의 순으로 나타나 수도권지역의 남성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 외의 지역은 1.3~7.7의 범위에 있어 남성이 여성보다 현저히 적음을 알 수 있다(표 2-5 참조).

결혼이민자의 남녀 성비는 성별 결혼이민자의 지역별 분포에 영향을 주었다. 남성 결혼이민자는 서울에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었고, 여성 결혼이민자는 경기도에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었다(표 2-6 참조).

〈표 2-5〉 본 실태조사에서 확인된 결혼이민자의 시·도별 남녀수 및 성비

(단위: 명)

지역	계	남성	여성	성비
전국	131,702	11,556	120,146	9.6
서울	28,093	4,793	23,300	20.6
부산	6,190	431	5,759	7.5
대구	4,420	295	4,125	7.2
인천	8,219	820	7,399	11.1
광주	2,801	130	2,671	4.9
대전	2,810	200	2,610	7.7
울산	2,648	120	2,528	4.7
경기	32,086	3,450	28,636	12.0
강원	3,761	88	3,673	2.4
충북	4,265	147	4,118	3.6
충남	7,219	275	6,944	4.0
전북	5,436	101	5,335	1.9
전남	6,503	83	6,420	1.3
경북	7,103	192	6,911	2.8
경남	8,706	347	8,359	4.2
제주	1,442	84	1,358	6.1

〈표 2-6〉 본 실태조사에서 확인된 결혼이민자의 성별 지역분포

(단위: 명, %)

지역	결혼이민자의 성				
	계	남성		여성	
		수	비율	수	비율
전국	131,702	11,556	100.0	120,146	100.0
서울	28,093	4,793	41.5	23,300	19.4
부산	6,190	431	3.7	5,759	4.8
대구	4,420	295	2.5	4,125	3.4
인천	8,219	820	7.1	7,399	6.2
광주	2,801	130	1.1	2,671	2.2
대전	2,810	200	1.7	2,610	2.2
울산	2,648	120	1.0	2,528	2.1
경기	32,086	3,450	29.9	28,636	23.8
강원	3,761	88	0.8	3,673	3.1
충북	4,265	147	1.3	4,118	3.4
충남	7,219	275	2.4	6,944	5.8
전북	5,436	101	0.9	5,335	4.4
전남	6,503	83	0.7	6,420	5.3
경북	7,103	192	1.7	6,911	5.8
경남	8,706	347	3.0	8,359	7.0
제주	1,442	84	0.7	1,358	1.1

본 실태조사에서 확인된 결혼이민자의 출신국은 중국 조선족이 가장 많았고, 다음은 한족 등 중국, 베트남 등의 순이었다. 이민자의 출신국을 시·도별로 살펴본 결과는 <표 2-7>과 같다.

<표 2-7> 본 실태조사에서 확인된 다문화가족의 시·도별, 출신국별 분포

(단위: 가구)

구분	국적									
	중국 조선족	중국 한족 등	베트남	필리핀	몽골	태국	캄보 디아	일본	북미·호주· 서유럽	기타
전국	40,000	35,914	25,688	8,748	1,830	1,726	2,628	5,543	2,428	7,298
서울	14,403	6,172	2,092	780	283	197	154	997	1,013	2,002
부산	1,776	1,606	1,455	372	39	62	117	195	166	402
대구	1,216	1,101	1,262	202	20	47	99	137	100	237
인천	3,089	2,796	907	369	124	113	60	191	75	495
광주	754	683	616	289	50	48	82	131	55	93
대전	987	423	492	353	15	15	303	89	38	95
울산	643	581	955	142	57	20	64	49	52	85
경기	11,318	10,241	4,045	1,423	573	484	325	1,111	537	2,029
강원	843	763	904	524	38	63	121	284	47	174
충북	1,000	905	1,220	424	155	90	90	201	37	143
충남	1,653	1,495	2,075	794	105	142	186	404	51	315
전북	1,194	1,081	1,534	740	54	70	242	342	33	146
전남	1,149	1,039	2,032	1,057	124	130	282	516	19	154
경북	1,306	1,183	2,762	481	77	111	192	319	58	614
경남	2,013	1,821	2,978	610	105	122	292	397	109	260
제주	345	312	367	196	11	12	34	79	34	51

제2절 본 연구에서의 조사완료 가구수 및 주요 특성

1. 본 연구를 위한 실태조사 완료가구수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는 대상가구 131,702가구 중 73,669가구가 완료되어 조사완료율은 55.9%로 나타났다. 지역별 조사완료율을 살펴보면, 경북이 76.3%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전북 74.4%이었다. 그 외의 지역 중 평균 이상의 조사완료율을 나타낸 지역은 강원(68.8%), 전남(68.2%), 충북(65.2%), 경남(63.8%), 인천(63.2%), 광주(61.6%), 충남(59.6%), 대구(59.4%), 부산(59.2%) 등이었다.

반면에 조사완료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대전 41.2%이었고, 다음은 서울 41.4%이

었다. 그 외의 지역 중 평균보다 낮은 조사완료율을 나타낸 지역은 경기(50.9%), 제주(52.9%), 울산(55.4%) 등이었다.

〈표 2-8〉 지역별 조사완료가구 및 완료율

지역	(단위: 가구, %)		
	본 실태조사에서 확인된 다문화가족수	조사완료가구	완료율
전국	131,702	73,669	55.9
서울	28,093	11,625	41.4
부산	6,190	3,666	59.2
대구	4,420	2,625	59.4
인천	8,219	5,198	63.2
광주	2,801	1,725	61.6
대전	2,810	1,159	41.2
울산	2,648	1,466	55.4
경기	32,086	16,317	50.9
강원	3,761	2,589	68.8
충북	4,265	2,780	65.2
충남	7,219	4,300	59.6
전북	5,436	4,043	74.4
전남	6,503	4,438	68.2
경북	7,103	5,423	76.3
경남	8,706	5,552	63.8
제주	1,442	763	52.9

2. 주요 특성

전체 결혼이민자 중 본 조사에 응답한 인원은 남성 4,275명, 여성 69,394명으로 모두 73,669명에 대하여 전체조사가 완료되었다(표 2-9 참조). 일부 대도시의 조사 완료율이 저조하여 조사에 응답한 결혼이민자는 시·도별로 큰 격차를 보였다.

또한 출신국별로 조사에 응답한 차이가 현저함을 알 수 있다. 즉, 중국 한족 등은 대상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조사완료의 저조로 인하여 베트남보다도 적은 응답자수를 나타냈다. 즉, 조사응답을 완료한 결혼이민자는 중국 조선족이 가장 많았고(26,646명), 다음은 베트남(19,405명), 중국 한족 등(9,692명), 일본(3,827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2-10 참조).

〈표 2-9〉 조사완료 결혼이민자의 지역별 남녀수

(단위: 명, %)

지역	계		남성		여성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전국	73,669	100.0	4,275	100.0	69,394	100.0
서울	11,625	15.8	1,587	37.1	10,038	14.5
부산	3,666	5.0	189	4.4	3,477	5.0
대구	2,625	3.6	128	3.0	2,497	3.6
인천	5,198	7.1	410	9.6	4,788	6.9
광주	1,725	2.3	48	1.1	1,677	2.4
대전	1,159	1.6	45	1.1	1,114	1.6
울산	1,466	2.0	27	0.6	1,439	2.1
경기	16,317	22.1	1,395	32.6	14,922	21.5
강원	2,589	3.5	30	0.7	2,559	3.7
충북	2,780	3.8	43	1.0	2,737	3.9
충남	4,300	5.8	58	1.4	4,242	6.1
전북	4,043	5.5	46	1.1	3,997	5.8
전남	4,438	6.0	32	0.7	4,406	6.3
경북	5,423	7.4	86	2.0	5,337	7.7
경남	5,552	7.5	128	3.0	5,424	7.8
제주	763	1.0	23	0.6	740	1.1

본 실태조사에서 확인된 다문화가족수 대비 조사완료가구, 즉 출신국별 조사완료율은 베트남이 75.5%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캄보디아 73.3%, 필리핀 71.7%이었다. 반대로 가장 낮은 완료율을 보인 출신국은 중국 한족 등으로 27.0%이었고, 다음은 북미·호주·서유럽 36.9%이었다.

〈표 2-10〉 국적별 조사완료가구 및 완료율

(단위: 가구, %)

지역	본 실태조사에서 확인된 다문화가족수	조사완료가구	완료율
전국	131,702	73,669	55.9
중국(조선족)	40,000	26,646	66.6
중국(한족 등)	35,914	9,692	27.0
베트남	25,688	19,405	75.5
필리핀	8,748	6,274	71.7
몽골	1,830	1,040	56.8
태국	1,726	1,054	61.1
캄보디아	2,628	1,927	73.3
일본	5,543	3,827	69.0
북미·호주·서유럽	2,428	896	36.9
기타	7,298	2,908	39.8

다문화가족의 시·도별 출신국 분포는 다음 <표 2-11>과 같이 제시된다. 시·도별로 출신국이 다소 상이한 양상을 보였다.

<표 2-11> 조사완료 결혼이민자의 시·도별, 출신국별 인원

(단위: 명)

구분	국적									
	중국 조선족	중국 한족 등	베트남	필리핀	몽골	태국	캄보 디아	일본	북미·호주 ·서유럽	기타
전국	26,646	9,692	19,405	6,274	1,040	1,054	1,927	3,827	896	2,908
서울	6,338	1,608	1,167	506	127	76	97	564	343	499
부산	1,187	544	1,131	267	19	40	85	129	73	191
대구	769	426	943	125	11	11	74	95	57	114
인천	2,669	905	688	276	79	67	52	141	38	283
광주	506	246	456	221	27	29	63	103	23	51
대전	327	141	377	105	14	9	56	36	27	67
울산	348	230	631	88	32	13	39	34	9	42
경기	7,600	2,481	2,746	880	323	263	249	730	187	858
강원	701	209	725	438	22	48	106	224	15	101
충북	675	325	990	323	87	67	67	166	6	74
충남	1,032	409	1,559	564	56	90	143	304	10	133
전북	864	564	1,310	605	43	54	221	283	13	86
전남	787	394	1,546	818	80	100	224	402	11	76
경북	1,180	567	2,482	456	45	85	178	280	33	117
경남	1,153	569	2,416	457	69	96	247	302	41	202
제주	210	74	238	145	6	6	26	34	10	14

제3절 가중치 산출 및 적용결과와 통계 해석시 유의사항

1. 가중치의 산출 및 적용 후 추정값

전수조사인 경우 별도의 표본설계는 고려하지 않으며, 단지 조사과정에서 완전한 응답을 얻지 못한 경우 응답률 차이를 조정하여 전수 자료에 따라 보정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모집단 분석을 통해 지역별(16개 특별시 및 광역시, 도), 성별(남, 여), 국적별(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 10개 국적) 응답률에 따른 사후조정을 실시하여 응답가중치를 부여하였다.

모집단을 다음의 <표 2-12>와 같이 지역, 성, 출신국에 따라 분류한 후 모집단 셀과 조사완료된 응답 셀간의 셀 값을 조정하였다.

〈표 2-12〉 무응답 사후조정을 위한 분류기준

분류기준	특성
지역	16개 특별시 및 광역시(16)
성	남, 여(2)
출신국	중국(조선족), 중국(한족 등), 베트남, 필리핀, 몽골, 태국, 캄보디아, 일본, 북미·호주·서유럽, 기타 (10)

이때 각 셀별로 모집단과 응답 셀 간의 조정인자(adjustment factor)를 가중치 값에 승수화 하여 다음과 같은 단계별로 조정하였다.

응답 자료의 행과 열에 대한 래킹비 조정 과정에 사후조정인자를 적용하여 표현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sum_{j=1}^C \widehat{N}_{ij}(PF)_{ij} = N_{i+}, \quad i = 1, 2, \dots, R \quad (1)$$

$$\sum_{i=1}^R \widehat{N}_{ij}(PF)_{ij} = N_{+j}, \quad j = 1, 2, \dots, C \quad (2)$$

즉, 셀 결합후 위의 식(1)과 (2)를 이용하여 최종적으로 조정된 셀 ij 의 최종 가중치는 다음과 같다.

$$w_k = d_k \widetilde{PF}_{ij} \quad (3)$$

여기서 \widetilde{PF}_{ij} 는 셀 결합후 조정된 ij 셀의 사후조정 인자값을 나타낸다.

다음에 제시되는 <표 2-13>은 모집단의 현황이다. 즉, 결혼이민자의 출신국별, 시도별, 성별 기초자료이다. 이 자료에 근거하여 본 실태조사가 추진되었다.

〈표 2-13〉 모집단 현황

(단위: 명)

국적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중국(조선족)	39,834	3,679	36,155	10,949	1,936	9,013	1,776	77	1,699	1,215	72	1,143
중국(한족 등)	36,040	3,218	32,822	9,626	1,192	8,434	1,606	69	1,537	1,100	56	1,044
베트남	25,700	139	25,561	2,092	30	2,062	1,455	3	1,452	1,262	19	1,243
필리핀	8,762	146	8,616	780	33	747	372	8	364	202	10	192
몽골	1,835	35	1,800	283	10	273	39	0	39	21	1	20
태국	1,733	30	1,703	197	3	194	62	0	62	48	1	47
캄보디아	2,645	22	2,623	154	2	152	117	0	117	100	1	99
일본	5,445	449	4,996	997	155	842	195	43	152	137	9	128
북미·호주·서유럽	2,417	1,863	554	1,013	743	270	166	150	16	99	66	33
기타	7,291	1,975	5,316	2,002	689	1,313	402	81	321	236	60	176
계	131,702	11,556	120,146	28,093	4,793	23,300	6,190	431	5,759	4,420	295	4,125

〈표 2-13〉 계속

(단위: 명)

국적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중국(조선족)	3,090	257	2,832	753	30	723	740	64	676	643	34	609
중국(한족 등)	2,795	233	2,563	682	27	655	670	58	612	581	15	566
베트남	907	15	892	616	0	616	492	8	484	955	3	952
필리핀	369	15	354	290	1	289	353	8	345	142	1	141
몽골	124	4	120	51	1	50	15	0	15	57	0	57
태국	113	4	109	49	1	48	15	0	15	20	1	19
캄보디아	60	1	59	82	0	82	303	15	288	64	0	64
일본	191	30	161	131	6	125	89	5	84	49	6	43
북미·호주·서유럽	75	65	10	54	48	6	38	24	14	52	44	8
기타	495	196	299	93	16	77	95	18	77	85	16	69
계	8,219	820	7,399	2,801	130	2,671	2,810	200	2,610	2,648	120	2,528

〈표 2-13〉 계속

(단위: 명)

국적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중국(조선족)	11,318	1,091	10,227	842	22	820	1,000	42	958	1,650	84	1,566
중국(한족 등)	10,241	988	9,253	762	20	742	905	37	868	1,493	76	1,417
베트남	4,045	35	4,010	905	1	904	1,220	2	1,218	2,078	3	2,075
필리핀	1,423	47	1,376	524	0	524	424	2	422	796	2	794
몽골	573	15	558	38	0	38	155	1	154	105	0	105
태국	484	15	469	63	0	63	90	0	90	144	2	142
캄보디아	325	1	324	121	0	121	90	0	90	187	1	186
일본	1,111	112	999	288	4	284	201	6	195	403	21	382
북미·호주·서유럽	537	427	110	45	31	14	37	29	8	50	36	14
기타	2,029	719	1,310	173	10	163	143	28	115	313	50	263
계	32,086	3,450	28,636	3,761	88	3,673	4,265	147	4,118	7,219	275	6,944

〈표 2-13〉 계속

(단위: 명)

국적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중국(조선족)	1,194	31	1,163	1,148	24	1,124	1,306	51	1,254	2,012	101	1,911	345	12	333
중국(한족 등)	1,081	28	1,053	1,038	21	1,017	1,181	47	1,135	1,820	91	1,729	312	11	301
베트남	1,534	1	1,533	2,032	2	2,030	2,762	9	2,753	2,978	7	2,971	367	1	366
필리핀	740	4	736	1,059	2	1,057	481	4	477	610	8	602	197	1	196
몽골	54	0	54	125	1	124	78	1	77	106	1	105	11	0	11
태국	70	0	70	130	0	130	113	2	111	123	1	122	12	0	12
캄보디아	242	0	242	282	0	282	192	0	192	292	1	291	34	0	34
일본	342	4	338	516	7	509	319	7	312	397	15	382	79	19	60
북미·호주·서유럽	33	24	9	19	13	6	57	41	16	108	93	15	34	29	5
기타	146	9	137	154	13	141	614	30	584	260	29	231	51	11	40
계	5,436	101	5,335	6,503	83	6,420	7,103	192	6,911	8,706	347	8,359	1,442	84	1,358

이어서 제시되는 <표 2-14>는 본 실태조사의 결과이다. 즉, 조사완료된 결혼이민자의 특성을 출신국별, 시·도별, 성별로 나타낸 것이다.

〈표 2-14〉 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국적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중국(조선족)	26,646	2,085	24,561	6,638	914	5,724	1,187	42	1,145	769	37	732
중국(한족 등)	9,692	398	9,294	1,608	120	1,488	544	23	521	426	7	419
베트남	19,405	42	19,363	1,167	4	1,163	1,131	3	1,128	943	2	941
필리핀	6,274	62	6,212	506	16	490	267	3	264	125	1	124
몽골	1,040	18	1,022	127	7	120	19	0	19	11	0	11
태국	1,054	6	1,048	76	1	75	40	0	40	11	0	11
캄보디아	1,927	4	1,923	97	1	96	85	0	85	74	0	74
일본	3,827	209	3,618	564	68	496	129	22	107	95	2	93
북미·호주·서유럽	896	705	191	343	266	77	73	64	9	57	47	10
기타	2,908	746	2,162	499	190	309	191	32	159	114	32	82
계	73,669	4,275	69,394	11,625	1,587	10,038	3,666	189	3,477	2,625	128	2,497

〈표 2-14〉 계속

(단위: 명)

국적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중국(조선족)	2,669	196	2,473	506	14	492	327	14	313	348	5	343
중국(한족 등)	905	42	863	246	5	241	141	4	137	230	3	227
베트남	688	5	683	456	0	456	377	0	377	631	2	629
필리핀	276	8	268	221	0	221	105	0	105	88	1	87
몽골	79	1	78	27	0	27	14	0	14	32	0	32
태국	67	1	66	29	0	29	9	0	9	13	1	12
캄보디아	52	1	51	63	0	63	56	0	56	39	0	39
일본	141	16	125	103	3	100	36	1	35	34	4	30
북미·호주·서유럽	38	32	6	23	19	4	27	20	7	9	5	4
기타	283	108	175	51	7	44	67	6	61	42	6	36
계	5,198	410	4,788	1,725	48	1,677	1,159	45	1,114	1,466	27	1,439

〈표 2-14〉 계속

(단위: 명)

국적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중국(조선족)	7,600	720	6,880	701	9	692	675	16	659	1,032	23	1,009
중국(한족 등)	2,481	136	2,345	209	2	207	325	5	320	409	7	402
베트남	2,746	14	2,732	725	0	725	990	2	988	1,559	0	1,559
필리핀	880	20	860	438	0	438	323	1	322	564	0	564
몽골	323	9	314	22	0	22	87	1	86	56	0	56
태국	263	3	260	48	0	48	67	0	67	90	0	90
캄보디아	249	1	248	106	0	106	67	0	67	143	0	143
일본	730	55	675	224	0	224	166	6	160	304	8	296
북미·호주·서유럽	187	148	39	15	13	2	6	4	2	10	6	4
기타	858	289	569	101	6	95	74	8	66	133	14	119
계	16,317	1,395	14,922	2,589	30	2,559	2,780	43	2,737	4,300	58	4,242

〈표 2-14〉 계속

(단위: 명)

국적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중국(조선족)	864	17	847	787	11	776	1,180	31	1,149	1,153	32	1,121	210	4	206
중국(한족 등)	564	8	556	394	5	389	567	8	559	569	20	549	74	3	71
베트남	1,310	1	1,309	1,546	2	1,544	2,482	2	2,480	2,416	4	2,412	238	1	237
필리핀	605	4	601	818	0	818	456	4	452	457	4	453	145	0	145
몽골	43	0	43	80	0	80	45	0	45	69	0	69	6	0	6
태국	54	0	54	100	0	100	85	0	85	96	0	96	6	0	6
캄보디아	221	0	221	224	0	224	178	0	178	247	1	246	26	0	26
일본	283	4	279	402	5	397	280	5	275	302	5	297	34	5	29
북미·호주·서유럽	13	8	5	11	6	5	33	26	7	41	33	8	10	8	2
기타	86	4	82	76	3	73	117	10	107	202	29	173	14	2	12
계	4,043	46	3,997	4,438	32	4,406	5,423	86	5,337	5,552	128	5,424	763	23	740

마지막으로 <표 2-15>는 위에 제시된 <표 2-13>과 <표 2-14>를 기초자료로 전술(前述)한 가중치 적용방식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다. 즉, 분석된 모든 통계는 이에 기초하여 작성되어진다.

<표 2-15> 가중치 적용 결과

(단위: 명)

국적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중국(조선족)	40,000	3,949	36,051	10,949	1,936	9,013	1,776	77	1,699	1,216	73	1,143
중국(한족 등)	35,914	2,988	32,926	9,626	1,192	8,434	1,606	69	1,537	1,101	57	1,044
베트남	25,688	127	25,561	2,092	30	2,062	1,455	3	1,452	1,262	19	1,243
필리핀	8,748	132	8,616	780	33	747	372	8	364	202	10	192
몽골	1,830	30	1,800	283	10	273	39	0	39	20	0	20
태국	1,726	23	1,703	197	3	194	62	0	62	47	0	47
캄보디아	2,628	5	2,623	154	2	152	117	0	117	99	0	99
일본	5,443	447	4,996	997	155	842	195	43	152	137	9	128
북미·호주·서유럽	2,428	1,874	554	1,013	743	270	166	150	16	100	67	33
기타	7,298	1,982	5,316	2,002	689	1,313	402	81	321	237	61	176
계	131,703	11,557	120,146	28,093	4,793	23,300	6,190	431	5,759	4,420	295	4,125

<표 2-15> 계속

(단위: 명)

국적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중국(조선족)	3,089	257	2,832	754	31	723	752	76	676	643	34	609
중국(한족 등)	2,796	233	2,563	683	28	655	681	69	612	581	15	566
베트남	907	15	892	616	0	616	484	0	484	955	3	952
필리핀	369	15	354	289	0	289	345	0	345	142	1	141
몽골	124	4	120	50	0	50	15	0	15	57	0	57
태국	113	4	109	48	0	48	15	0	15	20	1	19
캄보디아	60	1	59	82	0	82	288	0	288	64	0	64
일본	191	30	161	131	6	125	90	6	84	49	6	43
북미·호주·서유럽	75	65	10	55	49	6	42	28	14	52	44	8
기타	495	196	299	93	16	77	98	21	77	85	16	69
계	8,219	820	7,399	2,801	130	2,671	2,810	200	2,610	2,648	120	2,528

〈표 2-15〉 계속

(단위: 명)

국적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중국(조선족)	11,318	1,091	10,227	843	23	820	1,000	42	958	1,653	87	1,566
중국(한족 등)	10,241	988	9,253	763	21	742	905	37	868	1,495	78	1,417
베트남	4,045	35	4,010	904	0	904	1,220	2	1,218	2,075	0	2,075
필리핀	1,423	47	1,376	524	0	524	424	2	422	794	0	794
몽골	573	15	558	38	0	38	155	1	154	105	0	105
태국	484	15	469	63	0	63	90	0	90	142	0	142
캄보디아	325	1	324	121	0	121	90	0	90	186	0	186
일본	1,111	112	999	284	0	284	201	6	195	404	22	382
북미·호주·서유럽	537	427	110	47	33	14	37	29	8	51	37	14
기타	2,029	719	1,310	174	11	163	143	28	115	315	52	263
계	32,086	3,450	28,636	3,761	88	3,673	4,265	147	4,118	7,219	275	6,944

〈표 2-15〉 계속

(단위: 명)

국적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중국(조선족)	1,194	31	1,163	1,149	25	1,124	1,306	52	1,254	2,013	102	1,911	345	12	333
중국(한족 등)	1,081	28	1,053	1,039	22	1,017	1,183	48	1,135	1,821	92	1,729	312	11	301
베트남	1,534	1	1,533	2,032	2	2,030	2,762	9	2,753	2,978	7	2,971	367	1	366
필리핀	740	4	736	1,057	0	1,057	481	4	477	610	8	602	196	0	196
몽골	54	0	54	124	0	124	77	0	77	105	0	105	11	0	11
태국	70	0	70	130	0	130	111	0	111	122	0	122	12	0	12
캄보디아	242	0	242	282	0	282	192	0	192	292	1	291	34	0	34
일본	342	4	338	516	7	509	319	7	312	397	15	382	79	19	60
북미·호주·서유럽	33	24	9	19	13	6	58	42	16	109	94	15	34	29	5
기타	146	9	137	154	13	141	614	30	584	260	29	231	51	11	40
계	5,436	101	5,335	6,503	83	6,420	7,103	192	6,911	8,706	347	8,359	1,442	84	1,358

2. 통계해석시 유의사항

본 보고서의 통계표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유의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고서 작성과정에서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 용어가 혼용되고 있다.

이는 개인을 대상으로 분석된 것은 결혼이민자라고 칭하였고, 다문화가족은 결혼이민자와 그들 가족을 통칭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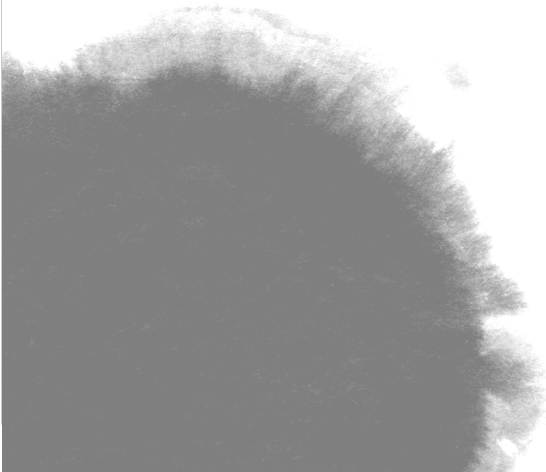
둘째, 거주지역별 구분을 함에 있어 도시와 농촌이 아닌 동 지역과 읍·면 지역으로 구분하였다. 이는 1996년에 시행된 전국의 행정구역개편에 따라 종전과

같이 도시와 농촌으로의 구분이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동 지역은 도시지역으로, 읍·면 지역은 농촌지역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셋째, 각 통계표에는 ‘무응답’ 수가 표시되지 않았다. 이는 조사과정에서 질문항에 따라 무응답에서 차이가 컸기 때문인데, 통계표에 제시된 실제 수(數)는 무응답을 제외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즉, 응답자 및 응답가구의 특성별 설문 문항 분석결과에서 설문 문항에 따라 제시된 수(數)가 일치하지 않는 것은 무응답자가 분석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03

여성 결혼이민자의 취업에 관한 선행연구
및 국내·외 정책동향



제3장 여성 결혼이민자의 취업에 관한 선행연구 및 국내·외 정책동향

제1절 취업에 관한 한국의 선행연구

1. 다문화여성과 직업

다문화가족의 여성이민자의 직업습득은 이들의 삶의 질과도 직결되는 문제이다. 여성 결혼이민자의 40.0%가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고(통계청, 2007), 많은 연구가 한국어 의사소통의 어려움, 생활방식과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가족간 갈등, 자녀양육문제와 더불어 경제적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심인선, 2008; 이혜경, 2005; 윤형숙, 2004; 강유진, 1999). 또한 여성 결혼이민자의 경제수준에 대한 만족도는 불만족 한다는 응답이 만족한다는 응답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영혜 외, 2009).

서울시에서 진행한 김연수(2007)의 연구에 의하면, 여성 결혼이민자의 직업은 가사도우미, 간병인, 공장근로자, 판매직 종사자 및 학원강사 등이며, 경기도에서 진행한 김영혜 외(2009)의 연구에서는 교사, 학원강사(학습도우미)등의 전문직, 단순노무 장치기계조립, 서비스직, 판매직, 사무직, 기능직 등의 순으로 직업이 파악되었다. 경상남도 거주 결혼이민자의 직업은 가사도우미, 교사, 농업 순으로 많았고, 여성 결혼이민자의 취업에 대한 욕구는 매우 높은 편이었으며, 가계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과 자기계발의 목적으로 직업을 갖기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난다(심인선, 2008).

선행연구에 따르면, 결혼이민자 여성들 중에서는 취업여성들의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논의되고 있다. 취업여성이 전업주부 보다 덜 우울하고 삶에 대해 더 만족한다는 연구결과(김여진·홍환, 2009)는 여성 결혼이민자의 삶의 질 만족에 직업이라는 요인이 주요한 역할을 한다고 이해될 수 있으며, 따라서 한국사회에의 적응을 보다

원활하게 하고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이들 여성들의 취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강조될 수 있다.

또한 직업을 전제하지 않은 평생교육 차원에서의 훈련은 앞으로 여성 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에도 긍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즉, 여성 결혼이민자에게 성인으로서의 교육경험은 한국문화에 적응을 용이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므로 평생교육 참여율을 제공하도록 하고, 지속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심인선, 2007; 권미경 2008).

2. 다문화여성의 취업 및 경제활동

결혼이민자의 취업 및 경제활동 관련 선행연구 중 이순형 외(2006)의 연구는 농촌지역 여성 결혼이민자의 생활실태와 욕구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취업을 하고 있는 결혼이민자는 19.4%이었으며, 이들이 일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가족의 생계 유지와 자녀교육비 충당이 22.7%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본국의 가족에게 송금하기 위해서(20.5%), 생활비 보충(13.6%) 등이었다. 현재 취업을 희망하나 취업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자녀양육과 한국말이 서툴러서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취업을 위해 필요한 지원으로는 적절한 일자리 알선을 희망하였으며, 훈련비 지원, 창업교육,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 등을 희망하였다.

설동훈 외(2006)의 연구에서는 남성 결혼이민자의 약 92%가 취업을 하고 있으나 여성 결혼이민자는 약 34%만이 취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취업직종은 출신국별 차이가 있어 조선족 남성은 대부분 육체적 노동에 종사하나 기타 출신국 남성은 학원강사 등 (준)전문직 등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았다. 여성 결혼이민자 중 조선족과 한족 등은 주로 식당 등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었으며, 필리핀과 베트남 여성은 공장 등 육체적 노동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들이 외국인으로서 일하면서 느끼는 어려움으로 남성 결혼이민자는 주로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을, 그리고 여성 결혼이민자는 자녀양육 부담과 저임금을 들었다. 비취업중인 여성 결혼이민자의 경우 자녀양육 때문에 일을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들 중 향후 취업의향은 82%나 되어 매우 높은 편이었다.

정기선 외(2007) 연구에서는 경기도 내 결혼이민자의 취업실태 및 욕구를 파악한

것으로 결혼이민자의 취업률은 30.2%로 특히 중국 조선족의 취업률이 가장 높았다. 취업직종으로는 판매서비스직과 생산직 비율이 높은 편이었다. 취업생활 중 애로사항으로는 자녀양육과 기사분담 등 주로 일과 가정양립의 어려움을 지적하였다. 또한 비경제활동 중인 결혼이민자의 취업욕구는 매우 높은 편이었으며, 이들이 희망하는 직종은 판매서비스, 생산직, 전문관리직 등의 순이었다. 취업을 희망하나 현재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자녀양육 때문이었고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서라는 이유도 상당 부분을 차지하였다. 이들이 가장 희망하는 서비스로는 한국어 교육이었으며, 취업상담 및 알선, 직업훈련 및 교육과 같은 고용관련 서비스에 대한 욕구도 매우 높았다.

김유경 외(2008)의 연구에서는 일반 결혼이민자와 결혼해체 이민자를 비교하였으며, 결혼이민자의 취업률은 19.4%, 결혼해체 이민자는 25.7%로 낮은 편이었고 종사상 지위는 임시근로자·일용근로자는 44.1%이었다. 결혼이민자들의 취업이유로는 자녀교육비 충당과 가족의 생계유지, 생활비 보충 등이었다. 일을 하면서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자녀와의 공유시간 부족, 자녀양육 부담 등이었다. 취업의향이 있는 결혼이민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로는 자녀양육·교육지원, 일자리 알선, 한국어 교육, 직업교육·취업지도 등의 순으로 희망하였다. 이는 결혼이민자의 경우에도 일반 기혼 여성과 같이 취업에 따르는 자녀양육과 교육의 부담을 경감시켜 줄 수 있는 지원을 필요로 하는데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2절 취업에 관한 국내·외 정책동향

1. 한국의 여성 결혼이민자를 위한 취업 지원정책

정부의 결혼이민자 지원정책은 결혼이민자들의 체류불안을 해소하고 이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제한여건 조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되고 있다. 정부주도의 지원프로그램은 한국어 및 한국문화에 대한 교육과 기초생활보장 및 생활정보에 대한 지원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 이후에는 결혼이민자의 영주권 취득요건 완화와 함께 취업을 자유롭게 허용하고 있다.

세 차례에 걸친 「여성 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대책」의 1차(2005.8)는 체류자격 불안정 문제를, 2차(2005.11)는 생활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3차

(2006.04)는 미흡했던 체류지원 및 생활안정대책을 정교화 하고, 정보제공·취업·보건의료서비스 지원을 보강하여 발표하였다(김영혜 외, 2009).

각 부처별로 볼 때, 보건복지가족부는 다문화가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으로 가족역량강화기에 결혼이민자 취업·창업을 지원하며, 여성부는 결혼이민여성 일자리 지원사업을 추진중이다. 2006년도부터 설치되기 시작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는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명칭을 바꾸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는데, 이 중 가족역량 교육을 2009년도부터 강화하여 결혼이민자의 취업활동에 필요한 전반적인 역량강화를 목표로 한다. 다문화강사, 원어민 강사, 한국어강사, 통·번역사 양성 교육, 이중언어교육 등 주로 언어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그림 3-1] 보건복지가족부의 생애주기별 정책과제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다문화가족과, 「다문화가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강화대책」, 2008.

무엇보다도 여성 결혼이민자들의 취업을 지원하는 기관은 크게 두 기관으로 분류되는데 이는 여성인력개발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다. 첫째,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취업교육 및 취업연계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3-1>과 같다. 전국 지역별로 개설되어 있는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제공되고 있는 취업교육과 이를 통해서 취업에 성공한 여성 결혼이민자의 현황을 살펴보면, 우선 순천시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제공한 취업교육을 수료한 여성 결혼이민자의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 전체 214명이 취업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료한 취업교육의 내용을 살펴보면, 한국문화체험교실과 정보화교육을 수강한 규모가 각각 4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소외계층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수강한 규모도 40명으로 가장 많은 여성 결혼이민자가 수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다문화가정을 위한 부부교실로서 33명의 여성 결혼이민자가 2007년 현재 수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취업교육을 목적으로 제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능력개발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비교적 낮은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면서 교육수료 후 취업에 성공한 여성 결혼이민자들은 2007년 현재 한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산시 여성인력개발센터의 경우, 취업관련 교육을 수료한 총 32명 중에서 영어지도사 과정을 수료한 여성이민자가 가장 많은 12명으로 집계되었다. 그 다음으로는 정보화과정 수료자가 15명, 그리고 한자지도사가 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과정을 수료한 여성이민자들 중에서 영어지도사 과정 수료자 3명이 취업에 성공하였으며, 정보화과정 수료자들 중에서도 모두 8명이 취업에 성공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부천시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제과·제빵기술 교육을 수료한 여성 결혼이민자가 30명에 이르는 반면, 과정수료 후 취업에 성공한 여성 결혼이민자는 한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취업지원기술교육(영어독서지도사 등)을 수료한 여성들은 모두 15명이었으며, 이 중에서 5명이 취업에 성공하였다.

수원시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집단상담 교육을 수료한 여성이 모두 18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 중에서 6명이 취업에 성공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또한 영어독서지도사 과정을 수료한 4명의 여성 결혼이민자들 중에서 2명이 취업으로 연계되어 약 50%의 취업성공률을 보였다.

〈표 3-1〉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취업교육 및 취업연계 현황

(단위: 명)

센터	교육훈련과정	수료자	취업자 ¹⁾	(창업·부업 등)
부천	제과·제빵기술교육	30	-	-
	취업지원기술교육(영어독서지도사, 한지공예, 리본공예, POP예쁜손글씨)	15	5	-
	소계	45	5	(2)
천안	피부관리사	7	7	(2)
	소계	7	7	-
목포	이주여성요리교실(한식요리실습)	20	-	-
	소계	20	-	-
보령	우리음식배우기	20	-	-
	소계	20	-	-
창원	여성이민자 증기교육과정 1(한글문서, 인터넷)	15	4	-
	여성이민자 증기교육과정 2(한글문서, 인터넷)	15	2	-
	소계	30	6	-
인천 남구	우리말 익히기	13	-	-
	소계	13	-	-
광진	이주여성대상 한국의 가정식요리만들기	16	-	-
	소계	16	-	-
수원	영어독서지도사	4	2	-
	OA 실무과정	4	-	-
	패션양재/수선	2	-	-
	집단상담	18	6	-
	소계	28	8	-
안산	영어지도사	12	3	-
	한자지도사	2	1	-
	간병사	-	-	-
	한식조리사(한식자격증대비반)	1	-	-
	리폼·뉴폼(옷수선, 옷만들기)	2	1	-
	정보화과정(문서, 엑셀, 인터넷)	15	8	-
	소계	32	13	-
청주	한식조리사(한식자격증대비반)	1	-	-
	소계	1	-	-
순천	이주여성우리의자매입니다(일일캠페인)	30	-	-
	외국인주부터전마련프로그램(피부관리사)	13	-	-
	이주여성동아리지원프로그램(동아리지원)	18	-	-
	다문화가정을 위한 부부교실	33	-	-
	한국문화체험 교실	40	-	-
	정보화 교육	40	-	-
	소외계층 평생학습프로그램(멘토링 및 인간관계 훈련)	40	-	-
	소계	214	-	-
전체		426	39	(2)

주: 1) 취업자 수=상용직+일용직+창업부업
 자료: 2007년 전국여성인력개발센터 현황자료, 보건복지가족부, 2008 재인용.

이상의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제공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현황과 취업연계성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우선 여성 결혼이민자의 훈련프로그램 선호도와 취업연계성이 비교적 낮다는 점이다. 단위 취업교육으로서는 비교적 수료자 규모가 큰 제과·제빵 기술 교육과정, 우리음식배우기 과정, 한국문화체험교실 등은 평균 30명 정도의 수료자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이수 후 취업에 성공한 여성 결혼이민자는 한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과정들의 특징은 취업을 목표로 개설된 교육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 특화된 교육보다는 일반적인 한국사회적응프로그램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내국인에 대해 상대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기술 및 지식을 습득케 하는 데는 성공적이지 못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반면, 영어지도사 과정, 한자지도사 과정 그리고 정보화 과정 등 교육의 목적 뿐 아니라 내용이 보다 취업 특화된 프로그램은 수료자 대비 취업성공률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취업교육은 특히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내국인에 비해 상대적 우위를 가질 수 있는 능력개발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따라서 취업교육을 통해서 시장성 확보에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둘째, 여성 결혼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취업교육을 지원하고 있는 기관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다. 보건복지가족부(2008)에 따르면, 전국에 걸쳐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여성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취업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센터는 32.8%에 그치고 있으며, 이들 여성들의 취업욕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한 경험은 46.3%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여성인력개발센터와는 달리 여성인력의 직업능력향상을 통해서 취업률 제고를 최우선적인 기관의 목표로 설정하고 있지 않은 배경이 취업관련 프로그램 제공에 보다 적극적이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의 <표 3-2>는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들에서 제공하고 있는 취업관련 교육 프로그램의 빈도를 정리한 결과이다(보건복지가족부, 2008). 가장 많은 기관에 의해 제공되고 있는 취업교육은 정보화 교육으로서 전체 다문화가족센터들 중에서 34개 기관이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다문화강사 및 원어민강사교육으로 각각 17개 센터가 제공하고 있었다. 또한 공예관련 취업교육과 이·미용관련 취업교육도 각각 11개와 10개 기관이 제공하는 것으로 조사결과 나타났다.

〈표 3-2〉 취업교육 프로그램¹⁾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비율
정보화 교육	34	70.8
영농기술	10	20.8
다문화강사	17	35.4
원어민강사	17	35.4
통·번역사	8	16.7
요리·제빵기술	8	16.7
이·미용	10	20.8
공예	11	22.9
원예	1	2.1
산모·간병 도우미	6	12.5
양재	7	14.6
기타	5	10.4

주: 1) 중복응답 결과임(총 사례수: 48).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통합진전을 위한 브릿지 프로그램(Bridge Program)추진방안, 2008.

다른 한편으로 노동부에서는 ‘대통령 지시사항 추진계획’에 의거하여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기술교육과 일자리 지원 강화방안으로 여성부와 연계하여 효율적인 기술교육을 실시하고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여성인력개발센터를 활용한다. 취업을 희망하는 결혼이민자의 구직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취업지원서비스 안내문을 발송하고 사회적일자리 사업참여를 확대하고 있다(표 3-3 참조).

〈표 3-3〉 대통령지시사항 추진계획

<p>1. 추진계획 개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가족부와 역할 분담을 통해 효율적인 기술교육 실시 ○ 전국의 고용지원센터와 기타 관련부처의 인프라를 통한 취업지원 <p>2. 세부추진계획(산자부 등과 공동추진)</p> <p>(1) 여성가족부와 역할 분담을 통해 효율적인 기술교육 실시('07.1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07년 38개소)를 통한 기술교육 실시 - 여성인력개발센터를 통한 교육훈련 - 여성가족부와 연계하여 신규실업자 훈련기회 제공 <p>(2) 전국의 고용지원센터와 관련부처의 인프라를 통한 취업지원('07.1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인력개발 센터의 희망일터 지원단을 통한 취업지원 - 여성가족부의 실태조사 등을 토대로 여성결혼 이민자에 대한 고용지원서비스 안내·홍보 강화 → 취업을 원하는 결혼이민자의 구직등록 적극 유도 <p>※ 취업지원 서비스 안내문 발송(여가부 등 관련부처와 협조), 각 고용지원센터를 통한 지역별 홍보 추진</p> <p>(3) 여성결혼이민자가 사회적일자리 사업에 우선적으로 참여하도록 노력('07년 상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들이 다수 거주한 지역을 중심으로 사회적일자리 사업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 배려
--

자료: 노동부, 「대통령지시사항 추진계획」, 2007.

2. 주요 외국의 여성 결혼이민자를 위한 취업 지원정책

가. 대만의 여성 결혼이민자를 위한 취업 지원정책

결혼이민자로 대만에 이주한 개인의 대다수는 비교적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가정으로 결혼할 경우가 많아 그들의 노동이 가정경제에 필수적일 때가 많으며 또한 출신국에 남아 있는 가족 역시 외국인배우자의 송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다.²⁾ 이전 취업서비스법 규정에 따라 결혼이민자들도 취업허가를 받아야 합법적으로 취업했으나 현재는 특별한 허가 없이 취업이 가능하며 대만에서의 외국인배우자에 대한 취업권익의 보장조치는 다음과 같다(남옥순, 2007).

- 취업 자문 서비스 제공
- 취업권 취득 결혼이민자에 대한 소개 및 중개서비스 제공
- 취업권 취득, 가정폭력 피해 결혼이민자에 대한 무료
- 거류증 없는 가족폭력 피해 중국인 배우자에 대한 일정기간 취업 보장
- 결혼이민자 취업허가 제한 규정 완화
- 직업훈련 강화 및 훈련보조금 지급을 통한 취업능력 향상 지원

2005년에는 외국인배우자들의 취업을 위한 2년 프로그램을 착수,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 2007년 기준으로 10,000명의 배우자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난다(대만 내정부, 2009).

나. 일본의 여성 결혼이민자를 위한 취업 지원정책

일본에서 다문화·다민족 공생에 관련된 개념이 대두되고 외국인과 관련된 정책이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1970년 후반부터로 이는 1975년 인도차이나의 난민문제와 이들에 대한 수용이 계기가 되어 시작되었다. 1980년대 외국인 노동자들의 입국이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1980년대 이후부터 국제결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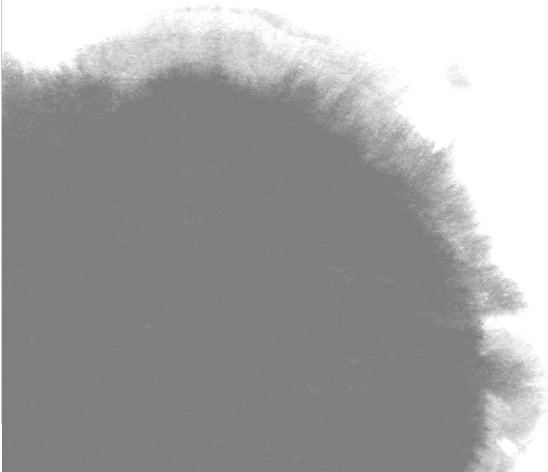
2) <http://www.gio.gov.tw/ct.asp?xItem=32995&ctNode=3242>

가정 및 이주여성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이들이 경험하는 언어문제, 일본의 법과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지원체계 부족, 체류자격 문제 등 다양한 어려움이 사회적 이슈로 부상함에 따라 일본정부는 2005년 ‘다문화공생추진플랜’을 수립, 이를 위한 연구회를 설립하는 등 ‘다문화공생’과 관련된 이슈들을 정책적인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다루기 시작했다.

일본정부가 수립한 다문화공생정책은 외국인들을 지역사회의 구성원들로 받아들이고 이들을 이해하며 이들의 능력을 지역발전과 부흥을 위해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더 이상 외국인을 단순한 지원의 대상이 아닌 공생관계의 대상으로 이해, 이들을 위한 행정서비스 향상, 인권보장, 타문화에 대한 일본시민들의 이해 및 개방적인 태도가 확립된 지역사회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조현미, 2009; 김범수, 2007). 이를 위해 크게 커뮤니케이션(언어)지원, 생활지원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수행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의 네트워크를 수립, 다문화공생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사업 중에 생활지원을 위한 구체적 내용으로 노동환경 지원이 있다. 이는 여성 결혼이민자를 포함한 외국인들의 취업기회를 확대, ‘헬로우 워커’ ‘상공회의소’ 등과 연대를 통해 취업환경을 개선하고 외국인들을 위한 취업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서비스가 포함된다.

04

여성 결혼이민자의 일반현황 및 한국어 능력



제4장 여성 결혼이민자의 일반현황 및 한국어 능력

제1절 여성 결혼이민자의 입국시기·목적과 출신국가

1. 여성 결혼이민자의 입국시기 및 입국목적

가. 입국시기³⁾

여성 결혼이민자의 입국년도를 살펴보면, 전체 여성 결혼이민자의 55.7%가 2005년 이후 입국하였고, 다음은 2000~2004년 입국자 26.3%, 1995~1999년 입국자 14.3% 등으로 나타났다.

여성 결혼이민자는 50대 이전의 모든 연령층에서 2005년 이후 입국자가 가장 많았고, 50세 이상 연령층은 2000~2004년 입국자가 가장 많았다.

여성 결혼이민자는 최근에 입국한 결혼이민자의 교육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초등학교 이하 학력자의 70.8%, 중학교 학력자의 66.5%, 고등학교 학력자의 51.2%, 대학 이상 학력자의 44.0%가 2005년 이후 입국자였다. 따라서 결혼이민자, 특히 여성 결혼이민자의 교육수준이 최근에 낮아지고 있음은 향후 한국의 인적자원 측면에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혼인상태를 살펴보면 배우자가 있는 여성 결혼이민자는 2005년 이후 입국한 비율이 55.7%로 가장 높았다. 이혼한 여성 결혼이민자는 2000~2004년 입국자가 37.5%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1995~1999년 35.1%로 나타났다(표 4-1 참조).

여성 결혼이민자의 출신국을 살펴보면, 캄보디아 출신의 95.6%, 베트남 출신의 87.6%, 중국 한족 등(조선국 제외) 출신의 67.9%, 몽골 출신의 55.7%, 필리핀 출

3) 여성가족부(2006) 조사결과에 의하면 2000년대 입국자가 69.9%였음.

신의 44.7%가 2005년 이후 입국자였고, 태국 출신의 51.6%, 중국 조선족의 38.6%, 북미·호주·서유럽 출신의 34.7%가 2000~2004년 입국자였으며, 그리고 일본 출신의 41.8%가 1995~1999년 입국자였다(표 4-2 참조).

〈표 4-1〉 여성 결혼이민자의 특성별 입국년도

(단위: %, 명)

구분	1990년 이전	1990-1994	1995-1999	2000-2004	2005년 이후	계(수)
전체	0.8	2.9	14.3	26.3	55.7	100.0(111,409)
지역						
동 지역	0.8	3.0	14.4	27.8	54.0	100.0(78,602)
읍·면 지역	0.8	2.5	14.2	22.8	59.7	100.0(32,807)
연령						
24세 이하	0.0	0.1	0.4	5.0	94.4	100.0(23,062)
25-29세	0.1	0.1	1.6	26.2	72.0	100.0(22,519)
30-34세	0.3	0.7	14.8	38.8	45.5	100.0(19,825)
35-39세	0.7	5.2	30.3	31.5	32.3	100.0(18,749)
40-49세	1.8	7.1	26.0	31.0	34.0	100.0(20,164)
50세 이상	4.3	9.0	23.3	34.1	29.3	100.0(7,073)
교육수준						
초등학교 이하	1.0	1.9	7.6	18.7	70.8	100.0(9,092)
중학교	0.4	2.2	9.4	21.5	66.5	100.0(30,559)
고등학교	0.7	3.3	16.9	27.9	51.2	100.0(47,523)
대학 이상	1.6	3.3	18.4	32.7	44.0	100.0(23,313)
혼인상태						
유배우	0.7	2.7	13.3	25.8	57.4	100.0(105,332)
이혼	1.0	5.7	35.1	37.5	20.6	100.0(4,142)
사별	5.3	7.8	32.3	30.3	24.3	100.0(1,200)

〈표 4-2〉 여성 결혼이민자의 출신국별 입국년도

(단위: %, 명)

구분	1990년 이전	1990-1994	1995-1999	2000-2004	2005년 이후	계(수)
전체	0.8	2.9	14.3	26.3	55.7	100.0(111,408)
중국(조선족)	0.7	5.5	24.9	38.6	30.4	100.0(33,990)
중국(한족 등)	0.5	1.8	9.2	20.6	67.9	100.0(30,607)
베트남	0.1	0.2	1.5	10.7	87.6	100.0(23,359)
필리핀	0.2	1.4	16.2	37.5	44.7	100.0(7,907)
몽골	0.5	0.0	12.1	31.7	55.7	100.0(1,676)
태국	0.1	0.5	12.0	51.6	35.7	100.0(1,528)
캄보디아	0.1	0.0	0.4	3.9	95.6	100.0(2,308)
일본	5.9	10.3	41.8	20.9	21.1	100.0(4,825)
북미·호주·서유럽	11.1	8.5	19.0	34.7	26.6	100.0(504)
기타	2.9	2.2	11.4	39.7	43.8	100.0(4,702)

나. 입국목적

여성 결혼이민자의 입국목적은 결혼, 취업, 친척방문, 사업 및 업무, 유학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결혼을 목적으로 입국한 비율이 83.7%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취업을 목적으로 입국하여 결혼한 비율 5.5%, 친척방문차 입국하여 결혼한 비율 3.1%, 그리고 사업/업무차 입국하여 결혼하게 된 비율 2.6% 등이었다.

거주지역별로 살펴보면 결혼목적으로 입국한 여성 결혼이민자의 비율이 읍·면 지역 90.2%로 동 지역 81.0%보다 높았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4세 이하의 여성 결혼이민자 95.9%가 결혼을 목적으로 입국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결혼목적의 입국이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최근 결혼하는 젊은 연령층에서 결혼목적의 한국입국이 많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여성 결혼이민자의 입국목적은 교육수준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학력수준이 낮을수록 결혼목적의 한국입국이 많았다. 즉, 결혼목적의 입국은 초등학교 이하와 중학교 학력 소지자가 각각 88.7%, 89.1%로 많았고, 고등학교 학력소지자는 83.7%, 대학 이상 학력 소지자는 74.5%로 나타났다.

혼인상태별 입국목적을 살펴보면, 유배우 및 이혼상태의 여성 결혼이민자는 결혼목적이 84%대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사별상태의 여성 결혼이민자는 결혼목적 73.9% 외에도 친척방문이 12.1%로 다른 혼인상태보다 다소 높은 특징을 보였다.

전반적으로 체류기간의 길고 짧음은 입국시점이 얼마나 오래되었느냐와 관련이 있다. 즉, 과거에 입국한 경우는 체류기간이 길고, 최근에 입국한 경우는 체류기간이 짧다고 판단할 수 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체류기간이 짧을수록 결혼목적의 입국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체류기간이 긴 경우에도 결혼목적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상대적으로 취업목적과 사업/업무 목적, 친척방문 목적 등의 입국도 다소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이러한 경향은 여성 결혼이민자에게서 현저히 나타나는 특징이라 하겠는데, 체류기간이 1년 미만의 94.3%, 체류기간 1~2년 미만의 94.2%가 결혼목적의 입국이었다(표 4-3 참조).

〈표 4-3〉 여성 결혼이민자의 특성별 입국목적

(단위: %, 명)

구분	결혼	취업	친척방문	사업/업무	유학	기타	계(수)
전체	83.7	5.5	3.1	2.6	1.9	3.2	100.0(117,819)
지역							
동 지역	81.0	6.2	3.7	3.0	2.3	3.7	100.0(82,892)
읍·면 지역	90.2	3.8	1.8	1.5	.8	1.9	100.0(34,927)
연령							
24세 이하	95.9	1.0	0.7	0.5	1.1	0.8	100.0(24,839)
25~29세	85.5	4.2	1.8	2.2	3.8	2.5	100.0(23,728)
30~34세	80.0	6.8	2.6	3.6	3.0	4.0	100.0(20,700)
35~39세	80.4	8.0	2.7	3.6	1.3	4.0	100.0(19,667)
40~49세	80.0	7.7	4.2	3.4	0.8	3.9	100.0(21,373)
50세 이상	67.3	8.2	14.9	2.8	0.2	6.5	100.0(7,468)
교육수준							
초등학교 이하	88.7	4.2	4.4	0.6	0.2	1.9	100.0(9,804)
중학교	89.1	4.4	2.9	1.8	0.1	1.7	100.0(32,687)
고등학교	83.7	6.4	3.0	3.1	0.8	2.9	100.0(50,037)
대학 이상	74.5	5.6	3.1	3.4	7.2	6.2	100.0(24,233)
혼인상태							
유배우	84.0	5.5	2.9	2.6	1.9	3.0	100.0(111,383)
이혼	84.7	5.2	4.1	1.8	0.5	3.6	100.0(4,338)
사별	73.9	3.9	12.1	1.3	0.3	8.4	100.0(1,274)
체류기간							
1년 미만	94.3	0.8	2.1	0.6	0.3	1.9	100.0(10,872)
1~2년 미만	94.2	1.3	1.6	0.8	0.5	1.6	100.0(15,471)
2~5년 미만	88.5	2.8	3.1	1.6	1.8	2.2	100.0(39,264)
5~10년 미만	72.1	10.4	3.5	5.3	3.8	4.8	100.0(26,686)
10년 이상	73.9	11.1	4.7	4.0	1.7	4.7	100.0(16,192)

여성 결혼이민자의 입국 목적을 국적별로 살펴보면, 결혼목적의 입국은 캄보디아가 97.9%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베트남 96.8%, 필리핀 91.1%를 보였다. 반면에 북미·호주·서유럽 출신의 결혼목적 입국은 불과 29.6%이었고, 오히려 취업목적 입국 27.0%, 사업/업무차 입국 9.2%의 비율을 차지하였다.

중국 조선족의 입국 목적을 살펴보면, 여성이민자의 77.1%가 결혼목적이었다고, 한족 등(조선족 제외) 출신의 중국인은 여성이민자의 82.4%가 결혼목적이었다. 따라서 중국 한족 등의 출신이 중국 조선족보다 결혼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한 비율이 높음을 볼 수 있다.

이어서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일본과 북미·호주·서유럽 출신의 한국입국 목적을 살펴보면, 일본출신 여성이민자의 85.2%가 결혼목적이었다고, 북미·호주·서유럽 출신 여

성이민자의 29.6%가 결혼목적이었다. 이는 일본출신의 이민자는 종교적 이유로 입국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판단된다.(표 4-4 참조).

〈표 4-4〉 여성 결혼이민자의 출신국별 입국목적

(단위: %, 명)

구분	결혼	취업	친척방문	사업/업무	유학	기타	계(수)
전체	83.7	5.5	3.1	2.6	1.9	3.2	100.0(117,818)
중국(조선족)	77.1	7.8	6.5	3.5	1.5	3.6	100.0(35,473)
중국(한족 등)	82.4	5.0	2.2	4.3	2.8	3.3	100.0(32,379)
베트남	96.8	1.8	0.4	0.5	0.2	0.4	100.0(24,979)
필리핀	91.1	3.0	2.1	0.3	0.1	3.3	100.0(8,357)
몽골	72.5	15.4	1.8	2.6	3.4	4.3	100.0(1,753)
태국	72.0	14.6	5.0	1.7	1.1	5.5	100.0(1,673)
캄보디아	97.9	1.1	0.5	0.1	0.2	0.2	100.0(2,570)
일본	85.2	0.9	1.1	1.0	7.1	4.7	100.0(4,956)
북미·호주·서유럽	29.6	27.0	6.2	9.2	6.0	21.9	100.0(530)
기타	67.5	12.6	3.6	1.7	4.9	9.8	100.0(5,146)

2. 여성 결혼이민자의 출신국가

여성 결혼이민자의 출신국은 중국 조선족이 30.0%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중국 한족 등 출신 27.4%, 베트남 21.3%이었다. 이들 외의 국가는 10% 미만의 소수였다(표 4-5 참조).

〈표 4-5〉 여성 결혼이민자의 출신국

(단위: %, 명)

구분	수	비율
전체	120,146	100.0
중국(조선족)	36,051	30.0
중국(한족 등)	32,926	27.4
베트남	25,561	21.3
필리핀	8,616	7.2
몽골	1,800	1.5
태국	1,703	1.4
캄보디아	2,623	2.2
일본	4,996	4.2
북미·호주·서유럽	554	0.5
기타	5,316	4.4

결혼이민자의 입국연도별 출신국 분포는 시대별로 어느 국가의 결혼이민자가 많은지를 파악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1990년 이전에는 일본출신의 여성 결혼이민자가 31.6%로 가장 많았고, 1990~1994년 기간에는 중국 조선족 출신의 여성 결혼이민자가 57.9%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1995~1999년 기간과 2000~2004년 기간에도 중국 조선족 출신의 결혼이민자가 각각 53.1%, 44.7%로 가장 많았다. 그렇지만 1990년 중반부터 중국 조선족 출신의 여성 결혼이민자는 다소 감소하는 특징을 보였다. 반면에, 한족 등 기타민족의 중국 출신 여성 결혼이민자는 1990년 들어서 두 번째로 많은 결혼이민자 비율을 보였고,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5년 이후에는 33.5%로 중국 조선족보다 많은 결혼이민자를 나타냈다. 더군다나 2005년 이후에는 베트남 출신의 결혼이민자(33.0%)가 한족 등 기타민족의 중국 출신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표 4-6 참조).

〈표 4-6〉 여성 결혼이민자의 입국연도별 출신국

구분	(단위: %, 명)					전체
	1990년 이전	1990~1994년	1995~1999년	2000~2004년	2005년 이후	
중국(조선족)	24.6	57.9	53.1	44.7	16.6	30.5
중국(한족 등)	15.7	17.1	17.7	21.5	33.5	27.5
베트남	3.1	1.2	2.1	8.5	33.0	21.0
필리핀	2.0	3.5	8.0	10.1	5.7	7.1
몽골	0.9	-	1.3	1.8	1.5	1.5
태국	0.2	0.2	1.2	2.7	0.9	1.4
캄보디아	0.1	-	0.1	0.3	3.6	2.1
일본	31.6	15.6	12.6	3.4	1.6	4.3
북미·호주·서유럽	6.2	1.3	0.6	0.6	0.2	0.5
기타	15.4	3.2	3.4	6.4	3.3	4.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898)	(3,208)	(15,968)	(29,330)	(62,002)	(111,406)

제2절 여성 결혼이민자 가족 부부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1. 여성 결혼이민자와 배우자의 연령

여성 결혼이민자는 특히 젊은 연령층의 비율이 높았다. 즉, 여성 결혼이민자 중 24세 이하는 21.1%이었고, 25~29세는 20.2%로 나타났다(표 4-7 참조).

〈표 4-7〉 출신국별 여성 결혼이민자의 연령

(단위: %, 명)

구분	출신국										전체
	중국 (조선족)	중국 (한족 등)	베트남	필리핀	몽골	태국	캄보디아	일본	북미호주 서유럽	기타	
24세 이하	2.5	11.1	63.4	18.8	14.7	4.1	68.4	0.6	2.7	14.5	21.1
25-29세	12.3	23.7	25.7	23.3	28.3	18.6	28.1	6.0	16.9	26.7	20.2
30-34세	18.4	21.7	7.0	23.2	27.6	29.2	2.6	15.9	27.5	28.8	17.6
35-39세	23.2	19.6	2.7	19.2	18.1	27.0	0.5	23.0	17.8	15.9	16.7
40-49세	28.3	19.4	1.0	14.3	10.3	20.4	0.3	48.7	20.1	10.8	18.1
50세 이상	15.2	4.4	0.1	1.1	0.9	0.8	0.1	5.9	14.9	3.3	6.4
계 (수)	100.0 (36,044)	100.0 (32,912)	100.0 (25,553)	100.0 (8,603)	100.0 (1,799)	100.0 (1,703)	100.0 (2,622)	100.0 (4,994)	100.0 (556)	100.0 (5,316)	100.0 (120,102)

여성 결혼이민자와 배우자간에 큰 연령 차이를 보였다. 24세 이하 여성 결혼이민자의 45.4%가 40대 이상의 배우자와 살고 있었고, 25~29세 여성 결혼이민자의 45.7%가 40대 이상의 배우자와 살고 있었다(표 4-8 참조).

〈표 4-8〉 여성 결혼이민자 연령별 배우자의 연령분포

(단위: %, 명)

결혼이민자 연령	배우자 연령						계(수)
	24세 이하	25-29세	30-34세	35-39세	40-49세	50세 이상	
24세 이하	1.4	3.0	13.6	36.6	42.7	2.7	100.0(23,467)
25-29세	0.3	5.5	15.0	33.5	41.4	4.3	100.0(22,856)
30-34세	0.2	1.2	10.7	29.8	52.5	5.7	100.0(20,176)
35-39세	0.1	0.5	2.5	16.8	66.4	13.7	100.0(18,864)
40-49세	0.1	0.1	0.3	3.2	52.7	43.6	100.0(20,086)
50세 이상	0.1	0.0	0.2	0.3	7.0	92.5	100.0(6,530)

여성 결혼이민자의 평균 연령은 33.3세, 배우자의 평균연령은 43.2세로 약 10세의 격차가 있었다. 여성 결혼이민자 중 부인과 남편의 연령 차이는 캄보디아가 17.5세로 가장 컸으며, 베트남이 17.0세로 그 다음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표 4-9 참조).

〈표 4-9〉 여성 결혼이민자 및 배우자의 평균 연령⁴⁾

(단위: 세)

구분	부인 본인(A)	남편(B)	부인과 남편의 연령차이(B-A)
전체	33.3	43.2	9.9
중국(조선족)	39.5	46.2	6.7
중국(한족 등)	33.9	42.7	8.8
베트남	24.3	41.3	17.0
필리핀	31.7	42.6	10.9
몽골	31.3	41.3	10.0
태국	34.5	41.6	7.1
캄보디아	23.5	41.0	17.5
일본	40.0	42.3	2.3
북미·호주·서유럽	38.3	40.3	2.0
기타	32.0	40.9	8.9

2. 여성 결혼이민자와 배우자의 교육수준⁵⁾

여성 결혼이민자의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42.3%, 중학교 27.7%, 대학 이상 20.6%로 나타났다(표 4-10 참조).

〈표 4-10〉 여성 결혼이민자의 교육수준

(단위: %, 명)

구분	(수)	비율
전체	(118,961)	100.0
초등학교 이하	(10,126)	8.4
중학교	(33,290)	27.7
고등학교	(50,808)	42.3
대학 이상	(24,736)	20.6

4) 여성가족부(2006년) 연구결과에 의하면 여성 결혼이민자의 평균연령 33.1세, 남성 결혼이민자의 평균 연령 38.1세로 나타났다. 출신국별로 여성 결혼이민자와 배우자 간 연령차이는 베트남 15.8세, 중국 조선족 8.3세, 중국 한족 7.9세로 나타났다.

5) 여성가족부(2006) 조사결과에 의하면 고등학교 이상은 39.6%, 전문대졸 이상은 25.9%였음. 여성 결혼이민자의 경우 고등학교 38.9%, 전문대졸 이상 24.6%였으며, 남성결혼이민자의 경우 고등학교 45.6%, 전문대졸 이상 34.2%였음.

여성 결혼이민자의 교육수준이 남성 결혼이민자보다 더 열악한 상태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성 결혼이민자의 36.5%가 중학교 이하의 교육수준을 가지고 있었고, 대학 이상의 교육수준 소지자는 20.8%로 나타났다(표 4-11 참조).

〈표 4-11〉 여성 결혼이민자의 출신국별 교육수준

(단위: %, 명)

구분	초등학교 이하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이상	계(수)
전체	8.5	28.0	42.7	20.8	100.0(118,961)
중국(조선족)	5.9	28.3	52.6	13.2	100.0(35,816)
중국(한족 등)	4.8	32.1	44.5	18.5	100.0(32,725)
베트남	20.0	41.9	34.1	4.0	100.0(25,086)
필리핀	1.6	2.7	38.3	57.3	100.0(8,538)
몽골	1.7	10.2	26.6	61.5	100.0(1,788)
태국	14.6	16.9	36.8	31.7	100.0(1,689)
캄보디아	31.4	35.0	23.8	9.8	100.0(2,529)
일본	0.2	1.0	39.5	59.3	100.0(4,988)
북미·호주·서유럽	1.4	0.0	7.4	91.1	100.0(552)
기타	3.6	9.5	35.7	51.2	100.0(5,250)

전반적으로 결혼이민자는 부부간 교육수준의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 결혼이민자와 배우자간의 교육수준 격차가 매우 심한 것을 보여주었는데, 초등학교 이하의 학력소지자 여성 결혼이민자 중 51.0%의 남편은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었음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또한 중학교 학력소지자 여성 결혼이민자의 65.7%의 남편은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었고, 고등학교 학력소지자 여성 결혼이민자의 배우자 학력수준이 대학이상인 경우 역시 19.0%나 되었다. (표 4-12 참조).

〈표 4-12〉 여성 결혼이민자 교육수준별 배우자의 교육수준 분포

(단위: %, 명)

구분	배우자 교육수준				계(수)
	초등학교 이하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이상	
초등학교 이하	26.6	22.4	39.1	11.9	100.0(8,655)
중학교	6.2	28.3	50.2	15.3	100.0(29,811)
고등학교	4.9	13.5	62.4	19.2	100.0(46,647)
대학 이상	3.9	8.4	39.8	47.9	100.0(23,553)

3. 여성 결혼이민자의 혼인상태

여성 결혼이민자의 혼인상태는 유배우 95.2%, 이혼 3.7%, 사별 1.1%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인의 평균 혼인상태)와 비교하여 유배우 비율이 높고, 사별 및 이혼의 비율이 낮은 것이다. 주요 이유는 본 조사에서는 별거인 경우가 유배우 상태로 파악되었고, 젊은 연령층의 결혼이민자가 많기 때문에 사별이 현저히 낮기 때문으로 풀이된다(표 4-13 참조).

혼인상태가 이혼 및 사별인 비율은 체류기간의 증가에 따라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년 미만의 체류기간에서도 0.7%의 가족해체를 보여 주었으며, 체류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점차 증가하여 2~5년 체류기간에서는 3.0%, 5~10년 체류기간에서는 6.9%, 10년 이상 체류기간에서는 12.5%의 가족해체가 이루어졌다(표 4-14 참조).

〈표 4-13〉 여성 결혼이민자의 혼인상태

(단위: %, 명)

구분	수	비율
전체	(120,146)	100.0
유배우	(113,432)	95.2
이혼	(4,435)	3.7
사별	(1,304)	1.1

〈표 4-14〉 여성 결혼이민자의 체류기간별 혼인상태 분포

(단위: %, 명)

구분	유배우	이혼	사별	계(수)
전체	95.2	3.7	1.1	100.0(82,124)
1년 미만	99.3	0.5	0.2	100.0(10,918)
1~2년 미만	99.0	0.8	0.2	100.0(15,538)
2~5년 미만	97.1	2.2	0.8	100.0(39,386)
5~10년 미만	93.1	5.6	1.3	100.0(26,748)
10년 이상	87.5	9.6	2.9	100.0(16,282)

여성 결혼이민자의 출신국별 혼인상태는 미미하나마 상이한 양상을 보여준다. 중국 조선족의 8.0%가 이혼상태에 있었고, 사별상태인 비율도 2.1%로 10.1%의 가족해체를 보여 다른 국가의 결혼이민자보다도 높게 나타났다(표 4-15 참조).

6) 미혼자를 제외한 한국인의 혼인상태는 유배우 85.0%, 사별 10.7%, 이혼 4.2%로 나타났다(통계청,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표 4-15〉 여성 결혼이민자의 출신국별 혼인상태

(단위: %, 명)

구분	출신국										전체
	중국 (조선족)	중국 (한족 등)	베트남	필리핀	몽골	태국	캄보디아	일본	북미호주 서유럽	기타	
유배우	90.0	95.6	99.3	97.3	98.7	98.3	99.7	98.4	97.2	97.3	95.2
이혼	8.0	3.7	0.4	1.6	0.8	0.8	0.2	0.3	1.3	2.0	3.7
사별	2.1	0.7	0.3	1.1	0.5	0.9	0.2	1.4	1.5	0.8	1.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35,649)	(32,683)	(25,411)	(8,562)	(1,789)	(1,692)	(2,602)	(4,976)	(543)	(5,259)	(119,166)

제3절 여성 결혼이민자의 거주지역 및 한국 거주기간

1. 여성 결혼이민자의 거주지역

동 지역 거주비율은 여성 결혼이민자의 70.3%, 읍·면지역 거주비율은 여성 결혼이민자의 29.7%로 나타났다(표 4-16 참조). 이는 농촌층각의 국제결혼이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여성 결혼이민자의 출신국별 거주지역을 살펴보면, 북미·호주·서유럽 출신 이민자의 92.6%가 동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고, 다음은 중국 한족 등(80.5%), 중국 조선족(79.9%) 등이 동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다(표 4-17 참조).

〈표 4-16〉 여성 결혼이민자의 거주지역

(단위: %, 명)

구분	수	비율
전체	120,146	100.0
동 지역	84,503	70.3
읍·면 지역	35,643	29.7

〈표 4-17〉 여성 결혼이민자의 출신국별 거주지역

(단위: %, 명)

구분	출신국										전체
	중국 (조선족)	중국 (한족 등)	베트남	필리핀	몽골	태국	캄보디아	일본	북미호주 서유럽	기타	
동 지역	79.9	80.5	53.2	54.1	66.4	53.8	55.2	58.5	92.6	74.0	70.3
읍·면 지역	20.1	19.5	46.8	45.9	33.6	46.2	44.8	41.5	7.4	26.0	29.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36,051)	(32,926)	(25,561)	(8,616)	(1,800)	(1,703)	(2,623)	(4,996)	(554)	(5,316)	(120,146)

2. 여성 결혼이민자의 한국 거주기간⁷⁾

여성 결혼이민자의 한국 거주기간을 살펴보면 2~5년 미만이 36.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5~10년 미만이 24.6%로 나타났다. 2년 미만 거주자는 여성이민자 24.2%, 10년 이상 거주자는 여성이민자 15.0%로 나타났다.

거주지역별로 살펴보면 한국 거주기간이 5~10년 미만인 여성 결혼이민자의 경우 동 지역 25.8%, 읍·면 지역 21.8%로 동 지역이 읍·면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를 제외한 나머지 한국 거주기간에 있어서는 읍·면 지역이 동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 결혼이민자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1년 미만: 읍·면지역 11.1%, 동 지역: 9.5%).

여성 결혼이민자의 연령별 한국 거주기간을 살펴보면, 1년 미만의 경우 24세 이하 23.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25~29세 11.8%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20대의 여성 결혼이민자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한국 거주기간이 1~2년 미만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여성 결혼이민자의 교육수준과 한국 거주기간은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한국 거주기간이 길었다는 것인데, 이는 한국에 입국한지 오래된 이주민, 즉 과거 여성 결혼이민자가 대체로 교육수준이 높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역설적으로 최근 여성 결혼이민자가 과거 여성 결혼이민자보다 교육수준이 낮다는 것이다.

혼인상태별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사별인 여성 결혼이민자가 거주기간이 길었고, 다음은 이혼상태인 여성 결혼이민자의 거주기간이 길었다. 반대로 유배우 상태의 여성 결혼이민자의 거주기간은 상대적으로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생애주기의 각 단계에서 이혼과 사별이 발생되기 때문이다(표 4-18 참조).

여성 결혼이민자의 출신국별로 한국 거주기간을 살펴보면, 10년 이상 거주자는 일본출신 이민자의 51.5%, 북미·호주·서유럽 출신의 32.4%, 중국 조선족의 27.3% 등으로 많았다(표 4-19 참조).⁸⁾

7) 여성가족부(2006) 조사결과에 의하면 한국 거주기간 2~4년 미만 20.3%, 1~2년 미만 20.1%였음.

8) 여성가족부(2006) 조사결과에 의하면 여성 결혼이민자의 출신국별 한국 거주기간은 10년 이상 장기 거주 의 경우 일본이 42.3%였으며, 2년 미만 단기 거주 의 경우 베트남이 59.9%였음.

〈표 4-18〉 여성 결혼이민자의 특성별 한국 거주기간

(단위: %, 명)

구분	1년 미만	1~2년 미만	2~5년 미만	5~10년 미만	10년 이상	계(수)
전체	10.0	14.2	36.2	24.6	15.0	100.0(109,572)
지역						
동 지역	9.5	13.9	35.7	25.8	15.1	100.0(77,426)
읍·면 지역	11.1	15.1	37.4	21.8	14.6	100.0(32,146)
연령						
24세 이하	23.0	28.6	45.3	3.0	0.1	100.0(22,395)
25~29세	11.8	18.3	48.0	21.3	0.5	100.0(22,187)
30~34세	7.3	11.1	32.6	37.6	11.4	100.0(19,548)
35~39세	4.7	7.2	24.9	32.0	31.2	100.0(18,481)
40~49세	3.7	6.7	28.9	30.2	30.5	100.0(19,957)
50세 이상	1.9	3.8	30.3	32.3	31.6	100.0(6,985)
교육수준						
초등학교 이하	11.1	17.0	46.9	16.2	8.9	100.0(8,908)
중학교	12.4	17.3	41.7	18.8	9.8	100.0(29,953)
고등학교	9.0	12.9	34.0	26.4	17.7	100.0(46,807)
대학 이상	8.4	11.8	29.3	31.8	18.7	100.0(23,030)
혼인상태						
유배우	10.5	14.9	36.9	24.0	13.7	100.0(103,613)
이혼	1.4	3.0	20.8	36.5	38.3	100.0(4,069)
사별	2.2	2.3	25.6	29.9	40.0	100.0(1,190)

〈표 4-19〉 여성 결혼이민자의 출신국별 한국 거주기간

(단위: %, 명)

구분	1년 미만	1~2년 미만	2~5년 미만	5~10년 미만	10년 이상	계(수)
전체	10.0	14.2	36.2	24.6	15.0	100.0(109,572)
중국(조선족)	2.3	4.7	29.0	36.6	27.3	100.0(33,638)
중국(한족 등)	14.3	20.2	39.0	18.0	8.6	100.0(30,248)
베트남	17.8	20.7	52.7	7.8	1.0	100.0(22,622)
필리핀	11.3	12.6	25.0	39.6	11.5	100.0(7,725)
몽골	7.0	14.8	39.3	29.7	9.2	100.0(1,652)
태국	5.4	9.1	24.6	52.0	8.9	100.0(1,510)
캄보디아	8.3	45.7	43.3	2.5	0.2	100.0(2,241)
일본	2.7	6.0	17.4	22.4	51.5	100.0(4,800)
북미·호주·서유럽	5.8	6.8	22.5	32.6	32.4	100.0(503)
기타	9.3	11.2	28.5	38.4	12.5	100.0(4,633)

제4절 여성 결혼이민자의 국적취득 및 체류자격

여성 결혼이민자의 한국 국적 취득률은 31.8%이며, 한국 국적 미취득자의 74.7%는 국적을 취득할 예정이라고 하였으며, 영주권만 취득하겠다는 경우는 11.8%, 국적을 취득할 예정이 없는 경우도 1.6%로 나타났다.

거주지역별로 살펴보면, 동 지역 거주자의 33.2%, 읍·면 지역 거주자의 28.3%가 국적을 취득하고 있었다.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여성 결혼이민자의 취득계획 여부의 경우 거주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여성 결혼이민자의 연령별 국적취득률을 보면, 35~39세가 51.0%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30~34세 연령층 41.5%이었으며, 40대 연령층은 38.6%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최근 입국한 것을 판단되는 24세 이하 결혼이민자의 국적취득률은 7.2%에 불과하였다. 한국국적 미취득자 중에서 국적취득 예정인 비율은 국적취득률이 가장 낮은 24세 이하 이민자가 85.2%로 가장 높았다. 영주권만 취득예정인 비율은 여성 결혼이민자 18.0%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35~39세 16.2%, 40~49세 15.9%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취득자 중 국적취득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비율은 50세 이상이 2.5%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30~34세(2.4%), 35~39세(2.0%) 순으로 나타났다.

국적 미취득자 중 국적 취득예정 비율은 고등학교 학력수준의 여성 결혼이민자 78.2%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초등학교 이하 86.0%, 중학교 84.7%순으로 나타났다. 영주권만 취득예정 비율은 대학 이상 학력수준의 여성 결혼이민자가 26.9%로 가장 높았으며, 국적을 취득할 예정이 없는 경우는 대학 이상 학력수준을 가진 여성 결혼이민자 3.2%로 나타났다.

여성 결혼이민자의 국적취득률은 혼인상태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전체적으로 유배우자는 29.9%만이 국적취득을 하였으나, 이혼자 및 사별자는 각각 65.8%, 66.9%가 국적취득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혼인상태가 출산 및 체류기간과 관련성을 갖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혼인상태에서 해석된 바와 같이 여성 결혼이민자의 체류기간이 길수록 국적 취득률이 높았다(표 4-20 참조).

여성 결혼이민자의 출신국별 한국국적 취득률을 살펴보면 중국 조선족이 59.4%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필리핀 43.6%이었다. 한국 국적 미취득자의 경우 중국 조선족, 베트남, 캄보디아를 중심으로 국적취득 예정비율이 높았다. 북미·호주·서유럽 출신의 여성 결혼이민자의 국적취득예정율은 6.5%로 가장 낮았으나 ‘영주권만 취득’예정인 비율이 30.8%로 높았다(표 4-21 참조).

〈표 4-20〉 여성 결혼이민자 특성별 한국 국적 취득여부 및 향후 취득계획

(단위: 명, %)

구분	한국국적 취득여부		향후 국적 또는 영주권 취득계획 여부 ¹⁾				
	(분석대상)	취득률	국적 취득 예정	영주권만 취득예정	예정 없음	모름	계(수)
전체	(117,909)	31.8	74.7	11.8	1.6	11.9	100.0(67,732)
지역							
동 지역	(82,935)	33.2	73.2	12.9	1.7	12.1	100.0(46,719)
읍·면 지역	(34,974)	28.3	78.0	9.2	1.4	11.4	100.0(21,013)
연령							
24세 이하	(24,852)	7.2	85.2	4.4	0.9	9.4	100.0(19,645)
25~29세	(23,855)	21.7	73.6	12.1	1.6	12.7	100.0(16,092)
30~34세	(20,646)	41.5	66.0	18.0	2.4	13.5	100.0(10,246)
35~39세	(19,692)	51.0	67.3	16.2	2.0	14.6	100.0(8,068)
40~49세	(21,360)	38.6	69.9	15.9	1.7	12.5	100.0(10,659)
50세 이상	(7,463)	48.6	79.1	10.5	2.5	8.0	100.0(3,001)
교육수준							
초등학교 이하	(9,859)	23.2	86.0	3.6	1.3	9.1	100.0(6,083)
중학교	(32,542)	27.0	84.7	6.0	1.0	8.3	100.0(19,829)
고등학교	(50,061)	36.9	78.2	9.9	1.3	10.7	100.0(26,687)
대학 이상	(24,371)	31.2	49.8	26.9	3.2	20.1	100.0(14,544)
혼인상태							
유배우	(111,489)	29.9	74.7	11.9	1.6	11.9	100.0(65,963)
이혼	(4,330)	65.8	80.7	9.3	1.9	8.1	100.0(1,167)
사별	(1,274)	66.9	79.1	7.2	2.3	11.4	100.0(306)
체류기간							
1년 미만	(10,777)	2.1	75.9	8.8	1.0	14.3	100.0(8,985)
1~2년 미만	(15,365)	1.8	77.4	9.2	1.4	11.9	100.0(12,994)
2~5년 미만	(39,127)	16.8	80.5	9.5	1.5	8.5	100.0(27,845)
5~10년 미만	(26,671)	62.2	62.5	21.4	2.1	13.9	100.0(8,516)
10년 이상	(16,215)	74.8	42.2	28.7	2.7	26.4	100.0(3,276)

주: 1) 현재 한국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만을 분석대상으로 함.

〈표 4-21〉 여성 결혼이민자의 출신국별 한국 국적 취득여부 및 향후 취득계획⁹⁾

(단위: 명, %)

구분	한국국적 취득여부		향후 국적 또는 영주권 취득계획 여부 ¹⁾				
	(분석대상)	취득률	국적 취득 예정	영주권만 취득예정	취득예정 없음	모름	계(수)
전체	(117,908)	31.8	74.7	11.8	1.6	11.9	100.0(67,731)
중국(조선족)	(35,413)	59.4	85.2	7.2	1.2	6.5	100.0(11,892)
중국(한족 등)	(32,302)	23.5	71.9	14.4	1.5	12.3	100.0(20,909)
베트남	(24,995)	12.5	89.8	2.1	0.6	7.4	100.0(18,560)
필리핀	(8,402)	43.6	74.4	10.5	1.9	13.2	100.0(4,108)
몽골	(1,769)	12.7	71.9	7.8	4.3	16.1	100.0(1,247)
태국	(1,687)	13.2	48.7	25.1	3.3	23.0	100.0(1,227)
캄보디아	(2,586)	6.3	90.7	4.0	1.2	4.1	100.0(2,022)
일본	(4,957)	5.3	13.4	47.3	3.5	35.8	100.0(3,892)
북미·호주·서유럽	(539)	7.1	6.5	30.8	22.8	40.0	100.0(413)
기타	(5,257)	20.9	53.6	24.5	2.5	19.4	100.0(3,459)

주: 1) 현재 한국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만을 분석대상으로 함.

한국 국적 미취득자의 현 체류자격은 한국인 배우자가 92.5%로 가장 큰 비율을 나타냈으며, 그 다음으로 영주권 취득이 6.2%이었다. 거주지역별로 살펴보면, 동 지역 여성결혼이민자 중 국적 미취득자의 93.6%, 읍·면 지역 여성 결혼이민자 중 국적 미취득자의 90.0%는 배우자로서의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었다.

연령대로 살펴보면, 국적 미취득자 중 배우자로서 체류자격을 가진 비율은 25~29세 연령층이 94.7%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24세 이하 연령층 94.1%이었다.

국적 미취득자 중에서 한국인 배우자로서의 체류자격을 가진 비율은 여성 결혼이민자는 중학교 학력자가 94.0%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초등학교 이하의 학력자가 93.0%로 나타났다. 국적 미취득자 중에서 영주권을 가진 여성 결혼이민자는 대학 이상의 학력자가 8.7%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고등학교 학력자가 6.1%로 나타났다.

국적 미취득 사별자의 체류자격이 한국인 배우자인 경우가 상대적으로 적었으며, 특히 영주권 취득자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체류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국적 미취득자는 한국인 배우자로서 체류자격이 대

9) 여성가족부(2006) 조사결과에 의하면 결혼이민자의 한국 국적 취득률은 전체 34.2%였으며, 여성 결혼이민자의 37.2%, 남성 결혼이민자의 6.3%였음. 출신국별로 여성 결혼이민자의 경우 필리핀 53.1%, 중국 조선족 51.4%로 본 조사와 동일하게 높은 국적 취득률을 나타냄. 또한, 한국 국적 미취득자의 66.3%는 한국 국적을 취득할 예정이라고 하였으며, 영주권만 취득예정인 경우 24.1%, 국적 또는 영주권 어느 것도 취득할 예정이 없는 경우가 2.4%였음.

부분이었으며, 10년 이상의 경우에도 한국인 배우자로서의 체류자격 비율이 가장 높았지만 10년 이상의 장기체류 이민자는 체류기간이 짧은 이민자보다 영주권자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특히 국적 미취득자 중에서 영주권자의 비율은 10년 이상 거주 여성 결혼이민자의 31.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표 4-22 참조).

〈표 4-22〉 여성 결혼이민자의 특성별 한국 국적 미취득자의 현 체류자격¹⁾

(단위: %, 명)

구분	영주	한국인 배우자	전문직 취업	비전문 취업	방문 취업	산업 연수/ 연수취업	유학	단기 비자	계(수)
전체	6.2	92.5	0.2	0.2	0.7	0.0	0.1	0.1	100.0(74,687)
지역									
동 지역	4.9	93.6	0.1	0.2	0.9	0.0	0.1	0.1	100.0(51,760)
읍·면 지역	9.1	90.0	0.2	0.1	0.4	0.0	0.0	0.1	100.0(22,927)
연령									
24세 이하	4.9	94.1	0.2	0.1	0.3	0.0	0.2	0.2	100.0(21,019)
25~29세	4.4	94.7	0.1	0.1	0.5	0.0	0.1	0.1	100.0(17,465)
30~34세	5.5	93.3	0.0	0.2	0.8	0.1	0.0	0.1	100.0(11,271)
35~39세	7.4	91.3	0.1	0.1	0.8	0.0	0.0	0.1	100.0(9,082)
40~49세	10.9	87.4	0.3	0.2	1.1	0.1	0.0	0.1	100.0(12,315)
50세 이상	6.2	90.4	0.3	0.7	2.3	0.0	0.0	0.1	100.0(3,513)
교육수준									
초등학교 이하	5.4	93.0	0.2	0.3	0.8	0.0	0.0	0.1	100.0(6,688)
중학교	4.9	94.0	0.2	0.2	0.7	0.0	0.0	0.1	100.0(21,670)
고등학교	6.1	92.7	0.1	0.1	0.8	0.1	0.0	0.1	100.0(29,564)
대학 이상	8.7	90.0	0.2	0.1	0.5	0.0	0.3	0.2	100.0(16,106)
혼인상태									
유배우	6.2	92.6	0.2	0.1	0.7	0.0	0.0	0.1	100.0(72,664)
이혼	3.8	92.0	0.6	0.6	2.0	0.5	0.1	0.5	100.0(1,326)
사별	11.8	83.2	0.0	2.4	2.7	0.0	0.0	0.0	100.0(374)
체류기간									
1년 미만	2.9	96.0	0.1	0.1	0.6	0.0	0.1	0.2	100.0(9,803)
1~2년 미만	3.4	95.5	0.1	0.1	0.7	0.0	0.1	0.1	100.0(14,144)
2~5년 미만	4.3	94.4	0.2	0.2	0.7	0.0	0.0	0.1	100.0(30,463)
5~10년 미만	8.0	90.5	0.1	0.3	0.7	0.1	0.1	0.1	100.0(9,558)
10년 이상	31.8	67.1	0.3	0.2	0.6	0.1	0.0	0.1	100.0(3,884)

주: 1) 90일 이하의 단기비자의 경우, 나타나지 않아 제시하지 않음.

한국국적 미취득자의 현 체류자격은 출신국에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한국인 배우자 자격인 비율이 모두 높았다. 그렇지만 일본출신 여성 결혼이민자는 한국인 배우자 67.53%, 영주권 취득이 32.3%로 다른 출신국과는 다소 다른 양상을 보였다. 즉, 일본출신 여성 결혼이민자는 다른 출신국 이민자와는 달리 영주권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표 4-23 참조).

〈표 4-23〉 여성 결혼이민자 출신국별 한국국적 미취득자의 현 체류자격¹⁾

(단위: %, 명)

구분	영주	한국인 배우자	전문직 취업	비전문 취업	방문 취업	산업 연수/ 연수취업	유학	단기 비자	계(수)
전체	6.2	92.5	0.2	0.2	0.7	0.0	0.1	0.1	100.0(74,688)
중국(조선족)	2.9	94.6	0.1	0.3	1.9	0.0	0.1	0.1	100.0(13,406)
중국(한족 등)	4.0	94.6	0.1	0.2	0.8	0.0	0.1	0.1	100.0(23,196)
베트남	6.0	93.1	0.2	0.2	0.3	0.1	0.0	0.1	100.0(19,528)
필리핀	3.4	95.8	0.2	0.1	0.1	0.0	0.2	0.2	100.0(4,484)
몽골	3.7	95.2	0.1	0.5	0.1	0.0	0.2	0.1	100.0(1,443)
태국	12.1	87.5	0.1	0.0	0.0	0.0	0.0	0.4	100.0(1,395)
캄보디아	3.2	95.8	0.4	0.2	0.0	0.2	0.2	0.1	100.0(2,278)
일본	32.3	67.5	0.0	0.0	0.0	0.0	0.0	0.1	100.0(4,538)
북미·호주·서유럽	2.9	95.0	1.0	0.0	0.6	0.0	0.0	0.4	100.0(479)
기타	5.7	93.4	0.2	0.1	0.5	0.0	0.0	0.2	100.0(3,941)

주: 1) 90일 이하의 단기비자의 경우, 나타나지 않아 제시하지 않음.

제5절 여성 결혼이민자의 한국어 능력

1. 한국어 말하기 능력

여성 결혼이민자의 한국어 말하기 능력은 ‘보통’ 39.7%로 가장 높았고, ‘(매우) 잘한다’ 36.2%, ‘(매우) 서툴다’ 24.1%로 나타났다. ‘(매우) 잘한다’는 비율은 동 지역 여성 결혼이민자가 38.7%로 읍·면 지역 여성 결혼이민자 30.0%보다 높았다. 여성 결혼이민자는 거주지역에 따라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

전반적으로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한국어 말하기 능력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여성 결혼이민자의 연령이 체류기간과 비례하는 관계를 가지므로 체류기간이 길수록 말하는 능력은 향상되는 것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교육수준과 한국어 말하기 능력은 대체로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상태별 한국어 말하기 능력은 체류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이혼 및 사별상태의 여성 결혼이민자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결혼이민자의 한국어 말하기 능력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바와 같이 체류기간에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결혼이민자의 말하기 능력 ‘(매우) 잘한다’는 비율은 체류기간이 10년 이상 67.5%, 반대로 1년 미만의 체류기간인 경우 8.3%에

불과하였다(표 4-24 참조).. 따라서 최근 입국한 이민자가 많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한국어 말하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적 배려가 강화되어야 할 것임을 알 수 있다.

한국어 말하기 능력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육수준, 혼인상태, 체류기간 등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책대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출신국별 한국어 말하기 능력을 분석해보면, 중국 조선족은 ‘(매우) 잘한다’는 비율이 71.8%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북미·호주·서유럽 60.8%, 몽골 41.4%로 높았던 반면 그 외의 국가는 ‘(매우) 서툴다’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4-25 참조).

〈표 4-24〉 여성 결혼이민자 특성별 한국어 말하기 능력

(단위: %, 명)

구분	매우 잘한다	잘한다	보통이다	서툰 편이다	매우 서툴다	계(수)
전체	16.9	19.3	39.7	18.1	6.0	100.0(117,544)
지역						
동 지역	18.5	20.2	38.6	17.2	5.5	100.0(82,746)
읍·면 지역	12.8	17.2	42.6	20.3	7.1	100.0(34,798)
연령						
24세 이하	3.5	11.7	47.9	28.2	8.7	100.0(24,824)
25~29세	11.3	17.3	44.2	21.0	6.2	100.0(23,796)
30~34세	18.6	21.3	38.6	16.0	5.4	100.0(20,659)
35~39세	24.9	22.0	34.8	13.3	5.0	100.0(19,556)
40~49세	23.2	23.0	35.0	13.6	5.1	100.0(21,205)
50세 이상	34.9	28.1	27.6	6.7	2.7	100.0(7,468)
교육수준						
초등학교 이하	10.6	14.4	35.0	28.4	11.7	100.0(9,829)
중학교	12.9	16.6	40.4	21.9	8.2	100.0(32,495)
고등학교	19.9	20.7	39.3	15.5	4.6	100.0(49,789)
대학 이상	18.7	22.2	41.6	14.1	3.4	100.0(24,365)
혼인상태						
유배우	16.1	18.9	40.2	18.6	6.2	100.0(111,120)
이혼	31.2	27.3	31.2	8.0	2.3	100.0(4,287)
사별	30.1	26.9	31.9	9.2	1.9	100.0(1,270)
체류기간						
1년 미만	3.0	5.3	29.4	39.1	23.1	100.0(10,713)
1~2년 미만	4.3	9.5	43.2	32.2	10.8	100.0(15,308)
2~5년 미만	11.7	18.5	46.8	18.7	4.3	100.0(38,935)
5~10년 미만	24.8	27.6	38.3	8.0	1.2	100.0(26,525)
10년 이상	38.9	28.6	27.5	4.3	0.6	100.0(16,088)

〈표 4-25〉 여성 결혼이민자 출신국별 한국어 말하기 능력

(단위: %, 명)

구분	매우 잘한다	잘 한다	보통이다	서툰 편이다	매우 서툴다	계(수)
전체	16.9	19.3	39.7	18.1	6.0	100.0(117,543)
중국(조선족)	41.6	30.2	24.7	2.7	0.7	100.0(35,299)
중국(한족 등)	9.2	14.0	42.1	24.7	10.0	100.0(32,091)
베트남	2.2	10.3	46.8	31.1	9.6	100.0(24,968)
필리핀	1.9	14.9	64.8	15.5	2.9	100.0(8,425)
몽골	7.5	33.6	46.2	10.7	2.0	100.0(1,761)
태국	2.4	17.5	37.2	36.2	6.6	100.0(1,681)
캄보디아	3.1	13.4	48.8	25.6	9.1	100.0(2,569)
일본	7.1	21.0	47.5	19.9	4.4	100.0(4,939)
북미·호주·서유럽	37.8	23.0	18.3	12.8	8.0	100.0(547)
기타	11.9	25.4	42.0	15.4	5.2	100.0(5,260)

2. 한국어 읽기 능력

여성 결혼이민자의 한국어 읽기 능력은 ‘보통’이 38.7%로 가장 높았고, ‘(매우) 잘한다’ 37.4%, ‘(매우) 서툴다’ 23.8%로 나타났다. ‘(매우) 잘한다’는 비율은 동 지역 여성 결혼이민자가 39.8%로 읍·면 지역 결혼이민자 31.8%보다 높았다.

한국어 말하기 능력과 마찬가지로 한국어 읽기 능력도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전반적으로 높아지고 있었다. 따라서 여성 결혼이민자의 연령이 체류기간과 비례하는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한국어 능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소로 파악될 수 있다.

교육수준과 한국어 읽기 능력은 대체로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어 읽기를 ‘(매우) 잘한다’는 비율은 초등학교 이하 학력수준이 22.3%이었고, 고등학교와 대학 이상 학력수준은 동일한 40%대로 나타났다.

혼인상태별 한국어 읽기 능력은 체류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이혼 및 사별상태의 여성 결혼이민자가 유배우자보다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이민자의 한국어 읽기 능력은 체류기간에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류기간이 10년 이상 여성 결혼이민자의 64.1%, 체류기간이 1년 미만인 여성 결혼이민자는 12.7%로 ‘(매우) 잘한다’는 비율이 나타났다. 이는 여성 결혼이민자의 한국어 읽기 능력은 체류기간에 비례하는 것을 의미한다(표 4-26 참조).

〈표 4-26〉 여성 결혼이민자 특성별 한국어 읽기 능력

(단위: %, 명)

구분	매우 잘한다	잘 한다	보통이다	서툰 편이다	매우 서툴다	계(수)
전체	17.3	20.1	38.7	17.2	6.6	100.0(108,966)
지역						
동 지역	19.0	20.8	37.5	16.5	6.3	100.0(76,970)
읍·면 지역	13.2	18.6	41.7	19.0	7.4	100.0(31,996)
연령						
24세 이하	4.6	15.2	47.7	23.7	8.7	100.0(22,777)
25~29세	12.4	18.5	42.9	19.3	6.9	100.0(22,286)
30~34세	19.9	22.0	36.8	15.6	5.7	100.0(19,323)
35~39세	25.0	21.9	33.8	13.9	5.5	100.0(18,253)
40~49세	22.7	21.8	33.9	15.0	6.6	100.0(19,539)
50세 이상	33.0	27.0	27.1	8.3	4.6	100.0(6,758)
교육수준						
초등학교 이하	8.5	13.8	34.8	27.5	15.4	100.0(8,877)
중학교	13.3	17.8	39.5	20.6	8.8	100.0(29,461)
고등학교	20.8	20.9	38.2	14.9	5.0	100.0(46,303)
대학 이상	19.0	23.9	40.1	13.4	3.5	100.0(23,408)
혼인상태						
유배우	16.7	19.8	39.3	17.5	6.7	100.0(103,150)
이혼	30.7	27.7	27.5	11.2	3.0	100.0(3,887)
사별	28.6	23.1	29.4	11.8	7.1	100.0(1,170)
체류기간						
1년 미만	3.7	9.0	35.6	30.6	21.1	100.0(9,861)
1~2년 미만	5.7	12.7	44.0	26.7	11.0	100.0(14,247)
2~5년 미만	12.4	19.9	43.4	18.7	5.5	100.0(36,290)
5~10년 미만	25.4	26.2	35.7	10.2	2.5	100.0(24,717)
10년 이상	37.3	26.8	28.4	6.1	1.4	100.0(15,116)

한국어 읽기 능력을 출신국별로 살펴보면, 큰 차이를 보인다. ‘(매우) 잘한다’는 비율은 중국 조선족이 70.9%로 매우 높았고, 다음은 북미·호주·서유럽 출신 55.1%, 몽골 출신 36.7% 등의 순이었다. 반면에 최근 입국자가 많은 베트남은 16.8%, 캄보디아 19.0% 등은 낮았다(표 4-27 참조).

〈표 4-27〉 여성 결혼이민자 출신국별 한국어 읽기 능력

(단위: %, 명)

구분	매우 잘한다	잘 한다	보통이다	서툰 편이다	매우 서툴다	계(수)
전체	17.3	20.1	38.7	17.2	6.6	100.0(108,966)
중국(조선족)	42.7	28.2	22.9	4.7	1.5	100.0(32,629)
중국(한족 등)	9.0	15.3	41.2	23.7	10.8	100.0(30,022)
베트남	3.2	13.6	47.4	26.2	9.6	100.0(22,260)
필리핀	3.2	21.0	60.7	11.3	3.7	100.0(7,658)
몽골	8.0	28.7	47.3	13.0	2.9	100.0(1,712)
태국	2.0	19.7	36.2	32.9	9.3	100.0(1,640)
캄보디아	3.1	15.9	45.0	25.0	10.9	100.0(2,453)
일본	6.7	20.4	48.7	19.8	4.4	100.0(4,918)
북미·호주·서유럽	35.9	19.2	24.4	14.3	6.1	100.0(537)
기타	9.8	23.3	40.8	19.1	7.0	100.0(5,134)

3. 한국어 쓰기 능력

통상적으로 언어는 읽기와 말하기보다 쓰기가 난해하기 때문에 여성 결혼이민자의 한국어 쓰기 능력은 한국어 말하기와 읽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즉, 여성 결혼이민자의 한국어 쓰기 능력은 ‘보통’이 36.6%로 가장 높았고, ‘(매우) 잘한다’ 32.6%, ‘(매우) 서툴다’ 31.1%로 나타났다.

한국어 쓰기 능력을 거주지역별로 살펴보면 동 지역 거주자가 읍·면 지역 거주자보다 다소 나왔다. 즉, ‘(매우) 잘한다’는 비율이 동 지역 거주자 35.1%, 읍·면 지역 거주자 26.4%이었다.

한국어 쓰기 능력은 여성 결혼이민자의 연령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쓰기를 ‘(매우) 잘한다’는 비율은 24세 이하 15.8%, 50세 이상 55.5%로 큰 격차를 보였다.

한국어 쓰기 능력은 교육수준별로 큰 차이를 보였는데, 전반적으로 고등학교 학력의 여성 결혼이민자가 가장 능력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우) 잘한다’는 비율은 초등학교 이하 학력자가 18.2%로 가장 낮았고, 고등학교 학력자는 37.6%이었으며, 대학 이상 학력자는 34.3%이었다.

혼인상태에 따른 한국어 쓰기 능력은 다른 언어능력과 마찬가지로 이혼자 및 사별자가 높았고, 유배우자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즉, ‘(매우) 잘한다’는 비율은 이혼상태의 여성 결혼이민자가 54.3%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사별자 45.3%, 유배우자 31.5%이었다.

한국어 쓰기 능력은 체류기간에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우) 잘한다’는 비율은 1년 미만의 체류자가 12.1%에 불과하였으나 체류기간이 길수록 점차 높아져 10년 이상 체류자는 56.6%이었다(표 4-28 참조).

출신국별로 한국어 쓰기 능력은 큰 격차를 보였다. ‘(매우) 잘한다’는 비율은 중국 조선족이 67.2%로 매우 높았고, 다음은 북미·호주·서유럽 출신자 48.4%, 중국 한족 등 21.7%의 순이었다. 반면에 최근에 입국한 비율이 높은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등 국가의 출신 이민자는 10%대를 겨우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29 참조).

〈표 4-28〉 여성 결혼이민자 특성별 한국어 쓰기 능력

(단위: %, 명)						
구분	매우 잘한다	잘 한다	보통이다	서툰 편이다	매우 서툴다	계수
전체	16.0	16.6	36.3	21.7	9.4	100.0(108,835)
지역						
동 지역	17.6	17.5	35.2	20.7	9.0	100.0(76,879)
읍·면 지역	12.0	14.4	38.9	24.3	10.4	100.0(31,956)
연령						
24세 이하	3.8	11.8	44.0	29.1	11.3	100.0(22,744)
25~29세	11.3	14.7	40.1	24.0	9.9	100.0(22,267)
30~34세	18.2	17.7	35.1	20.3	8.6	100.0(19,284)
35~39세	23.4	18.3	32.1	17.8	8.4	100.0(18,244)
40~49세	21.1	18.8	31.3	19.1	9.7	100.0(19,526)
50세 이상	30.6	24.9	27.0	11.5	5.9	100.0(6,742)
교육수준						
초등학교 이하	7.3	10.9	30.7	32.2	18.9	100.0(8,859)
중학교	12.2	15.5	36.1	24.1	12.0	100.0(29,422)
고등학교	19.6	18.0	35.8	19.0	7.5	100.0(46,277)
대학 이상	17.0	17.3	39.5	19.9	6.4	100.0(23,353)
혼인상태						
유배우	15.3	16.2	36.7	22.2	9.6	100.0(103,017)
이혼	29.2	25.1	27.7	12.8	5.1	100.0(3,886)
사별	24.8	21.0	29.0	14.8	10.4	100.0(1,172)
체류기간						
1년 미만	3.9	8.2	32.1	32.5	23.3	100.0(9,872)
1~2년 미만	5.3	11.0	40.1	29.2	14.4	100.0(14,227)
2~5년 미만	11.4	16.4	40.7	23.0	8.5	100.0(36,252)
5~10년 미만	23.0	21.2	34.5	16.2	5.1	100.0(24,691)
10년 이상	34.9	21.7	27.2	12.4	3.9	100.0(15,0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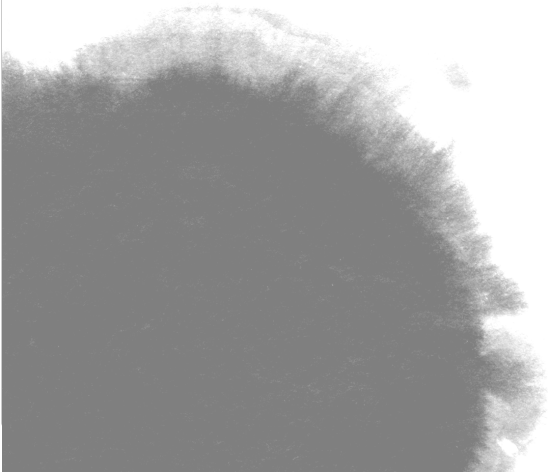
〈표 4-29〉 여성 결혼이민자 출신국별 한국어 쓰기 능력

(단위: %, 명)

구분	매우 잘한다	잘한다	보통이다	서툰 편이다	매우 서툴다	계(수)
전체	16.0	16.6	36.3	21.7	9.4	100.0(108,835)
중국(조선족)	40.5	26.7	23.3	6.8	2.7	100.0(32,634)
중국(한족 등)	8.4	13.3	37.5	26.5	14.3	100.0(30,019)
베트남	2.6	10.3	43.3	31.7	12.2	100.0(22,255)
필리핀	2.1	11.9	61.6	18.8	5.6	100.0(7,601)
몽골	5.0	15.9	47.7	24.3	7.1	100.0(1,695)
태국	1.0	14.1	33.9	37.6	13.3	100.0(1,633)
캄보디아	2.2	11.2	41.6	30.1	14.9	100.0(2,429)
일본	4.6	13.2	38.4	32.9	10.9	100.0(4,917)
북미·호주·서유럽	34.1	14.3	24.4	17.9	9.3	100.0(537)
기타	6.8	12.6	38.2	29.3	13.1	100.0(5,113)

05

여성 결혼이민자 가족의
주거 및 경제상태와 삶의 만족도



제5장 여성 결혼이민자 가족의 주거 및 경제상태와 삶의 만족도

제1절 여성 결혼이민자 가족의 주거실태

1. 주거의 소유형태

여성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이 살고 있는 집 소유형태는 전세·월세 40.4%, 본인·배우자 소유 33.7%, 배우자 부모 소유 20.8%로 여성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의 자가소유율이 낮았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동 지역 여성 결혼이민자 48.0%는 전세 또는 월세, 읍·면 지역 여성 결혼이민자 34.6%는 배우자 부모의 소유의 주거형태를 나타냈다.

연령별로는 30대의 자가 소유율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여성 결혼이민자는 본인 또는 배우자 소유율은 35~39세가 38.2%로 가장 높았으며, 24세 이하가 28.6%로 가장 낮았다. 또한, 배우자 부모 소유율은 24세 이하가 39.1%, 그 다음으로 25~29세가 26.5%를 나타냈다.

현 주거의 자가소유율은 교육수준별로 차이가 크지 않고 약 30~35%의 범위에 있었다. 여성 결혼이민자의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 소유가 학력별로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배우자 부모 소유는 고등학교 학력의 여성 결혼이민자가 18.8%로 가장 낮았다.

혼인상태별 집 소유형태를 살펴보면 배우자가 있는 결혼이민자는 자가 소유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이혼한 결혼이민자나 사별한 결혼이민자의 경우에는 전세 또는 월세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배우자가 있는 여성 결혼이민자 34.8%가 본인 또

는 배우자 소유였으며, 전세 또는 월세의 주거형태는 39.0%를 보였다. 여성 결혼이민자 중 이혼자 혹은 사별자의 전세 또는 월세의 주거형태 비율이 배우자가 있는 여성 결혼이민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체류기간이 길수록 본인 또는 배우자 소유율은 점차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여성 결혼이민자 중 체류기간이 1년 미만일 때 본인 또는 배우자 소유율이 28.2%로 가장 낮았으나 5~10년 미만은 35.2%, 10년 이상은 46.0%로 체류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본인 또는 배우자 소유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1 참조).

〈표 5-1〉 여성 결혼이민자의 특성별 집 소유형태

(단위: %, 명)

구분	본인 또는 배우자 소유	배우자 부모 소유	전세 또는 월세	기타	계(수)
전체	33.7	20.8	40.4	5.1	100.0(117,689)
지역					
동 지역	32.5	15.0	48.0	4.6	100.0(82,827)
읍·면 지역	36.8	34.6	22.6	6.1	100.0(34,862)
연령					
24세 이하	28.6	39.1	28.2	4.0	100.0(24,760)
25~29세	31.7	26.5	37.8	4.1	100.0(23,746)
30~34세	35.4	18.6	41.7	4.3	100.0(20,750)
35~39세	38.2	13.3	43.4	5.1	100.0(19,695)
40~49세	36.3	8.0	49.3	6.4	100.0(21,277)
50세 이상	33.6	4.2	52.9	9.3	100.0(7,424)
교육수준					
초등학교 이하	31.2	28.0	34.4	6.5	100.0(9,793)
중학교	32.2	22.9	39.8	5.1	100.0(32,503)
고등학교	34.2	18.8	42.1	4.9	100.0(49,948)
대학 이상	35.6	19.0	40.6	4.7	100.0(24,370)
혼인상태					
유배우	34.8	21.7	39.0	4.5	100.0(111,606)
이혼	12.3	1.6	70.5	15.6	100.0(4,324)
사별	18.3	8.5	58.2	15.0	100.0(1,281)
체류기간					
1년 미만	28.2	33.0	34.5	4.3	100.0(10,705)
1~2년 미만	30.4	28.6	36.8	4.3	100.0(15,326)
2~5년 미만	30.9	23.4	41.0	4.8	100.0(38,988)
5~10년 미만	35.2	13.9	45.6	5.3	100.0(26,592)
10년 이상	46.0	8.4	39.5	6.1	100.0(16,180)

집 소유형태를 출신국별로 살펴보면, 일본이 본인 또는 배우자 소유가 가장 높았고, 배우자 부모 소유는 캄보디아, 베트남, 필리핀이 가장 높았다. 여성 결혼이민자 중 본인 또는 배우자 소유율이 가장 높은 출신국은 일본으로 48.1%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북미·호주·서유럽이 40.3%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 결혼이민자의 배우자 부모 소유 주거형태는 캄보디아가 39.8%, 베트남이 38.1%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북미·호주·서유럽 9.1%, 중국 조선족이 9.9%로 낮은 비율을 나타냈다. 전세 또는 월세는 여성 결혼이민자 출신국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표 5-2 참조).

〈표 5-2〉 여성 결혼이민자의 출신국별 집 소유형태

(단위: %, 명)

구분	본인 또는 배우자 소유	배우자 부모 소유	전세 또는 월세	기타	계수
전체	33.7	20.8	40.4	5.1	100.0(117,688)
중국(조선족)	37.3	9.9	47.0	5.8	100.0(35,412)
중국(한족 등)	30.1	16.3	48.8	4.8	100.0(32,309)
베트남	31.7	38.1	26.3	3.9	100.0(24,836)
필리핀	29.8	29.6	34.7	5.9	100.0(8,436)
몽골	35.3	20.4	40.5	3.8	100.0(1,769)
태국	29.9	23.4	41.3	5.5	100.0(1,681)
캄보디아	34.8	39.8	20.9	4.5	100.0(2,562)
일본	48.1	17.3	28.3	6.3	100.0(4,921)
북미·호주·서유럽	40.3	9.1	46.9	3.7	100.0(539)
기타	34.1	20.1	40.2	5.6	100.0(5,224)

2. 주거형태 및 거주환경

거주지역별로 살펴보면 동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 결혼이민자는 아파트가 35.8%로 가장 높았고, 다세대주택(24.1%), 일반단독주택(21.0%)순으로 나타났으며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과 오피스텔이 낮은 비율로 나타났다.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 결혼이민자는 일반단독주택이 62.7%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아파트가 22.7%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4세 이하 여성 결혼이민자의 44.8%가 일반단독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25~29세 여성 결혼이민자의 36.4%가 아파트에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대 여성 결혼이민자 역시 아파트의 주거형태가 가장 높았으며, 40대와 50대는 일반단독주택의 주거형태가 가장 높았다.

여성 결혼이민자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일반단독주택의 주거형태의 비율은 낮아

지고(초등학교 이하 46.4%, 대학 이상 26.3%), 아파트 주거형태의 비율은 높아졌다(초등학교 이하 23.7%, 대학 이상 40.8%). 다세대주택 주거형태의 경우에는 교육수준별로 차이가 거의 없었다.

혼인상태별로 여성 결혼이민자의 주거형태를 살펴보면, 배우자가 있는 결혼이민자의 경우의 주거형태는 아파트 32.8%, 일반단독주택이 33.7%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이혼한 결혼이민자의 경우에는 다세대주택 37.8%, 일반단독주택 24.8%, 사별한 결혼이민자의 경우에는 일반단독주택 29.7%, 다세대주택 31.0%로 배우자가 있는 결혼이민자의 주거형태와 이혼 혹은 사별한 결혼이민자의 주거형태가 조금 다른 양상을 보였다(표 5-3 참조).

〈표 5-3〉 여성 결혼이민자의 특성별 주거형태

(단위: %, 명)

구분	일반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점포주택 등 복합용도 주택	비거주용 건물내 주택	오피스텔	기타	계수
전체	33.3	18.2	10.3	31.9	3.1	1.0	0.5	1.6	100.0(118,908)
지역									
동 지역	21.0	24.1	12.8	35.8	3.3	0.9	0.6	1.4	100.0(83,703)
읍·면 지역	62.7	4.3	4.2	22.7	2.6	1.3	0.2	2.0	100.0(35,205)
연령									
24세 이하	44.8	11.7	7.9	30.0	3.1	0.8	0.4	1.4	100.0(25,122)
25~29세	32.6	15.6	10.0	36.4	2.6	0.9	0.5	1.4	100.0(23,996)
30~34세	27.9	18.1	11.2	37.4	3.0	0.7	0.5	1.2	100.0(20,867)
35~39세	29.0	20.2	11.5	33.1	3.0	1.3	0.5	1.4	100.0(19,785)
40~49세	31.1	24.3	11.2	25.9	3.7	1.2	0.5	2.1	100.0(21,526)
50세 이상	30.8	26.0	10.8	23.3	3.7	2.0	0.6	2.9	100.0(7,585)
교육수준									
초등학교 이하	46.4	15.0	8.1	23.7	3.0	1.1	0.4	2.2	100.0(10,034)
중학교	36.5	19.2	10.0	28.1	3.2	1.1	0.4	1.6	100.0(32,932)
고등학교	32.1	18.9	10.9	31.7	3.2	1.1	0.5	1.5	100.0(50,293)
대학 이상	26.3	16.9	10.3	40.8	2.8	0.7	0.7	1.3	100.0(24,473)
혼인상태									
유배우	33.7	17.3	10.2	32.8	3.0	1.0	0.5	1.4	100.0(11,228)
이혼	24.8	37.8	11.8	13.1	4.4	2.3	1.4	4.4	100.0(4,369)
사별	29.7	31.0	10.0	21.2	3.3	1.5	0.4	2.9	100.0(1,290)
체류기간									
1년 미만	36.6	14.3	9.5	33.6	2.9	0.8	0.7	1.5	100.0(10,797)
1~2년 미만	35.2	16.4	10.1	32.1	3.3	1.0	0.6	1.4	100.0(15,446)
2~5년 미만	35.0	18.2	9.6	31.1	3.1	0.9	0.5	1.6	100.0(39,344)
5~10년 미만	28.6	21.0	11.4	32.6	3.2	1.1	0.5	1.6	100.0(26,689)
10년 이상	31.0	18.3	11.5	32.8	3.3	1.2	0.3	1.6	100.0(16,231)

체류기간별 주거형태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일반단독주택과 아파트의 비율이 비슷한 수준에서 높게 나타났다. 5년 미만 한국에 체류한 결혼이민자는 일반단독주택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5년 이상 한국에 체류한 결혼이민자는 아파트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다세대주택의 주거형태의 경우 5~10년 미만이 21.0%로 가장 높았으며, 1년 미만이 14.3%로 가장 낮았다(표 5-3 참조).

여성 결혼이민자의 출신국별 주거형태를 살펴보면, 중국 조선족 31.6%, 중국 한족 등(조선족 제외) 34.9%, 북미·호주·서유럽 63.0%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베트남 48.9%, 필리핀 45.9%, 캄보디아 54.0%가 일반단독주택에 거주하고 있었다(표 5-4 참조).

〈표 5-4〉 여성 결혼이민자의 출신국별 주거형태

(단위: %, 명)

구분	일반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점포주택 등 복합용도주택	비거주용 건물내 주택	오피스텔	기타	계(수)
전체	33.3	18.2	10.3	31.9	3.1	1.0	0.5	1.6	100.0(118,908)
중국(조선족)	26.8	22.6	11.8	31.6	3.7	1.3	0.6	1.6	100.0(35,737)
중국(한족 등)	24.5	22.3	12.0	34.9	2.9	1.1	0.6	1.6	100.0(32,535)
베트남	48.9	11.1	7.2	27.4	2.8	0.9	0.2	1.4	100.0(25,326)
필리핀	45.9	12.2	8.4	27.6	2.8	0.9	0.3	1.9	100.0(8,508)
몽골	29.1	19.6	11.9	34.1	3.3	0.8	0.3	1.0	100.0(1,780)
태국	39.6	16.0	11.6	26.5	2.8	1.3	0.2	2.0	100.0(1,689)
캄보디아	54.0	8.7	6.5	25.5	3.1	0.4	0.2	1.6	100.0(2,579)
일본	36.3	12.5	8.4	37.8	2.4	0.6	0.6	1.4	100.0(4,945)
북미·호주·서유럽	11.9	11.7	8.7	63.0	1.1	0.0	1.8	1.8	100.0(554)
기타	26.0	18.0	10.0	40.0	2.9	0.5	0.7	1.8	100.0(5,256)

여성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의 거주환경에 대한 설문은 조사원 기재사항에 포함된 항목이다. 즉, 여성 결혼이민자에게 질문을 한 것이 아니라 여성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의 거주환경을 살펴보고, 조사원이 주관적으로 판단한 것이다.

여성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의 거주환경은 ‘보통’ 42.8%, ‘(매우) 양호함’ 39.5%, ‘(매우) 열악함’ 17.6%이었다. 동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 결혼이민자의 거주환경은 ‘(매우) 양호함’ 37.7%,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 결혼이민자의 거주환경은 ‘(매우) 양호함’ 44.5%로 나타났다. 이는 결혼이민자 중 읍·면 지역의 거주환경이 동부 지역보다 더 양호하다고 볼 수 있다.

여성 결혼이민자의 연령별 거주환경을 살펴보면, 24세 이하 결혼이민자 44.4%의 거주환경은 ‘(매우) 양호함’인 반면 50세 이상 결혼이민자 33.7%의 거주환경은 ‘(매우) 열악함’으로 나타났다. 24세 이하와 50세 이상의 연령대만이 아니라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이와 같은 양상을 보였다. 이는 연령대가 낮을수록 거주환경이 양호하며, 연령대가 높을수록 거주환경이 열악한 것을 의미한다.

여성 결혼이민자의 교육수준별 거주환경을 살펴보면,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여성 결혼이민자의 거주환경이 ‘(매우) 양호함’ 47.4%로 가장 높았으며, 초등학교 이하의 학력을 가진 결혼이민자 거주환경은 ‘(매우) 열악함’이 24.9%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교육수준과 거주환경이 직결되지만은 않지만 본 조사에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인식하는 거주환경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5-5 참조).

〈표 5-5〉 여성 결혼이민자의 특성별 거주환경

(단위: %, 명)						
구분	매우 양호함	양호함	보통임	열악함	매우 열악함	계(수)
전체	9.4	30.1	42.8	14.9	2.7	100.0(118,473)
지역						
동 지역	8.7	28.7	43.5	16.1	3.0	100.0(83,309)
읍·면 지역	10.9	33.6	41.3	12.0	2.2	100.0(35,164)
연령						
24세 이하	10.4	34.0	42.2	11.6	1.8	100.0(25,092)
25-29세	10.9	33.9	43.0	10.8	1.5	100.0(23,912)
30-34세	10.4	33.3	41.9	12.4	2.0	100.0(20,789)
35-39세	9.1	28.7	44.1	15.2	2.9	100.0(19,723)
40-49세	6.9	23.5	43.8	21.5	4.2	100.0(21,413)
50세 이상	5.9	19.5	40.9	26.3	7.4	100.0(7,518)
교육수준						
초등학교 이하	6.6	25.7	42.7	20.1	4.8	100.0(10,003)
중학교	7.8	28.7	43.8	16.7	3.1	100.0(32,800)
고등학교	9.0	30.1	43.6	14.7	2.6	100.0(50,135)
대학 이상	13.4	34.0	39.9	10.9	1.8	100.0(24,359)
혼인상태						
유배우	9.7	31.0	42.8	14.0	2.5	100.0(111,889)
이혼	2.3	13.4	44.3	33.0	6.9	100.0(4,330)
사별	4.2	16.0	39.0	29.9	11.0	100.0(1,296)
체류기간						
1년 미만	10.7	33.9	42.6	11.4	1.5	100.0(10,766)
1-2년 미만	9.8	32.5	42.2	13.2	2.2	100.0(15,425)
2-5년 미만	9.0	29.6	43.1	15.6	2.7	100.0(39,203)
5-10년 미만	8.5	29.2	43.4	15.8	3.1	100.0(26,576)
10년 이상	10.5	29.0	42.1	15.5	2.9	100.0(16,156)

거주환경을 혼인상태별로 살펴보면, 배우자가 있는 여성 결혼이민자의 거주환경은 ‘(매우) 양호함’ 40.7%로 가장 높았다. 반면 이혼한 여성 결혼이민자나 사별한 여성 결혼이민자의 경우 ‘(매우) 양호함’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그와 같은 맥락에서 이혼한 여성 결혼이민자의 거주환경이 ‘(매우) 열악함’은 39.9%, 사별한 여성 결혼이민자는 40.9%로 나타났다.

체류기간별로 여성 결혼이민자의 거주환경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매우)양호함’의 거주환경에서 1년 미만 체류한 결혼이민자 44.6%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5~10년 미만 체류한 결혼이민자가 37.7%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즉, 체류기간이 짧을수록 거주환경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5-5 참조).

출신국별로 살펴보면 북미·호주·서유럽인 여성 결혼이민자가 가장 양호한 주거환경에 살고 있었는데, 거주환경이 ‘(매우) 양호’한 비율이 79.7%로 매우 높았다. 그 외의 국가들은 30~40%대로 비슷한 수준에서 주거환경이 양호한 상태로 나타났다. 그러나 비교적 열악한 주거환경으로는 중국 조선족 출신 결혼이민자(20.0%)와 태국 출신 결혼이민자(21.5%)로 나타났다(표 5-6 참조).

〈표 5-6〉 여성 결혼이민자의 출신국별 거주환경

구분						(단위: %, 명)
	매우 양호함	양호함	보통임	열악함	매우 열악함	계수
전체	9.4	30.1	42.8	14.9	2.7	100.0(118,473)
중국(조선족)	8.3	28.3	43.3	16.7	3.3	100.0(35,561)
중국(한족 등)	9.3	29.6	43.3	15.0	2.8	100.0(32,359)
베트남	9.5	32.2	43.0	13.2	2.0	100.0(25,302)
필리핀	8.0	28.7	43.4	16.3	3.5	100.0(8,498)
몽골	9.5	32.2	44.8	12.1	1.4	100.0(1,781)
태국	7.5	30.0	41.1	18.3	3.2	100.0(1,676)
캄보디아	10.1	30.4	41.4	14.6	3.5	100.0(2,578)
일본	10.9	32.5	41.4	13.1	2.1	100.0(4,924)
북미·호주·서유럽	34.2	45.5	16.8	3.4	0.0	100.0(552)
기타	14.5	33.3	39.7	10.8	1.7	100.0(5,240)

제2절 가구소득 및 주관적 경제생활 수준

1. 가구소득

여성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의 가구소득은 전반적으로 낮았으며, 빈곤층이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가구소득은 100~200만원 미만이 38.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200~300만원 미만으로 18.5%이었다. 저소득층인 100만원 미만이 21.5%로 가구소득이 전반적으로 낮았으며, 고소득층인 500만원 이상은 1.8%에 불과하였다.¹⁰⁾ 동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 결혼이민자의 39.5%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100~200만원 미만으로 나타났으며, 10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은 19.9%, 500만원 이상의 고소득층은 2.0%에 불과하였다.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 결혼이민자 역시 36.5%로 월평균 가구소득은 100~200만원 미만이 가장 많았으며, 10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은 25.2%로 동 지역보다 월평균 가구소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100~200만원 미만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50세 이상이 33.2%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에 비해 100만원 미만의 소득에서는 50세 이상의 비율이 44.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퇴직으로 인하여 가구소득이 저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교육수준별로 월평균 가구소득을 살펴보면, 학력이 높을수록 저소득층의 비율은 낮아졌고, 고소득층의 비율은 높아졌다.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은 초등학교 이하의 학력을 가진 여성 결혼이민자가 31.0%로 가장 많았으나, 월평균 가구소득 500만원 이상의 고소득층의 경우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결혼이민자가 4.8%로 상대적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교육수준에 따른 월평균 가구소득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며, 교육수준이 결혼이민자의 직업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추측해 볼 수 있다. 따라서 교육수준이 낮은 결혼이민자도 다양한 직업을 접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한국에서의 경제적인 생활의 안정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10) 여성가족부(2006) 조사결과에 의하면 다문화가족의 월 평균 가구소득은 100~200만원 미만이 49.6%로 가장 많았으며, 200~300만원 미만 23.7%, 100만원 미만 15.6%, 300만원 이상은 11.0%에 불과하였음. 또한, 한국복지패널(2009)에 의하면 전체 일반 한국 가구의 월 평균 가구소득은 332만 2천원으로 나타남.

혼인상태별로 살펴보면, 배우자가 있는 여성 결혼이민자가 이혼하거나 사별한 여성 결혼이민자에 비해 월평균 가구소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가구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저소득층의 경우 배우자가 있는 여성 결혼이민자가 19.8%로 가장 적었으며, 사별한 여성 결혼이민자가 60.5%로 가장 많았다. 또한, 월평균 가구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고소득층의 경우 배우자가 있는 여성 결혼이민자가 1.8%로 가장 많았다. 이는 가구소득이라는 점을 감안하였을 때, 배우자가 있는 여성 결혼이민자가 이혼한 여성 결혼이민자와 사별한 여성 결혼이민자에 비해 더 높을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다.

체류기간별 월평균 가구소득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체류기간이 길어질수록 저소득층의 비율은 높았으며, 고소득층의 비율 역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7 참조).

출신국별 월평균 가구소득을 살펴보면 필리핀, 중국 조선족,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 출신의 여성 결혼이민자가 저소득층에 많았고, 북미·호주·서유럽 등 선진국 출신의 여성 결혼이민자는 고소득층이 많았다. 100만원 미만인 저소득층은 필리핀(29.0%), 중국 조선족(24.5%), 캄보디아(23.7%), 베트남(22.5%), 태국(20.7%)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북미·호주·서유럽 출신의 여성 결혼이민자는 10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 비율이 3.6%로 상당히 적은 반면, 월평균 가구소득 500만원 이상의 고소득층 비율은 27.6%로 높았다(표 5-8 참조). 북미·호주·서유럽 출신 여성 결혼이민자는 입국목적이 취업인 경우가 27.0%(표 4-4 참조)인 점과 연관 지어 월평균 가구소득이 높은 이유를 추측해볼 수 있다. 여성 결혼이민자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전체 결혼이민자와 같은 양상을 보였으나 월평균 가구소득을 모른다고 응답한 여성 결혼이민자의 비율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필리핀(25.3%), 캄보디아(21.6%), 베트남(21.1%)출신의 여성 결혼이민자가 대부분이었는데 이는 필리핀, 캄보디아, 베트남 출신 여성 결혼이민자의 경우 결혼을 목적으로 입국한 비율이 매우 높았던 것(표 4-4 참조)과 연관지어볼 수 있겠다. 결혼을 목적으로 입국한 여성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의 경우 배우자 혹은 배우자의 가족이 가정 내에서 경제적으로 주도적인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정확한 분석은 후속연구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표 5-7〉 여성 결혼이민자의 특성별 월평균 가구소득

(단위: %, 명)

구분	50만원 미만	50~100만원 미만	100~200만원 미만	200~300만원 미만	300~400만원 미만	400~500만원 미만	500~600만원 미만	600~700만원 미만	700만원 이상	모르겠다	계(수)
전체	5.1	16.4	38.6	18.5	5.4	1.6	0.8	0.4	0.6	12.5	100.0(115,235)
지역											
동 지역	4.6	15.3	39.5	20.0	6.2	1.9	0.9	0.4	0.7	10.4	100.0(81,398)
읍·면 지역	6.3	18.9	36.5	14.8	3.5	0.9	0.5	0.3	0.5	17.7	100.0(33,837)
연령											
24세 이하	4.2	14.0	38.2	16.0	3.6	0.9	0.4	0.3	0.3	22.0	100.0(24,023)
25~29세	4.4	12.8	38.9	19.4	5.8	1.5	0.9	0.4	0.7	15.2	100.0(23,198)
30~34세	3.7	13.5	39.5	20.8	7.2	2.0	1.0	0.6	0.8	10.8	100.0(20,395)
35~39세	4.6	16.5	39.2	21.0	6.4	2.3	1.1	0.5	0.8	7.7	100.0(19,357)
40~49세	5.6	21.1	39.1	18.3	5.6	1.7	0.7	0.3	0.7	6.9	100.0(20,981)
50세 이상	14.0	30.0	33.2	11.3	2.5	1.2	0.5	0.3	0.5	6.6	100.0(7,240)
교육수준											
초등학교 이하	9.7	21.3	35.7	11.8	2.2	0.7	0.4	0.1	0.2	18.0	100.0(9,534)
중학교	5.4	18.9	39.9	16.8	3.5	0.9	0.3	0.2	0.2	13.9	100.0(31,929)
고등학교	4.4	16.1	41.1	20.0	5.3	1.2	0.6	0.3	0.4	10.5	100.0(49,046)
대학 이상	4.2	11.7	32.7	20.6	9.7	3.8	2.0	1.0	1.8	12.6	100.0(23,744)
혼인상태											
유배우	4.6	15.2	38.8	19.3	5.7	1.7	0.8	0.4	0.6	12.8	100.0(109,362)
이혼	13.3	38.9	37.2	3.9	0.9	0.4	0.3	0.1	0.3	4.7	100.0(4,212)
사별	22.8	37.7	24.6	2.8	0.2	1.5	0.2	0.0	0.2	10.1	100.0(1,235)
체류기간											
1년 미만	3.3	10.3	34.7	18.1	5.7	1.4	0.7	0.2	0.7	24.9	100.0(10,485)
1~2년 미만	4.1	13.1	38.5	18.2	5.3	1.2	0.7	0.3	0.5	18.2	100.0(15,024)
2~5년 미만	4.8	16.5	40.0	18.4	5.1	1.4	0.6	0.4	0.4	12.4	100.0(38,287)
5~10년 미만	5.8	17.7	40.0	19.3	5.8	1.8	1.0	0.4	0.8	7.4	100.0(26,106)
10년 이상	6.2	20.3	37.4	19.6	6.3	2.6	1.0	0.6	0.9	5.2	100.0(15,902)

〈표 5-8〉 여성 결혼이민자의 출신국별 월평균 가구소득

(단위: %, 명)

구분	50만원 미만	50~100만원 미만	100~200만원 미만	200~300만원 미만	300~400만원 미만	400~500만원 미만	500~600만원 미만	600~700만원 미만	700만원 이상	모르겠다	계(수)
전체	5.1	16.4	38.6	18.5	5.4	1.6	0.8	0.4	0.6	12.5	100.0(115,232)
중국(조선족)	5.5	19.0	40.5	20.5	5.9	1.7	0.6	0.2	0.4	5.6	100.0(34,952)
중국(한족 등)	4.1	13.8	39.7	21.3	6.9	2.1	0.9	0.4	0.6	10.2	100.0(32,033)
베트남	5.2	17.3	38.1	14.7	2.4	0.6	0.3	0.2	0.2	21.1	100.0(24,145)
필리핀	9.1	19.9	28.9	8.3	3.6	0.8	1.3	1.0	1.8	25.3	100.0(7,681)
몽골	4.9	12.3	44.5	17.4	5.6	0.7	0.8	0.3	0.5	13.1	100.0(1,750)
태국	4.9	15.8	39.1	20.1	4.9	1.2	0.7	1.0	0.7	11.5	100.0(1,668)
캄보디아	8.6	15.1	38.3	12.0	3.1	0.7	0.2	0.1	0.2	21.6	100.0(2,445)
일본	3.3	13.6	38.5	23.1	7.2	2.7	1.3	0.5	0.8	8.9	100.0(4,866)
북미·호주·서유럽	2.8	0.8	8.9	18.1	14.4	6.4	11.5	5.5	10.6	21.0	100.0(529)
기타	2.9	11.7	36.6	19.5	9.1	3.2	1.5	0.6	1.5	13.3	100.0(5,165)

2. 가족의 주관적 경제생활 수준

가. 여성 결혼이민자의 모국(母國)가족과 다른 모국(母國)가족과의 주관적 경제생활 수준 비교

여성 결혼이민자가 모국의 가족을 다른 모국가족과 경제생활 측면에서 수준을 비교한 주관적 견해를 살펴보았다. 전체를 11점 척도(0~11점)로 측정하였다. 11점 척도에서 가장 중간인 5점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4.9%로 가장 높았다. 만약 0~2점을 하층, 3~7점을 중간층, 8~10점을 상층으로 구분한다면, 본인의 모국 가족이 모국에서 하층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여성 결혼이민자는 17.2%이었고, 6.5%가 상층이라고 하였으며, 76.2%는 중간층이라고 판단하고 있었다.

자신의 모국가족을 다른 모국가족과 경제생활 측면에서 수준을 비교한 주관적 견해를 여성 결혼이민자의 연령에 따라 비교하면 일관성을 보이지는 않았다. 다만, 24세 이하 연령층과 50세 이상 연령층이 자신의 모국가족이 하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26.2%, 23.7%로 높게 나타났다.

자신의 모국가족을 다른 모국가족과 경제생활 측면에서 수준을 비교한 주관적 견해를 여성 결혼이민자의 교육수준에 따라 비교해 보면, 본인의 모국 가족이 하층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여성 결혼이민자는 교육수준에 반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초등학교 이하 학력자의 35.3%가 하층이라고 응답하였고, 교육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하층으로 생각하는 비율은 낮아져 대학 이상 학력자는 13.4%에 불과하였다.

자신의 모국가족을 다른 모국가족과 경제생활 측면에서 수준을 비교한 주관적 견해를 여성 결혼이민자의 혼인상태에 따라 비교해 보면, 본인의 모국가족이 하층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여성 결혼이민자는 해체가족이냐의 여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즉, 유배우 상태의 결혼이민자는 17.1%가 자신의 모국가족이 다른 모국가족에 비하여 하층이라고 응답하였고, 이혼자와 사별자는 각각 19.0%, 23.1%로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자신의 모국가족을 다른 모국가족과 경제생활 측면에서 수준을 비교한 주관적 견해를 여성 결혼이민자의 체류기간에 따라 비교해 보면, 본인의 모국가족이 하층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결혼이민자는 체류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대체로 낮아졌다. 그렇지

만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이는 과거에 입국한 여성 결혼이민자의 모국가족이 다른 최근 입국한 여성 결혼이민자의 모국가족보다 경제적 측면에서 다소 나은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표 5-9 참조).

〈표 5-9〉 여성 결혼이민자의 특성별 모국가족과 다른 모국가족과의 주관적 경제생활 수준 비교

(단위: %,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계(수)	
전체	6.8	4.2	6.2	8.9	11.5	44.9	5.6	5.3	4.0	1.1	1.4	100.0(116,358)
지역												
동 지역	6.2	4.0	6.1	8.9	10.4	45.5	6.0	5.7	4.5	1.2	1.5	100.0(81,941)
읍·면 지역	8.1	4.8	6.5	8.9	14.0	43.4	4.9	4.3	3.0	0.8	1.3	100.0(34,417)
연령												
24세 이하	10.7	6.9	8.6	10.6	18.7	35.3	3.6	2.6	1.5	0.7	0.9	100.0(24,391)
25-29세	6.4	4.1	6.1	9.4	13.1	43.6	6.1	5.5	3.6	1.0	1.1	100.0(23,528)
30-34세	4.4	2.9	5.2	7.7	9.8	48.0	7.2	6.9	5.5	1.3	1.2	100.0(20,616)
35-39세	4.2	3.2	4.7	8.1	7.8	49.3	6.8	6.8	5.7	1.3	2.0	100.0(19,486)
40-49세	6.1	3.3	5.3	8.2	7.8	50.3	5.4	5.9	4.7	1.1	1.9	100.0(21,053)
50세 이상	10.5	5.3	7.9	9.5	7.3	45.4	4.2	3.6	3.3	0.8	2.1	100.0(7,247)
교육수준												
초등학교 이하	15.5	9.3	10.5	10.4	15.5	31.2	2.4	2.0	1.3	0.9	1.0	100.0(9,585)
중학교	9.6	5.7	8.0	10.8	14.0	42.6	3.6	2.5	1.7	0.6	1.1	100.0(32,148)
고등학교	5.3	3.5	5.6	8.6	10.8	49.0	5.7	5.2	3.9	0.9	1.4	100.0(49,422)
대학 이상	2.3	1.8	3.3	6.3	7.8	45.4	9.5	10.7	8.7	2.1	2.1	100.0(24,177)
혼인상태												
유배우	6.7	4.2	6.2	8.9	11.7	44.8	5.7	5.4	4.0	1.1	1.4	100.0(110,422)
이혼	7.6	4.6	6.8	9.9	6.9	48.1	4.6	4.1	4.2	1.0	2.2	100.0(4,223)
사별	10.1	6.1	6.9	10.1	7.6	46.0	5.2	2.2	2.9	0.7	2.1	100.0(1,243)
체류기간												
1년 미만	7.8	4.8	6.6	8.9	13.9	43.6	5.0	4.7	3.1	0.6	1.1	100.0(10,622)
1~2년 미만	7.6	5.0	7.0	9.7	13.3	43.1	5.2	4.0	2.7	0.9	1.3	100.0(15,203)
2~5년 미만	7.5	4.8	7.0	9.6	13.2	42.5	5.3	4.8	3.3	0.9	1.2	100.0(38,619)
5~10년 미만	5.2	3.4	5.5	8.4	8.8	48.2	6.4	6.1	5.2	1.3	1.4	100.0(26,399)
10년 이상	4.4	2.9	4.6	7.7	7.9	48.0	6.6	7.9	6.1	1.5	2.5	100.0(15,983)

주: 0~2점을 하층, 3~7점을 중간층, 8~10점을 상층으로 구분하여 논의함.

자신의 모국가족을 다른 모국가족과 경제생활 측면에서 수준을 비교한 주관적 견해를 여성 결혼이민자의 출신국별로 비교해 보면, 본인의 모국가족이 하층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여성 결혼이민자는 베트남 이민자가 29.8%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캄보디아 이민자 27.8%, 필리핀 이민자 21.5%의 순이었다. 반면에 북미·호주·서유럽 출신 이민자는 1.0%에 불과하였다(표 5-10 참조).

〈표 5-10〉 여성 결혼이민자의 출신국별 모국가족과 다른 모국가족과의 주관적 경제생활 수준 비교
(단위: %,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계(수)	
전체	6.8	4.2	6.2	8.9	11.5	44.9	5.6	5.3	4.0	1.1	1.4	100.0(116,356)
중국(조선족)	5.7	3.6	5.9	8.7	7.1	49.5	5.5	5.8	4.9	1.2	2.0	100.0(34,988)
중국(한족 등)	4.2	2.7	5.0	8.6	8.0	49.9	6.9	6.6	5.3	1.2	1.7	100.0(32,161)
베트남	13.5	7.3	9.0	10.2	24.8	28.3	2.7	1.8	1.0	0.8	0.6	100.0(24,321)
필리핀	8.6	5.9	7.0	9.1	8.8	51.4	4.6	2.3	1.4	0.4	0.4	100.0(8,376)
몽골	2.5	2.8	6.8	8.6	9.0	50.3	7.9	4.5	4.2	1.7	1.6	100.0(1,775)
태국	3.0	3.5	4.7	10.9	13.5	45.5	6.5	7.1	3.7	1.0	0.7	100.0(1,683)
캄보디아	9.6	10.0	8.2	8.1	6.7	45.9	3.6	3.3	1.6	0.7	2.5	100.0(2,550)
일본	0.5	0.7	2.1	6.1	10.5	46.6	12.0	12.5	7.2	1.1	0.5	100.0(4,887)
북미·호주·서유럽	0.0	0.0	1.0	6.4	9.1	41.6	10.6	13.5	14.3	2.3	1.3	100.0(519)
기타	2.8	2.7	4.6	8.4	7.8	46.8	8.0	8.6	6.1	2.0	2.1	100.0(5,099)

주: 0-2점을 하층, 3-7점을 중간층, 8-10점을 상층으로 구분하여 논의함.

나. 다른 한국가족과 비교한 다문화가족의 주관적 경제생활 수준

여성 결혼이민자가 자신의 가족을 다른 한국가족과 경제생활 측면에서 수준을 비교한 주관적 견해를 살펴보았다. 전술(前述)한 모국가족의 경제생활 수준 측정에서와 마찬가지로 전체를 11점 척도(0~11점)로 측정하였다. 11점 척도에서 가장 중간인 5점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9.1%로 가장 높았다. 만약 0~2점을 하층, 3~7점을 중간층, 8~10점을 상층으로 구분한다면, 본인 가족이 하층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결혼이민자는 247.3%이었고, 2.0%만이 상층이라 하였으며, 73.9%는 중간층이라고 판단하고 있었다.

동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하층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다소 높았다(동 지역 26.2%, 읍·면 지역 19.5%).

자신의 가족을 다른 한국가족과 경제생활 측면에서 수준을 비교한 주관적 견해를 여성 결혼이민자의 연령에 따라 비교해 보면, 본인가족이 하층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결혼이민자는 연령에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24세 이하 연령층에서는 14.8%만이 하층이라고 응답하였고,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하층으로 생각하는 비율은 높아져 50세 이상 연령층은 45.1%로 높았다.

자신의 가족을 다른 한국가족과 경제생활 측면에서 수준을 비교한 주관적 견해를 결혼이민자의 교육수준에 따라 비교해 보면, 본인 가족이 하층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결혼이민자는 교육수준에 반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초등학교 이하 학력자의 28.7%가 하층이라고 응답하였고, 교육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하층으로 생각하는 비율은 낮아져 대학 이상 학력자는 17.2%로 낮았다.

자신의 가족을 다른 한국가족과 경제생활 측면에서 수준을 비교한 주관적 견해를 결혼이민자의 혼인상태에 따라 비교해 보면, 본인 가족이 하층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결혼이민자는 해체가족이나 여부에 따라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 즉, 유배우 상태의 결혼이민자는 22.7%가 하층이라고 응답한 반면, 이혼자와 사별자는 각각 53.6%, 53.3%가 하층이라고 응답하였다.

자신의 가족을 다른 한국가족과 경제생활 측면에서 수준을 비교한 주관적 견해를 결혼이민자의 체류기간에 따라 비교해 보면, 본인 가족이 하층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결혼이민자는 체류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11 참조).

자신의 가족을 다른 한국가족과 경제생활 측면에서 수준을 비교한 주관적 견해를 여성 결혼이민자의 출신국별로 비교해 보면, 본인가족이 하층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결혼이민자는 중국 조선족이 32.4%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중국 한족 등 25.4%이었다. 반면에 북미·호주·서유럽 출신 이민자는 2.1%에 불과하였다(표 5-12 참조).

〈표 5-11〉 여성 결혼이민자의 특성별 다른 한국가족과 비교한 주관적 경제생활 수준 (단위: %, 명)

구분	←최하층		중간								→최상층		계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전체	9.4	5.6	9.3	13.9	15.3	39.1	3.5	2.1	1.2	0.3	0.5	100.0(116,745)	
지역													
동 지역	10.1	6.1	10.0	14.7	14.4	37.4	3.4	2.1	1.2	0.3	0.5	100.0(82,315)	
읍·면 지역	7.6	4.3	7.6	12.1	17.5	43.3	3.6	2.1	1.1	0.3	0.5	100.0(34,430)	
연령													
24세 이하	5.5	3.3	5.8	10.0	23.1	43.6	3.9	2.4	1.2	0.5	0.7	100.0(24,375)	
25-29세	6.4	4.2	8.0	12.9	17.0	42.7	4.1	2.6	1.3	0.3	0.5	100.0(23,527)	
30-34세	7.8	4.6	9.5	15.2	13.8	40.9	4.0	2.3	1.3	0.3	0.4	100.0(20,631)	
35-39세	10.0	6.6	10.6	16.6	12.3	37.6	3.0	1.8	0.9	0.2	0.3	100.0(19,587)	
40-49세	14.0	7.9	11.7	15.6	11.3	33.7	2.5	1.6	1.1	0.2	0.4	100.0(21,195)	
50세 이상	20.8	10.7	13.6	14.5	8.1	27.1	2.3	1.3	0.9	0.3	0.4	100.0(7,395)	
교육수준													
초등학교 이하	12.2	7.0	9.5	13.0	19.5	33.1	2.5	1.2	0.8	0.6	0.6	100.0(9,619)	
중학교	11.4	6.0	9.8	13.5	16.9	37.2	2.4	1.4	0.7	0.3	0.5	100.0(32,228)	
고등학교	9.5	5.7	9.6	14.7	14.8	39.4	3.0	1.7	1.0	0.2	0.3	100.0(49,653)	
대학 이상	5.3	4.1	7.8	13.3	12.4	43.6	6.1	4.1	2.3	0.4	0.6	100.0(24,209)	
혼인상태													
유배우	8.6	5.2	8.9	13.9	15.8	40.0	3.6	2.2	1.2	0.3	0.5	100.0(110,734)	
이혼	24.8	12.7	16.1	15.9	6.5	21.4	0.9	0.6	0.5	0.3	0.3	100.0(4,274)	
사별	23.1	14.8	15.4	14.7	8.6	21.1	0.9	0.6	0.1	0.3	0.6	100.0(1,266)	
체류기간													
1년 미만	5.7	3.6	6.5	10.2	18.0	46.8	4.4	2.6	1.3	0.4	0.6	100.0(10,586)	
1-2년 미만	7.1	4.4	7.5	12.2	17.3	43.9	3.5	2.1	1.2	0.3	0.5	100.0(15,188)	
2-5년 미만	9.4	5.4	9.3	13.5	17.0	38.3	3.3	2.0	1.0	0.4	0.5	100.0(38,691)	
5-10년 미만	11.0	6.6	10.4	15.7	12.6	36.3	3.9	2.0	1.0	0.1	0.4	100.0(26,506)	
10년 이상	10.3	7.1	11.3	17.2	12.2	34.8	3.0	2.1	1.4	0.2	0.3	100.0(16,120)	

주: 0-2점을 하층, 3-7점을 중간층, 8-10점을 상층으로 구분하여 논의함.

〈표 5-12〉 여성 결혼이민자의 출신국별 다른 한국가족과 비교한 주관적 경제생활 수준

(단위: %, 명)

구분	←최저층		중간						→최상층			계(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전체	9.4	5.6	9.3	13.9	15.3	39.1	3.5	2.1	1.2	0.3	0.5	100.0(116,752)
중국(조선족)	12.8	7.5	12.1	16.5	10.7	35.1	2.4	1.5	0.8	0.2	0.3	100.0(35,279)
중국(한족 등)	9.9	5.7	9.8	15.3	12.5	39.7	3.2	2.1	1.1	0.3	0.5	100.0(32,163)
베트남	8.5	3.9	6.7	10.3	29.5	35.1	2.7	1.6	0.9	0.4	0.5	100.0(24,352)
필리핀	6.7	5.2	5.5	8.9	9.1	55.6	5.3	2.2	1.0	0.2	0.5	100.0(8,359)
몽골	5.6	4.2	8.2	12.1	12.8	46.0	6.2	2.6	1.2	0.2	1.0	100.0(1,778)
태국	4.0	5.0	9.4	13.4	13.3	45.9	4.7	2.7	1.3	0.1	0.1	100.0(1,689)
캄보디아	4.5	4.5	5.3	8.1	11.1	56.1	5.5	1.8	1.2	0.6	1.4	100.0(2,509)
일본	1.9	3.4	9.3	19.3	16.2	35.0	6.2	5.2	2.8	0.4	0.1	100.0(4,899)
북미·호주·서유럽	0.0	0.6	1.5	6.9	7.1	45.3	13.2	9.6	12.7	1.7	1.3	100.0(521)
기타	4.8	3.9	7.6	11.5	10.8	45.9	6.3	4.5	3.2	0.5	1.0	100.0(5,203)

주: 0-2점을 하층, 3-7점을 중간층, 8-10점을 상층으로 구분하여 논의함.

다음 <표 5-13>은 여성 결혼이민자의 모국가족 및 현재 본인가족의 다른 모국가족 및 한국가족과의 주관적 경제생활 수준 변화를 출신국가별로 제시하고 있다. 여성 결혼이민자 중 다른 모국가족과 비교한 자신의 모국가족의 주관적 경제생활 수준에 비하여 다른 한국가족과 비교한 본인가족의 주관적 경제생활 수준이 하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증가한 출신국은 중국 조선족(17.2%pt), 중국 한족 등(13.5%pt), 일본(11.3%pt), 태국(7.2%pt) 등이었다.

〈표 5-13〉 여성 결혼이민자의 출신국별 모국가족 및 현재 본인가족의 다른 모국가족 및 한국가족과의 주관적 경제생활 수준 변화

(단위: %, 명)

구분	다른 모국가족과 모국가족의 주관적 경제생활 수준		다른 한국가족과 본인가족의 주관적 경제생활 수준		변화정도		현재 삶의(매우) 만족 수준
	하층	상층	하층	상층	하층	상층	
	전체	17.2	6.5	24.1	1.9	+6.9	
중국(조선족)	15.2	8.1	32.4	1.3	+17.2	-6.8	54.7
중국(한족 등)	11.9	8.2	25.4	1.9	+13.5	-6.3	58.7
베트남	29.8	2.4	19.1	1.8	-10.7	-0.6	61.9
필리핀	21.5	2.2	17.4	1.7	-4.1	-0.5	51.3
몽골	12.1	7.5	18.0	2.4	+5.9	-5.1	58.1
태국	11.2	5.4	18.4	1.5	+7.2	-3.9	66.0
캄보디아	27.8	4.8	14.3	3.2	-13.5	-1.6	66.0
일본	3.3	8.8	14.6	3.3	+11.3	-5.5	33.4
북미·호주·서유럽	1.0	17.9	2.1	15.7	+1.1	-2.2	76.3
기타	10.1	10.2	16.3	4.7	+6.2	-5.5	59.7

주: 0-2점을 하층, 3-7점을 중간층, 8-10점을 상층으로 구분하여 논의함.

제3절 여성 결혼이민자의 삶의 만족도

여성 결혼이민자의 현재 삶의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을 보였다. 여성 결혼이민자 중 ‘(매우) 만족’ 57.0%, 보통 36.3%로 나타나 현재 삶에 대해 대체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삶의 ‘(매우) 만족’에 대해 동 지역과 읍·면 지역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현재 삶의 만족도의 ‘(매우) 만족’은 연령이 낮을수록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특히 24세 이하 여성 결혼이민자의 65.6%가 현재 삶의 만족도에 ‘(매우)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성 결혼이민자는 현재 삶의 만족도의 ‘(매우) 불만족’은 연령별로 비율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현재 삶의 만족도는 여성 결혼이민자의 교육수준에 따라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며, 교육수준에 상관없이 56% 이상이 ‘(매우) 만족’을 보였다.

혼인상태에 따른 삶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배우자가 있는 여성 결혼이민자는 현재 삶에 대한 ‘(매우) 만족’이 58.2%로 나타났다. 이혼이나 사별로 배우자가 없는 경우의 삶의 만족도는 ‘보통’이 각각 49.5%, 47.4%로 나타나 현재 삶에 대해 보통 정도의 만족도를 보였다. 사별한 여성 결혼이민자는 이혼한 여성 결혼이민자보다 현재 삶에 대해 ‘(매우) 만족’에 다소 높은 특성을 보였다.

여성 결혼이민자의 체류기간별로 살펴보면, 체류기간이 짧을수록 현재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체류기간이 1년 미만인 여성 결혼이민자는 ‘(매우) 만족’이 각각 67.7%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표 5-14 참조).

여성 결혼이민자의 현재 삶의 만족도를 출신국별로 살펴보면, ‘(매우)만족’이 북미·호주서유럽이 76.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캄보디아 66.0%, 태국 66.0%를 보였다. 반면에 일본은 49.8%가 현재 삶의 만족도에 ‘보통’을 나타냈으며, 19.8%가 현재 삶의 만족도에 ‘(매우)불만’을 나타내 현재 삶에 대한 만족도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5-15 참조).

〈표 5-14〉 여성 결혼이민자의 특성별 현재의 삶에 대한 만족도

(단위: %, 명)

구분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계(수)
전체	21.5	35.5	36.3	5.5	1.2	100.0(118,356)
지역						
동 지역	20.4	36.9	36.0	5.4	1.3	100.0(83,247)
읍·면 지역	24.3	32.0	36.8	5.7	1.2	100.0(35,109)
연령						
24세 이하	36.0	29.6	30.2	3.4	0.7	100.0(24,937)
25~29세	24.3	36.5	33.8	4.4	1.0	100.0(23,936)
30~34세	16.8	39.3	36.7	5.9	1.3	100.0(20,785)
35~39세	14.9	36.9	40.5	6.3	1.4	100.0(19,746)
40~49세	15.0	36.1	39.8	7.4	1.6	100.0(21,382)
50세 이상	13.9	35.2	41.6	7.2	2.1	100.0(7,530)
교육수준						
초등학교 이하	31.0	27.4	34.0	5.8	1.7	100.0(9,890)
중학교	25.9	33.1	35.6	4.4	1.1	100.0(32,815)
고등학교	19.5	36.5	37.3	5.6	1.2	100.0(50,099)
대학 이상	15.8	40.3	36.0	6.4	1.4	100.0(24,452)
혼인상태						
유배우	22.3	35.9	35.5	5.1	1.1	100.0(111,877)
이혼	7.7	26.6	49.5	12.7	3.4	100.0(4,366)
사별	6.8	28.8	47.4	13.0	4.2	100.0(1,273)
체류기간						
1년 미만	33.1	34.6	28.2	3.4	0.7	100.0(10,816)
1~2년 미만	27.3	36.6	31.0	4.2	0.9	100.0(15,377)
2~5년 미만	23.9	35.5	34.8	4.7	1.1	100.0(39,192)
5~10년 미만	14.8	36.9	40.2	6.6	1.4	100.0(26,625)
10년 이상	12.4	33.8	43.8	8.0	1.9	100.0(16,1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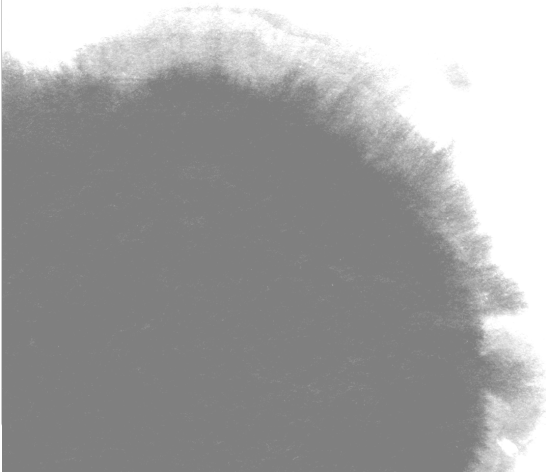
〈표 5-15〉 여성 결혼이민자의 출신국별 현재의 삶에 대한 만족도

(단위: %, 명)

구분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	매우 불만	계(수)
전체	21.5	35.5	36.3	5.5	1.2	100.0(118,355)
중국(조선족)	17.3	37.4	38.6	5.2	1.4	100.0(35,571)
중국(한족 등)	16.6	42.1	35.0	5.0	1.3	100.0(32,503)
베트남	41.2	20.7	33.6	3.7	0.7	100.0(25,090)
필리핀	13.8	37.5	39.2	8.1	1.3	100.0(8,464)
몽골	14.0	44.1	32.3	7.9	1.7	100.0(1,769)
태국	17.8	48.2	25.4	7.5	1.1	100.0(1,685)
캄보디아	25.3	40.7	28.6	4.0	1.4	100.0(2,563)
일본	4.2	29.2	49.8	14.8	2.0	100.0(4,928)
북미·호주·서유럽	26.0	50.3	18.2	4.3	1.3	100.0(539)
기타	16.4	43.3	33.9	5.4	1.0	100.0(5,242)

06

여성 결혼이민자의 취업실태



제6장 여성 결혼이민자의 취업실태

제1절 분석대상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서는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서 파악된 전체 다문화가족 중 여성 결혼이민자에 국한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취업 및 직업훈련 집중 연령으로 판단되는 20~44세 연령층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다시 말하면, 실태조사 자료 중 본 연구를 위한 분석대상은 ‘20~44세 여성 결혼이민자’이다.

1. 20~44세 여성 결혼이민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20~44세 여성 결혼이민자는 101,562명으로 추정된다. 이 중 약 69%인 70,035명은 동 지역에 거주하고, 약 31%인 31,527명은 읍·면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연령별로는 25~29세가 23.8%로 가장 많고, 다음은 20~24세 22.7%, 30~34세 20.8% 등의 순이다. 따라서 20대가 46.2%로 가장 많고, 30대는 40.5%이다.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고등학교 학력자가 42.2%로 가장 많고, 다음은 중학교 학력자 27.6%이었으며, 대학 이상의 고학력자도 22.5%나 되었다. 혼인상태는 유배우자가 대부분을 차지하였고(96.8%), 이혼자 및 사별자는 3.3%에 불과하였다. 체류기간은 2~5년 미만이 37.8%로 가장 많고, 다음은 5~10년 미만으로 24.0%이었으며, 그 외는 10%대이었다.

현재 취업중인 경우는 33.6%이었는데, 이는 본국에서 취업한 비율인 74.3%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자녀를 가진 경우는 68.0%, 미취학자녀를 가진 경우는

51.2%이었다. 따라서 취업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기회부족이거나 어린자녀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여성 결혼이민자의 남편은 88.4%가 취업을 하고 있었고, 11.6%는 비취업상태로 나타났다.

〈표 6-1〉 20~44세 여성 결혼이민자의 거주지역별 인구·사회학적 특성

구분	(단위: %, 명)		
	전국	동 지역	읍·면 지역
연령			
20~24세	22.7	19.2	30.6
25~29세	23.8	23.5	24.6
30~34세	20.8	22.0	18.0
35~39세	19.7	21.1	16.6
40~44세	13.0	14.2	10.2
교육수준			
초등학교 이하	7.7	6.1	11.4
중학교	27.6	26.4	30.1
고등학교	42.2	43.3	39.6
대학 이상	22.5	24.1	19.0
혼인상태			
유배우	96.8	95.9	98.7
이혼	2.7	3.5	0.8
사별	0.6	0.6	0.5
체류기간			
1년 미만	10.0	9.8	10.4
1~2년 미만	15.4	15.3	15.6
2~5년 미만	37.8	37.0	39.9
5~10년 미만	24.0	25.0	21.8
10년 이상	12.8	12.9	12.4
본국에서의 취업여부			
취업	74.3	74.9	72.8
비취업	25.7	25.1	27.2
현 취업여부			
취업	33.6	35.3	29.9
비취업	66.6	64.7	70.1
자녀수 유무			
있음	68.0	64.7	75.1
없음	32.0	35.3	24.9
미취학자녀 유무			
있음	51.2	48.4	57.3
없음	48.8	51.6	42.7
배우자의 현 취업여부 ¹⁾			
취업	88.4	88.5	88.1
비취업	11.6	11.5	11.9
계(수)	100.0(101,562)	100.0(70,035)	100.0(31,527)

주: 1) 유배우자만을 분석대상으로 함.

2. 20~44세 여성 결혼이민자의 출신국

20~44세 여성 결혼이민자는 중국 한족 및 기타 소수민족 출신이 28.6%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중국 조선족 출신 25.3%로 전체 중국 출신이 53.9%로 많았다. 그 외에 베트남 출신 23.3%, 필리핀 8.0%, 일본 3.8%, 캄보디아 2.5% 등이었으며, 몽골과 태국은 각각 1.7%, 1.6%로 아직은 낮은 비율을 보였다. 거주지역별로는 동 지역에 중국 한족 등(33.3%), 중국 조선족(28.5%), 베트남(17.9%), 필리핀(6.3%), 일본(3.4%), 캄보디아(2.0%) 등이 많이 거주하고 있었으나 읍·면 지역은 베트남(35.3%), 중국 한족 등(18.3%), 중국 조선족(18.1%), 필리핀(11.7%), 일본(4.6%), 캄보디아(3.6%) 등의 순으로 많이 거주하고 있어 출신국별 특징을 보였다.

〈표 6-2〉 20~44세 여성 결혼이민자의 거주지역별 출신국

구분	(단위: %, 명)		
	전국	동 지역	읍·면 지역
중국(조선족)	25.3	28.5	18.1
중국(한족 등)	28.6	33.3	18.3
베트남	23.3	17.9	35.3
필리핀	8.0	6.3	11.7
몽골	1.7	1.6	1.9
태국	1.6	1.2	2.3
캄보디아	2.5	2.0	3.6
일본	3.8	3.4	4.6
북미·호주·서유럽	0.4	0.6	0.1
기타	4.8	5.1	4.1
계(수)	100.0(101,561)	100.0(70,036)	100.0(31,525)

3. 20~44세 여성 결혼이민자의 시·도별 분포

20~44세 여성 결혼이민자는 경기도에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었고(23.3%), 다음은 서울(17.5%), 경남(7.4%), 충남(6.1%), 경북(6.1%), 인천(6.0%) 등의 순이었다. 따라서 전체의 46.8%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거주지역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동 지역에서는 경기(26.2%)와 서울(25.3%)에 거주하는 비율이 51.5%로 높았고, 읍·면 지역에서는 경기(17.1%), 충남(14.7%), 전남(13.9%), 경북(13.2%), 경남(12.1%)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표 6-3〉 20~44세 여성 결혼이민자 거주지역별 시·도별 분포

(단위: %, 명)

구분	전국	동 지역	읍·면 지역
서울	17.5	25.3	0.1
부산	4.9	6.9	0.5
대구	3.6	4.7	1.3
인천	6.0	8.3	0.9
광주	2.3	3.4	0.0
대전	2.3	3.4	0.0
울산	2.2	2.4	1.8
경기	23.3	26.2	17.1
강원	3.2	1.8	6.4
충북	3.5	1.6	7.8
충남	6.1	2.3	14.7
전북	4.6	2.8	8.7
전남	5.6	1.9	13.9
경북	6.1	3.0	13.2
경남	7.4	5.2	12.1
제주	1.2	1.0	1.6
계(수)	100.0(101,564)	100.0(70,035)	100.0(31,529)

제2절 여성 결혼이민자의 취업실태

1. 모국 및 한국에서의 취업

가. 모국 및 한국에서의 취업률

20~44세 여성 결혼이민자의 결혼이민 이전인 본국에서의 취업률은 74.3%로 높았으나 현재 취업률은 33.6%로 40.7%포인트의 취업률 저하를 보였다. 이를 여성 결혼이민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령별로는 본국에서의 취업률과 현 취업률 모두 연령이 높아질수록 취업률도 높아졌으나 본국에서의 취업률에 비해 현 취업률이 상대적으로 28.2~49.4%포인트 낮았다. 이와 같이 본국에서의 취업률 보다 현 취업률이 낮은 것은 한국어 소통의 어려움과 자녀양육 등으로 취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나 본국에서 취업을 위해 필요했던 자격증 등이 한국에서는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수준별로는 고학력층으로 갈수록 본국에서의 취업률과 현 취업률이 점차 높아지며, 본국에서의 취업률과 현 취업률과의 차이 또한 학력이 올라갈수록 커진다. 혼

인상태별 본국에서의 취업률은 사별, 이혼, 유배우 순으로 높은 편이었으나, 현 취업률은 이혼, 사별, 유배우 순으로 이혼이 가장 높아 차이를 보였다.

〈표 6-4〉 20~44세 여성 결혼이민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본국과 한국에서의 취업률

(단위: 명, %)				
구분	(분석대상수)	본국에서의 취업률	현 취업률	변화
전체	(99,693)	74.3	33.6	△40.7
연령				
20~24세	(22,596)	59.5	18.1	△41.4
25~29세	(23,802)	73.4	24.0	△49.4
30~34세	(20,713)	79.1	34.7	△44.4
35~39세	(19,670)	80.9	47.2	△33.7
40~44세	(12,912)	84.3	56.1	△28.2
교육수준				
초등학교 이하	(7,565)	59.8	24.7	△35.1
중학교	(27,228)	69.2	31.6	△37.6
고등학교	(41,697)	76.6	34.2	△42.4
대학 이상	(22,242)	81.4	38.2	△43.2
혼인상태				
유배우	(96,093)	74.1	32.4	△41.7
이혼	(2,627)	81.0	68.4	△12.6
사별	(564)	82.4	64.0	△18.4
체류기간				
1년 미만	(9,084)	74.8	17.7	△57.1
1~2년 미만	(14,087)	72.6	21.4	△51.2
2~5년 미만	(34,523)	72.2	30.5	△41.7
5~10년 미만	(21,952)	77.5	43.1	△34.4
10년 이상	(11,639)	78.5	54.7	△23.8
배우자의 현 취업여부¹⁾				
취업	(83,036)	75.2	33.0	△42.2
비취업	(10,907)	67.0	28.7	△38.3
가구소득				
50만원 미만	(4,192)	72.6	27.4	△45.2
50~100만원 미만	(14,306)	72.8	39.0	△33.8
100~200만원 미만	(37,521)	74.1	32.7	△41.4
200~300만원 미만	(18,580)	76.3	38.3	△38.0
300~400만원 미만	(5,529)	79.6	45.3	△34.3
400~500만원 미만	(1,618)	78.3	46.5	△31.8
500만원 이상	(1,818)	78.2	46.3	△31.9

주: 1) 유배우자만을 분석대상으로 함.

체류기간이 길수록 본국에서의 취업률과 현 취업률이 모두 높았으며, 체류기간이 길수록 본국에서의 취업률과 현 취업률간의 차이는 감소하였다. 본국에서 취업했던 결혼이민자가 현 취업률도 높으며, 가구소득별로는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본국에서의

취업률과 현 취업률 모두 높았다.

결혼이민 이전인 본국에서의 취업률을 출신국별로 살펴보면, 일본 출신여성이 92.9%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태국 출신여성 80.7%, 필리핀 출신여성 80.4%, 중국 조선족 79.0%, 중국 한족 및 기타 소수민족 77.8%, 몽골 77.2% 등의 순으로 이들 국가의 출신여성은 평균 이상의 취업률을 보였다.

그렇지만 현재 취업률은 북미·호주·서유럽 출신여성이 56.9%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중국 조선족 출신여성 44.7%, 필리핀 출신여성 40.5%, 태국 출신여성 34.7%, 중국 한족 및 기타 소수민족 출신여성 34.5% 등의 순으로 이들 국가의 출신여성은 평균 이상의 취업률을 보였다. 결과적으로 본국에서의 취업률과 비교하여 현재 취업률이 가장 큰 폭으로 낮아진 출신국은 일본(-63.7%), 몽골(-47.7%), 캄보디아(-47.3%), 태국(46.0%), 중국 한족 및 기타 소수민족(43.3%) 출신 여성 결혼이민자였다(표 6-5 참조).

〈표 6-5〉 20~44세 여성 결혼이민자의 출신국별 본국과 한국에서의 취업률

구분	(분석대상수)	본국에서의 취업률	현 취업률	변화
전체	(99,694)	74.3	33.6	△40.7
중국(조선족)	(25,287)	79.0	44.7	△34.3
중국(한족 등)	(28,602)	77.8	34.5	△43.3
베트남	(23,131)	61.3	21.9	△39.4
필리핀	(7,882)	80.4	40.5	△39.9
몽골	(1,700)	77.2	29.5	△47.7
태국	(1,573)	80.7	34.7	△46.0
캄보디아	(2,495)	59.0	11.7	△47.3
일본	(3,789)	92.9	29.2	△63.7
북미·호주·서유럽	(436)	74.1	56.9	△17.2
기타	(4,799)	71.8	28.7	△43.1

종합해보면, 20~44세 여성 결혼이민자 중 본국에서 취업하였고, 현재도 취업하고 있는 비율은 26.8%이었고, 본국에서 취업하였으나 현재 비취업상태에 있는 여성은 47.6%이었다. 반면에 본국에서 비취업 상태에 있었으나 현재 취업하고 있는 여성은 6.9%로 매우 낮았고, 결혼이민 전후 모두 비취업인 상태에 있는 여성은 18.7%이었다. 따라서 결혼이민 이후 많은 여성이 비취업 상태임을 알 수 있다(그림 6-1참조).

[그림 6-1] 본국에서의 취업여부 및 현 취업여부

(단위: %)

구분		본국에서의 취업여부	
		취업	비취업
현 취업여부	취업	26.8	6.9
	비취업	47.6	18.7

20~44세 여성 결혼이민자의 본국 및 현 취업률을 시·도별로 보면, 본국에서의 취업률이 가장 높은 이민자는 현재 서울시에 거주 중인 결혼이민자로 77.1%이었으며, 가장 낮은 취업률을 보인 시·도는 제주도(68.5%)이었다. 이에 비해 현 취업률이 가장 높은 시·도는 역시 서울(39.3%)이었고, 가장 낮은 시·도는 울산(26.4%)이었다. 본국에서의 취업률 보다 현 취업률이 가장 많이 낮아진 시·도는 대전으로 47.9%포인트나 저하되었다(표 6-6 참조).

〈표 6-6〉 20~44세 여성 결혼이민자의 시·도별 본국에서의 취업률 및 현 취업률

(단위: 명, %)

구분	(분석대상수)	본국에서의 취업률	현 취업률	변화
전체	(99,689)	74.3	33.6	△40.7
서울	(17,280)	77.1	39.3	△37.8
부산	(4,891)	71.7	31.4	△40.3
대구	(3,597)	70.4	29.7	△40.7
인천	(6,012)	75.3	38.6	△36.7
광주	(2,318)	70.6	30.4	△40.2
대전	(2,314)	74.9	27.0	△47.9
울산	(2,229)	70.4	26.4	△44.0
경기	(23,341)	75.5	36.6	△38.9
강원	(3,244)	76.6	32.8	△43.8
충북	(3,559)	75.2	31.3	△43.9
충남	(6,123)	74.3	29.8	△44.5
전북	(4,611)	74.3	30.9	△43.4
전남	(5,524)	76.0	31.0	△45.0
경북	(6,135)	69.9	27.4	△42.5
경남	(7,328)	70.3	28.2	△42.1
제주	(1,183)	68.5	36.9	△31.6

나. 모국 및 한국에서의 취업직종

다음의 <표 6-7>은 한국에서의 현 직종과 본국에서의 직종간의 연계성을 보기 위해 현 직종별 본국에서의 직종을 살펴본 결과이다. 전체적으로 현 취업직종과 본국에서의 취업직종 중 가장 연계성이 높은 직종은 사무종사자(47.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44.9%), 임직원 및 관리자(36.1%), 서비스종사자(36.1%), 기능직 종사자(32.6%), 판매종사자(30.2%) 등의 순이었으나 농·임·어업의 종사자와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기사관련 단순노무자의 경우에는 본국에서 서비스직에 종사했던 경우가 가장 많았다.

동 지역의 경우에도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기사관련 단순노무자 외에 다른 직종은 본국에서의 직종과 동일한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나 그 비율은 그리 높지 않았으며, 그 중 사무종사자가 49.3%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로 47.9%이었다. 현재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기사관련 단순노무자인 경우에 본국에서는 서비스 종사자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읍·면 지역의 경우에는 현재 농·임·어업 종사자는 본국에서도 농·임·어업에 종사한 경우는 15.7%에 불과하고 서비스 종사자(19.3%)인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기타 단순노무자(14.3%)인 경우이다.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의 경우에도 동일 직종에 종사한 경우와 서비스 종사자가 각각 19.6%이었다. 현 기사관련 단순노무자인 경우에도 본국에서는 서비스 종사자(19.7%), 판매종사자(17.8%)인 경우가 많았다. 현 직종과 본국에서의 직종이 동일한 경우 중 가장 비율이 높은 경우는 임직원 및 관리자로 42.1%이었다.

〈표 6-7〉 20~44세 여성 결혼이민자의 현 직종별 본국에서의 직종별 분포¹⁾

(단위: %, 명)

현 직종	본국에서의 직종											계(수)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농림·어업 종사자	기능 종사자	기계조작 및 조립	가사관련 단순노무자	기타단순 노무자	사무 종사자	전문가	임직원 및 관리자	기타	
전국	21.2	14.9	3.7	8.0	2.8	2.0	8.6	13.2	15.1	1.6	8.9	100.0(20,204)
서비스 종사자	36.1	15.9	4.2	7.1	2.1	1.4	6.4	9.9	8.7	1.0	7.3	100.0(5,458)
판매 종사자	17.9	30.2	2.2	5.7	1.2	1.5	6.4	14.0	11.5	1.7	7.6	100.0(1,327)
농림·어업 종사자	19.8	10.9	18.0	9.9	2.5	2.7	13.3	8.3	7.0	0.4	7.2	100.0(768)
기능 종사자	16.8	13.3	3.0	32.6	2.4	1.4	6.3	8.8	5.9	0.8	8.5	100.0(1,312)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20.1	16.8	3.9	8.8	18.6	2.0	6.3	8.8	6.6	0.9	7.3	100.0(1,107)
가사관련 단순노무자	18.8	17.0	4.0	8.1	2.7	12.3	10.0	12.1	7.8	1.8	5.5	100.0(677)
기타 단순노무자	18.1	16.1	4.3	8.5	1.8	2.6	22.8	8.3	8.3	1.3	8.0	100.0(3,406)
사무종사자	12.1	9.9	1.2	4.2	1.0	0.6	3.7	47.2	14.0	1.3	4.7	100.0(779)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9.8	9.6	0.7	3.2	1.3	0.6	1.9	20.3	44.9	2.3	5.4	100.0(3,360)
임직원 및 관리자	14.5	8.4	0.0	0.0	3.6	1.2	8.4	10.8	4.8	36.1	12.0	100.0(83)
기타	15.5	12.2	3.4	4.0	2.5	2.2	5.8	12.2	13.3	2.2	26.7	100.0(1,927)
동 지역	21.8	15.0	3.4	7.8	2.9	1.7	7.6	13.1	15.8	1.8	9.2	100.0(15,006)
서비스 종사자	37.3	16.1	4.2	6.5	2.1	1.4	5.8	9.2	8.7	1.2	7.6	100.0(4343)
판매 종사자	15.7	29.8	2.1	5.9	1.4	1.6	5.9	14.9	13.1	1.7	7.9	100.0(1,031)
농림·어업 종사자	22.4	7.2	29.6	4.8	0.8	3.2	8.0	8.8	6.4	1.6	7.2	100.0(125)
기능 종사자	18.0	12.6	3.3	31.8	2.7	0.9	6.2	9.3	6.1	0.9	8.3	100.0(1,053)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20.1	18.0	4.1	8.6	18.4	1.8	5.8	9.3	5.6	0.8	7.6	100.0(899)
가사관련 단순노무자	18.3	16.6	3.6	7.9	3.2	13.6	8.1	11.7	8.3	2.5	6.4	100.0(471)
기타 단순노무자	18.5	16.8	4.8	8.7	2.1	1.8	21.7	8.3	7.7	1.6	8.2	100.0(2,439)
사무종사자	12.2	9.2	1.2	4.1	0.8	0.5	3.0	49.3	14.2	1.6	4.0	100.0(607)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9.7	8.3	0.7	3.0	1.0	0.4	1.4	19.2	47.9	2.7	5.6	100.0(2,568)
임직원 및 관리자	15.6	10.9	0.0	0.0	4.7	1.6	9.4	12.5	3.1	34.4	7.8	100.0(64)
기타	15.5	12.5	2.8	3.9	3.0	1.9	4.7	11.4	13.7	1.8	28.7	100.0(1,406)
읍·면 지역	19.5	14.7	4.6	8.8	2.6	2.8	11.7	13.4	12.9	1.0	8.1	100.0(5,205)
서비스 종사자	31.5	15.0	4.2	9.1	2.2	1.4	8.7	12.5	8.7	0.6	6.2	100.0(1,116)
판매 종사자	25.4	31.9	2.4	5.1	0.3	1.4	8.1	10.8	6.1	1.7	6.8	100.0(295)
농림·어업 종사자	19.3	11.7	15.7	10.9	2.8	2.6	14.3	8.2	7.2	0.2	7.2	100.0(643)
기능 종사자	11.7	16.0	1.9	36.2	1.9	3.9	6.6	7.0	5.1	0.4	9.3	100.0(257)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19.6	11.5	2.9	9.6	19.6	2.9	8.6	6.2	11.5	1.4	6.2	100.0(209)
가사관련 단순노무자	19.7	17.8	4.8	9.1	1.4	9.1	14.4	13.0	6.7	0.0	3.8	100.0(208)
기타 단순노무자	17.3	14.5	3.2	7.8	1.3	4.6	25.4	8.1	9.8	0.3	7.5	100.0(970)
사무종사자	11.5	12.1	1.1	4.6	1.7	1.7	6.9	39.7	13.2	0.0	7.5	100.0(174)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10.2	13.5	0.6	3.9	2.3	1.3	3.3	23.7	35.1	1.0	5.1	100.0(792)
임직원 및 관리자	5.3	0.0	0.0	0.0	0.0	0.0	5.3	10.5	10.5	42.1	26.3	100.0(19)
기타	15.3	11.3	5.0	4.4	1.3	3.3	8.6	14.4	12.1	3.1	21.3	100.0(522)

주: 1) 본국에서 취업경험 및 현 취업자를 분석대상으로 함.

2. 취업유형

20~44세 여성 결혼이민자의 취업유형을 보면, 현 취업자 33.6%, 과거 취업경험자 22.2%, 비취업자 44.2%로 취업경험이 없는 결혼이민자가 가장 많았다. 거주지역별로는 현 취업자 및 과거 취업경험자는 동 지역이 많았고, 비취업자는 읍·면 지역이 많았다. 연령별로는 연령이 어릴수록 비취업자 비율이 높았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현 취업자 및 과거 취업경험자의 비율이 높아졌으며, 특히 현 취업자 비율이 높아졌다. 교육수준별로는 저학력층일수록 비취업자의 비율이 높은 반면, 고학력층으로 갈수록 현취업자와 과거 취업경험자의 비율이 높아졌으며, 특히 현 취업자의 비율이 높아졌다.

혼인상태별로는 유배우는 취업자 32.4%, 과거 취업경험자 22.1%, 그리고 비취업자는 45.5%이었으나 이혼 및 사별은 현 취업자가 각각 68.4%, 64.0%로 유배우자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으며 비취업자는 이혼 5.8%, 사별 15.6%로 유배우자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이는 해혼상태인 이혼, 사별의 경우 배우자의 부재로 인해 가구의 생계 책임자로서 취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로 보인다.

체류기간별로는 체류기간이 짧을수록 현 취업자와 과거 취업경험자의 비율은 낮은 편이었으며, 비취업자의 비율은 높은 편이었다. 가구소득별로는 가구소득이 적을수록 현 취업자의 비율은 낮았으나 과거 취업경험자와 비취업자의 비율은 높았다. 자녀수가 없는 경우 현 취업자 비율이 높았고, 비취업자의 비율은 자녀가 있는 경우보다 없는 경우가 낮았다. 미취학자녀가 있는 경우에 취업률이 낮았다(표 4-8 참조).

결혼이민자의 출신국별 현 취업유형을 보면, 중국 조선족과 북미·호주·서유럽은 현 취업자의 비율이 높았고, 나머지 출신국은 모두 비취업자의 비율이 높았으며, 특히 캄보디아(74.9%), 베트남(64.5%), 일본(48.9%), 태국(45.9%) 등이 높은 수준이었다(표 6-9 참조).

〈표 6-8〉 20~44세 여성 결혼이민자의 특성별 현 취업유형

(단위: %, 명)

구분	현 취업자	과거 취업 경험자	비취업자	계(수)
전체	33.6	22.2	44.2	100.0(99,694)
지역				
동 지역	35.3	24.0	40.7	100.0(68,708)
읍·면 지역	29.9	18.3	51.8	100.0(30,986)
연령				
20~24세	18.1	13.6	68.3	100.0(22,596)
25~29세	24.0	22.0	54.0	100.0(23,801)
30~34세	34.7	26.3	39.1	100.0(20,713)
35~39세	47.2	26.4	26.4	100.0(19,670)
40~44세	56.1	24.7	19.2	100.0(12,912)
교육수준				
초등학교 이하	24.7	15.8	59.5	100.0(7,565)
중학교	31.6	20.8	47.6	100.0(27,228)
고등학교	34.2	23.5	42.3	100.0(41,696)
대학 이상	38.2	23.7	38.0	100.0(22,242)
혼인상태				
유배우	32.4	22.1	45.5	100.0(96,093)
이혼	68.4	25.8	5.8	100.0(2,627)
사별	64.0	20.4	15.6	100.0(564)
체류기간				
1년 미만	17.7	8.8	73.5	100.0(9,084)
1~2년 미만	21.4	15.3	63.3	100.0(14,087)
2~5년 미만	30.5	21.7	47.9	100.0(34,523)
5~10년 미만	43.1	29.4	27.6	100.0(21,952)
10년 이상	54.7	28.6	16.7	100.0(11,638)
가구소득				
50만원 미만	27.4	28.7	43.9	100.0(4,192)
50~100만원 미만	39.0	22.2	38.8	100.0(14,306)
100~200만원 미만	32.7	24.2	43.1	100.0(37,522)
200~300만원 미만	38.3	21.7	40.0	100.0(18,580)
300~400만원 미만	45.3	18.5	36.2	100.0(5,529)
400~500만원 미만	46.5	18.7	34.9	100.0(1,618)
500만원 이상	46.3	15.6	38.1	100.0(1,818)
자녀수 유무				
있음	27.9	23.2	48.9	100.0(63,688)
없음	43.9	20.1	35.9	100.0(30,100)
미취학자녀 유무				
있음	20.3	22.8	56.8	100.0(47,704)
없음	46.5	21.5	32.0	100.0(45,605)

〈표 6-9〉 20~44세 여성 결혼이민자의 출신국별 현 취업유형

구분	현 취업자	과거 취업 경험자	비취업자	계(수)
전체	33.6	22.2	44.2	100.0(99,696)
중국(조선족)	44.7	29.1	26.2	100.0(25,287)
중국(한족 등)	34.5	24.7	40.8	100.0(28,603)
베트남	21.9	13.5	64.5	100.0(23,132)
필리핀	40.5	17.6	41.9	100.0(7,883)
몽골	29.5	28.9	41.6	100.0(1,700)
태국	34.7	19.4	45.9	100.0(1,573)
캄보디아	11.7	13.4	74.9	100.0(2,495)
일본	29.2	22.0	48.9	100.0(3,789)
북미·호주·서유럽	56.9	20.6	22.5	100.0(436)
기타	28.7	23.9	47.4	100.0(4,798)

시·도별로 살펴 본 현 취업유형은 서울시가 취업률이 가장 높았을 뿐만 아니라 16개 시·도 중 유일하게 현 취업자의 비율이 비취업자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다. 나머지 시·도는 모두 현 취업자 보다는 비취업자의 비율이 높았으며, 특히 울산은 비취업자의 비율(55.8%)이 타 시·도에 비해 가장 높았다(표 6-10 참조).

〈표 6-10〉 20~44세 여성 결혼이민자의 시·도별 현 취업유형

구분	현 취업자	과거 취업 경험자	비취업자	계(수)
전체	33.6	22.2	44.2	100.0(99,691)
서울	39.3	26.7	34.0	100.0(17,280)
부산	31.4	20.6	48.0	100.0(4,892)
대구	29.7	20.5	49.8	100.0(3,597)
인천	38.6	23.0	38.3	100.0(6,012)
광주	30.4	21.0	48.6	100.0(2,318)
대전	27.0	21.4	51.6	100.0(2,313)
울산	26.4	17.8	55.8	100.0(2,229)
경기	36.6	25.9	37.5	100.0(23,341)
강원	32.8	17.8	49.5	100.0(3,244)
충북	31.3	19.1	49.5	100.0(3,559)
충남	29.8	19.3	50.8	100.0(6,123)
전북	30.9	17.8	51.2	100.0(4,611)
전남	31.0	18.6	50.4	100.0(5,525)
경북	27.4	17.4	55.1	100.0(6,136)
경남	28.2	19.1	52.6	100.0(7,328)
제주	36.9	16.7	46.4	100.0(1,183)

3. 현 취업실태

가. 취업직종

20~44세 여성 결혼이민자의 현 취업률은 33.6%로 이들의 특성별 취업직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동 지역 거주자는 서비스 종사자 비율(29.6%)이 가장 높았으며, 읍·면 지역은 가사관련 단순노무자(3.8%)와 기타 단순노무자(19.9%)를 합한 단순노무자의 비율이 23.7%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직종은 동 지역이 가사 및 기타 단순노무자(19.9%)이었으며, 읍·면 지역은 서비스 종사자(22.3%)이었다. 연령별로는 29세 이하의 가사 및 기타 단순노무자, 서비스 종사자, 전문가 순으로 높았으며, 특히 24세 이하의 가사 및 기타 단순노무자가 33.3%나 되었다. 그리고 30~34세는 서비스 종사자(22.7%), 전문가(20.0%), 가사 및 기타 단순노무자(19.0%) 비율이 가장 높았고, 35세 이상은 서비스 종사자, 가사 및 기타 단순노무자, 전문가 순으로 높았다.

교육수준별로는 초등학교 이하의 저학력층은 가사 및 기타 단순노무자(30.6%), 서비스 종사자(28.6%) 순이었으며, 중·고등학교 학력층은 서비스 종사자, 단순노무자 순으로, 그리고 대학 이상의 고학력층은 전문가(45.6%), 서비스 종사자(13.5%) 순이었다. 혼인상태별로는 유배우는 서비스 종사자, 단순노무자, 전문가 순으로, 이혼은 서비스 종사자가 44.4%로 유배우나 사별보다도 높았으며, 그 다음은 단순노무자로 18.9%이었다. 사별은 서비스 종사자와 단순노무자가 각각 23.6%로 가장 높았으며, 전문가가 11.8%로 그 다음 순이었다. 체류기간별로는 1년 미만인 경우 단순노무자가 27.8%로 가장 높았으며, 서비스 종사자 27.1%, 전문가 11.6% 등이었고, 1년 이상 5년 미만은 서비스 종사자, 단순노무자, 전문가의 순으로, 그리고 5년 이상은 서비스 종사자, 전문가, 단순노무자 순으로 체류기간별 직종에 차이를 보였다.

본국에서의 취업여부별로는 서비스 종사자, 단순노무자, 전문가의 순이었으며, 서비스 종사자와 단순노무자는 본국에서의 취업자 보다 비취업자가 높았으나 전문가 비율은 본국에서의 취업자가 비취업자 보다 높았다. 가구소득별로는 300만원 미만까지는 서비스 종사자, 단순노무자, 전문가 순으로 높았으나 300~400만원 미만은 전

문가(24.3%), 서비스 종사자(23.6%), 단순노무자(13.5%) 순이었고, 400만원 이상은 전문가, 서비스 종사자, 사무 종사자 순이었으며, 특히 50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인 경우 전문가는 43.9%나 되었다.

〈표 6-11〉 20~44세 여성 결혼이민자의 특성별 취업 직종¹⁾

(단위: %, 명)

구분	현 직종											계(수)
	서비스종사자	판매종사자	농림어업종사자	기능종사자	기계조작및조립	가사관련단순노무자	기타단순노무자	사무종사자	전문가	임직원및관리자	기타	
전체	27.7	6.6	3.8	6.3	5.4	3.4	17.4	3.7	15.4	0.4	9.8	100.0(28,541)
지역												
동 지역	29.6	6.9	0.9	6.8	5.9	3.3	16.6	3.9	16.0	0.4	9.8	100.0(20,989)
읍·면 지역	22.3	5.8	12.0	5.0	4.0	3.8	19.9	3.2	13.8	0.4	9.9	100.0(7,552)
연령												
20~24세	19.8	6.1	6.9	5.9	6.0	3.6	29.7	2.9	7.7	0.3	11.1	100.0(3,110)
25~29세	20.3	6.1	3.8	6.1	5.6	2.4	19.0	5.3	20.0	0.7	10.7	100.0(4,849)
30~34세	22.7	7.0	3.1	6.5	4.9	2.8	16.2	5.0	20.0	0.5	11.3	100.0(6,261)
35~39세	30.7	6.6	3.5	6.8	5.3	3.5	15.2	3.4	15.6	0.2	9.2	100.0(7,991)
40~44세	38.4	6.9	3.5	5.7	5.5	4.7	14.2	2.2	10.7	0.2	8.0	100.0(6,321)
교육수준												
초등학교 이하	28.6	4.3	9.1	7.8	8.0	3.5	27.1	0.3	0.8	0.4	10.1	100.0(1,529)
중학교	35.6	5.3	5.5	7.3	6.4	4.4	23.0	1.5	1.5	0.3	9.3	100.0(7,047)
고등학교	31.7	8.6	3.4	7.4	6.1	3.7	18.8	3.3	6.4	0.2	10.5	100.0(12,157)
대학 이상	13.5	5.2	2.0	3.3	2.8	2.0	8.2	7.3	45.6	0.7	9.4	100.0(7,634)
혼인상태												
유배우	26.7	6.6	4.0	6.3	5.3	3.4	17.6	3.8	15.9	0.4	10.0	100.0(26,603)
이혼	44.4	6.6	1.1	5.3	6.7	3.6	15.3	2.3	6.6	0.5	7.6	100.0(1,497)
사별	23.6	5.4	3.4	7.4	7.7	5.4	18.2	4.7	11.8	1.0	11.4	100.0(297)
체류기간												
1년 미만	27.1	5.1	3.6	6.9	5.7	3.9	23.9	2.9	11.6	0.1	9.1	100.0(1,375)
1~2년 미만	28.4	5.6	3.1	5.8	7.5	3.8	24.4	1.9	10.1	0.4	9.1	100.0(2,586)
2~5년 미만	29.9	5.7	3.6	7.5	6.4	2.8	20.3	3.2	11.2	0.4	8.9	100.0(9,054)
5~10년 미만	25.6	6.6	2.8	5.7	4.5	3.8	14.5	5.0	20.3	0.5	10.6	100.0(8,243)
10년 이상	27.0	8.4	5.5	5.5	4.2	3.6	13.6	3.8	17.6	0.2	10.5	100.0(7,284)
본국에서의 취업												
취업	27.0	6.6	3.8	6.4	5.6	3.4	16.7	3.9	16.6	0.4	9.6	100.0(21,769)
비취업	29.0	6.5	3.9	6.0	4.7	3.7	21.8	3.2	10.5	0.3	10.4	100.0(5,415)
가구소득												
50만원 미만	24.9	4.0	12.1	3.6	3.1	6.2	16.2	2.7	14.8	0.1	12.2	100.0(842)
50~100만원 미만	29.6	5.1	5.7	4.9	4.6	5.7	19.7	2.8	10.3	0.3	11.3	100.0(4,576)
100~200만원 미만	31.1	6.1	3.4	6.6	5.6	3.5	19.3	2.6	11.8	0.1	9.8	100.0(10,571)
200~300만원 미만	27.2	7.7	1.9	7.4	6.6	2.6	17.4	4.5	15.4	0.2	8.9	100.0(6,407)
300~400만원 미만	23.6	8.7	0.9	7.0	6.5	1.6	11.9	6.3	24.3	0.8	8.3	100.0(2,321)
400~500만원 미만	19.9	9.8	1.7	5.2	2.5	0.4	2.8	11.6	33.8	1.3	10.9	100.0(687)
500만원 이상	13.1	7.4	2.6	4.9	2.0	0.8	7.5	9.2	43.9	2.5	6.1	100.0(732)

주: 1) 현 취업자만을 분석대상으로 함.

출신국별 현 취업직종을 살펴보면, 중국 조선족, 한족 등, 캄보디아는 서비스 종사자가 가장 많았다. 베트남은 단순노무자가 가장 많았으며(41.1%), 필리핀은 전문가(41.3%)가 가장 많았다. 이 외 몽골, 태국은 단순노무자가, 캄보디아는 서비스 종사자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단순노무자가 많았다. 일본과 북미·호주·서유럽 등의 선진국은 전문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북미·호주·서유럽은 86.9%나 되었다.

〈표 6-12〉 20~44세 여성 결혼이민자의 출신국별 취업직종¹⁾

(단위: %, 명)

구분	직종											계(수)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농림 어업	기능 종사자	기계 조작 및 조립	가사관련단순노무자	기타 단순노무자	사무 종사자	전문가	임직원 및관리자	기타	
전체	27.7	6.6	3.8	6.3	5.4	3.4	17.4	3.7	15.4	0.4	9.8	100.0(28,495)
중국(조선족)	38.9	8.8	3.4	5.5	3.9	3.5	10.9	4.7	10.0	0.3	10.0	100.0(9,925)
중국(한족 등)	30.1	5.9	1.7	7.7	7.9	2.9	18.3	2.9	12.8	0.4	9.4	100.0(8,752)
베트남	15.4	5.3	8.8	8.2	6.6	3.9	37.2	1.6	2.8	0.3	10.0	100.0(3,574)
필리핀	9.3	3.5	4.0	4.1	4.5	4.3	16.8	4.3	41.3	0.3	7.5	100.0(2,579)
몽골	22.1	5.6	2.3	7.7	3.1	3.1	27.0	5.9	6.8	2.1	14.3	100.0(426)
태국	18.3	6.3	6.5	8.1	7.8	5.4	24.0	2.0	10.9	0.4	10.2	100.0(459)
캄보디아	27.4	4.6	15.1	6.8	0.5	2.3	23.3	4.6	4.1	0.0	11.4	100.0(219)
일본	14.2	4.3	7.4	1.6	0.6	5.0	6.7	5.3	40.3	0.1	14.5	100.0(1,082)
북미·호주·서유럽	0.0	1.6	0.0	0.0	0.0	0.0	0.0	3.3	86.9	1.6	6.5	100.0(245)
기타	16.9	8.1	2.3	6.1	3.1	2.4	14.8	5.2	29.3	0.7	11.1	100.0(1,234)

주: 1) 현 취업자만을 분석대상으로 함.

다음의 <표 6-13>은 현재 취업 중인 시·도별 결혼이민자의 현 취업직종을 나타낸다. 서울, 대전, 충남, 전주, 제주는 서비스 종사자, 전문가, 단순노무자의 순으로 많았으며, 단순노무자와 판매종사자는 각각 13.1%로 동일 순이었다. 부산, 인천, 울산, 경기, 강원은 서비스 종사자, 단순노무자, 전문가 순으로 많았다. 대구는 단순노무자 비율이 가장 높았고(23.6%), 그 다음이 서비스 종사자(20.0%), 전문가(15.3%) 등의 순이었다. 이외 광주, 충북, 경북, 경남도 역시 단순노무자, 서비스 종사자, 전문가 순으로 많았으며, 전북은 단순노무자, 전문가, 서비스 종사자 순이었다. 전체적으로 보아 서비스 종사자의 비율이 가장 높은 시·도는 서울(37.6%)이었으며, 판매종사자는 제주도(13.1%), 농·임·어업은 전남(12.7%), 기능직과 기계조작 및 조립직은 인천이 각각 9.1%와 9.9%로 가장 높았다. 이 외 단순노무자는 경남이 25.4%로

가장 많았고, 사무 종사자(5.6%)와 전문가(23.6%)는 대전이 가장 많았다.

〈표 6-13〉 20~44세 여성 결혼이민자의 시·도별 취업직종¹⁾

(단위: %, 명)

구분	직종											계(수)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농림 어업 종사자	기능 종사자	기계 조작및 조립	가사관련단순 노무자	기타 단순 노무자	사무 종사자	전문가	임직원 및 관리자	기타	
전체	27.7	6.6	3.8	6.3	5.4	3.4	17.4	3.7	15.4	0.4	9.8	100.0(28,489)
서울	37.7	7.2	0.6	6.5	1.7	4.3	11.4	4.0	17.1	0.5	9.0	100.0(5,864)
부산	30.9	7.9	0.8	7.3	3.6	2.8	19.6	3.7	13.9	0.2	9.3	100.0(1,319)
대구	20.0	8.3	2.1	8.9	8.9	3.9	19.7	4.3	15.3	0.2	8.4	100.0(890)
인천	25.1	7.1	0.7	9.1	9.7	2.6	18.9	4.0	11.9	0.5	10.4	100.0(2,124)
광주	23.6	4.9	1.6	5.2	6.6	3.7	20.6	3.3	20.4	0.7	9.4	100.0(573)
대전	25.3	8.6	0.0	5.6	4.2	2.7	13.8	5.6	23.6	0.2	10.5	100.0(522)
울산	32.4	9.6	2.0	5.1	5.7	3.1	16.0	2.0	17.0	0.4	6.6	100.0(488)
경기	26.2	6.0	1.1	7.2	9.1	2.9	20.7	4.0	12.1	0.3	10.4	100.0(7,500)
강원	30.1	6.9	8.9	2.1	1.0	4.3	17.5	4.0	16.6	0.0	8.5	100.0(897)
충북	21.9	4.9	8.9	5.1	3.2	3.6	19.9	4.2	18.8	0.5	9.0	100.0(924)
충남	23.2	6.7	9.4	5.9	4.6	2.0	15.8	2.9	18.1	0.7	10.7	100.0(1,464)
전북	19.2	5.7	11.2	5.0	3.1	4.1	19.4	2.0	20.7	0.3	9.5	100.0(1,147)
전남	24.2	5.1	12.8	2.7	2.6	5.1	12.8	4.3	18.5	0.6	11.5	100.0(1,283)
경북	18.3	5.6	12.3	5.8	5.7	3.5	19.2	2.5	15.0	0.4	11.6	100.0(1,382)
경남	25.2	5.8	7.4	5.0	3.6	3.2	22.2	3.7	14.5	0.2	9.4	100.0(1,737)
제주	35.2	13.1	6.1	2.9	3.2	4.3	8.8	2.1	14.4	0.0	9.9	100.0(375)

주: 1) 현 취업자만을 분석대상으로 함.

나. 종사상 지위

현재 취업 중인 결혼이민자의 종사상 지위를 특성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거주지역별로는 동 지역, 읍·면 지역 모두 임시근로자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상용근로자이었다. 동 지역은 읍·면 지역 보다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고용주 비율이 높았고, 단독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비율은 낮았다.

연령별로는 전체적으로 임시근로자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20대 이하 젊은 층에서 더욱 높았다. 그 다음으로는 상용근로자, 일용근로자 순으로 상용근로자는 24세 이하에서 가장 낮았고, 35~39세에서 가장 높았다.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40~44세 고연령층에서 가장 높았다(15.3%).

〈표 6-14〉 20~44세 여성 결혼이민자의 특성별 종사상 지위¹⁾

(단위: %, 명)

구분	종사상 지위							계(수)
	상용 근로자	임시 근로자	일용 근로자	단독 자영업자	고용주	무급가족 종사자	기타	
전체	29.2	35.6	12.4	8.2	2.2	2.9	9.5	100.0(26,490)
지역								
동 지역	30.2	36.0	12.9	7.2	2.3	2.1	9.3	100.0(19,624)
읍·면 지역	26.3	34.4	11.0	11.2	2.0	5.2	9.9	100.0(6,866)
연령								
20~24세	22.9	41.6	11.9	6.5	1.5	5.0	10.6	100.0(2,840)
25~29세	30.7	36.7	10.8	7.0	1.4	3.1	10.3	100.0(4,506)
30~34세	30.4	34.4	12.3	8.0	2.1	2.8	10.0	100.0(5,795)
35~39세	31.1	33.4	11.3	9.4	2.6	2.6	9.5	100.0(7,436)
40~44세	27.5	35.6	15.3	8.7	2.7	2.4	7.8	100.0(5,916)
교육수준								
초등학교 이하	19.2	38.2	17.7	6.9	2.1	4.7	11.3	100.0(1,412)
중학교	23.9	38.1	17.1	7.3	2.0	3.7	8.0	100.0(6,584)
고등학교	29.8	35.2	12.7	8.2	2.1	2.9	9.0	100.0(11,340)
대학 이상	35.4	33.1	6.1	9.4	2.7	1.9	11.4	100.0(7,008)
혼인상태								
유배우	28.9	35.7	12.2	8.3	2.2	3.1	9.6	100.0(24,666)
이혼	32.9	34.1	15.4	7.1	2.0	0.2	8.3	100.0(1,438)
사별	30.0	38.0	15.2	8.0	1.5	0.0	7.2	100.0(263)
체류기간								
1년 미만	21.3	45.8	14.5	5.7	0.9	4.1	7.8	100.0(1,280)
1~2년 미만	24.7	45.0	13.7	4.5	2.4	3.1	6.6	100.0(2,425)
2~5년 미만	29.0	38.5	13.5	6.0	1.8	3.0	8.3	100.0(8,505)
5~10년 미만	30.7	33.3	11.8	8.7	2.5	2.4	10.5	100.0(7,609)
10년 이상	30.9	29.0	10.8	12.4	2.6	3.1	11.2	100.0(6,671)
가구소득								
50만원 미만	16.6	35.3	17.3	9.3	1.4	4.4	15.7	100.0(706)
50~100만원 미만	22.5	38.7	17.4	7.3	1.9	2.3	9.9	100.0(4,139)
100~200만원 미만	26.8	38.1	14.1	7.2	2.0	2.4	9.4	100.0(9,965)
200~300만원 미만	33.9	35.0	10.5	8.3	2.0	2.5	7.9	100.0(6,071)
300~400만원 미만	41.2	29.0	5.8	10.6	3.1	2.7	7.6	100.0(2,200)
400~500만원 미만	40.2	26.3	4.3	16.1	2.2	3.1	7.7	100.0(646)
500만원 이상	45.8	22.6	3.4	11.1	5.0	3.0	9.1	100.0(674)
자녀수 유무								
있음	28.4	33.8	11.2	10.4	2.1	3.4	10.8	100.0(13,760)
없음	29.9	38.2	13.3	6.1	2.4	2.5	7.6	100.0(10,934)
미취학자녀 유무								
있음	26.0	37.2	12.5	8.3	1.7	3.7	10.5	100.0(7,330)
없음	30.3	35.2	11.9	8.5	2.4	2.7	8.9	100.0(17,296)

주: 1) 현 취업자만을 분석대상으로 함.

이 외 단독자영업자나 고용주인 경우는 고연령층으로 갈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교육수준별로는 고등학교 이하 학력층은 임시근로자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대학 이상은 상용근로자 비율이 가장 높았다. 그 다음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는 종사상 지위는 고등학교 이하까지는 상용근로자, 일용근로자, 단독 자영업자 및 고용주 순이었으나 대학 이상은 임시근로자, 단독 자영업자 및 고용주, 일용근로자 순으로 교육수준별 차이를 보인다. 일용근로자는 학력이 낮을수록, 단독 자영업자 및 고용주는 학력이 높을수록 비율도 높았다. 혼인상태별로는 임시근로자, 상용근로자, 일용근로자, 단독 자영업자 및 고용주 순이었으며, 상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유배우자 보다는 이혼, 사별인 경우에 높았고, 임시근로자는 사별인 경우에만 가장 높았다. 단독 자영업자 및 고용주는 이혼·사별 보다는 유배우인 경우 가장 높았다.

체류기간별로는 임시근로자, 상용근로자, 일용근로자, 단독 자영업자 및 고용주 순이었으며, 체류기간이 짧을수록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 비율은 높았고, 상용근로자 비율은 낮았다. 단독 자영업자 및 고용주도 체류기간이 길수록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가구소득별로는 50만원 미만은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상용근로자 순이었으며 50~300만원 미만은 임시근로자, 상용근로자, 일용근로자 순이었다. 그러나 300만원 이상은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단독 자영업자 및 고용주, 일용근로자 순이었다.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상용근로자와 단독 자영업자 및 고용주 비율은 높아졌다.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임시근로자, 상용근로자, 단독 자영업자 및 고용주, 일용근로자 순이었으며,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임시근로자, 상용근로자, 일용근로자, 단독 자영업자 및 고용주 순이었다. 미취학자녀 유무에 따라서는 임시근로자, 상용근로자, 일용근로자, 단독 자영업자 및 고용주 순이었으나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미취학 자녀가 있을 경우에, 상용근로자와 단독 자영업자 및 고용주는 미취학 자녀가 없는 경우에 더 높은 비율을 보였다. 무급가족종사자는 동 지역 보다는 읍·면 지역에서, 저연령층, 저학력층에서, 그리고 이혼·사별 보다는 유배우가, 체류기간이 짧을수록,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자녀나 미취학자녀가 없을 때 보다 높은 비율이었다.

출신국별 종사상 지위는 대부분의 출신국 이민자는 임시근로자, 상용근로자, 일용근로자 순이나 북미·호주·서유럽의 선진국은 상용근로자가 50.7%로 가장 높았으며,

임시근로자(23.1%), 단독 자영업자 및 고용주(15.0%) 순이었다.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율이 가장 높은 출신국은 캄보디아(9.1%), 태국(5.6%), 베트남(4.8%), 일본(4.2%) 등의 순이었다(표 6-15 참조).

〈표 6-15〉 20~44세 여성 결혼이민자의 출신국별 종사상 지위¹⁾

(단위: %, 명)

구분	종사상 지위							계(수)
	상용 근로자	임시 근로자	일용 근로자	단독 자영업자	고용주	무급가족 종사자	기타	
전체	29.2	35.6	12.4	8.2	2.2	2.9	9.5	100.0(26,489)
중국(조선족)	28.7	31.8	13.6	10.7	2.5	2.6	10.0	100.0(9,214)
중국(한족 등)	30.3	39.0	12.6	6.3	2.2	2.3	7.3	100.0(8,360)
베트남	23.2	38.9	15.0	6.0	1.1	4.8	10.9	100.0(3,256)
필리핀	31.5	36.8	10.7	5.7	3.2	2.5	9.6	100.0(2,242)
몽골	28.5	35.5	10.2	8.3	3.0	2.2	12.4	100.0(372)
태국	27.0	33.6	11.5	8.7	3.8	5.6	9.9	100.0(426)
캄보디아	23.7	35.9	8.6	13.1	1.5	9.1	8.1	100.0(198)
일본	28.1	34.8	6.8	11.0	1.1	4.2	13.9	100.0(1,056)
북미·호주·서유럽	50.7	23.1	0.0	12.7	2.3	1.8	9.5	100.0(221)
기타	36.3	32.5	5.9	9.4	1.5	3.0	11.5	100.0(1,144)

주: 1) 현 취업자만을 분석대상으로 함.

임시근로자 비율이 가장 높은 시·도는 광주(42.3%), 울산(41.9%), 대구(39.8%), 제주(37.8%), 전북(37.6%) 등의 순이었으며, 상용근로자 비율이 가장 높은 시·도는 충북(32.5%), 서울(32.1%), 대구(31.7%), 인천(30.6%) 등의 순이었다.

일용근로자 비율은 경기도(16.2%)가 가장 높았고, 충북이 가장 낮았다(7.2%). 단독 자영업자 및 고용주는 충남(15.3%), 울산(13.2%), 경북(13.1%) 순으로 높았고 가장 낮은 시·도는 광주(6.2%)이었다. 무급가족종사자는 제주도가 6.1%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강원 5.6%, 전북 5.4%, 경북 4.8% 순이었으며, 인천이 1.2%로 가장 낮았다.

〈표 6-16〉 20~44세 여성 결혼이민자의 시·도별 종사상 지위¹⁾

(단위: %, 명)

구분	종사상 지위							계(수)
	상용 근로자	임시 근로자	일용 근로자	단독 자영업자	고용주	무급가족 종사자	기타	
전체	29.2	35.6	12.4	8.2	2.2	2.9	9.5	100.0(26,490)
서울	32.1	36.2	10.9	7.0	3.0	1.8	8.9	100.0(5,522)
부산	29.8	35.5	12.5	8.8	1.9	3.9	7.6	100.0(1,234)
대구	31.7	39.8	7.7	8.1	1.0	3.8	7.9	100.0(814)
인천	30.6	37.1	12.3	7.7	1.9	1.2	9.1	100.0(2,005)
광주	25.3	42.3	13.2	5.3	0.9	2.8	10.2	100.0(530)
대전	26.6	37.7	10.7	8.4	0.8	4.0	11.7	100.0(477)
울산	21.1	41.9	11.0	11.0	2.2	3.2	9.7	100.0(465)
경기	30.4	33.7	16.2	6.4	2.1	2.1	9.2	100.0(7,058)
강원	27.7	33.7	11.1	9.9	2.7	5.6	9.2	100.0(845)
충북	32.5	35.2	7.2	8.2	2.8	3.9	10.3	100.0(853)
충남	24.9	34.6	11.1	13.3	2.0	3.4	10.7	100.0(1,319)
전북	24.4	37.6	10.5	10.2	2.2	5.4	9.9	100.0(1,062)
전남	26.2	34.9	9.9	11.0	1.7	4.2	12.1	100.0(1,107)
경북	25.6	32.3	10.8	11.4	1.7	4.8	13.4	100.0(1,226)
경남	26.4	36.0	12.9	10.0	2.6	4.2	7.9	100.0(1,626)
제주	25.4	37.8	11.5	8.4	0.0	6.1	11.0	100.0(347)

주: 1) 현 취업자만을 분석대상으로 함.

4. 맞벌이 실태

가. 결혼이민자 및 배우자의 취업 여부

유배우를 대상으로 부인의 거주지역 및 취업여부별 배우자의 취업여부를 살펴본 결과는 <표 6-17>에서 잘 보여준다. 여성 결혼이민자가 취업 중일 경우 배우자도 취업 중인 경우는 89.8%이었으며, 여성 결혼이민자가 비취업 중일 경우 배우자가 취업 중인 경우는 87.7%이었다. 이러한 비율은 동 지역 거주 여성 결혼이민자가 각각 89.9%와 87.8%이었으며, 읍·면 지역 거주 여성 결혼이민자는 각각 89.4%와 87.5%로 여성 결혼이민자가 취업 중 일 때 배우자도 취업 중인 비율은 동 지역 거주부인이 읍·면 지역 거주부인에 비해 약간 높았다.

〈표 6-17〉 20~44세 여성 결혼이민자의 지역별 취업여부별 배우자 취업여부¹⁾

(단위: %, 명)

부인의 취업여부	배우자의 취업여부		
	취업	비취업	계(수)
전국			
취업	89.8	10.2	100.0(30,541)
비취업	87.7	12.3	100.0(63,402)
동 지역			
취업	89.9	10.1	100.0(21,752)
비취업	87.8	12.2	100.0(42,485)
읍·면 지역			
취업	89.4	10.6	100.0(8,789)
비취업	87.5	12.5	100.0(20,917)

주: 1) 유배우자만을 분석대상으로 함.

연령별 부인 취업여부별 배우자의 취업여부를 보면, 부인 취업 중일 때 배우자도 취업중인 경우는 25~29세 연령층에서 가장 높았고, 부인이 취업중이면서 배우자는 비취업 중인 경우와 부인이 비취업 중일 때 배우자도 비취업인 경우는 연령이 높아 질수록 높은 비율을 보였다.

〈표 6-18〉 20~44세 여성 결혼이민자의 연령별 취업여부별 배우자 취업여부¹⁾

(단위: %, 명)

부인의 취업여부	배우자의 취업여부		
	취업	비취업	계(수)
20~24세			
취업	90.9	9.1	100.0(3,901)
비취업	88.6	11.4	100.0(18,000)
25~29세			
취업	91.2	8.8	100.0(5,443)
비취업	88.3	11.7	100.0(17,507)
30~34세			
취업	90.5	9.5	100.0(6,604)
비취업	87.9	12.1	100.0(12,989)
35~39세			
취업	88.9	11.1	100.0(8,224)
비취업	86.8	13.2	100.0(9,698)
40~44세			
취업	88.1	11.9	100.0(6,369)
비취업	84.1	15.9	100.0(5,208)

주: 1) 유배우자만을 분석대상으로 함.

다음의 <표 6-19>는 20~44세 여성 결혼이민자 부부의 맞벌이 여부를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이다. 부인과 남편 모두 취업 중인 맞벌이는 29.3%이었으며, 그 외 남편 취업, 부인 비취업 58.4%, 부인 취업, 남편 비취업 3.9%, 그리고 부인, 남편 모두 비취업 8.5%이었다.

거주지역별로는 맞벌이 이거나 또는 부인만 취업 중인 경우는 동 지역에서 높았고, 부인 비취업, 남편 취업 중이거나 부부가 모두 비취업 중인 경우는 읍·면 지역에서 더 높았다. 연령별로는 연령이 낮을수록 부인 비취업, 남편 취업 중인 비율이 높았고, 연령이 높을수록 맞벌이와 부인 취업, 남편 비취업인 비율은 높아졌다.

교육수준별로는 학력이 낮을수록 부인 비취업, 남편 취업과 부인, 남편 모두 비취업률은 높아지고, 부부가 취업 중인 맞벌이 이거나 부인만 취업 중인 비율은 낮아졌다. 체류기간별로는 체류기간이 짧을수록 부인 비취업, 남편 취업인 비율은 높아지고 맞벌이율과 부인 취업, 남편 비취업은 낮아졌다. 즉, 맞벌이 비율은 체류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15.9%에 불과하나 점차 증가하여 2~5년 미만 26.9%, 10년 이상은 47.0%에 이른다. 또한 부인 취업, 남편 비취업일 경우는 체류기간이 1년 미만일 때 1.6%에서 10년 이상일 경우 6.7%이었다. 가구소득별로는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맞벌이 비율은 낮았으며, 부인만 취업이거나 부인 비취업, 남편 비취업률은 높았다. 자녀수가 있는 경우 맞벌이 비율은 낮았으며(24.5%), 특히 미취학자녀가 있을 경우 맞벌이 비율은 더욱 낮았다(18.1%).

또한 맞벌이뿐만 아니라 부인만 취업하는 경우에도 자녀가 있을 때와 미취학 자녀가 있을 때에 없을 때 보다 취업률이 낮았다. 이는 자녀가 있을 경우 기혼여성의 취업에 영향을 미쳐 경력단절 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뒷받침한다.

출신국별로는 캄보디아(73.3%), 베트남(68.1%), 일본(64.9%), 몽골(60.7%) 순으로 부인 비취업, 남편 취업인 경우 비율이 높았고, 맞벌이 비율은 북미·호주·서유럽이 48.9%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이 중국 조선족, 필리핀, 태국, 중국 한족 등의 순이었다. 맞벌이 비율이 가장 낮은 출신국은 캄보디아로 10.5%이었으며, 그 다음은 베트남(19.5%)이었다. 이는 캄보디아, 베트남 등의 결혼이민자는 최근에 결혼한 이민자가 가장 많고, 따라서 언어소통 상의 문제와 출산기 및 자녀양육기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해석된다.11)

〈표 6-19〉 20~44세 여성 결혼이민자의 특성별 맞벌이 여부¹⁾

(단위: %, 명)

구분	부인, 남편 모두 취업	부인 취업, 남편 비취업	부인 비취업, 남편 취업	부인, 남편 모두 비취업	계수
전체	29.3	3.9	58.4	8.5	100.0(95,901)
지역					
동 지역	30.6	4.1	57.0	8.3	100.0(65,880)
읍·면 지역	26.4	3.4	61.3	8.9	100.0(30,020)
연령					
20~24세	16.2	1.7	72.6	9.5	100.0(22,019)
25~29세	21.7	2.2	67.0	9.1	100.0(23,180)
30~34세	30.6	3.8	57.5	8.2	100.0(19,999)
35~39세	40.7	5.9	45.9	7.5	100.0(18,596)
40~44세	47.9	7.8	36.5	7.8	100.0(12,107)
교육수준					
초등학교 이하	21.1	3.4	62.6	12.9	100.0(7,329)
중학교	27.2	3.8	59.2	9.8	100.0(26,028)
고등학교	29.7	3.9	58.7	7.7	100.0(40,020)
대학 이상	33.9	4.0	55.1	7.0	100.0(21,629)
체류기간					
1년 미만	15.9	1.6	74.4	8.0	100.0(8,873)
1~2년 미만	19.0	2.3	69.9	8.8	100.0(13,759)
2~5년 미만	26.9	3.4	60.7	9.0	100.0(33,544)
5~10년 미만	37.1	5.4	49.5	8.0	100.0(21,061)
10년 이상	47.0	6.7	39.3	7.0	100.0(10,906)
가구소득					
50만원 미만	18.4	8.9	37.6	35.1	100.0(3,919)
50~100만원 미만	26.7	10.8	49.2	13.3	100.0(13,350)
100~200만원 미만	28.6	3.3	62.5	5.6	100.0(36,291)
200~300만원 미만	37.1	1.2	58.5	3.2	100.0(18,263)
300~400만원 미만	44.4	1.0	52.2	2.4	100.0(5,432)
400~500만원 미만	44.9	1.1	50.4	3.5	100.0(1,576)
500만원 이상	44.5	2.1	49.8	3.6	100.0(1,772)
자녀수 유무					
있음	24.5	3.1	63.2	9.3	100.0(61,727)
없음	38.3	5.2	49.5	7.0	100.0(28,843)
미취학자녀 유무					
있음	18.1	2.2	69.9	9.8	100.0(46,462)
없음	40.5	5.5	46.9	7.1	100.0(43,662)

주: 1) 유배우자만을 분석대상으로 함.

11) 베트남 여성 결혼이민자는 2005년 이후에 87.3%가 결혼하였고, 캄보디아 여성 결혼이민자는 96.2%가 2005년 이후 결혼하였음.

〈표 6-20〉 20~44세 여성 결혼이민자의 출신국별 맞벌이 여부¹⁾

(단위: %, 명)

구분	부인, 남편 모두 취업	부인 취업, 남편 비취업	부인 비취업, 남편 취업	부인, 남편 모두 비취업	계(수)
전체	29.3	3.9	58.4	8.5	100.0(95,902)
중국(조선족)	38.5	5.1	48.8	7.6	100.0(23,790)
중국(한족 등)	30.4	3.9	58.1	7.6	100.0(27,376)
베트남	19.5	2.4	68.1	10.1	100.0(22,467)
필리핀	33.9	6.4	51.9	7.8	100.0(7,714)
몽골	26.3	3.3	60.7	9.7	100.0(1,656)
태국	31.8	2.8	56.6	8.7	100.0(1,545)
캄보디아	10.5	1.1	73.3	15.1	100.0(2,443)
일본	25.4	3.6	64.9	6.1	100.0(3,761)
북미·호주·서유럽	48.9	6.4	39.9	4.8	100.0(421)
기타	26.4	2.0	60.7	10.9	100.0(4,729)

주: 1) 유배우자만을 분석대상으로 함.

부인 비취업, 남편 취업인 비율이 가장 높은 시·도는 울산(66.5%), 대전(64.1%), 경북(63.5%), 경남(63.2%), 광주(62.4%) 등의 순이었고, 맞벌이 비율이 높은 시·도는 제주(34.4%), 서울(33.4%), 인천(33.3%), 경기(32.0%), 강원(29.3%) 등의 순이었다.

〈표 6-21〉 20~44세 여성 결혼이민자의 시·도별 맞벌이 여부¹⁾

(단위: %, 명)

구분	부인, 남편 모두 취업	부인 취업, 남편 비취업	부인 비취업, 남편 취업	부인, 남편 모두 비취업	계(수)
전체	29.3	3.9	58.4	8.5	100.0(95,902)
서울	33.4	4.7	52.3	9.5	100.0(16,346)
부산	27.4	3.8	60.7	8.2	100.0(4,743)
대구	26.4	3.2	60.7	9.6	100.0(3,466)
인천	33.3	4.9	53.2	8.6	100.0(5,833)
광주	25.7	3.8	62.4	8.1	100.0(2,229)
대전	24.4	2.2	64.1	9.3	100.0(2,261)
울산	24.3	1.9	66.5	7.3	100.0(2,182)
경기	32.0	4.0	56.8	7.1	100.0(22,312)
강원	29.3	3.3	60.3	7.1	100.0(3,176)
충북	28.1	3.2	60.8	8.0	100.0(3,450)
충남	26.4	3.2	61.8	8.5	100.0(5,912)
전북	26.7	4.1	59.5	9.7	100.0(4,474)
전남	26.6	4.5	58.8	10.1	100.0(5,294)
경북	24.1	3.3	63.5	9.1	100.0(5,959)
경남	24.9	3.0	63.2	8.8	100.0(7,121)
제주	34.4	2.4	55.2	8.1	100.0(1,144)

주: 1) 유배우자만을 분석대상으로 함.

나. 결혼이민자 및 배우자 직종 및 종사상 지위

현재 유배우 상태이면서 결혼이민자 부부가 모두 취업 중인 경우만을 대상으로 취업직종을 살펴본 결과, 결혼이민자가 서비스 종사자인 경우 배우자도 서비스 종사자인 경우가 22.9%이었고, 그 다음은 단순노무자(24.3%), 기능 종사자(16.1%) 순이었다. 판매 종사자일 경우 역시 배우자도 판매 종사자인 경우가 39.0%로 가장 많았다. 농·림·어업 종사자인 경우 배우자도 동일 직종인 경우 78.8%로 부부 모두 농·림·어업 종사자 비율이 가장 높았고, 기능직 종사자의 경우에도 배우자가 기능 종사자인 비율이 42.7%로 가장 높았다. 그러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의 경우에는 동일 직종에 종사하는 비율보다 기능종사자의 비율(25.1%)이 더 높았다.

결혼이민자가 가사관련 단순노무자일 경우 배우자는 기타 단순노무자로 종사(28.9%)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기타 단순노무자로 부부가 모두 종사하는 비율은 36.8%이었다. 부부가 모두 사무 종사자인 경우 25.1%, 전문가인 경우 20.1%, 임직원 및 관리자인 경우 40.0% 등이었다. 이로써 부부가 동일 직종에 종사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직종은 농·림·어업, 기능직 종사자, 임직원 및 관리직, 기타 단순노무자 등의 순이었다.

〈표 6-22〉 20~44세 여성 결혼이민자의 직종별 배우자 직종¹⁾

(단위: %, 명)

구분	배우자의 현 직종											계수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농림어업 종사자	기능종사자	기계조작 및 조립	가사관련 단순노무자	기타 단순노무자	사무 종사자	전문가	임직원 및 관리자	기타	
전체	10.2	7.5	9.0	16.9	7.8	0.8	18.7	6.0	5.4	1.5	16.3	100.0(22,277)
서비스 종사자	22.9	5.5	5.6	16.1	6.4	0.6	19.8	4.5	2.5	0.8	15.2	100.0(5,839)
판매 종사자	9.1	39.0	4.6	10.7	5.6	0.4	12.5	5.1	2.5	0.7	9.8	100.0(1,490)
농·림·어업 종사자	2.7	1.4	78.8	4.4	1.7	0.5	7.2	0.4	0.4	0.1	2.4	100.0(932)
기능종사자	7.0	5.3	4.0	42.7	7.1	1.1	11.3	4.8	1.7	0.2	14.8	100.0(1,430)
기계조작 및 조립	7.5	4.0	2.8	25.1	24.1	0.7	15.3	4.1	2.3	1.3	12.8	100.0(1,193)
가사관련 단순노무자	7.5	2.8	12.5	15.5	8.3	6.3	28.9	3.7	2.0	2.1	10.3	100.0(702)
기타 단순노무자	5.7	4.7	7.6	18.7	8.1	0.7	36.8	3.1	2.0	0.8	11.8	100.0(3,935)
사무 종사자	4.3	8.1	4.0	11.6	8.0	1.4	10.6	25.1	9.7	1.7	15.5	100.0(860)
전문가	4.9	6.9	6.3	12.7	7.2	0.4	9.7	11.7	20.1	3.7	16.2	100.0(3,601)
임직원 및 관리자	3.8	2.5	3.8	8.8	11.3	0.0	3.8	2.5	5.0	40.0	18.8	100.0(80)
기타	3.9	4.5	6.0	14.2	7.0	0.5	14.2	3.4	2.6	1.6	42.1	100.0(2,215)

주: 1) 유배우자이면서 결혼이민자 및 배우자 모두 현 취업중인 경우만을 분석대상으로 함.

다음의 <표 6-23>은 맞벌이 결혼이민자 부부의 종사상 지위를 살펴본 결과이다. 결혼이민자가 상용근로자일 경우 배우자도 상용근로자인 경우는 59.8%이었으며, 단독 자영업자 및 고용주일 경우 15.9%로 75.7%가 안정적인 종사상 지위이었으나 그 외 임시근로자(8.5%)이거나 일용근로자(7.7%)와 같은 비정규직일 경우 등 불안정한 취업상태에 있는 경우도 상당수 되었다.

여성 결혼이민자가 임시근로자이거나 일용근로자일 때 배우자가 상용근로자인 경우는 각각 42.0%와 34.6%이었으며, 단독 자영업자 또는 고용주인 경우가 17.0%, 14.4%로 안정적인 지위에 종사하고 있는 비율이 각각 59.0%와 49.0%이었다. 그러나 여성 결혼이민자와 동일하게 배우자도 임시근로자이거나 또는 일용근로자와 같은 비정규직인 경우도 31.0%, 42.1%나 되어 이들 가구의 경제수준은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성 결혼이민자가 단독 자영업자일 경우 배우자도 단독 자영업자인 경우는 59.6%이었으나 배우자가 임시근로자(4.9%), 일용근로자(6.2%)인 비율도 11.1%나 되었으며, 여성 결혼이민자가 고용주인 경우 배우자도 고용주인 경우는 39.3%이었으나 배우자가 임시근로자인 경우는 9.1%, 일용근로자인 경우는 6.3%로 15.4%이었다. 여성 결혼이민자가 무급가족종사자일 경우 배우자가 단독 자영업자(46.3%)이거나 고용주(12.8%)인 비율이 59.1%이었으나 무급가족종사자인 비율도 17.3%나 되었다.

<표 6-23> 20~44세 여성 결혼이민자의 종사상 지위 및 배우자 종사상 지위¹⁾

(단위: %, 명)

구분	배우자의 종사상 지위							계(수)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단독자영업자	고용주	무급가족종사자	기타	
전체	41.6	13.1	10.5	18.3	4.0	1.4	11.1	100.0(20,038)
상용근로자	59.8	8.5	7.7	12.5	3.4	0.6	7.7	100.0(5,866)
임시근로자	42.0	21.4	9.6	14.5	2.5	1.1	8.8	100.0(7,130)
일용근로자	34.6	12.5	29.6	12.5	1.9	0.6	8.3	100.0(2,375)
단독 자영업자	20.2	4.9	6.2	59.6	3.6	0.7	4.9	100.0(1,711)
고용주	17.6	9.1	6.3	13.1	39.3	3.0	11.5	100.0(427)
무급가족종사자	9.1	4.5	3.6	46.3	12.8	17.3	6.4	100.0(670)
기타	28.0	8.1	6.0	11.6	3.1	1.1	42.1	100.0(1,859)

주: 1) 유배우자이면서 결혼이민자 및 배우자 모두 현 취업중인 경우만을 분석대상으로 함.

5. 구직경로

현 취업자들의 구직경로를 살펴보면, 모국인 친구나 아는 사람의 소개로 구직을 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18.8%), 그 다음으로는 대중매체, 전단지를 통해(17.8%), 한국인 친구나 이웃의 소개(15.3%), 배우자 가족이나 친척의 소개(13.2%), 결혼이민자 본인의 가족이나 친척의 소개(10.8%) 등의 순이었다. 다음 <표 6-24>는 결혼이민자의 특성별 구직경로를 나타낸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동지역은 대중매체나 전단지를 통해(20.6%) 구직을 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나 읍·면지역은 한국인 친구나 이웃소개(20.3%)로 구직을 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연령별로는 29세 이하는 모국인 친구나 아는 사람의 소개로 구직을 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나 30세 이상은 대중매체나 전단지를 통해 구직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교육수준별로는 중학교 이하는 모국인 친구나 아는 사람의 소개로 구직하는 경우가 20.0~24.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보인 경로는 배우자 가족 또는 친척의 소개이었다. 그러나 고등학교 이상은 대중매체나 전단지를 통해 구직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모국인 친구나 아는 사람의 소개로 구직하는 경우이었다.

혼인상태별로는 유배우자는 모국인 친구나 아는 사람의 소개로(18.6%), 이혼은 대중매체나 전단지를 통해(20.1%), 그리고 사별은 한국인 친구나 이웃의 소개(21.9%)로 구직을 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체류기간별로 살펴보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모국인 친구나 아는 사람의 소개로, 5~10년 미만은 대중매체나 전단지를 통해, 그리고 10년 이상은 한국인 친구나 이웃의 소개로 구직을 하고 있었다. 본국에서의 취업여부별로는 취업자나 비취업자 모두 모국인 친구나 아는 사람의 소개로 구직을 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특히 비취업자일 경우 비율이 더 높았다.

가구소득별로 살펴보면, 50만원 미만은 한국인 친구, 이웃소개로, 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은 모국인 친구나 아는 사람 소개로, 200만원 이상은 대중매체나 전단지를 통해 구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24〉 20~44세 여성 결혼이민자의 특성별 취업자의 구직경로¹⁾

(단위: %, 명)

구분	구직경로								계(수)
	나의 가족, 친척의 소개	배우자 가족, 친척의 소개	모국인 친구, 아는 사람 소개	한국인 친구, 이웃 소개	공공기관 소개	사설 직업알선 기관 통해	대중매체, 전단지	기타	
전체	10.8	13.2	18.8	15.3	6.3	6.2	17.8	11.5	100.0(30,703)
지역									
동 지역	9.6	11.9	19.2	13.5	6.3	7.8	20.6	11.1	100.0(22,466)
읍·면 지역	14.1	16.7	17.6	20.3	6.5	1.9	10.1	12.8	100.0(8,237)
연령									
20~24세	14.8	19.4	27.4	12.3	3.9	3.4	10.5	8.3	100.0(3,726)
25~29세	10.3	13.8	20.9	13.5	6.6	4.7	18.6	11.6	100.0(5,293)
30~34세	9.9	12.4	17.6	16.1	6.7	5.8	19.1	12.5	100.0(6,600)
35~39세	10.3	11.5	16.1	16.0	6.8	6.5	19.2	13.6	100.0(8,442)
40~44세	10.5	12.1	17.0	17.0	6.5	9.2	18.0	9.7	100.0(6,643)
교육수준									
초등학교 이하	14.9	19.0	24.8	13.5	4.4	6.7	9.4	7.4	100.0(1,726)
중학교	12.5	17.1	20.0	14.6	4.9	7.9	15.2	7.8	100.0(7,755)
고등학교	11.1	12.9	17.8	15.7	6.1	6.7	19.5	10.2	100.0(13,507)
대학 이상	7.6	8.6	17.9	15.9	8.4	3.9	19.4	18.2	100.0(7,949)
혼인상태									
유배우	11.1	14.0	18.6	15.2	6.2	5.8	17.5	11.6	100.0(28,565)
이혼	7.4	2.5	22.0	15.8	6.6	12.5	22.7	10.5	100.0(1,661)
사별	2.5	3.8	20.6	21.9	14.1	10.9	13.8	12.5	100.0(320)
체류기간									
1년 미만	14.8	21.7	25.1	9.3	3.0	7.4	10.9	7.8	100.0(1,477)
1~2년 미만	11.5	20.8	24.4	12.1	3.7	8.2	13.5	5.9	100.0(2,793)
2~5년 미만	11.4	15.2	21.8	12.4	6.1	7.4	17.5	8.1	100.0(9,793)
5~10년 미만	10.1	10.2	16.0	16.3	8.1	5.7	20.1	13.5	100.0(8,696)
10년 이상	9.9	9.6	15.1	20.2	6.3	4.5	18.4	16.2	100.0(7,945)
본국에서의 취업									
취업	10.5	12.7	18.6	15.5	6.7	6.2	18.1	11.7	100.0(23,002)
비취업	11.9	14.8	19.7	14.9	4.9	5.9	16.9	10.9	100.0(5,938)
가구소득									
50만원 미만	13.0	12.2	20.8	20.9	7.7	4.6	10.0	10.7	100.0(1,012)
50~100만원 미만	11.1	10.2	20.6	17.0	8.4	7.4	15.6	9.6	100.0(5,008)
100~200만원 미만	10.8	13.2	19.4	15.5	6.3	6.6	18.7	9.6	100.0(11,304)
200~300만원 미만	9.9	15.0	16.9	14.8	6.2	6.6	19.4	11.3	100.0(6,696)
300~400만원 미만	10.3	13.1	16.0	14.6	5.0	4.4	22.0	14.6	100.0(2,358)
400~500만원 미만	10.2	11.5	11.0	12.3	5.9	6.4	20.3	22.4	100.0(715)
500만원 이상	9.2	9.8	13.5	12.1	6.9	2.6	20.5	25.4	100.0(779)

주: 1) 현 취업자만을 분석대상으로 함.

결혼이민자의 출신국별 구직경로를 보면, 중국 조선족, 몽골, 북미·호주·서유럽은 대중매체나 전단을 통해서 구직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중국 조선

족과 북미·호주·서유럽 출신은 한국인 친구나 이웃의 소개로, 그리고 몽골 출신은 모국인 친구나 아는 사람의 소개로 구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 중국 한족 등, 베트남, 필리핀, 태국 출신은 모국인 친구나 아는 사람의 소개로 구직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특히 태국이나 필리핀 출신의 비율이 높았다. 이들의 경우 최근에 입국한 경우가 많아 언어소통이 잘 이루어지는 모국인 친구로부터 구직정보를 얻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표 6-25〉 20~44세 여성 결혼이민자의 출신국별 취업자의 구직경로¹⁾

(단위: %, 명)

구분	구직경로								계(수)
	나의 가족, 친척의 소개	배우자 가족, 친척의 소개	모국인 친구, 아는 사람 소개	한국인 친구, 이웃 소개	공공 기관 소개	사실 직업알선 기관 통해	대중매체, 전단지	기타	
전체	10.8	13.2	18.8	15.3	6.3	6.2	17.8	11.5	100.0(30,702)
중국(조선족)	10.5	9.9	9.7	16.4	5.4	6.9	26.4	14.7	100.0(10,314)
중국(한족 등)	10.0	16.8	18.8	13.4	6.7	9.8	16.0	8.5	100.0(9,153)
베트남	14.1	18.4	30.8	12.9	3.7	2.5	10.1	7.4	100.0(4,564)
필리핀	8.1	8.2	31.2	17.0	12.2	2.3	10.5	10.5	100.0(2,827)
몽골	10.4	11.9	18.6	11.5	8.1	4.9	21.5	13.0	100.0(469)
태국	11.0	15.9	34.3	15.7	4.9	2.7	5.1	10.4	100.0(510)
캄보디아	24.9	23.0	15.5	17.0	5.3	1.5	3.8	9.1	100.0(265)
일본	10.4	5.1	21.6	29.5	6.4	2.2	11.5	13.5	100.0(1,062)
북미·호주·서유럽	9.8	1.6	6.5	12.2	2.4	6.9	20.4	40.0	100.0(245)
기타	10.4	11.7	17.2	15.5	8.6	3.6	15.3	17.8	100.0(1,293)

주: 1) 현 취업자만을 분석대상으로 함.

취업자의 구직경로는 시·도별로 차이를 보였다. 서울, 대구, 광주, 대전, 경기도는 대중매체나 전단을 통해 구직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부산, 인천, 울산, 강원, 전북, 전남은 모국인 친구나 아는 사람의 소개로, 충북, 충남, 경북, 경남은 한국인 친구나 이웃의 소개로, 그리고 제주도는 배우자의 가족이나 친척의 소개로 구직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표 6-26 참조).

〈표 6-26〉 20~44세 여성 결혼이민자의 시·도별 취업자의 구직경로¹⁾

(단위: %, 명)

구분	구직경로								계(수)
	나의 가족, 친척의 소개	배우자 가족, 친척의 소개	모국인 친구, 아는 사람 소개	한국인 친구, 이웃 소개	공공 기관 소개	사실 직업알선 기관 통해	대중매체, 전단지	기타	
전체	10.8	13.2	18.8	15.3	6.3	6.2	17.8	11.5	100.0(30,702)
서울	10.2	11.7	18.8	12.5	5.0	8.0	22.0	11.8	100.0(6,238)
부산	11.3	12.4	22.3	14.9	5.1	2.0	20.1	11.9	100.0(1,429)
대구	11.6	12.2	22.1	12.6	6.3	2.6	22.7	10.0	100.0(984)
인천	7.9	14.2	19.9	12.7	6.4	10.7	17.2	11.1	100.0(2,197)
광주	9.9	8.9	22.9	12.8	9.9	3.8	24.7	7.0	100.0(655)
대전	9.6	18.1	16.7	12.9	1.7	1.7	25.8	13.4	100.0(574)
울산	12.6	17.7	21.5	16.6	3.2	2.3	16.0	10.0	100.0(530)
경기	10.1	11.4	18.0	14.1	6.2	11.2	18.6	10.4	100.0(7,935)
강원	12.5	13.2	19.9	21.4	5.4	2.3	13.6	11.7	100.0(968)
충북	11.0	11.9	17.4	22.2	8.5	2.5	12.7	13.8	100.0(1,024)
충남	12.1	16.3	17.6	18.5	5.5	2.0	13.3	14.7	100.0(1,641)
전북	9.4	14.2	22.8	18.0	9.2	1.9	10.6	13.8	100.0(1,287)
전남	13.0	14.8	19.6	18.9	11.1	2.2	8.6	11.8	100.0(1,442)
경북	12.4	15.4	15.5	19.6	7.5	1.8	14.2	13.6	100.0(1,519)
경남	13.5	15.6	15.8	19.6	7.1	1.5	16.9	9.9	100.0(1,875)
제주	14.6	25.7	18.8	10.4	4.2	0.2	13.1	12.9	100.0(404)

주: 1) 현 취업자만을 분석대상으로 함.

제3절 근무환경 실태

1. 근무시간

여성 결혼이민자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을 보면, 42.74시간이었으며, 취업유형별로는 현 취업자는 42.8시간, 과거취업 경험자는 42.65시간으로 현 취업자가 약간 더 길었다. 거주지역별로는 현 취업자와 과거취업 경험자 모두 동부지역이 읍·면부 지역의 평균 근무시간이 더 길었으며, 연령별로는 24세 이하와 40~44세는 현 취업자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길었고, 25~39세까지는 현 취업자 보다 과거취업 경험자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더 길었다.

교육수준별로는 고등학교 이하는 현 취업자가 과거 취업경험자 보다 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길었고, 대학이상의 경우는 현 취업자 보다 과거취업 경험자가 약간 더 길었다.

혼인상태별로는 이혼, 사별, 유배우 순으로 주당 근무시간이 길었으며, 취업유형별

로도 비슷한 경향을 보였고, 특히 현 취업중인 이혼상태의 결혼이민자의 경우 가장 근무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체류기간별로는 체류기간이 짧을수록 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길었으며, 과거취업 경험자는 1년 미만과 5~10년 미만에서 현 취업자보다 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더 길었다.

〈표 6-27〉 20~44세 여성 결혼이민자의 특성 및 취업유형별 주당 평균 근무시간

(단위: 시간)

구분	현 취업자	과거취업 경험자	전체
전체	42.80	42.65	42.74
지역			
동 지역	44.07	43.34	43.79
읍·면 지역	39.29	40.33	39.64
연령			
20~24세	43.64	41.54	42.86
25~29세	40.44	42.53	41.38
30~34세	40.23	41.33	40.68
35~39세	43.26	44.06	43.53
40~44세	46.21	43.66	45.48
교육수준			
초등학교 이하	46.13	45.66	45.98
중학교	48.40	46.87	47.84
고등학교	44.93	44.88	44.91
대학 이상	33.24	33.95	33.49
혼인상태			
유배우	42.34	42.45	42.38
이혼	50.07	48.11	49.58
사별	43.56	46.19	44.17
체류기간			
1년 미만	46.16	46.69	46.31
1~2년 미만	47.00	45.73	46.51
2~5년 미만	45.63	44.25	45.10
5~10년 미만	40.04	41.71	40.69
10년 이상	40.20	39.59	39.99

출신국별로는 중국 한족 등, 중국 조선족, 캄보디아 출신 여성 결혼이민자의 순으로 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으며, 필리핀 출신 여성 결혼이민자의 근무시간이 가장 짧았다. 북미·호주·서유럽과 일본 등의 선진국 출신자들은 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다른 출신국 결혼이민자에 비해 짧았다.

〈표 6-28〉 20~44세 여성 결혼이민자의 출신국 및 취업유형별 주당 평균 근무시간

(단위: 시간)

구분	현 취업자	과거취업 경험자	전체
전체	42.80	42.65	42.74
중국(조선족)	45.41	44.31	44.99
중국(한족 등)	47.44	45.99	46.86
베트남	44.49	43.21	44.09
필리핀	25.46	26.80	25.79
몽골	42.96	41.80	42.43
태국	40.71	45.39	42.28
캄보디아	43.90	46.51	44.95
일본	27.60	24.19	26.16
북미·호주·서유럽	25.33	32.31	27.15
기타	38.35	39.29	38.75

시·도별로는 인천이 45.54시간으로 가장 길게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서울(44.22시간), 대구(44.19시간) 등의 순이었다. 취업유형별로는 현 취업자와 과거취업 경험자 모두 인천이 가장 길게 나타났다.

〈표 6-29〉 20~44세 여성 결혼이민자의 시·도 및 취업유형별 주당 평균 근무시간

(단위: 시간)

구분	현 취업자	과거취업 경험자	전체
전체	42.80	42.65	42.74
서울	45.08	42.79	44.22
부산	44.42	43.37	44.03
대구	44.79	43.28	44.19
인천	45.66	45.33	45.54
광주	39.50	38.33	39.04
대전	41.67	43.64	42.49
울산	38.59	40.74	39.40
경기	45.35	44.46	45.00
강원	38.86	39.65	39.11
충북	39.31	42.28	40.35
충남	39.35	41.14	39.99
전북	36.72	40.85	38.07
전남	35.55	36.15	35.74
경북	40.14	39.81	40.02
경남	40.10	41.33	40.57
제주	41.81	40.63	41.46

취업직종별로는 서비스 종사자(50.82시간)가 가장 길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47.76시간), 기능종사자(47.39시간) 등의 순이었다. 현 취업자

(51.36시간)와 과거취업 경험자(49.98시간) 모두 서비스 종사자의 경우 근무시간이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가 가장 짧은 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현 취업자: 25.20시간, 과거취업 경험자: 24.22시간).

〈표 6-30〉 20~44세 여성 결혼이민자의 취업유형별 직종별 주당 평균 근무시간

(단위: 시간)

구분	현 취업자	과거취업 취업자	전체
전체	42.80	42.65	42.74
서비스 종사자	51.36	49.98	50.82
판매 종사자	46.64	42.43	45.34
농림·어업 종사자	40.51	37.76	39.70
기능종사자	46.89	48.28	47.39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48.56	46.63	47.76
가사 관련 단순노무자	39.91	39.27	39.71
기타 단순노무자	46.41	46.84	46.58
사무직	38.12	40.08	38.9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25.20	24.22	24.88
임직원 및 관리자	41.90	48.78	44.71
기타	39.68	38.60	39.30

2. 근로소득

여성 결혼이민자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50~100만원 미만이 49.5%로 가장 많았으며, 100~200만원 28.9%, 200만원 이상이 5.5%이었으며, 50만원 미만인 경우가 12.8%이었다. 거주지역별에 관계없이 50~100만원 미만이 가장 높았으며, 특히 읍·면 지역 거주자의 근로소득이 높았고, 50만원 미만인 경우도 읍·면 지역이 동 지역보다 높았다. 연령별로는 100만원 미만은 저연령층일수록 높은 비율이었으며, 100만원 이상은 고연령층일수록 높은 비율을 보였다. 교육수준별로는 100만원 미만은 저학력층일수록, 그리고 100만원 이상은 고학력층일수록 높은 비율을 보여 학력 간의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혼인상태별로는 유배우나 사별보다는 이혼인 경우 월평균 근로소득이 높은 편이었다. 50~100만원 미만은 이혼인 경우 41.3%로 유배우(50.1%)나 사별(50.3%)보다 낮으나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 유배우와 사별이 각각 33.1%와 35.3%인데 비해 이혼의 경우 53.5%로 유배우나 사별보다 고소득인 것으로 나타났다.

체류기간별로도 50~100만원 미만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으며, 특히 2년 미만인 경우 가장 높았다. 100만원 이상은 체류기간이 2년 이상일 경우 2년 미만인 경우보다 비율이 높아 1년 미만이 32.3%, 1~2년 미만 31.7%인데 비해 2~5년 미만 34.0%, 5~10년 미만 36.0%, 그리고 10년 이상이 34.4%이었다.

〈표 6-31〉 20~44세 여성 결혼이민자의 특성별 월평균 근로소득¹⁾

(단위: %, 명)

구분	월평균 근로소득						계(수)
	없음	50만원 미만	50~100만 원 미만	100~200만 원 미만	200~300만 원 미만	300만원 이상	
전체	3.3	12.8	49.5	28.9	3.1	2.4	100.0(31,645)
지역							
동 지역	2.4	11.3	48.0	32.4	3.6	2.4	100.0(23,113)
읍·면 지역	5.8	16.8	53.7	19.5	1.9	2.3	100.0(8,532)
연령							
20~24세	6.5	18.9	55.5	16.1	1.0	2.0	100.0(3,807)
25~29세	3.9	14.5	50.1	25.2	3.4	2.9	100.0(5,410)
30~34세	2.7	13.5	48.4	28.6	4.0	2.8	100.0(6,806)
35~39세	2.6	10.6	48.7	32.3	3.5	2.3	100.0(8,771)
40~44세	2.7	10.1	47.8	35.0	2.7	1.7	100.0(6,851)
교육수준							
초등학교 이하	5.3	20.7	53.3	19.0	0.6	1.0	100.0(1,758)
중학교	3.4	12.9	52.8	28.7	1.3	0.9	100.0(8,092)
고등학교	3.1	12.1	51.9	29.9	1.7	1.4	100.0(13,493)
대학 이상	3.1	12.1	41.3	29.8	8.0	5.6	100.0(8,081)
혼인상태							
유배우	3.5	13.3	50.1	27.6	3.1	2.4	100.0(29,426)
이혼	0.5	4.8	41.3	48.7	3.2	1.6	100.0(1,728)
사별	3.9	10.5	50.3	31.7	2.4	1.2	100.0(334)
체류기간							
1년 미만	4.1	11.4	52.1	28.1	2.2	2.0	100.0(1,529)
1~2년 미만	4.7	10.1	53.5	28.9	1.5	1.3	100.0(2,871)
2~5년 미만	3.1	12.5	50.3	29.5	2.5	2.0	100.0(10,078)
5~10년 미만	2.8	13.8	47.3	29.2	4.1	2.7	100.0(8,981)
10년 이상	3.5	13.1	49.0	28.1	3.5	2.8	100.0(8,187)

주: 1) 현취업자만을 분석대상으로 함.

출신국별로는 대부분의 출신국에서 50~100만원 미만이 가장 비율이 높았으나, 북미·호주·서유럽 출신은 200만원 이상이 70.3%로 다른 출신국에 비해 가장 근로 소득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6-32〉 20~44세 여성 결혼이민자의 출신국별 월평균 근로소득¹⁾

(단위: %, 명)

구분	월평균 근로소득						계(수)
	없음	50만원 미만	50~100만원 미만	100~200만원 미만	200~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전체	3.3	12.8	49.5	28.9	3.1	2.4	100.0(31,642)
중국(조선족)	2.4	10.6	46.2	36.4	3.0	1.4	100.0(10,679)
중국(한족 등)	2.4	7.8	49.5	36.2	2.7	1.5	100.0(9,478)
베트남	5.7	21.4	59.0	11.5	0.8	1.5	100.0(4,655)
필리핀	3.8	17.4	50.5	16.2	4.0	8.0	100.0(2,969)
몽골	4.6	9.7	62.0	21.8	1.3	0.6	100.0(476)
태국	2.7	15.0	59.4	18.3	2.3	2.3	100.0(520)
캄보디아	10.2	18.5	53.1	14.2	1.5	2.5	100.0(275)
일본	6.7	29.7	41.8	14.5	5.5	1.8	100.0(1,064)
북미·호주·서유럽	3.0	2.5	8.1	16.1	41.1	29.2	100.0(236)
기타	3.4	12.6	44.7	30.5	6.5	2.3	100.0(1,290)

주: 1) 현 취업자만을 분석대상으로 함.

시·도별로는 전체적으로 50~100만원 미만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으며,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보이는 것은 대부분의 시·도가 100~200만원 미만인 비율이 높은 편이나 울산, 강원, 전남, 경북은 50만원 미만이 차지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표 6-33〉 20~44세 여성 결혼이민자의 시·도별 월평균 근로소득¹⁾

(단위: %, 명)

구분	월평균 근로소득						계(수)
	없음	50만원 미만	50~100만원 미만	100~200만원 미만	200~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전체	3.3	12.8	49.5	28.9	3.1	2.4	100.0(31,645)
서울	2.2	9.8	40.5	38.8	5.1	3.7	100.0(6,455)
부산	2.5	13.3	57.0	21.8	3.1	2.4	100.0(1,462)
대구	3.0	16.8	55.0	21.4	2.1	1.8	100.0(1,007)
인천	1.7	10.1	49.6	34.3	2.5	1.8	100.0(2,246)
광주	2.4	11.5	60.1	22.2	1.5	2.2	100.0(667)
대전	2.4	18.2	47.8	27.9	2.4	1.4	100.0(584)
울산	2.6	20.2	53.5	18.2	2.6	2.9	100.0(544)
경기	2.4	8.9	48.0	36.0	3.0	1.7	100.0(8,186)
강원	6.2	17.3	54.7	16.7	1.8	3.3	100.0(1,004)
충북	6.0	12.7	56.1	20.2	2.9	2.0	100.0(1,030)
충남	3.5	15.4	55.0	21.1	2.2	2.8	100.0(1,669)
전북	5.5	16.6	53.9	19.0	3.0	1.9	100.0(1,341)
전남	5.7	18.7	57.6	13.6	2.2	2.2	100.0(1,533)
경북	6.2	20.4	49.6	19.6	1.7	2.6	100.0(1,559)
경남	5.3	18.1	50.7	21.5	3.2	1.2	100.0(1,942)
제주	4.6	13.9	57.7	18.8	2.2	2.9	100.0(416)

주: 1) 현 취업자만을 분석대상으로 함.

취업직종별로는 서비스 종사자는 50~100만원 미만이 46.0%, 100~200만원 미만이 38.7%이었으며, 판매종사자는 각각 39.1%와 31.4%이었다. 농·림·어업 종사자는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27.9%, 50만원 미만이 22.9%로 타 직종에 비해 높은 비율이었고, 가사관련 단순노무자도 50만원 미만이 22.0%로 높은 비율이었다. 이에 비해 임직원 및 관리자의 경우 200만원 이상이 21.1%,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15.2%, 판매종사자 10.5% 등으로 월평균 근로소득이 높은 편으로 직종별 차이를 보였다.

〈표 6-34〉 20~44세 여성 결혼이민자의 직종별 월 평균 근로소득¹⁾

(단위: %, 명)

구분	월평균 근로소득						계(수)
	없음	50만원 미만	50~100만원 미만	100~200만원 미만	200~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전체	3.3	12.2	49.2	29.9	3.2	2.2	100.0(27,754)
서비스 종사자	2.1	10.7	46.0	38.7	1.5	1.0	100.0(7,718)
판매 종사자	9.1	9.9	39.1	31.4	5.5	5.0	100.0(1,814)
농·림·어업 종사자	27.9	22.9	34.5	10.9	2.0	1.8	100.0(947)
기능종사자	2.0	5.1	54.0	35.5	2.0	1.4	100.0(1,778)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1.2	6.8	56.3	34.9	0.3	0.5	100.0(1,504)
가사 관련 단순노무자	2.0	22.0	55.8	18.0	1.0	1.1	100.0(958)
기타 단순노무자	0.8	9.8	63.4	24.4	0.6	0.9	100.0(4,926)
사무종사자	2.6	6.7	42.0	39.3	5.4	4.0	100.0(1,047)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1.5	17.1	40.1	26.2	10.0	5.2	100.0(4,250)
임직원 및 관리자	7.7	6.7	36.5	27.9	16.3	4.8	100.0(104)
기타	3.7	17.9	52.5	20.5	3.0	2.5	100.0(2,708)

주: 1) 현 취업자만을 분석대상으로 함.

3. 취업에서의 어려움

현재 취업하고 있는 20~44세 여성 결혼이민자는 취업에서의 어려운 점을 느끼고 있는 비율이 82.4%로 높았으며, 17.6%는 어려운 점을 느끼고 있지 않았다. 가장 큰 어려운 점은 ‘언어소통의 어려움’으로 23.7%이었으며, 다음은 ‘자녀양육’ 10.6%, ‘낮은 임금’과 ‘외국출신에 대한 편견 및 차별’이 모두 10.1%로 높았다. 그 외에도 ‘힘에 부치는 고된 일’ 9.1%, ‘긴 노동시간’ 8.2%, ‘집안일과의 병행 어려움’ 5.9%, ‘상사 및 동료와의 갈등’ 1.4% 등이 있었다.

여성 결혼이민자의 특성별 취업에서의 어려운 점이 있다는 비율은 초등학교 이하 학력자가 87.2%, 체류기간이 1~2년 미만인 여성이 87.3%, 가구소득이 50~100만

원 미만 여성이 88.9%로 특히 높았다. 언어소통의 어려움이 심한 계층은 24세 이하 연령층(38.8%), 초등학교 이하(36.9%), 체류기간 2년 미만(1년 미만 53.1%, 1~2년 미만 47.2%) 등이었다.

여성 결혼이민자의 특성별 취업에서의 어려운 점을 보면, 거주지역별로는 동부지역은 ‘언어소통의 어려움’ 22.9%, ‘외국출신에 대한 편견과 차별’ 11.0%, ‘자녀양육’ 10.5%, ‘낮은 임금’ 10.2% 순으로, 읍·면부지역은 ‘언어소통의 어려움’(25.7%), ‘자녀양육’ 10.9%, ‘힘에 부치는 고된 일’(10.1%), ‘낮은 임금’(9.7%)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전체 연령층에서 ‘언어소통의 어려움’을 지적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보인 어려움으로는 24세 이하는 ‘낮은 임금’을, 25~29세는 ‘외국출신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30~34세와 35~39세는 ‘자녀양육’을, 그리고 40~44세는 ‘힘에 부치는 고된 일’을 지적하여 연령별 차이를 보였다.

교육수준별로는 공통적인 ‘언어소통의 어려움’ 외에 중학교 이하는 ‘힘에 부치는 고된 일’을, 고등학교 이상은 ‘자녀양육’을 어려움으로 지적한 비율이 높았다. 혼인 상태별로는 ‘언어소통의 어려움’은 이혼과 사별 보다 유배우의 경우 높은 비율이었다. 이는 유배우가 이혼·사별보다 최근에 결혼한 이민자로서 그만큼 언어소통의 어려움이 보다 큰 것으로 보인다.

체류기간별로는 체류기간이 짧을수록 ‘언어소통의 어려움’이 높았으며, 그 다음 체류기간이 1년 미만은 ‘낮은 임금’을, 1년 이상 5년 미만은 ‘힘에 부치는 고된 일’이나 ‘긴 노동시간’을, 5년 이상은 ‘자녀양육’의 어려움을 들었다. 가구소득별로는 ‘언어소통의 어려움’은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높은 비율을 보이는 경향이었으며, 그 다음 어려움으로 100만원 미만은 ‘낮은 임금’을, 100만원 이상의 가구소득 중 300~4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가구소득의 대부분은 ‘자녀양육’의 어려움을 지적하였다.

자녀수 유무별로는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언어소통의 어려움 보다 ‘자녀양육’을, 자녀가 없을 경우 ‘언어소통의 어려움’(30.2%)을 호소하는 비율이 높았다. 미취학 자녀가 있는 경우 ‘언어소통의 어려움’, ‘자녀양육’ 순으로, 미취학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언어소통의 어려움’과 ‘외국출신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지적하였다.

〈표 6-35〉 20~44세 여성 결혼이민자의 특성별 취업에서의 가장 어려운 점¹⁾

(단위: %, 명)

구분	별로 어려 움 없음	취업에서의 가장 어려운 점									계(수)
		언어 소통의 어려움	힘에 부치는 고된 일	긴 노동 시간	낮은 임금	상사· 동료 와의 갈등	외국출신 에 대한 편견과 차별	자녀 양육	집안일 과의 병행 어려움	기타	
전체	17.6	23.7	9.1	8.2	10.1	1.4	10.1	10.6	5.9	3.3	100.0(31,883)
지역											
동 지역	17.5	22.9	8.7	9.1	10.2	1.4	11.0	10.5	5.5	3.2	100.0(23,177)
읍·면 지역	17.9	25.7	10.1	5.9	9.7	1.3	7.8	10.9	7.1	3.5	100.0(8,706)
연령											
24세 이하	16.1	38.8	8.8	6.0	9.8	1.0	6.5	6.3	3.9	2.6	100.0(3,879)
25~29세	18.0	28.1	8.0	6.0	10.0	1.8	10.4	10.0	4.4	3.5	100.0(5,466)
30~34세	17.9	21.3	6.2	6.6	10.7	1.4	10.6	15.0	7.1	3.2	100.0(6,857)
35~39세	17.4	18.7	8.7	9.6	10.3	1.4	10.7	12.4	7.2	3.6	100.0(8,795)
40~44세	18.1	20.4	13.5	11.1	9.3	1.2	10.9	6.8	5.4	3.2	100.0(6,885)
교육수준											
초등학교 이하	12.8	36.9	14.1	7.1	10.2	1.4	5.1	6.2	4.3	2.1	100.0(1,772)
중학교	17.1	27.8	11.6	9.1	9.0	1.1	9.3	8.3	4.0	2.7	100.0(8,166)
고등학교	17.6	21.0	9.3	9.3	10.3	1.2	10.5	11.7	6.2	2.9	100.0(13,551)
대학 이상	19.2	21.2	5.2	5.8	10.7	1.9	11.4	12.1	7.8	4.7	100.0(8,158)
혼인상태											
유배우	17.6	24.3	8.8	7.9	9.9	1.3	10.0	10.6	6.1	3.3	100.0(29,677)
이혼	17.6	15.1	12.7	12.5	11.0	2.2	13.0	9.3	2.9	3.6	100.0(1,706)
사별	15.1	15.4	12.5	6.7	17.4	0.3	7.8	16.6	4.4	3.8	100.0(344)
체류기간											
1년 미만	13.2	53.1	6.1	6.8	7.9	0.4	6.4	1.4	2.0	2.6	100.0(1,541)
1~2년 미만	12.7	47.2	8.8	7.8	7.9	1.1	7.6	2.1	2.5	2.2	100.0(2,911)
2~5년 미만	17.7	28.2	10.4	8.3	10.0	1.3	10.3	6.7	4.4	2.8	100.0(10,103)
5~10년 미만	18.7	15.5	8.3	8.9	10.4	1.5	11.3	14.4	7.3	3.7	100.0(9,002)
10년 이상	18.8	13.4	9.0	7.8	11.0	1.6	10.2	15.9	8.2	4.0	100.0(8,324)
가구소득											
50만원 미만	12.3	26.5	9.7	7.2	17.1	2.4	9.5	9.6	3.9	1.7	100.0(1,080)
50~100만원 미만	11.1	24.5	11.3	8.7	14.9	1.4	9.1	11.2	4.8	3.0	100.0(5,302)
100~200만원 미만	15.1	23.8	9.9	8.9	10.7	1.3	10.4	11.0	5.9	3.1	100.0(11,703)
200~300만원 미만	21.1	21.4	8.1	8.8	7.8	1.1	10.5	11.2	6.6	3.3	100.0(6,883)
300~400만원 미만	25.4	20.7	5.3	6.3	6.0	1.9	12.4	11.5	7.4	2.9	100.0(2,411)
400~500만원 미만	33.4	16.3	4.3	7.2	4.4	1.9	10.1	11.2	5.7	5.7	100.0(725)
500만원 이상	28.2	20.4	5.2	5.2	4.2	2.9	9.3	11.9	7.3	5.3	100.0(825)
자녀수 유무											
있음	16.5	18.0	7.4	5.9	11.1	1.4	9.2	18.9	8.5	3.2	100.0(16,833)
없음	18.6	30.2	11.2	10.6	8.8	1.4	11.6	1.2	3.1	3.4	100.0(12,738)
미취학자녀 유무											
있음	15.3	23.7	7.3	5.4	10.6	1.4	8.8	18.2	6.8	2.5	100.0(9,203)
없음	18.3	23.0	9.8	9.1	9.8	1.4	10.9	8.2	5.9	3.6	100.0(20,279)

주: 1) 현 취업자만을 분석대상으로 함.

현재 취업하고 있는 20~44세 여성 결혼이민자 중 취업에서의 어려운 점을 느끼고 있는 비율을 출신국별로 살펴보면, 필리핀 출신 여성이 가장 높았고(87.5%), 다음은 캄보디아 출신여성(86.1%), 한족 등 기타 소수민족 출신 중국 출신여성(86.1%) 등이었다. 이와는 상반되게 북미·호주·서유럽 출신여성은 69.5%가 어려운 점을 겪고 있었고, 30.5%는 어려운 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조선족은 ‘자녀양육’, ‘외국 출신에 대한 편견과 차별’ 등이 가장 어려운 점이라고 지적하였으며, 그 외 출신국은 모두 ‘언어소통의 어려움’을 지적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언어소통의 어려움’이 심한 출신국기는 베트남 38.7%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캄보디아 36.6%, 한족 등 기타 소수민족 출신 중국 35.3%, 태국 34.5%, 필리핀 31.2% 등이었다. ‘외국출신에 대한 편견과 차별’은 중국 조선족 출신 여성(14.7%)이, ‘낮은 임금’의 어려움은 필리핀 출신 여성(14.4%)이 그리고 ‘힘에 부치는 고된 일’로 인한 어려움은 캄보디아 출신 여성(17.2%)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느끼고 있었다.

〈표 6-36〉 20~44세 여성 결혼이민자의 출신국별 취업에서의 가장 어려운 점¹⁾

(단위: %, 명)

구분	취업에서의 가장 어려운 점										계수
	별로 어려움 없음	언어 소통의 어려움	힘에 부치는 고된 일	긴 노동 시간	낮은 임금	상사·동료와의 갈등	외국 출신에 대한 편견과 차별	자녀 양육	집안일과의 병행 어려움	기타	
전체	17.6	23.7	9.1	8.2	10.1	1.4	10.1	10.6	5.9	3.3	100.0(31,888)
중국(조선족)	22.5	4.5	10.5	10.7	9.7	1.3	14.7	15.1	7.4	3.6	100.0(10,704)
중국(한족 등)	13.9	35.3	9.1	8.2	9.0	1.2	9.8	7.7	3.2	2.5	100.0(9,506)
베트남	16.2	38.7	10.3	5.2	10.2	0.6	5.0	7.9	3.6	2.2	100.0(4,782)
필리핀	12.5	31.2	5.5	7.6	14.4	1.5	8.0	7.9	6.9	4.6	100.0(3,020)
몽골	16.8	19.1	6.8	11.8	9.5	2.3	9.1	12.0	7.9	4.6	100.0(482)
태국	14.8	34.5	6.6	6.4	9.2	1.9	5.8	11.2	6.7	2.9	100.0(519)
캄보디아	13.9	36.6	17.2	7.0	9.5	1.8	1.1	4.8	6.2	1.8	100.0(273)
일본	19.4	15.9	6.3	3.0	10.9	4.1	4.3	14.1	13.9	8.1	100.0(1,069)
북미·호주·서유럽	30.5	26.2	0.0	2.6	1.7	3.4	8.6	13.3	7.3	6.4	100.0(233)
기타	19.1	25.3	5.5	5.3	11.8	2.3	7.7	8.0	11.8	3.2	100.0(1,293)

주: 1) 현 취업자만을 분석대상으로 함.

현재 취업하고 있는 20~44세 여성 결혼이민자 중 취업에서의 어려운 점을 느끼고 있는 비율을 거주지역별로 살펴보면, 대전지역 거주여성이 가장 높았고(85.9%), 다음은 제주지역 거주여성(85.2%), 광주지역 거주여성(84.8%) 등이었다.

16개 시도 모두 ‘언어소통의 어려움’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제주지역 거주여성이 35.7%로 가장 높았다. 두 번째로 비율이 높은 어려움으로는 서울은 ‘긴 노동시간’을, 부산, 광주, 대전, 전남, 제주는 ‘낮은 임금’을, 인천, 경기도는 ‘외국 출신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대구, 울산,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은 ‘자녀양육’을 지적하였다.

〈표 6-37〉 20~44세 여성 결혼이민자의 시·도별 취업에서의 가장 어려운 점¹⁾

(단위: %, 명)

구분	별로 어려움 없음	취업에서의 가장 어려운 점									계(수)
		언어 소통의 어려움	힘에 부치는 고된 일	긴 노동 시간	낮은 임금	상사·동료와의 갈등	외국출신에 대한 편견과 차별	자녀 양육	집안일과의 병행 어려움	기타	
전체	17.6	23.7	9.1	8.2	10.1	1.4	10.1	10.6	5.9	3.3	100.0(31,888)
서울	17.7	20.9	8.9	11.7	8.5	1.6	11.6	9.9	5.9	3.4	100.0(6,477)
부산	18.6	20.8	9.6	6.9	14.5	1.3	10.6	10.3	4.1	3.4	100.0(1,487)
대구	17.3	24.8	7.8	6.2	10.3	0.8	11.6	13.1	5.1	3.0	100.0(1,026)
인천	18.0	21.8	9.0	9.0	10.2	2.0	10.9	10.7	5.4	3.0	100.0(2,236)
광주	15.2	27.5	11.8	7.4	12.3	1.0	8.7	8.1	5.2	2.7	100.0(676)
대전	14.1	23.2	8.3	7.3	16.2	1.4	11.4	9.5	6.6	1.9	100.0(587)
울산	15.8	29.1	8.8	4.9	7.3	1.6	8.2	11.5	7.1	5.5	100.0(546)
경기	17.3	23.1	8.9	9.5	10.2	1.3	11.1	10.1	5.6	2.8	100.0(8,199)
강원	20.0	23.2	11.5	7.4	8.8	1.2	8.2	11.0	5.7	3.0	100.0(1,014)
충북	18.8	25.6	8.6	5.0	9.9	1.7	8.3	11.3	7.0	3.8	100.0(1,049)
충남	17.6	26.1	8.2	5.7	8.2	1.1	8.8	13.2	6.6	4.5	100.09(1,714)
전북	17.6	24.5	8.9	4.5	10.7	1.6	8.6	11.6	8.4	3.5	100.0(1,354)
전남	16.3	26.0	9.8	6.3	11.9	1.5	7.7	10.5	7.3	2.7	100.0(1,566)
경북	18.4	26.8	8.9	4.2	10.3	1.0	8.7	12.2	6.1	3.4	100.0(1,576)
경남	18.7	26.2	10.2	6.3	9.1	1.0	8.3	10.2	5.5	4.5	100.0(1,975)
제주	14.8	35.7	7.1	5.9	11.6	1.0	4.9	9.6	4.7	4.7	100.0(406)

주: 1) 현 취업자만을 분석대상으로 함.

현재 취업하고 있는 20~44세 여성 결혼이민자 중 취업에서의 어려운 점을 느끼고 있는 비율을 취업직종별로 살펴보면, 기타 단순노무자가 86.7%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가사관련 단순노무자 86.0%,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84.9% 등의 순이었다.

대부분의 직종 종사자는 ‘언어소통의 어려움’을 가장 많이 지적하였으나 임직원 및 관리자는 ‘집안일과의 병행상 어려움’을 지적한 비율(14.2%)이 가장 높았다.

언어소통의 어려움이 심한 직종은 기타 단순노무자 29.3%,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28.9% 등이었는데, 이는 최근 입국하였거나 교육수준이 낮은 여성 결혼이민자가

주로 근무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언어소통의 어려움 외에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보인 것은 직종별로 차이를 보여 서비스 종사자는 ‘긴 노동시간’을, 판매종사자, 사무종사자, 전문가는 ‘자녀양육’을, 농·림·어업 종사자와 기사관련 단순노무자는 ‘힘에 부치는 고된 일’을, 그리고 기능종사자,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기타 단순노무자는 ‘낮은 임금’을 지적한 비율이 높았다.

〈표 6-38〉 20~44세 여성 결혼이민자의 직종별 취업에서의 가장 어려운 점¹⁾

(단위: %, 명)

구분	취업에서의 가장 어려운 점										계수
	별로 어려움 없음	언어 소통의 어려움	힘에 부치는 고된 일	긴 노동시간	낮은 임금	상사·동료와의 갈등	외국출신에 대한 편견과 차별	자녀양육	집안일과의 병행 어려움	기타	
전체	17.6	23.3	9.0	8.3	10.0	1.4	10.3	10.5	6.2	3.4	100.0(27,819)
서비스 종사자	16.9	21.7	12.2	13.7	7.5	1.4	10.8	8.6	4.8	2.6	100.0(7,704)
판매 종사자	21.2	21.4	5.9	6.9	6.4	1.3	12.0	13.5	7.4	4.0	100.0(1,838)
농림·어업 종사자	17.2	23.3	18.4	5.7	5.3	0.2	5.1	12.4	8.9	3.5	100.0(1,003)
기능종사자	18.3	24.3	9.8	9.4	11.9	1.3	8.2	9.2	5.2	2.5	100.0(1,752)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15.1	28.9	9.8	8.4	13.4	1.1	10.8	6.4	3.3	2.8	100.0(1,497)
기사 관련 단순노무자	14.0	24.6	11.8	9.7	11.1	1.4	11.2	9.6	3.1	3.5	100.0(967)
기타 단순노무자	13.3	29.3	11.0	8.1	12.4	1.7	9.3	8.0	5.0	2.0	100.0(4,891)
사무 종사자	21.1	17.5	3.1	2.9	11.8	2.6	11.6	15.5	8.8	5.1	100.0(1,051)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23.3	20.1	1.7	2.6	11.2	1.5	10.8	14.3	9.3	5.1	100.0(4,274)
임직원 및 관리자	21.7	10.4	8.5	6.6	6.6	0.0	10.4	12.3	14.2	9.4	100.0(106)
기타	16.8	21.6	7.0	5.0	11.4	1.2	11.3	12.9	7.4	5.4	100.0(2,736)

주: 1) 현 취업자만을 분석대상으로 함.

4. 노동조합 가입여부

기본적으로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입장에서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근로자의 의견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는 법적인 권한을 갖는 이익단체이다. 노동조합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의 가입요건에 맞아야 한다. 그런데 한국사회에서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많이 근무하는 민간영역에서 노동조합의 설립이 많이 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용직, 시간제 근로자, 기사관련 단순노무자 등의 영역은 이러한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가 많지 않다. 다시 말해 노동조합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비교적 안정된 직장에서 상근근로자로 일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현재 취업을 하고 있는 20~44세 여성 결혼이민자의 노동조합 가입률

은 4.2%에 불과하였다. 노동조합 가입률은 동 지역(3.2%)보다 읍·면 지역(6.8%)에서 높았고, 교육수준이 높은 계층(대학 이상 5.3%, 고등학교 4.1%)에서 높았으며, 유배우나 사별보다 이혼이, 그리고 체류기간이 5년 이상된 계층에서 높았다(5~10년 미만 5.2%, 10년 이상 5.1%).

〈표 6-39〉 20~44세 여성 결혼이민자의 특성별 노동조합 가입률¹⁾

(단위: 명, %)		
구분	(분석대상수)	가입률
전체	(29,515)	4.2
지역		
동 지역	(21,445)	3.2
읍·면 지역	(8,070)	6.8
연령		
20~24세	(3,683)	4.6
25~29세	(5,167)	4.5
30~34세	(6,381)	3.9
35~39세	(8,068)	4.3
40~44세	(6,215)	3.8
교육수준		
초등학교 이하	(1,636)	3.8
중학교	(7,388)	3.3
고등학교	(12,514)	4.1
대학 이상	(7,763)	5.3
혼인상태		
유배우	(27,529)	4.2
이혼	(1,532)	4.6
사별	(325)	2.8
체류기간		
1년 미만	(1,436)	1.6
1~2년 미만	(2,679)	2.1
2~5년 미만	(9,451)	3.6
5~10년 미만	(8,365)	5.2
10년 이상	(7,584)	5.1

주: 1) 현 취업자만을 분석대상으로 함.

여성 결혼이민자의 노동조합 가입률을 출신국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필리핀 출신 여성이 11.9%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태국 출신여성 7.0%, 캄보디아 출신여성 5.2% 등의 순이었다. 이외는 반대로 노동조합 가입률이 낮은 출신국은 일본으로 1.6%에 불과하였고, 한족 및 기타 소수민족 출신의 중국여성도 2.3%로 낮았다(표 6-40 참조).

현재 취업하고 있는 20~44세 여성 결혼이민자의 노동조합가입률을 거주지역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전남이 9.2%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전북 7.5%, 강원 6.3% 등의 순이었다. 이와는 반대로 노동조합가입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서울과 인천이 모두 2.5%이었고, 경기도가 3.0%로 가입률이 높은 지역의 약 1/3 이하에 머물렀다(표 6-41 참조). 따라서 서울, 인천, 경기 등의 수도권 지역에서의 직업 불안정성이 심한 상태에 있음을 엿볼 수 있다.

〈표 6-40〉 20~44세 여성 결혼이민자의 출신국별 노동조합 가입률¹⁾

(단위: 명, %)		
구분	(분석대상수)	가입률
전체	(29,514)	4.2
중국(조선족)	(9,660)	3.6
중국(한족 등)	(8,790)	2.3
베트남	(4,509)	4.8
필리핀	(2,920)	11.9
몽골	(458)	3.1
태국	(470)	7.0
캄보디아	(249)	5.2
일본	(993)	1.6
북미·호주·서유럽	(229)	-
기타	(1,236)	3.6

주: 1) 현 취업자만을 분석대상으로 함.

〈표 6-41〉 20~44세 여성 결혼이민자의 시·도별 노동조합 가입률¹⁾

(단위: 명, %)		
구분	(분석대상수)	가입률
전체	(29,516)	4.2
서울	(5,962)	2.5
부산	(1,381)	5.1
대구	(945)	4.7
인천	(2,069)	2.5
광주	(632)	5.4
대전	(541)	3.7
울산	(532)	4.1
경기	(7,543)	3.0
강원	(933)	6.3
충북	(978)	5.7
충남	(1,572)	5.8
전북	(1,278)	7.5
전남	(1,456)	9.2
경북	(14,61)	5.5
경남	(1,857)	5.0
제주	(376)	3.2

주: 1) 현 취업자만을 대상으로 함.

제4절 비취업 이유

20~44세 비취업 여성 결혼이민자의 비취업 이유로는 ‘자녀양육 때문에’가 54.8%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한국말이 서툴러서’ 12.6%,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8.7%, ‘집안일 돌볼 사람 없어서’ 6.3%, ‘배우자·가족의 반대로’ 4.2%, ‘임금수준·근로조건 안 맞아서’ 2.9% 등이었다. 가장 큰 비취업 이유인 ‘자녀양육 때문에’는 동부지역 보다는 읍·면부 지역에서, 40세 미만의 연령에서, 교육수준과 관계없이 50% 이상의 높은 비율을 보였다. 혼인상태별로는 이혼이나 사별 보다는 유배우가 높은 비율을 보였고, 체류기간이 1~10년 미만인 여성들에게도 중요한 이유로 나타났다. 또한 자녀가 있는 경우, 특히 미취학 자녀가 있는 경우 높은 비율이었다(표 6-42 참조).

본 연구의 주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교육·기술·경험 부족해서’는 1.6%로 나타났다. 비취업 이유는 동 지역 거주여성(1.7%)이 읍·면 지역 거주여성(1.3%)보다 높았고, 40~44세 연령층 여성(2.2%)이 높았으며, 고등학교 학력자(1.8%), 이혼여성(3.0%) 및 사별여성(2.2%), 체류기간 10년 이상 여성(2.0%), 자녀가 없는 여성(2.4%)이 높았다.

20~44세 비취업 여성 결혼이민자의 비취업 이유를 출신국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자녀양육 때문에’를 제시한 경우는 몽골(17.9%), 캄보디아(16.9%), 베트남(15.3%) 출신여성이 높았고, ‘한국말이 서툴러서’는 한족 등 기타 소수민족 출신 중국(17.9%), 캄보디아(16.9%), 베트남(15.3%) 출신 여성이 높았으며, ‘적성에 맞는 일자리 찾지 못해서’는 한족 등 기타 소수민족 출신 중국(11.0%) 여성이 가장 높았다. 이들 외에도 비취업 이유로 제시하고 있는 소수의견인 ‘집안일 돌볼 사람 없어서’는 베트남, 중국 조선족, 캄보디아, 필리핀 출신여성이 7% 이상의 비율을 보여 상대적으로 높았고, ‘배우자·가족의 반대로’는 필리핀(8.1%) 출신여성이, ‘임금수준·근로조건 안 맞아서’는 몽골(4.4%) 출신여성이, ‘교육·기술·경험 부족해서’는 캄보디아, 북미·호주·서유럽, 중국 조선족, 태국, 일본 출신여성이 2% 이상의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표 6-43 참조).

〈표 6-42〉 20~44세 여성 결혼이민자의 특성별 비취업 이유¹⁾

(단위: %, 명)

구분	비취업 이유									계(수)
	적성에 맞는 일자리 찾지 못해서	임금 수준· 근로 조건 안 맞아서	집안일 돌볼 사람 없어서	자녀 양육 때문에	한국말 서툴러 서	배우자 · 가족의 반대로	교육·기 술·경험 부족해 서	취업을 하고 싶지 않아서	기타	
전체	8.7	2.9	6.3	54.8	12.6	4.2	1.6	1.4	7.5	100.0(61,341)
지역										
동 지역	9.3	3.2	5.3	54.4	12.6	3.8	1.7	1.4	8.2	100.0(41,062)
읍·면 지역	7.3	2.2	8.1	55.8	12.7	5.2	1.3	1.2	6.1	100.0(20,279)
연령										
20~24세	6.6	2.1	6.3	55.4	16.8	4.8	1.4	1.1	5.4	100.0(17,547)
25~29세	8.1	2.3	5.5	58.7	13.0	4.2	1.4	1.0	5.9	100.0(16,976)
30~34세	8.3	2.9	5.9	59.5	9.9	3.7	1.5	1.6	6.7	100.0(12,534)
35~39세	10.7	4.0	7.1	51.6	8.4	4.0	1.8	1.7	10.5	100.0(9,351)
40~44세	15.2	5.5	7.9	33.8	11.6	4.4	2.2	2.2	17.2	100.0(4,930)
교육수준										
초등학교 이하	6.4	2.0	8.5	54.1	16.4	5.0	1.6	1.3	4.9	100.0(5,357)
중학교	7.5	2.4	7.1	54.7	13.8	4.5	1.4	1.1	7.4	100.0(17,258)
고등학교	9.1	2.8	6.1	55.8	10.9	4.2	1.8	1.3	7.9	100.0(25,459)
대학 이상	10.4	4.1	4.3	53.8	12.7	3.4	1.3	1.8	8.2	100.0(12,640)
혼인상태										
유배우	8.5	2.9	6.3	55.2	12.8	4.3	1.5	1.4	7.1	100.0(60,338)
이혼	21.2	5.6	2.9	25.9	3.3	1.4	3.0	1.7	35.2	100.0(605)
사별	16.7	2.2	5.6	40.0	6.7	1.7	2.2	0.0	25.0	100.0(180)
체류기간										
1년 미만	8.3	1.3	4.3	23.9	43.9	6.5	1.6	1.6	8.6	100.0(7,142)
1~2년 미만	7.4	1.7	4.5	56.3	16.9	4.9	1.4	1.3	5.7	100.0(10,493)
2~5년 미만	8.4	3.0	6.1	62.9	6.9	4.2	1.2	1.2	6.1	100.0(22,444)
5~10년 미만	9.4	3.7	7.7	62.4	2.6	3.0	1.8	1.2	8.2	100.0(11,387)
10년 이상	10.3	4.2	8.2	48.8	10.1	3.5	2.0	1.8	11.2	100.0(9,875)
자녀 유무										
있음	6.3	2.3	6.4	71.6	5.1	2.6	1.2	0.8	3.7	100.0(43,147)
없음	15.1	4.5	5.7	14.1	31.0	8.1	2.4	2.8	16.3	100.0(15,283)
미취학자녀 유무										
있음	5.4	1.9	5.7	74.9	5.4	2.6	1.0	0.6	2.5	100.0(36,067)
없음	13.8	4.5	7.0	26.5	22.5	6.5	2.3	2.4	14.3	100.0(22,018)

주: 1) 비취업 결혼이민자만을 분석대상으로 함.

〈표 6-43〉 20~44세 여성 결혼이민자의 출신국별 비취업 이유¹⁾

(단위: %, 명)

구분	비취업 이유									계수
	적성에 맞는 일자리 찾지 못해서	임금수준·근로조건 안 맞아서	집안일 돌볼 사람 없어서	자녀양육 때문에	한국말이 서툴러서	배우자·가족의 반대로	교육·기술·경험 부족해서	취업을 하고 싶지 않아서	기타	
전체	8.7	2.9	6.3	54.8	12.6	4.2	1.6	1.4	7.5	100.0(61,338)
중국(조선족)	9.3	3.6	7.5	59.1	1.7	3.3	2.0	1.3	12.2	100.0(12,733)
중국한족 등	11.0	2.3	4.0	49.7	17.9	3.9	1.6	1.6	8.0	100.0(17,246)
베트남	7.3	2.5	7.7	56.7	15.3	4.6	0.8	0.9	4.2	100.0(16,997)
필리핀	6.5	2.1	7.1	54.8	12.4	8.1	1.0	0.8	7.2	100.0(4,204)
몽골	6.1	4.4	4.0	62.9	9.2	4.3	0.6	1.1	7.6	100.0(1,123)
태국	5.9	2.1	6.1	60.4	11.8	5.1	2.0	1.1	5.5	100.0(965)
캄보디아	3.6	1.4	7.4	60.2	16.9	3.7	2.8	1.1	2.8	100.09 2,113)
일본	7.0	7.0	3.3	53.2	14.0	1.6	2.0	2.8	9.2	100.0(2,561)
북미·호주·서유럽	8.3	1.8	0.0	59.8	5.9	0.0	2.4	14.2	7.7	100.0(169)
기타	10.5	3.7	7.7	49.1	11.9	5.0	3.2	1.9	7.1	100.0(3,227)

주: 1) 비취업 결혼이민자만을 분석대상으로 함.

20~44세 비취업 여성의 비취업 이유로 ‘자녀양육 때문에’를 제시한 비율이 54.8%로 가장 높았다. 그 외의 비취업 이유를 살펴보면, ‘한국말이 서툴러서’ 12.6%, ‘적성에 맞는 일자리 찾지 못해서’ 8.7%, ‘집안일 돌볼 사람 없어서’ 6.3%, ‘배우자·가족의 반대로’ 4.2%, ‘임금수준·근로조건 안 맞아서’ 2.9%, ‘교육·기술·경험 부족해서’ 1.6% 등의 순이었고, 본인의사에 의한 비취업인 ‘취업을 하고 싶지 않아서’는 1.4%에 불과하였다. 시도별로도 가장 큰 비취업 이유는 ‘자녀양육 때문에’이었으며,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모두 50% 이상의 높은 비율을 보였다. 그 외의 비취업 이유는 ‘한국말이 서툴러서’는 광주거주 여성(16.6%)이, ‘적성에 맞는 일자리 찾지 못해서’는 울산거주 여성(10.7%)이, ‘집안일 돌볼 사람 없어서’는 경북거주 여성(8.8%)이, ‘배우자·가족의 반대로’는 전남거주 여성(7.2%), ‘임금수준·근로조건 안 맞아서’는 서울거주 여성(3.7%)이, ‘교육·기술·경험 부족해서’는 광주거주 여성(3.5%)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6-44〉 20~44세 여성 결혼이민자의 시·도별 비취업 이유¹⁾

(단위: %, 명)

구분	비취업 이유									계(수)
	직성에 맞는 일자리 못해서	임금수준·근로조건 안 맞아서	집안일 돌볼 사람 없어서	자녀양육 때문에	한국말 서툴러서	배우자·가족의 반대로	교육·기술·경험 부족해서	취업을 하고 싶지 않아서	기타	
전체	8.7	2.9	6.3	54.8	12.6	4.2	1.6	1.4	7.5	100.0(61,339)
서울	9.6	3.7	6.0	52.6	11.6	3.1	2.2	1.6	9.7	100.0(9,570)
부산	9.7	3.3	4.5	53.4	14.4	3.8	1.9	1.3	7.8	100.0(3,108)
대구	9.9	3.2	6.5	55.8	11.8	3.4	1.0	1.7	6.9	100.0(2,371)
인천	6.7	3.1	5.1	57.4	11.9	3.6	1.4	1.9	8.8	100.0(3,370)
광주	9.8	2.7	4.9	53.0	16.6	3.6	3.5	0.2	5.9	100.0(1,516)
대전	8.3	3.5	4.2	55.4	16.2	3.9	2.1	0.6	5.8	100.0(1,560)
울산	10.7	1.9	7.1	57.4	12.3	3.5	0.8	1.0	5.3	100.0(1,558)
경기	8.8	3.2	5.1	56.3	10.7	4.0	1.3	1.4	9.1	100.0(13,567)
강원	7.7	1.7	6.9	59.2	11.3	4.5	1.2	0.9	6.7	100.0(2,037)
충북	7.6	2.2	7.8	54.5	14.5	4.7	0.9	1.5	6.3	100.0(2,331)
충남	6.8	2.1	7.6	56.2	13.5	5.5	0.9	1.3	6.2	100.0(3,997)
전북	9.3	3.6	6.7	50.6	15.2	5.5	1.8	1.0	6.3	100.0(3,006)
전남	8.3	1.9	8.1	53.2	13.9	7.2	1.2	1.1	5.2	100.0(3,509)
경북	7.5	2.5	8.8	53.9	13.4	5.2	1.5	1.4	5.9	100.0(4,214)
경남	9.4	2.4	6.6	55.7	13.1	3.9	1.5	1.5	6.0	100.0(4,950)
제주	7.9	2.8	6.5	53.3	16.4	2.4	2.5	0.9	7.3	100.0(675)

주: 1) 비취업 결혼이민자만을 분석대상으로 함.

제5절 직업훈련 참여경험

결혼이민자 중 한국에서 정부가 지원하는 직업훈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12.1%이었으며, 거주지역별로는 동 지역 11.2%, 읍·면 지역 14.0%로 읍·면 지역이 더 높았다.

연령별로는 30~34세가 14.0%로 직업훈련 참여경험이 가장 많았으며, 40~44세는 9.4%에 불과하였다. 교육수준별로는 학력이 높아질수록 참여경험이 많아지는 경향으로 초등학교 이하와 중학교 학력자는 9.8%와 9.5%이었으나 고등학교와 대학 이상은 각각 12.2%와 15.9%로 중학교 이하의 저학력자 보다 높았다.

혼인상태별로는 사별인 경우가 가장 참여경험이 많아 14.6%이었고, 체류기간별로는 5~10년 미만이 13.6%로 가장 높았다. 현 취업여부별로는 과거 취업경험이 있는 결혼이민자가 현취업자나 취업경험이 없는 비취업자 보다 높았다.

출신국별 직업훈련 참여경험률은 필리핀이 가장 높아 26.1%이었으며, 그 다음은 캄보디아(18.0%), 몽골(16.6%), 태국(14.4%), 중국 한족 등(13.1%), 중국 조선족

(9.8%), 베트남(9.2%) 등의 순이었다. 이외 일본이 6.4%이었고, 북미·호주·서유럽은 2.4%로 직업훈련 참여경험률이 가장 낮았다(표 6-46 참조).

〈표 6-45〉 20~44세 여성 결혼이민자의 특성별 직업훈련 참여 경험률

(단위: 명, %)

구분	(분석대상수)	직업훈련 참여 경험률
전체	(97,026)	12.1
지역		
동 지역	(67,159)	11.2
읍·면 지역	(29,867)	14.0
연령		
20~24세	(21,913)	10.7
25~29세	(23,142)	12.5
30~34세	(20,253)	14.0
35~39세	(19,161)	12.9
40~44세	(12,554)	9.4
교육수준		
초등학교 이하	(7,366)	9.8
중학교	(26,588)	9.5
고등학교	(40,649)	12.2
대학 이상	(21,513)	15.9
혼인상태		
유배우	(93,691)	12.1
이혼	(2,545)	9.5
사별	(533)	14.6
체류기간		
1년 미만	(8,888)	11.7
1~2년 미만	(13,772)	11.5
2~5년 미만	(33,726)	11.1
5~10년 미만	(21,298)	13.6
10년 이상	(19,341)	12.7
현 취업여부		
현 취업	(31,772)	12.6
과거 취업경험	(21,337)	12.9
비취업	(42,698)	11.1

〈표 6-46〉 20~44세 여성 결혼이민자의 출신국별 직업훈련 참여 경험률

(단위: 명, %)

구분	(분석대상수)	직업훈련 참여 경험률
전체	(97,023)	12.1
중국(조선족)	(24,796)	9.8
중국(한족 등)	(28,177)	13.1
베트남	(22,195)	9.2
필리핀	(7,358)	26.1
몽골	(1,677)	16.6
태국	(1,553)	14.4
캄보디아	(2,424)	18.0
일본	(3,715)	6.4
북미·호주·서유럽	(417)	2.4
기타	(4,711)	10.1

시·도별 직업훈련 참여경험률은 전남(18.2%), 전북(17.2%), 제주(15.8%), 충남(15.5%), 충북(14.7%) 등의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고, 서울과 인천은 각각 8.6%와 8.1%로 직업훈련 참여경험률이 낮은 편이었다(표 6-47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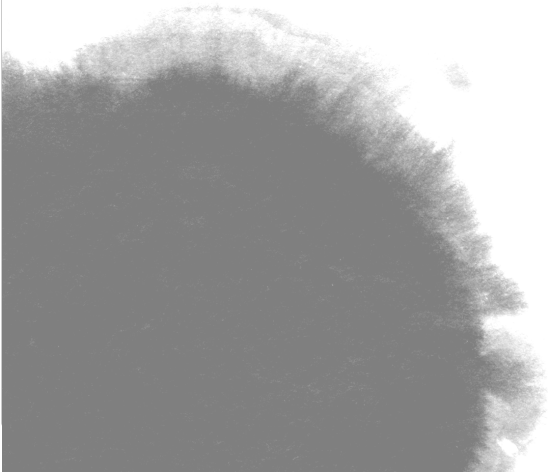
〈표 6-47〉 20~44세 여성 결혼이민자의 시·도별 직업훈련 참여 경험률

(단위: 명, %)

구분	(분석대상수)	직업훈련 참여 경험률
전체	(97,024)	12.1
서울	(16,901)	8.6
부산	(4,822)	11.2
대구	(3,510)	12.2
인천	(5,830)	8.1
광주	(2,264)	12.9
대전	(2,249)	11.9
울산	(2,152)	13.7
경기	(22,898)	10.8
강원	(3,127)	12.9
충북	(3,424)	14.7
충남	(5,907)	15.5
전북	(4,435)	17.2
전남	(5,196)	18.2
경북	(5,908)	12.7
경남	(7,237)	14.3
제주	(1,164)	15.8

07

여성 결혼이민자의 직업훈련 및 취업 욕구



제7장 여성 결혼이민자의 직업훈련 및 취업 욕구

제1절 직업훈련 욕구

1. 직업훈련 받을 의향

전반적으로 여성 결혼이민자의 경우 취업의향이 높고, 직업훈련 참여의향도 높은 편이다. 특히 현재 비취업 중이며 가구소득이 낮은 여성 결혼이민자의 경우 이들 가구의 빈곤 또는 경제적 어려움 극복을 위해 취업을 희망하는 비율이 높으며, 따라서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의 참여의향도 높은 편이다. 이러한 점에서 여성 결혼이민자의 특성별 직업훈련에의 참여 의향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7-1>과 같다.

20~44세 여성 결혼이민자의 직업훈련을 받을 의향은 78.7%로 동 지역 보다 읍·면 지역이 직업훈련을 더 받고자 하는 의향이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고연령층보다는 저연령층에서보다 높게 나타났다. 교육수준별로는 중학교 이하 보다는 고등학교 이상에서 높았으며, 혼인상태별로는 이혼이나 사별인 경우보다 유배우인 경우에 직업훈련에 참여할 의향이 더 많았다. 체류기간별로는 최근에 한국에 입국하여 체류기간이 짧은 경우에 참여의향이 더 많았고, 현 취업여부별로는 현 취업자 보다는 과거 취업경험자나 비취업자가 더 높은 비율을 보였다(표 7-1 참조).

〈표 7-1〉 20~44세 여성 결혼이민자의 특성별 직업훈련 받을 의향

(단위: 명, %)

구분	(분석대상수)	직업훈련 받을 의향
전체	(97,336)	78.7
지역		
동 지역	(67,161)	77.6
읍·면 지역	(30,175)	81.0
연령		
20~24세	(22,261)	83.2
25~29세	(23,340)	83.3
30~34세	(20,199)	79.6
35~39세	(19,128)	73.7
40~44세	(12,408)	68.0
교육수준		
초등학교 이하	(7,472)	74.3
중학교	(26,669)	78.1
고등학교	(40,744)	79.4
대학 이상	(21,524)	79.3
혼인상태		
유배우	(94,046)	79.0
이혼	(2,500)	68.1
사별	(532)	73.9
체류기간		
1년 미만	(8,978)	83.6
1~2년 미만	(13,897)	83.7
2~5년 미만	(33,870)	80.6
5~10년 미만	(21,288)	76.8
10년 이상	(19,304)	71.4
현 취업여부		
현 취업	(31,546)	71.7
과거 취업경험	(21,489)	83.3
비취업	(43,070)	81.6

출신국별 향후 직업훈련 받을 의향은 몽골(87.7%), 필리핀(86.9%), 캄보디아(82.5%) 등의 순이었으며, 일본과 북미·호주·서유럽 등의 선진국 결혼이민자는 향후 직업훈련에 참여의향이 낮았으며, 특히 북미·호주·서유럽 등은 26.8%에 그쳤다(표 7-2 참조).

〈표 7-2〉 20~44세 여성 결혼이민자의 출신국별 직업훈련 받을 의향

(단위: 명, %)

구분	(분석대상수)	직업훈련 받을 의향
전체	(97,335)	78.7
중국(조선족)	(24,631)	72.0
중국(한족 등)	(28,034)	81.8
베트남	(22,682)	81.6
필리핀	(7,492)	86.9
몽골	(1,696)	87.7
태국	(1,551)	79.2
캄보디아	(2,470)	82.5
일본	(3,671)	68.2
북미·호주·서유럽	(411)	26.8
기타	(4,697)	75.3

시·도별 향후 직업훈련 받을 의향은 전남이 86.4%로 가장 높았고, 직업훈련 참여 경험률이 낮은 인천과 서울은 타 시·도에 비해 향후 직업훈련 받을 의향도 높지 않았다(표 7-3 참조).

〈표 7-3〉 20~44세 여성 결혼이민자의 시·도별 직업훈련 받을 의향

(단위: 명, %)

구분	(분석대상수)	직업훈련 받을 의향
전체	(97,335)	78.7
서울	(16,784)	73.3
부산	(4,854)	79.5
대구	(3,543)	83.3
인천	(5,850)	72.8
광주	(2,264)	83.9
대전	(2,287)	83.2
울산	(2,173)	82.5
경기	(22,833)	77.0
강원	(3,153)	81.8
충북	(3,438)	79.8
충남	(5,982)	82.4
전북	(4,486)	82.5
전남	(5,265)	86.4
경북	(5,986)	80.6
경남	(7,277)	79.9
제주	(1,160)	75.8

2. 희망 직업교육

향후 직업훈련을 받을 의향이 있는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향후 취업을 위해 가장 받고 싶은 교육에 대해 질문한 결과, 어학(한국어·영어)이 36.8%로 가장 비율이 높았다. 그 다음은 컴퓨터/정보통신(14.7%), 음식/조리(12.4%), 미용/피부(10.1%) 등의 순이었다(표 7-4 참조).

〈표 7-4〉 20~44세 여성 결혼이민자의 특성별 향후 취업을 위한 희망 직업교육

(단위: %, 명)

구분	① 어학(한국어/영어) ② 컴퓨터/정보통신 ③ 자동차정비/기계수리 ④ 의복/봉제 ⑤ 건설 ⑥ 농림 어업 원예 ⑦ 음식/조리 ⑧ 어린이 보육 ⑨ 간병/보호 ⑩ 가사도우미 ⑪ 미용/피부 ⑫ 운전면허 ⑬ 기타													계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전체	36.8	14.7	0.4	6.8	0.2	0.8	12.4	3.5	2.3	0.6	10.1	7.6	
지역														
동 지역	38.1	15.3	0.4	6.2	0.2	0.4	12.0	3.7	2.0	0.6	10.3	7.2	3.9	100.0(50,771)
읍·면 지역	33.9	13.6	0.6	8.1	0.2	1.8	13.2	3.1	2.9	0.8	9.6	8.6	3.4	100.0(23,697)
연령														
20~24세	36.3	6.7	0.5	11.1	0.1	1.2	14.9	2.7	1.6	1.0	14.3	5.8	3.8	100.0(17,998)
25~29세	39.6	11.7	0.4	7.7	0.3	0.7	10.6	4.0	1.7	0.4	11.4	8.1	3.4	100.0(18,965)
30~34세	38.2	18.4	0.5	5.1	0.2	0.6	10.3	4.2	2.2	0.4	8.2	8.1	3.6	100.0(15,638)
35~39세	34.1	21.3	0.4	3.7	0.2	0.8	12.4	3.7	2.7	0.6	7.4	8.6	4.0	100.0(13,686)
40~44세	33.0	21.3	0.6	3.7	0.3	0.6	15.0	2.3	4.3	0.8	5.9	7.9	4.3	100.0(8,131)
교육수준														
초등학교 이하	28.2	6.3	0.7	13.9	0.1	2.0	21.0	2.5	2.1	2.0	12.2	5.4	3.6	100.0(5,374)
중학교	32.7	10.7	0.5	9.6	0.2	1.2	15.9	2.5	2.0	0.8	12.0	7.7	4.1	100.0(20,201)
고등학교	34.5	17.7	0.4	5.9	0.3	0.6	11.9	3.9	2.2	0.5	11.0	7.6	3.5	100.0(31,437)
대학 이상	48.7	17.1	0.4	2.6	0.2	0.4	6.1	4.0	2.7	0.3	5.3	8.4	3.8	100.0(16,765)
혼인상태														
유배우	36.9	14.5	0.4	6.9	0.2	0.8	12.4	3.5	2.2	0.7	10.1	7.6	3.8	100.0(72,297)
이혼	30.6	23.0	0.6	3.3	0.5	0.2	13.4	2.0	2.5	0.1	11.4	8.7	3.8	100.0(1,649)
사별	35.3	19.5	0.8	3.4	0.8	0.5	11.6	5.5	5.3	0.0	7.1	6.8	3.4	100.0(380)
체류기간														
1년 미만	52.8	5.9	0.2	7.4	0.3	0.8	10.3	2.0	1.5	0.6	9.8	4.8	3.7	100.0(7,287)
1~2년 미만	47.6	7.5	0.4	7.8	0.2	0.8	10.6	2.6	2.0	0.6	10.8	5.7	3.3	100.0(11,317)
2~5년 미만	36.2	11.7	0.4	8.1	0.2	0.9	13.6	3.4	1.8	0.7	11.5	7.9	3.6	100.0(26,672)
5~10년 미만	29.9	22.7	0.6	4.6	0.2	0.6	11.9	4.6	2.8	0.5	8.2	9.5	4.0	100.0(15,925)
10년 이상	28.0	22.3	0.6	5.5	0.2	1.1	13.2	3.8	3.2	0.8	8.9	8.1	4.3	100.0(13,269)
자녀 유무														
없음	44.3	12.5	0.3	5.1	0.3	0.6	11.6	2.0	2.0	0.6	9.8	6.9	3.9	100.0(21,777)
있음	33.0	16.0	0.5	7.5	0.2	1.0	12.7	4.2	2.4	0.7	10.2	8.0	3.8	100.0(48,748)
미취학자녀 유무														
없음	38.3	17.2	0.4	4.6	0.2	0.7	11.6	2.9	2.7	0.5	8.9	7.8	4.0	100.0(32,170)
있음	35.0	13.0	0.5	8.6	0.2	1.0	13.0	4.1	1.9	0.7	11.0	7.5	3.6	100.0(38,035)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한국어나 영어 등의 어학을 원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특히 동부지역 거주자의 희망률이 높았다. 컴퓨터/정보통신을 원하는 비율도 상당히 높았으며, 이 역시 동부지역에서 희망하는 비율이 높았다.

연령별로는 어학은 연령이 낮은 경우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컴퓨터/정보통신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희망하는 비율이 높아졌다. 음식/조리에 대한 직업교육은 40~44세에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20~24세이었다. 미용/피부에 관한 직업교육은 저연령층일수록 희망하는 비율이 높았다. 교육수준별로도 어학에 대한 직업교육을 희망하는 비율이 모두 가장 높았으며, 특히 연령이 높아질수록 높은 비율을 보였다.

혼인상태별로는 유배우, 이혼, 사별 모두 어학, 컴퓨터/정보통신의 순으로 비율이 높았으며, 유배우는 어학에 대한 직업훈련을 받을 의향이 제일 높았다. 체류기간별로는 어학에 대한 비율이 더 높아 체류기간이 짧을수록 어학에 대한 교육·훈련에 참여 희망률은 더 높았다. 자녀유무 및 미취학자녀 유무별로도 모두 자녀가 있는 경우보다 없는 경우에 어학에 대한 교육·훈련에 참여 희망률이 더 높았다.

출신국별로는 중국 조선족이 컴퓨터/정보통신을, 그리고 그 외 출신국은 어학에 대해 희망하는 비율이 높았고, 특히 북미·호주·서유럽이 어학을 희망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표 7-5 참조).

〈표 7-5〉 20~44세 여성 결혼이민자의 출신국별 향후 취업을 위한 희망 직업교육

(단위: %, 명)

구분	① 어학(한국어/영어) ② 컴퓨터/정보통신 ③ 자동차정비/기계수리													계수			
	④ 의복/봉제			⑤ 건설			⑥ 농림 어업 원예			⑦ 음식/조리			⑧ 어린이 보육				
	⑨ 간병/보호	⑩ 가사도우미	⑪ 미용/피부	⑫ 운전면허	⑬ 기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전체	36.8	14.7	0.4	6.8	0.2	0.8	12.4	3.5	2.3	0.6	10.1	7.6	3.8	100.0(74,467)			
중국(조선족)	15.6	30.7	0.4	4.2	0.3	0.5	15.5	5.6	2.7	0.4	9.4	10.3	4.4	100.0(17,166)			
중국(한족 등)	50.3	11.6	0.4	3.0	0.3	0.5	8.4	2.9	1.7	0.4	9.7	7.4	3.5	100.0(22,352)			
베트남	30.5	4.6	0.4	15.4	0.1	1.7	19.1	2.9	1.6	1.2	14.0	5.1	3.5	100.0(17,917)			
필리핀	53.6	9.8	0.9	4.5	0.3	0.9	6.9	2.4	3.3	0.9	3.1	9.8	3.6	100.0(6,337)			
몽골	39.6	15.4	1.3	4.2	1.0	0.3	8.1	1.8	2.1	0.1	12.9	9.6	3.5	100.0(1,451)			
태국	48.0	12.0	0.9	5.3	0.2	1.2	8.1	3.1	2.7	0.6	7.6	7.1	3.1	100.0(1,213)			
캄보디아	39.1	8.3	0.4	14.4	0.1	0.7	10.7	1.5	1.4	1.1	14.4	5.8	2.1	100.0(1,993)			
일본	40.6	28.7	0.0	2.9	0.0	0.7	4.2	3.0	6.4	0.1	3.5	4.9	5.1	100.0(2,451)			
북미·호주·서유럽	63.9	10.2	0.0	2.8	0.0	0.0	11.1	2.8	0.0	0.0	4.6	0.0	4.6	100.0(108)			
기타	45.7	12.1	0.4	3.7	0.1	0.4	8.1	4.1	3.0	0.6	10.1	7.9	3.8	100.0(3,479)			

각 시·도별로도 한국어나 영어 등의 어학관련 교육·훈련을 희망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특히 경기, 서울, 인천 등이 높은 편이었다. 두 번째로 비율이 높은 것은 대부분의 시·도에서 컴퓨터/정보통신이었으나 부산, 울산, 경북, 경남 등은 음식/조리에 대해 희망하는 비율이 높았다(표 7-6 참조).

〈표 7-6〉 20~44세 여성 결혼이민자의 시·도별 향후 취업을 위한 희망 직업교육

(단위: %, 명)

구분	① 어학(한국어/영어) ② 컴퓨터/정보통신 ③ 자동차정비/기계수리 ④ 의복/봉제 ⑤ 건설 ⑥ 농림 어업 원예 ⑦ 음식/조리 ⑧ 어린이 보육 ⑨ 간병/보호 ⑩ 가사도우미 ⑪ 미용/피부 ⑫ 운전면허 ⑬ 기타													계(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전체	36.8	14.7	0.4	6.8	0.2	0.8	12.4	3.5	2.3	0.6	10.1	7.6	
서울	39.1	16.2	0.1	6.5	0.2	0.3	11.8	4.2	1.7	0.6	10.1	6.1	3.1	100.0(12,017)
부산	36.7	13.7	0.6	7.9	0.2	0.4	14.9	3.0	1.6	0.5	10.2	6.2	4.3	100.0(3,756)
대구	34.6	14.3	0.3	9.1	0.1	0.5	13.3	3.6	2.1	0.8	9.3	8.4	3.5	100.0(2,854)
인천	39.1	17.4	0.3	4.4	0.2	0.4	12.1	3.5	1.9	0.5	7.9	7.2	5.2	100.0(4,160)
광주	37.3	13.7	0.2	6.0	0.5	0.4	12.6	4.0	2.3	0.8	12.1	5.4	4.7	100.0(1,840)
대전	36.5	12.0	0.7	6.7	0.1	0.4	11.4	3.4	2.4	0.4	11.4	10.0	4.6	100.0(1,857)
울산	34.3	11.0	0.9	8.1	0.5	0.5	13.5	2.9	1.8	0.6	11.4	8.9	5.7	100.0(1,754)
경기	39.2	15.6	0.5	4.9	0.1	0.6	11.2	3.6	1.9	0.4	10.1	7.9	4.0	100.0(17,119)
강원	33.3	16.8	0.5	7.6	0.4	0.7	12.4	3.3	3.0	1.2	9.0	9.0	2.9	100.0(2,513)
충북	35.3	15.0	0.8	7.6	0.3	1.4	11.7	2.9	2.2	0.7	10.0	7.1	4.9	100.0(2,654)
충남	35.5	14.1	0.4	7.0	0.3	1.5	12.6	3.0	3.0	0.7	9.6	8.9	3.5	100.0(4,789)
전북	36.1	14.6	0.6	6.9	0.2	1.8	12.4	3.4	3.1	0.6	9.8	7.5	3.0	100.0(3,752)
전남	34.7	14.3	0.5	9.5	0.2	1.3	11.1	3.2	3.0	1.0	9.5	8.7	3.1	100.0(4,389)
경북	32.7	11.4	0.7	9.1	0.3	2.1	13.8	2.7	3.0	0.9	10.9	8.6	3.7	100.0(4,681)
경남	33.1	13.1	0.5	7.9	0.1	1.0	15.3	3.5	2.6	0.8	11.3	7.5	3.3	100.0(5,659)
제주	37.9	13.6	0.0	7.3	0.0	1.4	11.7	2.9	3.2	0.5	10.3	7.6	3.6	100.0(854)

제2절 취업욕구

1. 취업의향

20~44세 현재 취업을 하지 않고 있는 비취업 여성 결혼이민자 중 87.9%가 취업을 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매우 강한 취업욕구를 보이는 것으로 동 지역 거주여성(88.1%)이 읍·면 지역 거주여성(87.4%)보다 약간 높았고, 25~29세 연령층 여성이 가장 높았으며(90.2%), 중·고등학교 학력소지자(88.3%)가 높았다. 또한 사별한 여성(91.9%)의 취업욕구가 높았고, 체류기간이 2~5년 미만인 여성

(89.4%)이 높았으며, 자녀가 있는 여성(88.7%), 미취학자녀가 있는 여성(89.9%)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7-7 참조).

〈표 7-7〉 20~44세 여성 결혼이민자의 특성별 향후 취업의향¹⁾

(단위: 명, %)		
구분	(분석대상수)	취업의향 ¹⁾
전체	(62,337)	87.9
지역		
동 지역	(41,738)	88.1
읍·면 지역	(20,599)	87.4
연령		
20~24세	(17,798)	89.2
25~29세	(17,250)	90.2
30~34세	(12,730)	87.4
35~39세	(9,486)	84.5
40~44세	(5,073)	83.4
교육수준		
초등학교 이하	(5,438)	84.7
중학교	(17,531)	88.3
고등학교	(25,865)	88.3
대학 이상	(12,872)	87.9
혼인상태		
유배우	(61,300)	87.9
이혼	(702)	88.9
사별	(186)	91.9
체류기간		
1년 미만	(7,232)	88.4
1~2년 미만	(10,648)	89.0
2~5년 미만	(22,761)	89.4
5~10년 미만	(11,566)	86.7
10년 이상	(10,130)	84.4
자녀		
없음	(15,663)	86.0
있음	(43,642)	88.7
미취학자녀		
없음	(22,550)	85.0
있음	(36,394)	89.9

주: 1) 비취업 여성 결혼이민자만을 분석대상으로 함.

20~44세 비취업 여성 결혼이민자의 취업의향은 출신국가에 따라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 가장 높은 취업의향을 보이는 출신국은 몽골 94.4%이었고, 다음은 필리핀 90.0%, 한족 등 기타 소수민족 출신의 중국 89.6% 등의 순이었다. 이와는 달리 일본출신 비취업 여성 결혼이민자의 44.5%만이 취업의향을 보여 대조적이었다.

〈표 7-8〉 20~44세 여성 결혼이민자의 출신국별 향후 취업의향¹⁾

구분	(분석대상수)	취업의향 ¹⁾
전체	(62,336)	87.9
중국(조선족)	(12,959)	86.5
중국(한족 등)	(17,512)	89.6
베트남	(17,319)	89.3
필리핀	(4,299)	90.0
몽골	(1,137)	94.4
태국	(977)	87.1
캄보디아	(2,130)	86.8
일본	(2,569)	75.4
북미·호주·서유럽	(173)	44.5
기타	(3,261)	85.4

주: 1) 비취업 여성 결혼이민자만을 분석대상으로 함.

20~44세 비취업 여성 결혼이민자의 취업의향은 광주지역 거주자가 93.0%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전남지역 거주자 91.3%. 대구지역 거주자 91.1%, 대전 및 울산 지역 거주자 90.3% 등의 순이었다. 상대적으로 낮은 취업의향을 보이는 지역은 제주 80.3%, 서울 86.2%, 경기 86.7% 등이었으나 절대적으로는 높은 취업의향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7-9〉 20~44세 여성 결혼이민자의 시·도별 향후 취업의향¹⁾

구분	(분석대상수)	취업의향 ¹⁾
전체	(62,338)	87.9
서울	(9,754)	86.2
부산	(3,154)	89.8
대구	(2,428)	91.1
인천	(3,434)	85.2
광주	(1,527)	93.0
대전	(1,602)	90.3
울산	(1,581)	90.3
경기	(13,731)	86.8
강원	(2,064)	87.5
충북	(2,329)	88.5
충남	(4,075)	88.6
전북	(3,060)	89.4
전남	(3,585)	91.3
경북	(4,276)	87.3
경남	(5,026)	87.9
제주	(712)	80.3

주: 1) 비취업 여성 결혼이민자만을 분석대상으로 함.

2. 취업을 위한 필요지원

20~44세 비취업 여성 결혼이민자 중 향후 취업의향이 있는 결혼이민자만을 대상으로 필요한 지원에 대해 알아본 결과, 도움이나 지원이 필요없다는 경우는 2.7%에 불과하고, 97.3%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이었다. 희망하는 지원으로는 일자리 알선이 가장 많았고(28.5%), 그 다음은 자녀보육·양육지원(24.4%), 한국어 교육(18.6%), 직업교육(14.5%) 등의 순이었다.

거주지역별로 살펴보면, 일자리 알선과 한국어 교육은 동 지역 보다는 읍·면 지역에서, 직업교육과 자녀보육·양육지원은 읍·면 지역 보다는 동 지역에서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도움이 필요없다는 경우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비율도 더 높아졌으며, 필요한 지원으로는 일자리 알선은 40~44세에서 가장 요구도가 높았으며, 직업교육은 고연령층보다는 20대 저연령층에서 비율이 높았다.

한국어 교육도 저연령일수록 높은 비율을 보였고, 자녀보육·양육지원은 자녀의 양육 및 보육이 가장 많이 요구될 것으로 보이는 30~34세 연령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교육수준별로는 역시 일자리 알선이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초등학교 이하의 학력자에게서 가장 높았다. 한국어 교육도 역시 초등학교 이하의 학력자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직업교육 지원의 필요성은 중학교 이하의 학력자보다 고등학교 이상의 고학력자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혼인상태별로 살펴보면, 일자리 알선은 유배우나 이혼보다 사별인 경우 비율이 높았으며, 자녀보육·양육지원은 이혼인 경우 가장 높은 비율이었다. 체류기간별로는 일자리 알선은 체류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2년 미만보다 필요하다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한국어 교육은 체류기간이 2년 미만으로 짧은 경우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자녀유무별로 살펴보면, 일자리 알선과 한국어 교육은 자녀가 없는 경우에, 자녀보육·양육지원은 자녀가 있는 경우에 더 높은 비율을 보였다. 미취학자녀 유무별로는 자녀보육·양육지원을 제외한 일자리 알선, 직업교육, 한국어 교육 등 모두 자녀가 없는 경우에 요구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표 7-10〉 20~44세 여성 결혼이민자의 특성별 향후 필요한 지원¹⁾

(단위: %, 명)

구분	도움 필요없음	필요한 지원						계(수)
		일자리 알선	직업교육	한국어 교육	자녀보육· 양육지원	배우자·가족의 이해와 지원	기타	
전체	2.7	28.5	14.5	18.6	24.4	6.2	5.2	100.0(52,434)
지역								
동 지역	3.0	28.2	14.6	18.2	25.7	4.8	5.5	100.0(35,363)
읍·면 지역	2.0	29.2	14.1	19.5	21.7	9.1	4.5	100.0(17,071)
연령								
20~24세	2.0	28.9	14.9	21.7	19.6	9.1	3.8	100.0(15,095)
25~29세	2.3	26.8	14.9	20.0	25.7	5.4	4.9	100.0(14,881)
30~34세	2.7	26.7	14.3	16.5	30.0	4.5	5.3	100.0(10,707)
35~39세	3.5	29.2	14.3	14.8	26.9	4.6	6.7	100.0(7,667)
40~44세	4.8	37.2	11.8	14.7	17.3	5.9	8.3	100.0(4,079)
교육수준								
초등학교 이하	2.2	30.3	11.7	21.7	21.5	8.6	4.1	100.0(4,322)
중학교	2.4	28.6	13.4	19.2	23.5	7.4	5.6	100.0(14,696)
고등학교	2.7	28.1	15.7	16.5	25.7	5.9	5.4	100.0(21,902)
대학 이상	3.2	28.6	14.4	20.7	24.2	4.2	4.7	100.0(10,994)
혼인상태								
유배우	2.6	28.5	14.4	18.8	24.4	6.3	5.1	100.0(51,572)
이혼	6.1	31.1	16.6	6.1	26.1	1.4	12.6	100.0(586)
사별	1.8	37.2	17.7	12.8	23.8	1.2	5.5	100.0(164)
체류기간								
1년 미만	1.8	24.1	13.1	35.6	11.7	9.6	4.1	100.0(6,059)
1~2년 미만	1.9	27.6	13.3	25.6	20.9	6.9	3.8	100.0(9,068)
2~5년 미만	2.6	29.7	15.0	16.4	25.6	6.0	4.7	100.0(19,539)
5~10년 미만	3.2	28.0	15.7	10.4	32.8	3.6	6.3	100.0(9,730)
10년 이상	3.7	30.6	14.0	13.2	24.6	6.5	7.4	100.0(8,031)
자녀 유무								
없음	3.8	30.2	14.3	26.4	9.9	8.5	7.0	100.0(12,849)
있음	2.2	28.0	14.5	15.4	30.3	5.2	4.4	100.0(37,150)
미취학자녀								
없음	3.6	30.6	14.9	21.2	15.4	7.4	6.9	100.0(18,284)
있음	2.0	27.4	14.2	16.4	30.6	5.3	4.0	100.0(31,442)

주: 1) 비취업여성 결혼이민자만을 분석대상으로 함.

20~44세 여성 결혼이민자의 출신국별 향후 취업의향은 몽골(94.4%), 필리핀(90.0%), 중국 한족 등(89.6%)의 순이었으며, 필요한 지원으로는 중국 조선족과 한족 등은 자녀 보육·양육지원을 가장 많이 필요로 하였으며,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일본, 북미·호주·서유럽 등의 선진국의 경우에도 일자리 알선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비율이 높았다. 그 외 몽골과 태국 등은 한국어 교육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7-11 참조).

〈표 7-11〉 20~44세 여성 결혼이민자의 출신국별 향후 필요한 지원¹⁾

(단위: %, 명)

구분	도움 필요없음	필요한 지원						계(수)
		일자리 알선	직업 교육	한국어 교육	자녀보육· 양육지원	배우자·가족의 이해와 지원	기타	
전체	2.7	28.5	14.5	18.6	24.4	6.2	5.2	100.0(52,426)
중국(조선족)	4.3	28.2	16.5	3.7	35.2	3.1	9.1	100.0(10,711)
중국(한족 등)	2.5	23.6	14.6	24.4	24.1	4.8	6.1	100.0(15,172)
베트남	2.0	33.4	13.4	19.2	19.7	9.8	2.5	100.0(14,546)
필리핀	1.7	27.3	12.9	24.3	21.6	8.0	4.3	100.0(3,668)
몽골	3.7	20.4	21.5	27.5	20.0	3.7	3.2	100.0(1,044)
태국	1.0	26.5	15.0	27.5	18.9	7.4	3.8	100.0(822)
캄보디아	1.1	29.3	13.6	24.2	19.6	9.5	2.5	100.0(1,761)
일본	1.7	38.1	8.7	21.5	22.6	4.4	2.8	100.0(1,912)
북미·호주·서유럽	28.8	27.4	4.1	13.7	21.9	0.0	4.1	100.0(73)
기타	3.3	29.4	15.6	22.7	19.8	4.6	4.6	100.0(2,717)

주: 1) 비취업 여성 결혼이민자만을 분석대상으로 함.

시·도별 현 비취업 여성 결혼이민자의 향후 취업의향은 광주가 가장 높았으며 (93.0%), 그 다음은 전남(91.3%), 대구(91.1%), 대전(90.3%), 울산(90.3%) 등이었다.

〈표 7-12〉 20~44세 여성 결혼이민자의 시·도별 향후 필요한 지원¹⁾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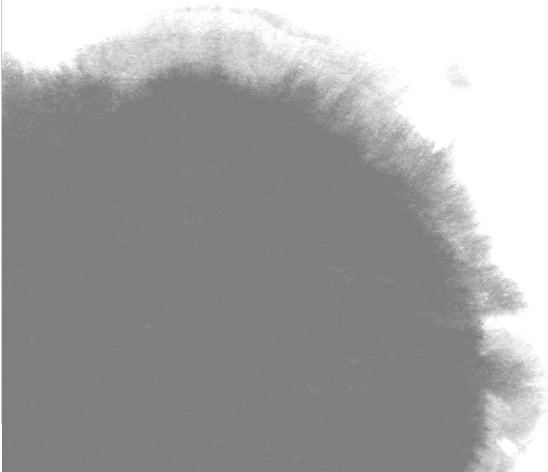
구분	도움 필요없음	필요한 지원						계(수)
		일자리 알선	직업 교육	한국어 교육	자녀보육· 양육지원	배우자·가족의 이해와 지원	기타	
전체	2.7	28.5	14.5	18.6	24.4	6.2	5.2	100.0(52,424)
서울	3.6	28.5	13.7	17.8	27.0	3.5	5.9	100.0(8,104)
부산	3.1	29.1	13.5	19.9	22.6	5.6	6.1	100.0(2,964)
대구	2.8	29.3	16.7	16.5	23.1	6.6	5.0	100.0(2,101)
인천	3.2	26.8	15.3	17.0	28.6	4.7	4.4	100.0(2,838)
광주	1.8	27.5	17.3	19.0	23.8	5.7	4.9	100.09 1,360)
대전	1.7	34.0	13.6	18.7	22.3	4.6	5.1	100.09 1,399)
울산	2.5	30.3	16.4	19.2	20.7	5.5	5.5	100.0(1,345)
경기	3.1	27.9	13.7	17.1	28.0	4.3	5.9	100.0(11,472)
강원	3.0	28.0	15.4	19.8	20.7	7.7	5.4	100.0(1,727)
충북	2.4	28.5	12.2	19.0	24.3	8.0	5.6	100.0(1,952)
충남	1.9	27.4	14.7	18.9	23.8	8.7	4.6	100.0(3,436)
전북	2.2	27.2	16.5	21.3	20.5	8.6	3.7	100.0(2,593)
전남	1.9	28.9	15.0	20.2	19.5	10.5	4.0	100.0(3,100)
경북	1.7	30.3	13.0	19.8	21.1	9.8	4.2	100.0(3,544)
경남	2.0	28.0	16.2	20.1	21.6	7.9	4.2	100.0(4,210)
제주	1.3	35.5	10.2	20.8	21.7	2.4	8.2	100.0(549)

주: 1) 비취업 여성 결혼이민자만을 분석대상으로 함.

필요한 지원으로는 전체적으로 일자리 알선을 요구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특히 제주도, 대전, 울산, 경북 등에 거주하는 여성 결혼이민자가 높은 비율을 보였다. 직업교육은 광주가, 한국어 교육은 전북에서, 그리고 자녀보육·양육지원은 인천이 가장 높은 비율이었다(표 7-12 참조).

08

여성 결혼이민자의 취업육공 및 지원을
위한 사례조사



제8장 여성 결혼이민자의 취업육구 및 지원을 위한 사례조사

제1절 사례조사의 개요

1. 조사대상자

서울 및 경기지역 여성인력개발센터, 다문화지원센터, 여성인력발전센터 등에 등록하고 있는 여성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심층면접대상 결혼이민자들의 인구학적 특성은 다음의 <표 8-1>과 같다. 심층면접에 참여한 여성 결혼이민자는 총 26명이었으며, 그 중에서 필리핀출신 여성 결혼이민자 6명, 베트남출신 여성 결혼이민자 8명, 그리고 중국(조선족 포함) 출신 여성 결혼이민자 8명으로 3개 국가 출신 여성 결혼이민자가 전체 심층면접 대상자 26명 중 88%를 차지하고 있다. 이외 출신국가는 캄보디아(2명), 멕시코(1명), 그리고 몽골(1명) 여성 결혼이민자가 심층면접에 참여하였다.

심층면접에 참여한 여성 결혼이민자들은 한국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이었으며, 출산 경험이 없는 여성들을 제외하고는 면접참여 여성들 모두 한국국적을 취득한 상태였으며, 심층면접에 영어 이외의 별도의 통역이 필요 없을 정도의 한국어 능력을 취득한 여성들이었다. 심층면접 참여자들의 연령대를 살펴보면, 가장 높은 연령은 47세 이었고, 가장 낮은 연령은 21세이었다. 대체적으로는 20대, 30대, 그리고 40대가 고른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 체류기간을 살펴보면, 최장 12년부터 최단 1년 6개월을 보이고 있으며, 평균 6.4년의 한국체류기간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1명을 제외한 면접대상 여성 결혼이민자 모두가 한국인과의 결혼을 계기로 한국에 온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력수준을 살펴보면, 중학교 졸업부터 대학 졸업자들까지 다양하게 분

포하고 있다. 특히 필리핀 출신 여성 결혼이민자들의 학력수준이 중국이나 다른 지역 출신 여성 결혼이민자들에 비해 학력수준이 높은 반면, 중국출신 여성 결혼이민자들의 학력수준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표 8-1〉 심층면접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구분	출신국	연령	한국 체류기간(년)	거주지역	학력	월평균 남편소득(만원)
1	필리핀	40	11	서울	대학2년	무직
2	필리핀	29	7	서울	대학1년	70~80
3	필리핀	32	7	서울	대학3년	130
4	필리핀	38	14	서울	고졸	160~170
5	필리핀	38	8	경기	고졸	200
6	필리핀	38	10	경기	고졸	무직
7	베트남	29	7	서울	중졸	300
8	베트남	21	2	서울	중졸	모름
9	베트남	24	4	서울	고졸	300
10	베트남	25	1.5	서울	전문대	300
11	베트남	35	8	서울	고졸	200
12	베트남	24	3	서울	고졸	모름
13	베트남	35	8	서울	고졸	모름
14	베트남	24	3	서울	고졸	300
15	중국(조선족)	40	8	서울	고졸	250~270
16	중국(조선족)	36	12	서울	고졸	300~400
17	중국(조선족)	47	10	경기	고졸	이혼
18	중국(조선족)	45	10	경기	중졸	별거
19	중국(조선족)	31	5	서울	중졸	200
20	중국	35	7	경기	중졸	250
21	중국	35	2	서울	간호학교	무응답
22	중국	39	4	서울	대학2년	240
23	멕시코	35	3	서울	대졸	300
24	몽골	31	6	서울	고졸	180~200
25	캄보디아	22	3	서울	고졸	250
26	캄보디아	24	3	서울	고졸	200

2. 조사내용

조사내용은 여성 결혼이민자들의 본국에서의 취업경험, 한국에 입국 후 취업경험, 취업욕구(직종, 업종, 근로시간, 임금 등), 취업을 위한 훈련프로그램 참여정도 및 욕구에 대해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취업을 위한 정책적 지원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조사내용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8-2>와 같다.

우선 여성 결혼이민자들의 인구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출신국, 연령, 최종 학력 등의 문항을 포함하였으며, 한국에 거주하게 된 가장 주된 이유가 결혼인가에 대한 질문을 포함하였다. 또한 사회경제적 지위를 파악하기 위해서 남편의 취업여부 및 월평균 가구소득에 대한 질문을 포함하였다.

취업경험 및 훈련프로그램 경험관련 질문에서는, 우선 한국에 거주하기 이전에 모국에서의 취업여부, 직종, 임금수준에 대한 질문을 포함하였다. 이는 한국에서의 취업연속성을 고려하기 위한 질문이다. 한국에 입국한 후 취업한 경험과 직종, 임금수준, 근로시간 등에 대한 질문도 포함되었다. 또한 한국에서의 취업을 위해 훈련프로그램을 수강한 경험과 일자리 알선을 받은 경험도 심층면접 문항에 포함되었다. 이는 이들 여성들에게 직업훈련과 취업간의 연계성이 어느 정도이며, 향후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개선방향을 이해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향후 취업희망 일자리관련 질문은 이들 여성 결혼이민자들의 취업욕구, 희망 직종 및 업종을 포함하였으며, 희망 근로시간 및 급여수준에 관한 문항도 포함하였다. 이는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취업에 성공하더라도 이들의 취업욕구가 반영되지 않은 일자리로의 취업은 지속성이 낮을 것이라는 문제의식이 반영되었다. 따라서 향후 일자리 알선뿐 아니라 훈련프로그램 개발에도 이들의 희망일자리 특성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

훈련프로그램 욕구관련 면접은 희망 일자리에 취업하기 위해서 본인이 인지하고 있는 직업훈련, 기술, 지식정도에 대한 인지정도를 확인하고, 희망하는 훈련프로그램의 종류 및 내용에 관한 질문이 포함되었다. 또한 대부분의 면접참여여성들이 어린 자녀나 취학자녀를 돌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들이 희망하는 훈련시간, 장소 및 방법에 대한 질문도 포함하였다.

마지막으로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취업하는데 필요한 정부의 지원에 대한 문항을 포함하였다. 이는 취업관련 훈련프로그램 지원과는 별도로 정부차원에서 이들 여성들의 취업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 욕구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특히, 자녀를 둔 여성들이 취업하는데 경험하는 일·가족양립의 어려움, 다문화가족에서 경험하는 가족갈등 등에 대한 정책적 지원 욕구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표 8-2〉 심층면접 조사내용

조사내용	세부항목
1. 인구학적 특성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신국 • 연령 • 최종학력 • 한국입국이유(결혼, 취업 등) • 월평균 가구소득
2. 취업경험 및 훈련프로그램 경험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국에서의 취업경험 • 한국입국 후 취업경험 • 현재 취업여부 및 취업특성 • 훈련프로그램 경험 여부 및 내용 • 일자리 알선을 받은 경험 및 내용
3. 향후 취업희망 일자리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망 직종 및 업종 • 희망 직종 및 업종 선택 이유 • 희망 근로시간 • 희망 급여수준
4. 희망일자리 관련 훈련프로그램 욕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망일자리에 필요한 기술이나 능력 • 희망 훈련프로그램 종류 및 내용 • 희망 훈련시간 및 기간 • 희망 훈련기관
5. 정책적 지원에 대한 욕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에 장애가 되는 문제 • 참여한 훈련기관의 문제점 • 정책적 지원에 대한 욕구

제2절 취업경험 및 취업욕구

1. 취업관련 경험

가. 본국에서의 취업경험

조사대상 여성 결혼이민자들의 본국에서의 취업경험은 출신국, 연령, 그리고 학력 수준에 따라서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다. 고등학교 및 초대졸 경험이 있는 여성 결혼이민자들은 전문직 및 준전문직으로 분류되는 간호사, 초등교사, 통역관, 보육교사로서 일한 경험이 있는 경우가 많았으며, 판매업, 생산직 근로자로 취업한 경험이 있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필리핀 출신 여성 결혼이민자들의 경우에는 다른 국가 출신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학력이 높은 편이었으며, 중학교 이하의 학력을 가진 여성들은 면접참여자들 중에서는 없었다. 또한 현재의 남편을 만나게 된 계기가 교회를 통해서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따라서 모국에서의 취업경험도 주로 교회관련 보육기관에서의 보육교사가 많았다. 이들 여성들은 한국에서의 취업도 모국에서의 취업경험을 살려서 유치원교사나 보육교사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었으며, 현재 유치원 영어교사로 취업하고 있는 여성들도 있었다.

중국 출신 여성 결혼이민자들 중에서도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여성들은 모국에서 주로 보육원이나 학교교사로서 취업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필리핀 출신 여성 결혼이민자들 중에서는 간호사, 일반 사무직, 백화점 판매원으로서 취업한 경험이 있었다. 이들 여성들은 모국에서 취업당시 특별한 직종선호도나 훈련경험을 통해서 취업했다기보다는 졸업 후 가장 손쉽게 선택할 수 있는 일자리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간호사로 일한 여성들의 경우는 대학 2년을 마치고 전문적인 교육훈련경험이 있었으며, 따라서 전공을 살려서 직종을 선택한 경우였다. 또한 임금수준도 필리핀에서는 중간 수준의 임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냥 한달에...많이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더 많이 받으면 좋지만요...” (필리핀 출신 여성 결혼이민자, 간호사 취업경험)

“백화점에서 일했었어요... 그냥 어쩌다보니 백화점에서 물건 파는 거 했어요...salary는 그냥 그랬어요. 그냥 적당했던 거 같아요.” (필리핀 출신 여성 결혼이민자, 백화점 판매원 취업경험)

베트남 출신 여성 결혼이민자들 중에서 모국에서 취업한 경험이 있는 여성들은 사무직, 서비스직 또는 생산직에 근무한 여성들이 대부분 이었다. 대부분의 베트남 출신 여성들은 고등학교 졸업의 학력을 가지고 있었으나 베트남의 경제 및 사회상황이 반영된 것일 수도 있지만, 이들 여성들은 주로 생산직에서 일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서비스부문에서 일했던 여성들은 호텔이나 레스토랑에서 서빙하는 일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필리핀 이외 지역 출신 여성 결혼이민자들 중에서도 학력수준이 높은 경우는 보육교사, 초등교사, 컴퓨터 프로그래머, 또는 회계사 등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여성들

도 있었다. 이들 여성들은 현재 한국에서의 취업현실에 비교적 큰 불만을 가지고 있었으며, 본국에서의 취업지위를 다시 한국에서도 획득할 수 있기를 비교적 강하게 희망하고 있었다. 특히, 멕시코나 캄보디아 출신 여성 결혼이민자들은 본국에서 교사, 통·번역가, 프로그래머 등의 전문직종에 종사한 경험이 있었으며, 모국어와 한국어 이외의 다른 외국어에도 능통하여 취업에 대한 강한 욕구를 가지고 있었다.

“컴퓨터 선생님 했어요.... 한국에서도 선생님하고 싶은데 한국말이 서툴러서인가... 잘 안되요. 통역도 했었어요.” (멕시코 출신 여성 결혼이민자, 컴퓨터 교사 등 취업경험)

그러나 20대 초·중반의 여성들 대부분은 본국에서 취업한 경험이 없이 학교졸업 후 바로 결혼을 통해서 한국으로 입국한 경우로 나타났다. 다만 심층면접에 참여한 여성 결혼이민자들 대부분이 현재 한국남편과의 결혼계기 및 과정에 대해서는 응답하기를 매우 꺼려했기 때문에 학교졸업이후 왜 그리고 얼마동안이나 실업 또는 비경제활동상태로 머물렀었는가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얻을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나. 한국에서의 취업경험

조사대상 여성 결혼이민자들의 한국에서의 취업경험은 남편의 현재 취업여부, 현재 가구소득 수준(또는 남편의 월평균 수입), 영어활용 가능 여부 및 학력수준에 의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이 악화되면서 여성 결혼이민자들의 남편들이 실직한 경우가 많았고, 따라서 이들 여성 결혼이민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여성 결혼이민자들은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취업했거나 취업하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이 지금 일 안해요. 돈 필요해요. 가끔 벽에 바르는 일(도배)하러가요. 생활비 너무 부족해요. 애들 학원비도 내야해요. 그래서 내가 일해야 해요.” (베트남 출신 여성 결혼이민자, 가사서비스 등 취업 경험)

“남편이 장사했어요. 신발 팔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가게 잘 안돼요. 그래서 돈이 없어요. 아무 일이나 했으면 좋겠어요.” (중국 출신 여성 결혼이민자, 현재 취업프로그램 수강 중)

또한 남편이 현재 취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교육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수입이 더 필요한 이유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들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층면접에 참여한 여성 결혼이민자들 대부분이 이에 해당하는데, 이들 여성들은 자신들의 취업의 첫 번째 목적으로 자녀 사교육비 충당, 그 다음으로 현재 가정을 위한 생활비 충당을 지적했다.

“애들 학원비 너무 많이 들어요. 지난 주에 어린이집에서 눈썰매장 갔는데 6만원 들었어요. 피아노도 배워야하고 학교공부 학원도 가야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내가 공부를 못 가르쳐줘요. 그래서 학원에 가야해요.” (베트남 출신 여성 결혼이민자, 구직프로그램에 등록 중)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한국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이유는 현재 한국가정의 경제적 필요뿐만 아니라 본국에 있는 가족들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모국방문을 계획하기 위해서 취업하기를 희망하는 경우도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특히, 결혼 후 한 번도 모국을 방문한 경험이 없는 여성들은 저축을 통해서 모국을 방문하거나 모국에 계신 부모님에게 용돈을 보내드리기 위해 일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났다.

“부모님께 한 번도 못 갔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부모님 아팠는데 전화만 했어요. 돈도 보내드리고 싶은데... 남편한테 말 못해요. 그래서 돈 많이 벌으면 좋겠어요.” (캄보디아 출신 여성 결혼이민자, 구직프로그램 등록 중)

“남편 돈인데 부모님 용돈 못 드려요. 내가 벌어서 해야 해요. 내가 벌어서 애들 학원비도 하고 부모님께도 보내고, 그리고 남으면 저축할래요.” (몽골 출신 여성 결혼이민자, 식당보조 취업경험)

취업경험을 살펴보면, 고학력 여성이면서 영어구사능력이 자유로운 여성 결혼이민자들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영어유치원 교사나 보육원 보모로서 시간제 근무를 한 경험이 있거나 현재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초대학 경험이 있는 여성들은 단순 사무직이나 판매직에 종사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여성 결혼이민자가 가장 용이하게 진입할 수 있었던 일자리는 가사서비스, 아이돌보미 등 가정내 돌봄서비스 일자리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언어와 외모 측면에서 거부감이 가장 적다고 할 수 있는 조선족이나 중국출신 여성들은 가사도우미

나 간병인으로 취업한 경험이 가장 많았으며, 현재도 간헐적으로라도 가사도우미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국출신이 아닌 여성들이라도 본국에서 간호대학이나 간호사 자격증이 있는 여성이민자들은 간병인으로 취업하기를 희망하고 있었으나 언어장벽으로 인해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병 같은 일했다면 좋겠어요. 중국에서 간호사했었어요. 그게 월급도 많고... 그런데 말이 이상하다고 싫어해요. 가끔씩 아는 언니가 소개해주면 일하러 가요.” (중국출신 여성 결혼이민자, 간병인 취업경험)

“집안일 해주는 거...네, 가사일어요. 저도 한국사람이라서 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잘 없어요. 별로 기술이 없어서 청소나 빨래 같은 거 깔끔하게 잘하는데... 일하는데 많이는 못해요. 옆에서 소개해주면 하고...아니면 못하고.” (조선족 출신 여성 결혼이민자, 가사도우미 취업경험)

“간호사로 일했어요...병원에서 일하고도 싶었는데... 아픈 할머니 돌봤어요. 간호사였기 때문에 잘 할 수 있는데...한국말이 서툴러서 잘 안되나봐요. 가끔씩 일해요.” (필리핀 출신 여성 결혼이민자, 간병인 취업경험)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가사서비스 만큼 많이 취업하는 일자리는 서비스업종에서 식당서빙, 주방도우미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일자리는 한국말이 능숙한 조선족 출신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구직경로는 주변의 아는 조선족 여성 결혼이민자들의 소개로 일자리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력과 상관없이 취업이 상대적으로 손쉬웠으며, 특별한 직업훈련 없이도 취업이 가능한 것이기에 때문에 이들 여성들이 임시일자리로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결혼상태를 유지하면서 식당에서 일하는 여성 결혼이민자들의 대부분은 자녀양육 및 본인 가정을 위한 가사일로 인해 종일제로 일하기보다는 시간제 중 점심시간을 포함한 오전 및 이른 오후시간 동안에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당에서 일해요....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요.... 3시 넘으면 애들이 학교에서 와요. 그래서 일 못해요. 한 시간에 6천원 받아요.... 다른 한국 사람들하고 같이 받는 거예요.... 계속 이 일할 생각은 없고요... 애들 좀 크면 사무실에서 일하고 싶어요. 중국에서 사무실에서 일하는 거 했거든요.” (조선족 출신 여성 결혼이민자, 식당보조 취업경험)

“식당에서 서빙하는 거해요. 다른 일도 했었는데, 이게(식당 서빙일) 제일 많아요.... 하루종일해요... 남편이랑 같이 안 살아서 괜찮아요. 집세도 내야하고... 돈 많이 벌어야 해요. 집세도 내야하고... 중국에 아들 학비도 줘야해요.” (조선족 출신 여성 결혼이민자, 식당보조 등 취업경험)

또한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는 제조업에 취업한 여성들도 있었으며, 가정에 자녀를 돌볼 가족성원이 없거나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여성 결혼이민자들은 인형봉재, 단순한 부품조립 등 공장에서 하청을 받아 가정에서 일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이들 여성들 대부분은 현재의 일을 지속적으로 할 생각은 없었으며, 보다 나은 일자리로 이동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일자리를 바꾸기를 희망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낮은 급여수준이었다. 일당제로 지급되는 가내 수공업 및 조립 작업은 일일 수당이 평균 4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으며, 근로시간은 최장 13시간까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비교적 한국어가 능통한 중국 조선족 출신의 여성결혼이민자들은 방문판매 등 영업직에서 취업한 경험이 있었으며, 영어에 능통하면서 한국어를 습득한 필리핀출신 여성 결혼이민자들의 경우는 한국어 습득 후 단시간 영어강사로 취업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여성들의 경우는 언어에 능숙하다는 큰 장점을 살리면서 비교적 높은 수입과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보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같은 일을 하는 한국인들에 비해서 근로시간은 길었으며 임금수준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도 한국인이잖아요. 한국말 잘하고요. 방문으로 화장품 팔았어요. 그것 말고도 이것저것 하긴 했어요. 근데 방문화장품 판매하면서 수입이 제일 좋았어요. 한 달에 200만원 벌었어요. 식당에서도 일하고 공장에서도 일했는데 그만큼 못 벌어요.” (조선족 출신 여성 결혼이민자, 방문판매원 취업경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2시간씩 나가요. 필리핀에서도 애들 가르치는 일 했었어요. 애들이랑 있는 거 너무 좋아해요. 한국에서 자격증도 땀어요. 일 더하고 싶은데 우리 애가 너무 어려서 오후에는 일 못해요.... 한 달에 20만원 받아요. 너무 적은 거 같아요. 그래도 다른 데가 없어요.” (필리핀 출신 여성 결혼이민자, 영어유치원 교사취업경험)

심층면접에 참여한 여성 결혼이민자들의 한국에서의 취업경험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은 일자리의 유형에 상관없이 근로시간에 비해 임금수준이 매우 낮다는 점이다. 같은 일을 하는 한국인들에 비해 여성 결혼이민자들은 평균 50%정도 낮은 임금을 받는 경향이 나타났다. 다만, 단순서비스직으로 분류될 수 있는 식당보조와 같은 일자리에서는 임금차별이 매우 미미한 반면, 영어 유치원교사나 생산직 근로자들의 경우는 비교적 큰 임금차별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어가 능통하지 않은 경우에는 취업 후 3개월 이전에 실직을 경험하는 경향도 나타났다.

다. 희망 일자리 특성

향후 희망일자리에 대한 욕구조사결과, 학력수준에 따라서 희망일자리가 뚜렷하게 구분되는 특징이 나타났다. 고등학교 졸업이상 여성 결혼이민자들은 대부분이 준전문직 이상의 일자리를 희망하고 있으며, 이에 맞는 훈련프로그램 지원을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영어권 출신인 경우에는 유아대상 영어강사, 한국과의 무역이 활발한 지역출신 여성 결혼이민자들은 통역관 또는 번역가를 희망하고 있었다. 또한 중국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인식하면서 유아대상 중국어 강사를 희망하거나 보육교사를 희망하는 여성 결혼이민자들도 있었다.

고졸학력의 여성 결혼이민자들 중에는 사무직이나 생산직 일자리를 희망하는 경우가 비교적 많이 나타났다. 사무직을 희망하는 여성들의 경우, 모국에서 사무직 취업 경험이 있었으며 자녀 때문에 괜찮은 일자리로서 사무직을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생산직 일자리를 희망하는 여성들의 경우, “여성 결혼이민자에게 한국에서 취업가능 일자리는 생산직 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들 여성들은 현재에서 주로 하청 받은 단순 조립 등의 일을 가정에서 하고 있거나 본국에서 생산직으로 취업한 경험이 있는 여성들이 대부분이었다. 이들 여성들의 특징은 현재 경제적 어려움이 크거나 남편이 생산직에 종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주로 공단지역에 거주하는 경우로 조사되었다.

또한 중학교 학력 수준의 여성 결혼이민자들은 창업을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수입이 비교적 높다는 점 때문에 미용실, 식품점, 음식점 등 창업을 희망하고 있으나, 다양한 사회적 장애물을 창업의 어려움으로 지적하고 있었다. 예를 들면, 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는 현실과 한국어에 능통하지 못한 점, 그리고 판로개척이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특별한 취업경험이나 직업교육에 대한 욕구가 없는 여성 결혼이민자들은 가사도우미나 간병인 일자리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들 일자리에 진입하기 위해서 필요한 한국의 가족문화나 음식문화를 포함한 생활문화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 지속적으로 일자리 연계가 되지 못하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다.

2. 취업관련 훈련 참여 경험 및 직업훈련프로그램 욕구

심층면접에 참여한 여성 결혼이민자들 대부분은 한국에서 취업관련 프로그램을 통해서 직업훈련을 경험한 사례가 매우 적게 나타났다. 취업프로그램을 경험하지 못한 가장 주된 이유는 정보의 부족으로 나타났다. 면접에 참여한 여성 결혼이민자들 대부분은 한국어 교육 이외의 다른 다양한 프로그램이 지원되고 있다는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있다 하더라도 정보의 내용이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가장 많이 경험한 다문화가족 지원 프로그램은 한국어 강좌로서 면접참여 여성들 전원이 단기 또는 중장기의 프로그램 수강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족 출신으로서 한국어를 이미 습득하고 입국한 여성들도 역량을 교정하고 새로운 단어와 문화를 습득하기 위해서 단기의 한국강좌 수강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한국어 강좌를 수강하는 여성 결혼이민자들은 취업목적보다는 한국에서의 가족들과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자녀양육 등의 이유로 수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다만, 한국어 강좌를 취업을 위한 디딤돌로 인식하고 있는 여성들의 경우는 현재의 한국어 강좌 프로그램의 수준을 보다 세분화하여 전문 강사인력이 지도하는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 수업 듣고 한국어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 수업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더 좋은 분(전문적인 강사)이었으면 좋겠어요. 이 수업 들으면 이제 한국어 수업 더 없어요. 그런데 저는 한국말 아주 잘하지 못하거든요.” (캄보디아 출신 여성 결혼이민자, 한국어 강좌 수강 중)

“저는 통역관하고 싶어요. 그래서 한국말 아주 잘해야 해요. 그런데 한국말 수업 더 들을 수 없어요. 이제 없어요. 더 듣고 싶은데...” (멕시코 출신 여성 결혼이민자, 보육교사 등 취업경험).

“더 전문적인 한국 선생님이 한국어 수업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설명을 잘 못 하는 거 같아요.... 전 선생님하고 싶은데 한국말 잘 해야 해요. 억양도 고쳐야 해요. 취업할 때 항상 물어봐요. 고향이 어디냐고.” (조선족 출신 여성 결혼이민자, 식당서빙 등 취업경험)

여성 결혼이민자들은 취업하는데 한국어 실력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하게 인지하는 편이었으며, 따라서 현재 제공되고 있는 한국어 프로그램은 초급 또는 중급수준밖에는 지원하지 못한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선족 출신이나 통번역 일을 희망하는 여성들은 높은 수준의 한국어 실력과 억양의 문제까지 바로잡을 수 있는 고위 한국어 강좌에 대한 높은 수요를 나타냈다.

필리핀과 중국출신 여성들을 중심으로, 희망하는 직업훈련프로그램은 바로 보육교사자격증 취득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나타났다. 영어를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는 필리핀 출신 여성 결혼이민자들은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보육교사 프로그램을 통해서 뿐 아니라 주변에서 같은 필리핀 출신 여성 결혼이민자들의 영어유치원 교사 취업 성공사례를 통해서 영어유치원 교사가 될 수 있는 훈련프로그램을 비교적 높게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여성들은 자신들의 비교우위가 영어구사능력에 있다는 점을 잘 인지하고 있었으며, 따라서 이러한 장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훈련프로그램을 원하고 있었다.

“지금 영어유치원 다녀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2시간씩.... 한국에서 훈련받고 license(자격증)받았어요. 그런데 취업을 잘 안 시켜줘요. 그리고 더 훈련받고 싶어요.” (필리핀 출신 여성 결혼이민자, 현재 영어유치원 보조교사)

그러나 이들 여성들의 공통적인 문제점은 어느 기관을 통해서 이러한 훈련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으며,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수강할 수 있는가에 대한 정보가 매우 미흡한 실정이었으며, 결과적으로 직접 수강하거나 영어유치원이나 보육기관에 취업한 경험이 있는 여성들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그래요? 나도 애들 좋아해서 유치원 선생님하고 싶어요.... 네...영어 잘하죠... 그런데 어디 가서 그런 거 들어요?... 아? 돈 안내고 들어요? 듣고 싶어요.” (필리핀 출신 여성 결혼이민자, 구직센터에 등록 중)

또한 한국과의 경제교류가 활발한 동남아시아 출신 여성 결혼이민자들은 통·번역 직종을 희망하면서 이와 관련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보다 세분화된 한국어 프로그램 뿐 아니라 자신들의 모국어를 활용한 통역이나 번역가로 활동할 수 있기 위해서 관련 훈련프로그램을 수강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역하고 싶은데 한국말이랑 캄보디아 말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래요. 그런데 그런 건 어디서 배워야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한국말만 배우고 있어요... 꼭 통역하는 거 배우고 싶은데...”(캄보디아 출신 여성 결혼이민자, 현재 한국어 수강 중)

“통역이랑 번역 같은 거하고 싶어요. 스페인어랑 영어랑 다 해요. 지금 한국말 배운지도 조금 됐구요. 그런데 머 또 배워야할 수 있나요?...그런 거 말고 돈도 좀 많이 벌려면 자격증 있어야 해요?” (멕시코 출신 여성 결혼이민자, 보육교사 등 취업 경험)

이들 여성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은 희망하는 직종과 이를 위해서 훈련받아야 하는 훈련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를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경로를 잘 알고 있지 못하며, 결과적으로 많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비교적 낮은 학력수준과 취업경험이 부족한 여성 결혼이민자들의 경우, 가사 서비스나 간병일자리를 희망하였으며, 따라서 관련 프로그램을 수강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병일 관련해서는 보다 전문적인 훈련프로그램과 이를 통한 자격증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가사도우미나 간병일을 희망하는 여성들은 대부분이 한국문화를 보다 정확하고 자세하게 익힐 수 있는 프로그램을 희망하고 있었다.

“집안일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내가 매일 집에서 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조선족)를 한국사람들이 싫어해요. 한국음식도 잘 못하고 빨래도

잘 못하고 청소하는 것도 좀 싫은가 봐요.... 그래서 한국사람들 음식이랑 집안일 하는 거랑... 문화같은 거 잘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몇 번 소개로 갔는데 한두번 부르고는 그만 오래요.” (조선족 출신 여성 결혼이민자, 가사도우미 등 취업경험)

“한국음식 잘 못 만들어서 못해요.... 베트남에서 공장에 있었어요... 음식 만드는 거, 이런 거 배우면 잘 할 수 있는데...” (베트남 출신 여성 결혼이민자, 가내수공업 등 취업경험)

또한 한국에 거주한 이후 다양한 일자리에서의 취업경험을 바탕으로 창업을 희망하는 여성들은 창업관련 프로그램지원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여성들은 현재 미용기술이나 애견미용 등의 기술습득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따라서 관련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훈련프로그램과 또한 창업을 하는데 필요한 절차 등을 포함한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지원을 희망하고 있었다.

“내 가게 하고 싶어요. 나 머리 자르고 하는 거 잘해요. 베트남에서 했었어요.... 맞아요.. 미용기술.. 그거 배워서 내 가게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런 건 어디서 가르쳐줘요?”(베트남 출신 여성 결혼이민자, 한국어 강좌 수강 중)

“동물들 좋아하는데... 그런 거 가게하고 싶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어디서 가르쳐주는 곳 있으면 좋겠어요” (베트남 출신 여성 결혼이민자, 가내 수공업 등 취업 경험)

“내 가게 있으면 좋겠어요. 먹는 거 파는 가게요....네...식품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도 배워야하나요?” (중국출신 여성 결혼이민자, 식당 보조 등 취업경험)

이들 여성 결혼이민자들의 취업관련 프로그램 경험과 희망하는 훈련프로그램에 대한 욕구를 정리해보면, 우선 이들 여성들은 현재 제공되고 있는 훈련프로그램에 대한 정보가 매우 부족하다는 점이다. 어느 기관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어떠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는지, 그리고 수강료 지원여부에 대한 정보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지식을 잘 갖추고 있지 못했다. 특히, 현재 한국어를 수강하고 있는 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지원프로그램 조차도 알고 있지 못한 상황이었다.

또한 이들 여성들은 희망하는 일자리와 이들 일자리에 취업하기 위해 필요한 훈

련프로그램간의 연계를 잘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었다. 예를 들어, 희망일자리는 안정적인 사무직이었으나, 원하는 훈련프로그램은 창업을 위한 지원이라든가, 희망일자리는 생산직이었으나, 원하는 훈련프로그램은 간병인 등 취업관련 뚜렷하고 구체적인 계획이나 욕구를 가지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들 여성 결혼이민자들의 취업 및 훈련프로그램 관련 욕구는 주변 결혼이민자들과의 교류 속에서 형성된 것이 대부분이었으며, 자신의 전공이나 취향과는 별도로 수입이 높은 일자리를 가장 높게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정책적 지원에 대한 욕구

가. 일자리 관련 정책적 지원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노동시장에서 경험하는 가장 큰 문제는 인종에 대한 차별로 지적되었다. 이는 여성 결혼이민자들 스스로가 인지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적한 문제이다. 이들 여성들은 한국어가 능통함에도 불구하고 면접 후 외국인 채용을 꺼리는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으며, 이러한 인종차별은 취업 후에는 임금수준에 반영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차별적 경험은 여성 결혼이민자의 출신국이나 학력수준에 상관없이 심층면접에 참여한 모든 층의 여성들이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따라서 이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무엇보다 시급한 것으로 지적될 수 있다.

“...면접 갔다가 외국인 싫다고 해서 안됐어요. 전 조선족이고 사실 조선족은 한국사람이잖아요. 그리고 한국말도 잘하는데...말하는 거 듣더니 딱 알아차렸어요. 한국사람 아니라고. 싫대요.” (조선족 출신 여성 결혼이민자)
 “한국사람인거 티 안 낼라고 무지 노력하는데 사람들이 자꾸 고향을 물어봐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얘기하게 되고...안 좋아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힘들어요.” (조선족 출신 여성 결혼이민자, 식당서빙 취업경험)

“같은 어린이집 선생님은 저보다 많이 받는 거 같아요.... 전 매일 2시간씩 일하고 한 달에 20만원 받거든요. 영어는 문제없는데도 좀 억울해요.” (필리핀 출신 여성 결혼이민자, 어린이집 영어보조교사 취업경험)

또한 ‘사람-일자리 연계 서비스’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뤄지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층면접에 참여한 여성 결혼이민자들 전원은 공공구직기관을 통해서 구직등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실질적인 구직서비스를 받은 경험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여성들이 취업한 경로는 대부분이 같은 출신국의 여성 결혼이민자들이나 이웃, 가족친지를 통한 비공식적 알선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일자리에 관한 자세하고 정확한 정보 없이 취업하는 경향이 있으며, 근로조건이 비교적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 등록한지 오래됐는데 연락받은 적 없어요...음...주변에서 여기다 신청하면 된다고 해서 했는데...우리 고모가 소개해줘서 일했지 여기서는 안 해줬어요.” (베트남 출신 여성 결혼이민자, 가사도우미 등 취업경험)

“여기다 등록하면 소개시켜줘요? 오늘 등록하긴 했는데...여기서 전화받는 사람 없는 거 같은데...어디에 가면 취직 잘 시켜주나요? 답답해서요.” (필리핀 출신 여성 결혼이민자, 생산직 등 취업경험)

또한 한국어를 포함한 여성 결혼이민자 적응지원프로그램이 제공되는 기관과 취업을 지원하는 기관이 다른 경우, 여성 결혼이민자들의 혼란은 더욱 가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결혼이민자들의 경우, 새로운 환경에 적응과 동시에 가족 내 역할수행으로 인해 외부활동을 위한 시간이 여유롭지도, 자유롭지도 못한 상황을 경험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 기관을 방문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적합한 취업 전략을 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이 지적된다. 따라서 내국인을 위한 취업관련 원-스톱서비스(one-stop service)와 같은 일관되고 통일된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절실한 정책적 지원으로 지적되었다.

면접에 참여한 여성 결혼이민자들 중 자녀를 한명이라도 두고 있는 여성들은 모두 ‘자녀양육’으로 인한 취업활동의 어려움을 지적하였으며, 동시에 ‘외국인 여성’에 대한 가시적, 비가시적 차별의 문제로 인한 어려움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여성 결혼이민자들은 한국에 보다 적극적으로 통합되는 방법은 경제적 능력을 획득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 모국의 가족을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으로 경제활동에 대한 강한 욕구를 표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국에서의 가족들의 심리적·정

서적 지원, 특히 어린자녀 양육에 대한 지원 부재는 이들 여성들이 경제활동을 하는데 제도적 장벽만큼이나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여기서는 여성 결혼이민자들의 희망직종을 살펴보고, 동시에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이들 여성들이 취업할 수 있는 적합 직종을 살펴보고자 한다. 더 나아가서 이들 여성들이 이들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방안을 살펴보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다음의 <표 8-3>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성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에서 취업이나 창업하기를 희망하는 분야에 대한 조사결과를 정리한 결과이다.

면접에 참여한 26명의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취업희망분야는 크게 5분야로 정리될 수 있다. 서비스업, 숙박업 및 음식업, 도소매업, 제조업, 그리고 창업이다. 서비스업은 다시 교육서비스업, 보건복지서비스업, 그리고 개인서비스업으로 구분 가능하였는데, 교육서비스분야에 취업하기를 희망하는 여성들은 모두 6명, 보건복지서비스업은 4명, 그리고 개인서비스업도 4명으로 총 16명이 서비스업 분야에 취업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숙박업 및 음식업은 한식음식점과 기타 외국음식점으로 구분 가능하였는데, 총 3명이 이들 분야에 취업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결과 나타났다. 또한 도소매업 중 상품 소매업종에 취업하기를 희망하는 여성 결혼이민자는 1명이었다. 제조업 중에서는 식품가공 등 지역기반 제조업종에 종사하기를 희망하는 여성 결혼이민자가 5명으로서 비교적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마지막으로 고용되기 보다는 창업을 선호하는 여성 결혼이민자들의 경우에는 개인서비스나 상품 소매업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면서, 미용실, 애견관리사, 식품판매 등의 소매점을 창업하기를 희망하고 있다(총 3명).

〈표 8-3〉 여성 결혼이민자 취업 및 창업희망직종: 심층면접 결과

(단위: 명)

산업분류	취업희망 업종	취업희망 직종	빈도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원어민강사(언어 및 다문화), 학원강사, 보육강사, 통·번역사 등	6
	보건복지서비스업	간병인, 케어복지사(아동, 노인), 산모도우미, 베이비시터 등	4
	개인서비스	관광가이드, 미용사, 마사지요원, 가사도우미, 세탁처리원, 봉제수선인 등	4
숙박업 및 음식업	한식음식점 기타 외국음식점	접객(서빙)종사자 등 외국요리전문가, 요리보조인 등	3
도소매업	상품 소매업종	소매인(식품 등)	1
제조업	식품가공 등 지역기반 제조업종	생산근로자	5
창업	개인서비스 상품소매업	미용실, 애견관리사 소매점(식품판매 등)	3

이와 같은 심층면접을 통한 여성 결혼이민자들의 취업 및 창업희망 분야에 대한 조사결과에서 주목할 만한 사항은 면접에 참여한 여성 결혼이민자들 대부분이 뚜렷하게 선호하거나 희망하는 취업분야가 없다는 점이다. 2~3명 정도의 여성 결혼이민자들은 통번역을 강력하게 희망하였고, 2명의 여성 결혼이민자는 영어유치원 교사를 희망하는 등 매우 구체적인 희망 분야를 제시한 반면, 상당 부분의 여성 결혼이민자들은 인터뷰가 진행되면서 지속적으로 희망하는 취업분야가 변하거나 여러 분야를 동시에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다양한 분야를 동시에 희망하는 여성 결혼이민자들은 희망하는 각 분야가 서로 매우 이질적이어서 취업을 통해서 분야끼리의 연계성이 매우 어려운 문제점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이들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한국의 노동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며 특히 한국 노동시장의 일자리 구조에 대한 지식이 매우 낮다는 점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창업을 희망하는 여성 결혼이민자의 경우 창업을 위한 행정적 절차 및 시장에서의 경쟁력에 대한 제고 없이 모국에서 가족들이 운영했거나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취업했었던 업종을 직접 경영해보고 싶다는 단순한 동기를 가지고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현실적이며, 실현가능성에 대한 평가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나. 일·가족양립 관련 정책적 지원

앞서 살펴보았듯이, 여성 결혼이민자들 중에서 한국으로 이주한 이후에 출산경험이 있으면서 현재 어린자녀를 돌보고 있는 여성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문제는 자녀양육과 취업을 병행하는데 따르는 보육서비스의 부재이다. 한국에서의 취업경험이 있거나 현재 취업하고 있는 여성들 대부분이 제한된 직종선택 및 근로시간을 선택한 이유로 자녀양육을 가장 큰 이유로 지적하였다.

“애들 때문이에요. 오전 10시부터 낮 2~3시까지만 일해요....누가 애들만 좀 더 봐주면 일 더하고 싶어요. 애들 학원비도 벌어야하고요. 애들 학교 갔다 오면 숙제도 봐주고 간식도 좀 먹게 해주고...한 7시정도까지만 봐줬으면 좋겠어요.” (조선족 출신 여성 결혼이민자, 식당보조 등 취업경험)

“...애들 봐주는 거요. 그것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럼 지금보다 몇 시간 더 일하고 그럼 월급도 훨씬 더 받을 텐데.... 애가 2~3시면 돌아와서 더 일할 수가 없어요.” (필리핀출산 여성 결혼이민자, 영어보조강사 등 취업경험)

“일도 더하고....애들 공부도 좀 봐줬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애들 공부 못 봐주잖아요. 남편도 모르겠대요.” (중국출신 여성 결혼이민자, 식당보조 등 취업경험)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일·가족양립의 문제는 우리나라 취업여성이 경험하고 있는 문제와 차이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유아원이나 취학아동들이 오후 2~3시 이후에는 집으로 귀가하기 때문에 등교 후 귀가하기 전까지의 시간대인 오전 9~10시부터 오후 2~3시까지만 취업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후에는 가정에서 자녀보육 및 교육에 전념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미 노동시장에서 내국인에 비해 더 많은 기회의 제약을 경험하고 있는 여성 결혼이민자들은 자녀양육의 문제로 인해 취업의 기회를 더욱 제약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가지고 있는 보육지원의 욕구는 자녀의 연령대에 따라 차별화되어 나타나 미취학 아동의 자녀를 두고 있는 여성들은 외부

보육기관을 통해서 보육서비스를 지원받기 보다는 가정을 방문하여 자녀를 가정에서 돌봐주는 가정 내 보육서비스를 희망하고 있었다. 그러나 취학자녀를 두고 있는 여성들은 가정 내에서 자녀를 돌봐주는 서비스보다는 공보육시설이나 방과후 교실을 통해서 소규모의 아이들의 학습을 돌봐주는 서비스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집에서 우리 애를 봐줬으면 좋겠어요. 어린데 또 늦게까지 집밖에 있는 게 좀 그래서요. 남편도 애 크면 일하래요” (베트남 출신 여성 결혼 이민자, 구직활동 중)

“애들 공부 좀 봐주고요. 제가 공부를 못 봐주잖아요. 남편도 잘 모르겠대요. 학교 갔다 와서 간식도 좀 먹고 숙제도 봐주면 너무 좋겠어요... 컷는데 집보다는 방과후 교실 같은데서 좀 잘 봐줬으면 좋겠어요.” (조선족 출신 여성 결혼이민자, 구직활동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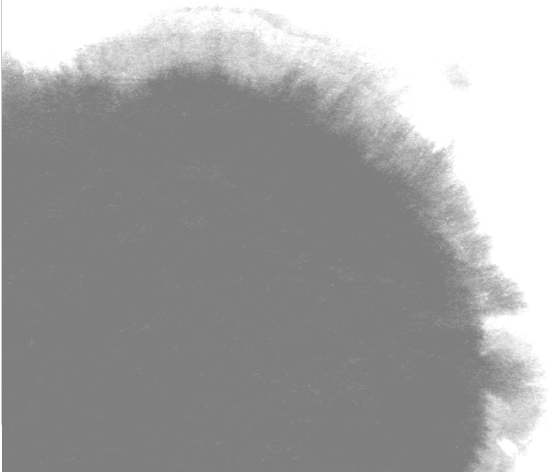
“애 봐주면 좋죠. 집에서만 일안해도 되니까요. 방과후 교실 같은 거...” (필리핀 출신 여성 결혼이민자, 가내 수공업 등 취업경험)

물론 이들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희망하는 보육 및 교육서비스는 무료 또는 저렴한 가격의 서비스로서 저녁식사 시간까지 담당하는 서비스를 희망하고 있었다. 특히, 취학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방과후 교육의 강화가 이들 여성들의 취업지원 뿐 아니라 다문화가정 내 아이들의 학업성취와 사회적응을 위해서도 절실하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09

여성 결혼이민자의 취업지원을 위한

정책제언



제9장 여성 결혼이민자의 취업지원을 위한 정책제언

제1절 취업가능 직종 개발 및 다양화

본 장에서는 여성 결혼이민자들의 희망직종을 살펴보고, 이를 반영한 적합 직종을 논의한다. 아울러 여성 결혼이민자들에게 적합한 직종에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취업 지원 방안에도 대해서도 살펴본다. 앞서 여성 결혼이민자들의 전국규모 실태조사와 취업경력 및 경제활동 욕구 심층면접 분석에서도 나타났듯이, 여성 결혼이민자들은 경제적 활동에 대한 욕구가 매우 강한 편이다. 그러나 이들 여성들이 노동시장에서 경험하는 문제는 내국인 여성들이 경험하는 문제보다 더 복잡하며 다차원적으로 해결을 요한다고 할 수 있다.

1. 산업체 시각에서의 여성 결혼이민자 취업 적합분야

노동시장에서의 이들 여성 결혼이민자들은 어떠한 분야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가? 다음의 <표 9-1>은 서울지방노동청이 2006년에 실시한 산업체대상 여성 결혼이민자의 취업적합분야 조사에 대한 분석결과이다. 조사결과를 자세하게 살펴보면, 우선 업종은 크게 5개 업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관광서비스업, 음식서비스업, 보건복지서비스업, 제조업, 그리고 그 외의 기타 업종이다. 교육관광서비스업종은 다시 4개의 업종으로 구성되는데, 일반여행업, 호텔서비스업, 관광레저업, 그리고 교육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교육사업이 가장 적합한 업종으로 선정되었으며(약 60.0%), 그 다음으로는 일반여행업으로 약 32.5%로 나타났다.

산업체에 의한 평가에서 교육사업 분야가 여성 결혼이민자에게 적합하다는 평가는

앞서 살펴본 여성 결혼이민자들의 취업희망 분야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여성 결혼이민자들에 대한 적절한 직업훈련이 뒷받침된다면 이들의 취업가능성이 매우 높은 분야로 평가될 수 있다.

다음으로 음식서비스업종은 한식, 중식, 일식, 양식, 제과·제빵의 세분화된 업종을 포함하고 있다. 이들 중에서 한식업이 가장 적합한 직종으로 선정되어 약 31.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중식업이 23.3%, 제과·제빵이 16.3% 순서로 적합한 분야로 선정되었다. 이들 분야는 현재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많이 취업하고 있는 분야들이며, 특히 취업하고 있는 여성 결혼이민자들은 한식식당을 중심으로 취업하고 있는 비율이 높다는 점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들 분야는 여성 결혼이민자들에게 자칫 장시간, 저임금 일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일종의 덫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적절한 훈련 및 자격증 취득을 통해서 단순서비스직 뿐 아니라 요리사 등의 보다 나은 일자리로 진입할 수 있는 방안이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서비스분야의 경우는 노인양로시설, 장애인시설, 의료원, 공공 및 산하기관, 용역회사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들 중에서 장애인시설로의 취업이 적합도 면에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26.5%). 그 다음으로는 노인양로요양시설(20.6%)이 차지했으며, 공공 및 산하기관 취업(17.6%)도 적합분야로 선정되었다.

앞서 살펴본 여성 결혼이민자의 취업희망분야 분석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여성 결혼이민자들 중에서는 모국에서 간호사 자격증을 획득했거나 한국에서 관련 분야 프로그램 이수를 통해서 자격증을 취득한 후 요양사나 간병인 등으로 취업하기를 희망하는 경우가 있었다. 따라서 이들 분야도 시장에서의 수요가 공급이 연계될 가능성이 높은 분야이며, 이를 위해서는 적합한 훈련프로그램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제조업분야가 이들 여성들이 취업하기 적합한 분야라고 평가한 비율은 전체 대비 12.1%로서 나타났다. 여성 결혼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한 면접결과에서도 제조업 등 생산직에 취업하기를 희망하는 여성 결혼이민자들의 비율이 비교적 낮은 편이었으며, 시장에서의 수요도 비교적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기타 분야로는 농축산수산업, 일반사무직 등이 선정되었다.

산업체가 선정한 여성 결혼이민자들을 위한 적합 직종 선정결과는 앞서 본 연구

의 심층면접 결과에서 나타난 여성 결혼이민자들의 취업희망 분야와 많은 분야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여성 결혼이민자들의 취업가능성이 비교적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선정된 취업분야 대부분이 중기 이상의 직업훈련교육을 요하는 분야이며, 특히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취업관련 훈련프로그램의 중요성이 다시 한 번 강조될 수밖에 없다.

산업체가 선정한 여성 결혼이민자들에게 취업적합 분야에 덧붙여서, 앞서 심층면접 결과에서 나타난 통번역 등의 전문직은 적합 직종과 개인서비스업 중에서 가사도우미 등의 분야도 여성 결혼이민자들의 취업가능성이 높은 분야로 평가받을 필요가 있다. 그러나 가사도우미 등의 개인서비스 일자리는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우선적으로 한국문화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지식을 갖춰야하는 문제가 남아있다. 따라서 이들 직종에 보다 지속적인 취업이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한국사회와 문화에 대한 다양한 교육훈련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표 9-1〉 산업체들이 보는 여성 결혼이민자의 취업 적합분야

업종		빈도	비율
교육·관광 서비스업	일반여행업	26	32.5
	호텔서비스업	4	5.0
	관광레저업	2	2.5
	교육사업	48	60.0
	소계	80(전체대비 25.7%)	100.0
음식서비스업	한식	27	31.4
	중식	20	23.3
	일식	12	14.0
	양식	13	15.1
	제과·제빵	14	16.3
	소계	86(전체대비 28.2%)	100.0
보건복지서비스업	노인양로요양시설	14	20.6
	장애인시설	18	26.5
	의료원	4	5.9
	공공 및 산하기관	12	17.6
	용역회사	10	14.7
	기타	10	14.7
	소계	68(전체대비 22.3%)	100.0
제조업	일반제조업	37(전체대비 12.1%)	100.0
기타	농축산수산업	5	14.7
	일반사무직	7	20.6
	기타	22	64.7
	소계	34(전체대비 11.1%)	100.0
응답 업체수		305(전체 100.0%)	

자료: 서울지방노동청, 「강원지역 국제결혼 외국여성의 사회적일자리 창출모델 개발을 위한 실태 분석」, 2006.

2. 여성 결혼이민자 취업 적합분야 선정

다음의 <표 9-2>는 본 연구가 수행한 심층면접결과와 선행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산업체 주도 적합 직종 선정결과를 통합하여 수정한 결과를 바탕으로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취업하기에 적합한 분야와 직종을 정리하고 있다. 우선 업종은 크게 4가지로 분류하였다. 서비스업, 숙박업 및 음식업, 도소매업, 그리고 제조업으로 분류하였다. 첫째, 서비스업은 다시 네 분야로 구분될 수 있다. 교육서비스업은 고학력이면 서 영어나 중국어 등을 모국어로 사용하는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선호하는 분야였으며, 노동시장에서의 수요도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원어민 강사, 어학원 강사, 보육원 외국어 강사, 통·번역사 등의 직종이 이들 여성들이 취업하기에 적합한 직종으로 선정하였다.

보건복지서비스업 분야에서는 간병인, 아동과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케어복지사, 베이비시터 등의 직종을 여성 결혼이민자들의 취업적합 직종으로 선정하였다. 이들 분야의 일자리는 우선 최근 우리나라가 노령화 및 여성경제활동 증가로 인해 지속적인 수요가 있는 분야이며, 종사자들의 90% 이상이 여성이며, 단기간의 훈련을 통해서 일자리에 적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성 결혼이민자들에게 적합한 직종으로 평가 받을 수 있다. 또한 여성 결혼이민자들도 간병인이나 베이비시터 등의 일자리에 취업하기를 희망하는 경우가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다. 다만, 이들 일자리가 장시간, 불안고용, 그리고 저임금의 열악한 일자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이들 일자리에 취업함으로써 경제적 불안정이 오히려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을 수 있다. 따라서 체계적인 구직시스템을 통해서 이들 여성들이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로 진입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개인서비스로도 분류될 수 있는 가사, 간병, 보육도우미 일자리에 민간기관을 통해서 이들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진입하게 하기 보다는, 공공부문을 통해서 진입할 수 있는 제도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하겠다.

사업지원서비스 분야에서는 관광가이드를 포함한 여행사직원과 건물청소원 등이 포함되었다.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내국인에 비해 상대적 우위를 가지는 취업능력은 어학능력이라는 점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비

교우위가 가장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는 분야는 앞서 선정한 통·번역사나 어학원 강사 뿐 아니라 관광가이드 등 여행사분야도 포함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문화에 익숙하고 모국의 언어 뿐 아니라 역사, 지리, 그리고 환경에 능통한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취업할 수 있는 분야로 여행관련 분야가 적합하다는 평가이다.

개인서비스업 분야에서는 국제결혼정보회사원, 미용사, 피부관리사, 마사지사, 가사도우미, 세탁처리원, 봉제수선인 등이 포함되었다. 국제결혼정보회사원의 경우,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모국과 한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내국인에 비해 정보력과 언어 및 친화력이 보다 우수하다는 점이 높이 평가될 수 있다. 미용, 피부관리 및 마사지 요원 등의 일자리는 여성 결혼이민자들 중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등의 출신 여성 결혼이민자에게 익숙한, 적합한 직종으로 평가받아 선정되었다. 또한 심층면접에서도 나타났듯이, 이들 국가출신의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희망하는 취업 및 창업분야로 분석되었다.

〈표 9-2〉 여성 결혼이민자의 취업적합분야와 직종

산업분류	세부업종분야	해당직업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 원어민강사(언어 및 다문화), 학원강사, 보육강사, 통·번역사 등
	보건복지서비스업	• 간병인, 케어복지사(아동, 노인), 베이비시터 등
	사업지원서비스	• 여행사직원(관광가이드), 건물청소원, 등
	개인서비스	• 국제결혼정보회사원, 미용사, 피부관리사, 마사지 요원, 가사도우미, 세탁처리원, 봉제수선인 등
숙박업 및 음식업	관광호텔업	• 관광호텔 종사자 등
	한식음식점	• 한식조리사, 접객(서빙)종사자 등
	기타 외국음식점	• 외국요리전문가, 요리보조인 등
도소매업	1차 상품 및 여성관련 상품 소매업종	• 농산품판매인, 소매인(공예품, 화장품, 의류 등)
제조업	지역기반 제조업종	• 생산근로자

자료: 대전지방노동청(2008)이 발표한 「충북지역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취업수요 실태조사 및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의 내용을 본 연구결과에 의하여 수정한 것임.

숙박업 및 음식업 분야에서는 관광호텔업과 음식점업이 선정되었다. 여성 결혼이민자들은 모국어를 포함하여 영어 등 외국어에 능통하다는 장점이 최대한 활용될 수 있는 관광호텔 일자리, 음식점 특히 외국음식점 및 요리전문가 등이 적합 일자리로

선정되었다. 최근 국내에서 동남아시아 음식문화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하여, 동남아시아 계통 음식점에서의 취업 및 요리전문가로의 진입은 이들 여성 결혼이민자들의 취업가능성을 높이고 동시에 처우의 측면에서도 괜찮은 일자리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제조업분야에서는 여성 결혼이민자가 거주하는 지역에 기반을 둔 제조업종이 적합분야로 선정되었다. 심층면접에서도 나타났듯이, 전문적인 기술이 부족한 여성 결혼이민자들의 경우 생산직 취업을 희망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이는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제조업의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들 제조업 분야에 취업하기를 희망하는 여성 결혼이민자들의 경우, 대체적으로 학력이 낮으며, 한국어 활용정도가 비교적 낮았다. 따라서 이들 여성들이 경제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것 뿐 아니라 사회통합적 차원에서도 이들의 한국어 능력향상과 보다 전문화된 기술습득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본 연구가 수행한 여성 결혼이민자의 취업욕구 관련 심층면접 결과에서 창업을 희망하는 경우가 비교적 낮은 비율을 보였다(약 11.5%, 26명 중 3명). 또한 이들 여성들도 창업만을 희망하기 보다는 급여생활자를 선호하는 가운데 궁극적으로 창업을 하고 싶다는 희망을 피력했었다. 따라서 심층면접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가 세부적인 창업적합분야를 선정하는데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검토된 여성 결혼이민자 창업 적합분야를 검토하여 수정·제안하고자 한다.

우선 여성 결혼이민자를 위한 창업전략은 단독창업보다는 2명 이상의 공동창업의 형태가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이는 자금동원의 문제와 아울러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1인 창업보다는 비슷한 여성 결혼이민자들이나 가족들과의 공동창업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대부분의 창업분야는 여성 결혼이민자의 출신국의 특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분야로 선정되었다. 동남아시아 여성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 결혼이민자 인구층에서 동남아시아의 음식문화나 미용문화를 한국에 소개하고 특성을 시장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안되고 있다. 특히, 최근 동남아 음식문화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하여 베트남이나 태국음식점으로 창업하는 전략과, 태국이나 베트남 등

의 마시지 문화를 적응 시장화하는 전략이 포함된다.

향후 결혼을 통한 여성이민자 인구층이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를 바탕으로 한국과 모국의 문화 및 제도에 익숙한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국제결혼정보회사를 창업하는 전략도 제안되었다. 국제결혼 시행 초기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안정적이고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가운데, 이들 국제결혼 경험이 있는 여성들이 직접 결혼시장에서 매개체로 역할을 하는 방안이 제안되었다.

〈표 9-3〉 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 적합한 창업 업종과 권고사항

업태구분	창업업종	권고사항
서비스업	미용실	• 군지역 소도시 이상에서 저가전략으로 미용사 자격이 있는 2~3명의 공동창업이 바람직함.
	피부관리 및 마사지사	• 동남아 발마사지 전통과 유명세를 이용한 특화된 방식으로 창업합이 바람직함.
	관광서비스(통역·가이드)	• 외국인 관광상품을 취급하는 관광에이전트 회사나 관광호텔을 거래처로 하여 관광가이드 및 관광통역서비스 상품을 판매
	국제결혼정보회사	• 국제결혼 경험자로서 느낀 문제점을 개선시킨 후 한국인(남편 등)과 함께 창업하는 것이 바람직함.
	세탁점	• 일반인 대상보다는 공장, 모텔 등 해당지역의 단체 세탁수요처를 찾아 공략하는 창업요망.
음식업	다문화 음식점	• 베트남 쌀국수점처럼 시장수요가 가능한 출신국의 음식을 한국(현지)화시키거나 다문화 음식을 즐길 수 있는 장소로서 창업 바람직함.
도소매업	다문화상품 무역업 또는 다문화 공예품 수입판매점	• 출신국가의 독특한 문화상품을 수입하여 소매상들에게 공급하거나 자체적으로 수입판매점 운영하는 방식이 바람직함.
	홈패션 및 양재수선샵	• 재봉기술이 있는 여성이민자 3~4명이 공동으로 홈인터리어 제품을 수선해주거나 관련 상품을 소도시 지역에서 판매하는 창업이 바람직함.
기타	농장	• 여성이민자 공동으로 참여, 지역특성에 맞는 특산물을 직접 재배, 가공, 판매하는 방식이 바람직함.

자료: 대전지방노동청(2008)이 발표한 「충북지역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취업수요 실태조사 및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의 내용을 본 연구결과에 의하여 수정한 것임.

이 외의 창업분야로는 한국에서 단기간의 직업훈련교육을 통해서 기술과 지식을 습득하여 창업할 수 있는 세탁, 양재, 판매업 등이 선정되었다. 특히, 양재 및 세탁분야는 심층면접에서도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창업하기를 희망하는 분야로 지적되었으며, 이들은 이미 관련 기술을 습득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한국문화에 적합한 추가 훈련을 통해서 시장성을 갖춘 전문인력으로 창업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도시지역 뿐 아니라 농촌지역 여성 결혼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한 창업분야로 여성 이민자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특산물을 직접 재배, 가공, 판매하는 방식이 제안되었다. 농어촌 지역 여성 결혼이민자들의 경우, 취업할 수 있는 산업체가 부족하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들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을 하기 위한 전략으로 특산물을 재배하여 판매하는 창업이 제안되었다. 다만, 이러한 분야는 판로개척이 창업의 성공을 가르는 주요한 문제인 만큼, 정책적 지원을 통해서 이들 여성들의 사업을 지원하는 방안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제2절 취업교육 개선방안

1. 취업연계 높은 프로그램 집중 제공

취업교육을 지원하는 센터의 수적 규모가 많다는 점이 반드시 그 취업교육이수가 취업으로 연계될 가능성까지 높은 것으로 연결되고 있지는 않았다. 앞서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제공하고 있는 취업교육프로그램의 이수율과 취업연계와는 오히려 상관성이 낮게 나타난 결과에서와 같이, 다문화지원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취업교육프로그램도 그 빈도와 취업가능성과는 큰 상관성을 나타내고 있지는 못한 실정이다.

다음의 <표 9-4>는 취업연계가 높은 취업관련 프로그램을 정리한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정보화교육은 가장 많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취업교육임에도 불구하고 과정 이수 후 취업에 성공한 여성 결혼이민자는 단 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다문화강사 프로그램이나 원어민강사 프로그램의 이수자들은 이수 후 취업한 사례가 비교적 높았다. 또한 이·미용 교육이나 요리·제빵기술 교육도 실제로 많은 센터에서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수 후 취업에 성공한 사례는 비교적 낮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기존의 여성 결혼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제공되고 있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사회적응을 위한 교육훈련프로그램과 뚜렷한 차별성을 갖지 못하고,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상대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직종개발 및 훈련프로그램 제공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아울러 심층면접결과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이들 여성 결혼이민자들에게 각 직업교육의 내용 및 기대효

과, 향후 취업가능 직종 및 연계정도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설명과 중장기적인 관리를 통해서 취업교육이수가 교양강좌의 수준에 머무르는 것을 넘어서 이들 여성들에게 실질적인 경제권 확보를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라 할 수 있다.

〈표 9-4〉 취업연계가 높은 프로그램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비율
정보화 교육	2	6.1
영농기술	1	3.0
다문화강사	7	21.2
원어민강사	11	33.3
통·번역사	2	6.1
요리·제빵기술	1	3.0
이·미용	3	9.1
산모·간병 도우미	2	6.1
기타	4	12.1
전체	33	100.0

자료: 보건복지가족부(2008), 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통합진전을 위한 브릿지 프로그램(Bridge Program)추진방안.

2. 취업지원 교육체계 개선방안

여성 결혼이민자의 직업능력을 개발하여 경제적 자립을 유도하기 위한 취업교육은 취업교육 및 지원서비스의 추진체계가 보다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서비스 전달(추진)체계란 ‘중앙과 지역사회 수준에서 급여를 공급하는 자들 간의 조직적인 연계, 그리고 공급자와 소비자들 간의 조직적 연결’로 정의된다(보건복지가족부, 2008). 조직과 조직, 그리고 그 조직의 수혜자들이 유기적으로 상호 연관되어 서비스가 창출, 공급되는 체계를 이루는 것이 서비스 전달체계의 속성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여성 결혼이민자들과 같이 환경에의 적응이 시급하며, 정보전달이 원활하지 않은 집단을 대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한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긴밀하고 체계적으로 연결된 전달체계가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고 서비스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김이선 외, 2007).

전술(前述)한 사례조사의 심층면접 결과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여성 결혼이민자들은 한국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부재

및 부정확성으로 인해 사회통합이 더디게 진행될 수밖에 없고, 더욱이 취업관련 교육 및 정보수집에서 매우 제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성 결혼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전달체계가 통합될 필요성이 있으며, 사회적응프로그램, 취업지원프로그램, 그리고 자녀양육 등의 지원서비스가 하나의 전달체계 속에서 서로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고 운영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현행 취업지원 교육프로그램의 개선방향과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향후 여성 결혼이민자에 대한 주무부처인 여성부를 중심으로 경제활동 제고를 위한 지원체계를 일원화하여 체계적인 지원을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여성인력개발센터 등이 사회통합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과 취업지원 관련 프로그램을 혼재하여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여성 결혼이민자들의 취업능력향상 서비스는 사회적응과 통합과정을 경험한 후에 이루어질 수 있는 서비스의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조직 간의 단계적 전달체계를 구성하여 사회적응 훈련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단계에서 취업능력향상을 위한 교육훈련프로그램 제공이 이루어지는 것이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여성부를 중심으로 여성 결혼이민자들에 적합한 직종 및 교육프로그램이 보다 적극적이고 현실적으로 개발될 필요가 있다. 앞서 논의하였듯이,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희망하는 직종과 현실적으로 취업가능한 직종간의 괴리가 비교적 크게 나타났으며, 이수하는 취업관련 프로그램과 이를 통해서 취업에 성공하는 사례 또한 불일치하는 경우가 오히려 더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격차를 극복하고 보다 효과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관련 부처가 보다 적극적으로 시장의 수요에 맞는 직업훈련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여성 결혼이민자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직업교육훈련프로그램이 보다 다양화되는 것과 동시에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현재 제공되고 있는 직업관련 프로그램은 대부분이 기초단계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나, 여성 결혼이민자들의 노동시장에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보다 세분화되고 전문화된 직업훈련 프로그램 제공이 절실한 실정이다. 향후 심화된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공공 자격증 및 인증제도를 적극적으로 도

입하여 이들 여성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넷째, 여성 결혼이민자를 위해 특화시킨 구인처 개발 및 구직등록처의 네트워크화를 상시화 할 필요가 있다. 심층면접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현재 일하고 있거나 취업한 경험이 있는 여성 결혼이민자들 중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여성인력개발센터 등 공공서비스 기관을 통해서 취업한 경우는 예상보다 적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주변의 지인이나 가족 등 비공식적 경로를 통해서 취업하는 경우가 오히려 더 빈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중앙과 지역간, 지역과 지역간의 구인 및 구직네트워크를 상시화 하여 보다 체계적인 구인-구직과정이 이뤄지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이러한 네트워킹화를 통하여 일자리의 특성 및 근로조건에 대한 자세한 정보수집 및 취업 후 사후관리까지 포함하여 여성 결혼이민자들의 취업과정 뿐 아니라 취업 후 사후 관리감독까지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여성부를 중심으로 한 현행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유기적 전달체계 구성과 아울러, 여성 결혼이민자의 사회통합 및 취업능력 제고에 여성 결혼이민자 스스로가 참여할 수 있도록 사회적 기업화를 통한 활성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현재 여성 결혼이민자들은 서비스의 수혜자로서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방식인 반면, 사회적 기업화는 여성 결혼이민자들 스스로에게 필요한 사회통합 및 취업능력 제고 및 여성 결혼이민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한 서비스의 수혜자로서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점을 개선하며, 심화된 교육훈련 개발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현재 생성단계에 있는 여성 결혼이민자들의 사회적 기업화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볼 필요가 있다.

여섯째, 여성 결혼이민자들 중에서 어린자녀 뿐만 아니라 취학연령의 자녀를 둔 여성들은 내국인 여성들이 경험하는 문제들과 다름없이 일-가족양립의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 이는 앞서 심층면접 분석결과에서도 논의하였듯이, 어린자녀를 두고 있는 여성 결혼이민자들의 대부분은 경제적 필요에 의해 취업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오전 및 이른 오후시간을 이용한 단시간 근로밖에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더군다나 이들 여성들의 취업하고자 하는 주된 목적은 생활비 뿐 아니라 자녀의 사교육비 마련을 위해서 단시간, 저임금 일자리라도 취업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여성 결혼이민자들의 취업 장애요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여성 결혼

이민자들의 자녀들을 위한 보육서비스 확대 및 비용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어린자녀를 위해서는 일반보육시설 뿐만 아니라 가정방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여성 결혼 이민자들의 자녀의 안전에 걱정 없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취학연령의 자녀들을 위해서는 방과후 교육을 확대하고, 그 비용에 대한 지원이 마련되어야 한다. 여성 결혼이민자들의 학령기 아동을 위한 방과후 교육 서비스는 이들 여성들의 취업을 지원하는 목적 뿐 아니라 이들의 자녀들의 사회적응을 지원하고 학업성취도를 향상시키는 목적까지를 포괄할 수 있다. 따라서 다문화가족의 자녀들을 위한 방과후 교육을 확대하고 포괄할 수 있는 학습의 내용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강유진, 「한국남성과 결혼한 중국조선족 여성의 결혼생활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제4권 제2호, 1999.
- 권미경, 「다문화사회의 교육문화 과제 탐색: 여성결혼이민자의 체험에 관한 질적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6.
- 김범수, 「일본의 다문화공생 지원제도에 관한 연구: 아미가카현의 다문화공생을 중심으로」, 『민족연구』 3, 2007.
- 김여진·홍환, 「중고령 전업주부와 취업여성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09.
- 김연수, 「서울지역 여성결혼이민자의 결혼행복감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2007.
- 김영혜·손기영·박상희, 「여성결혼이민자 취업지원 방안연구」,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2009.
- 김이선·장혜경·김혜영 외,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서비스 효율화 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2007.
- 김유경·조애저·최현미·이주연, 「다문화시대를 대비한 복지정책방안 연구- 다문화가족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 남옥순, 「국제결혼가정의 정착지원을 위한 방안 연구」, 청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노동부, 「대통령지시사항 추진계획」, 2007.
- 대전지방노동청, 「충북지역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취업수요 실태조사 및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2008.
- 보건복지가족부 다문화가족과, 「다문화가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강화대책」, 2008.
- 보건복지가족부, 「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통합진전을 위한 브릿지 프로그램(Bridge

- Program) 추진방안], 2008.
- 보건복지가족부, 2007년 전국여성인력개발센터 현황자료, 2008.
- 서울지방노동청, 「강원지역 국제결혼 외국여성의 사회적일자리 창출모델 개발을 위한 실태 분석」, 2006.
- 설동훈·김윤태·윤홍식 외,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지원 정책방안」, 보건복지부, 2005.
- 설동훈·이혜경·조성남, 「결혼이민자 가족실태조사 및 중장기 지원정책 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2006.
- 심인선, 「결혼이주여성의 성인교육 경험이 문화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성인교육학회, 2007.
- 심인선, 「미국 여성의 취업지원 서비스를 통한 경남지역 여성의 고용지원 방향」, 경남발전연구원, 2008.
- 윤형숙, 「외국인 출신 농촌주부들의 갈등과 적응: 필리핀 여성을 중심으로」, 『지방사와 지방문화』 제8권 2호, 학연문화사, 2005.
- 이순형·문무경·최연실 외, 「농촌 여성결혼이민자 정책지원방안」, 농림부, 2006.
- 이순형, 「농촌 다문화가족의 현황과 적응문제」,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 2007.
- 이재분 외, 「다문화가정 자녀교육실태 연구: 국제결혼가족을 중심으로」, 한국교육개발원, 2008.
- 이혜경, 「혼인이주와 혼인이주 가정의 문제와 대응」, 『한국인구학』 제28권 1호, 2005.
- 정기선·김영혜·박경은 외, 「경기도 내 국제결혼 이민자가족 실태조사 및 정책적 지원 방안 연구」,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 2007.
- 조현미, 「일본의 다문화공생 정책을 사례로 본 사회통합정책의 과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5(4), 2009.
- 행정안전부, 「다문화가족 관련 통계」, 2009.
- 행정안전부, 「외국인주민 현황 통계」, 2009.
- <http://www.gio.gov.tw/ct.asp?xtem=32995&cgtnode=3242>
- 대만 내정부 (Ministry of Interior, ROC), An outline of Interior Affairs, 2009.
(http://www.moi.gov.tw/outline/en_11.html.)